

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0. 2. 13.(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신승운, 고연석, 권오영, 김문식, 김태영(덕문),
김창준, 박은경, 박정혜, 오용섭, 이종민, 이혜은, 장경희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8건		비 고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공 개
3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공 개
4	관북여지도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 보존처리	공 개
6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처리	공 개
7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 보존처리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반출>	
8	보물 제2018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등 3건	공 개
【검토사항】 11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9	보물 제336호 정지장군 갑옷	공 개
10	보물 제1487호 서직수 초상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1	최광지 흥패	공 개
12	안동권씨족도	공 개
13	안동권씨세보	공 개
14	육조대사법보단경	공 개
15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공 개
16	김천 계림사 석가여래 괘불도	공 개
17	백자 향아리	공 개
18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솥	공 개
19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솥	공 개
【보고사항】 4건		
20	2020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 보고	공 개
21	2020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현상변경 소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공 개
22	고려금속활자 가치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계획 보고	공 개
23	신규 국보·보물 특별전 개최 계획 보고	공 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1-001

1.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大邱 宣化堂 測雨臺)

보물 제844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昌德宮 摛文院 測雨臺)

가. 심의사항

보물 제561호 금영측우기,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이 있어(’18.8.31.) 관계 전문가 조사(’19.5.3.) 및 과학조사(’19.5.3.)를 실시하고 제5차 동산분과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했으나, 관련 문헌조사 및 보물 지정 측우대(총4점) 추가조사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관계 전문가 보완조사(’19.9.19/10.22/10.29/11.12.) 및 과학적 보완조사(’19.10.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7차 회의(’19.12.12.)에서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 및 명칭변경 예고(’19.12.31~’20.1.31.) 하였으나, 명칭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음. 이에 대해 조사자 의견을 일차로 수렴하여 명칭변경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국보 지정여부를 부의함.

[지정 및 명칭변경 예고 현황]

현 지정번호	문화재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錦營 測雨器)	공주감영 측우기 (公州監營 測雨器)	해당 문화재 소재지의 올바른 표기로 명확한 지정정보 제공 및 원활한 관리에 필요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大邱 宣化堂 雨臺)	대구감영 측우대 (大邱監營 測雨臺)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昌德宮 測雨臺)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昌德宮 摛文院 測雨臺)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2건)]

1. 기존 명칭 유지(기상청)
2. 명칭에 ‘도(道)’를 넣어 표기(개인)
 - 공주감영 측우기 → 충청감영 측우기
 - 대구감영 측우대 → 경상감영 측우대

[명칭변경 의견에 대한 조사자 검토결과]

현 지정번호	문화재명		조사자 의견
	예고 내용	조사자 의견	
보물 제561호	공주감영 측우기 (公州監營 測雨器)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公州 忠淸監營 測雨器)	지명에 ‘도(道)’를 표기하는 것은 조선시대 관례에 비추어 합당한 측면이 있고, 문화재청 지정명칭 지침에 지역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표기하면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보물 제842호	대구감영 측우대 (大邱監營 測雨臺)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大邱 慶尙監營 測雨臺)	
보물 제844호	창덕궁 이문원측우대 (昌德宮 摺文院 測雨臺)	변동 없음	

다. 주요내용

지정현황 (지정일자)	문화재명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수량	재질	조성연대
보물 제561호 (1971.12.21.)	금영 측우기 (錦營 測雨器)	국유 (기상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1점	청동	1837년 (헌종 3)
보물 제842호 (1985.8.9.)	대구 선화당 측우대(大邱 宣化堂 測雨臺)	국유 (기상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1점 (본체)	화강암	1782년 (정조 6)
보물 제844호 (1985.8.9.)	창덕궁 측우대 (昌德宮 測雨臺)	국유 (국립고궁 박물관)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1점	대리석	1770년 (영조 46)

○ 규격

문화재명	길이	폭	높이	흙지름	흙깊이
보물 제561호 금영측우기			32.1cm	14.9cm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36.7cm	37.0cm	46.0cm	15.5cm	4.2cm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45.3cm	45.5cm	30.3cm	16.2cm	4.3cm



그림 1.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그림 2.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그림 3.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측우기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되어 왔다. 이 측우기 본체는 보물로서만 지정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 실물을 2019년 3월 22일 금영측우기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보물보다 단계를 높여 국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 세종시대인 1442년 세계 최초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강우량을 측정한 측우기를 처음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외에 여러 사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세종시대 만들었다는 측우기의 실물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영조대에 이르러 세종시대의 측우기의 전통적인 형태와 측정 방법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다시 제조하여 사용했다. 이것 또한 실물을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1837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하던 측우기 중 하나인 금영측우기가 발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측우기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국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한 국가적 주도하에 측정했던 자료의 상당량이 남아 있다. 이는 세종시대 이후 비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금영측우기는 단순히 남아있는 유물로서만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측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측에 이어 이를 농사에 활용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도 기여했다. 물론 지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량을 강우량과 비교하여 생산량 통계 작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보면 금영측우기가 갖는 유형·무형의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물 제561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영측우기’를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될 만한 충분한 학술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측우기는 국보로 지정함이 충분하다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2019년 3월 22일 금영측우기 실물을 현장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금영측우기는 1441년 세종대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기가 우리 조선에서 발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유일한 유물이다. 물론 세종대 측우기는 현존하지 않으나, 세종대의 측우기 제도와 강우량 측정 제도는 18세기 영조대와 정조대에 완벽하게 부활했고, 금영측우기는 부활된 측우기 제도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귀중한 역사 유물이다.

둘째, 측우기가 세계 학계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하던 1910년대만 해도 측우기는 5개가 남아있었던 것을 당시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존하는 보물 측우대들에 설치했던 측우기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1세기가 지난 지금 오직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다. 국보로 지정하여 소중하게 보존하고, 학술 연구를 수행하여, 측우기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오래전부터 세계 과학사학계에서 측우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 창제했고, 황제가 조선에 준 것이라는 이해가 정설로 되어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근래 들어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차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 중국사에 포함되는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현존하는 유일한 과학 유물인 ‘금영측우기’를 국보로 지정함으로써 세종대 측우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제되었음을 정부가 공식 선언하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물 제561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영측우기’는 국보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학술적, 역사적, 당위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측우기(測雨器)는 세종 23년(1441)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 1907년까지 조선의 강우량 측정에 사용된 세계적인 발명품이다. 금영(錦營) 측우기는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강우 측량기로서 역사적, 과학사적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고 중요한 유물이다.

이 측우기는 하단과 중단 상단의 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세 단 모두 완벽한 상태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측우기는 돌로 만든 측우대(測雨臺) 위에 놓고 측정하였는데 국내에 남아 있는 측우기 관련 유물은 측우대 2점과 금영 측우기 1점이 있다. 측우대와 달리 측우기는 실제 강우 측정을 위한 장치로서 과학사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 15세기에 발명된 측우기는 이탈리아인 Benedetto Castelli의 우량계(1639)보다 약 200년 앞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 측정기이다. 조선의 측우기는 땅에 스며든 물의 깊이를 측정하던 이전의 비과학적 강수 측정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강수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케 한 발명품이다.

조선은 이러한 측우기를 관상감(觀象監)과 각 도의 감영과 지방에 설치해 강우량을 측정하였으며 한때 전국에 약 350개의 관측망을 가지고 있었다. 강우량을 기록한 조선의 관측 기록은 세계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같은 시기, 강우 시각만을 기록한 중국 기록과 비교했을 때 조선의 측우기는 자연 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과학 발명품이었다. 그리고 1837년 금영에 설치되어 강우량 관측을 맡아온 역사적 유물이 바로 금영 측우기인 것이다.

금영 측우기를 살펴보면 세 단이 분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확한 계측과 강우량의 정밀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 단의 연결 부위는 홈의 두께나 모양이 약간씩 달라서 특정한 위치에서 잘 맞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매우 정밀한 제작 기술이 반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밀 제작 기술과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는 국보로 지정할 역사적·학술적·과학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 의견

○ (보물 제561호, 842호, 844호 지정 가치 있음)

현재 남아있는 측우기와 측우대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고, 전국에 측우기를 설치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실질적인 자료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측우기는 1점, 측우대는 5점이 있으며, 이 중에서 측우기 1점과 측우대 4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조사자는 이 중에서 측우기 1점과 측우대 2점을 국보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대구 선화당 측우대(보물 842호)는 1770년에 영조가 세종 대의 제도를 따라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하여 팔도의 감영에 설치하라는 명령에 따라 대구감영에 설치한 측우대의 실물로 그 기록적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문화재이다.

다음으로 창덕궁 측우대(보물 844호)는 1785년 5월에 정조가 규장각 이문원에 설치하라고 명령한 측우대로, 심념조가 작성한 ‘측우대명(測雨臺銘)’의 전문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종 대(1442년)에 최초의 측우기가 만들어졌고, 영조 대(1770년)에 세종 대의 제도를 따라 창덕궁, 경희궁, 팔도, 강화부, 개성부에 측우기가 설치되었으며, 정조 대(1782년)에 이문원에 측우기가 설치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영 측우기(보물 516호)는 1837년에 공주감영에 설치된 측우기라는 명문이 남아있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측우기이다. 이 측우기의 크기(높이 1척 5촌, 직경 7촌)는 세종 대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영조 대와 정조 대에 제작된 측우기도 이와 동일한 크기의 측우기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 측우기는 조선시대 측우기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실물 자료로, 현재 다수의 국가기관에서 전시하는 측우기는 모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한 복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 (보물 제561호, 842호, 844호 지정 가치 있음)

금영 측우기는 현존하는 유일의 측우기로, 자체로 의미가 크다. 19세기 전반의 유물이지만 15세기 세종대부터 전해오는 과학적 측량 기술의 전통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용도와 기능에 충실한 금속공예품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물론 표면에 화려한 장식이나 독특한 기형의 아름다움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은 측우기 본연의 기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단순한 기형의 완성도, 일정한 두께, 그리고 표면의 마무리 등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집중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원통의 내적 부피가 일정한 규격화된 측우기를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중앙에서 제작한 청동 측우기를 지방에 보내, 모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기형으로 제작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측우기는 금속공예 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측우대와 측우기는 빗물을 재기 위하여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측우대와 측우기는 함께 있어야만 완벽한 조합을 이루게 된다. 측우기는 이동이 간편하고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유물이 매우 적다. 반면 측우대는 네 점이 현전하고 있으며,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에서 측우대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측량기구는 중앙의 기준에 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측우기와 측우대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세트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유물 가운데 측우기와 측우대를 함께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활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영조대의 기록을 확인해준다. 영조는 세종대의 범례를 따라, 측우기와 측우대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창덕궁 관상감 측우대의 명문에도 세종과 영조의 전례를 언급하면서, 측우기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대 시작된 비를 측량하는 새로운 문화와 전통은 영조와 정조로 계승되었고 전범에 따라 측우기와 측우대가 제작되었다. 이를 증명해 주는 유물이 두 점의 측우대이다.

반면 관상감 측우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 추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기록이 전하지 않고 구성에 관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형으로 제작된 다른 세 점의 측우대와 구별되는 외형도,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영 측우대는 제작 시기가 후대로 내려간다. 간지명만 기록되어, 제작 주체나 구성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관상감과 통영 측우대는, 문헌 기록과 구성 내역이 분명한 대구 선화당과 창덕궁 관상감 측우대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즉 후자의 두 측우대는, 세종의 전례를 따른 영조와 정조의 문헌기록을 통해, 측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창덕궁 관상감 측우대는 금영 측우기와 연계하여 주목할 부분이 있다.

강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던 오랜 역사와 문헌기록, 그리고 측우기와 측우대 같은 실제 유물을 함께 간직한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농경 사회에서 강수량의 중요성은 지대했으며, 인류 공통의 관심사였다. 측우기의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분야로 생각된다. 현존 유일의 측우기와 측량의 역사를 증명하는 두 점의 측우대를 함께 국보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고 세계에 알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보물 제561호, 842호, 844호 지정 가치 있음)

측우기는 1441년(세종 23), 세계 최초로 발명된 강수량 계측기다. 농사를 천하의 큰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기상(氣像)을 기록하고 그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농형(農形)에 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특히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비는 농사의 풍흉(豐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측우기의 고안과 고을 수령이 직접 우량을 보고토록 한 제도는 과학사뿐만 아니라 농업사에서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금영측우기와 5기의 측우대는 시대를 아우르는 조선의 수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농업을 위한 과학적 발명과 그 실행제도를 증명해주는 유물”이다. 금영측우기는 1837년에 제작되기는 했지만, 실물의 크기가 세종대의 연원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며, 5기의 측우대는 상면의 구멍크기와 명문을 통해 그 계통을 증거하고 있다.

측우기는 측우대에 설치하고 주척으로 강수량을 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측우기, 측우대, 주척이 모두 갖추어져야 완결된 문화재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보면 측우기와 주척은 중앙조정에서 제작하여 지방감영으로 내려 보내고, 측우대는 현지에서 제작토록 한 점을 볼 때 측우기와 측우대는 가변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우기와 주척도 중앙에서 내려 보낸 것이 기준이 될 뿐, 측우기는 자기나 와기로, 주척은 나무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자면 측우기는 개별 유물만으로도 충분히 비교 불가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측우대 가운데, 세종조의 계통을 이어 측우기를 다시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측우기의 가치를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금영측우기와 대구 선화당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를 함께 국보로 지정하여 인류의 유산으로 남길 것을 제안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
 - 지정명칭
 - 금영 측우기→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 대구 선화당 측우대→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 창덕궁 측우대→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1차 조사보고서



○ 형 식

서로 분리된 3개의 원통으로 구성, 이 3개의 원통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큰 원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조성연대

물받이 통 하단에 음각된 “도광(道光) 정유제(丁酉製)”의 내용으로 보면 그 제작 연대가 1837년(조선 헌종 3년)임을 확인할 수 있음. 측우기는 세종대 1442년 최초로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영조대에 새로이 다시 제작하여 사용했음. 현존하고 있는 측우기인 금영측우기 제작은 조선 초 세종시대 발명하여 사용하던 측우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작하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현 상

공주 감영인 금영에 설치된 측우기는 높이 10cm 정도의 같은 크기의 분리된 원통 3개로 구성. 이 3개의 원통은 서로 연결이 되도록 홈이 파져있음. 이 3개의 원통은 서로 끼워 맞추어 하나의 큰 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연결한 접합부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밀랍과 같은 물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전체 연결했을 때의 높이는 31cm 가량으로 오는 비의 양에 따라 연결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측우기를 설치하던 측우대와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던 측정자는 망실된 것으로 보임.

○ 내용 및 특징

긴 원통형 측우기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측우대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세종시대 처음에는 비가 온 후 땅에 스며든 물의 깊이로 측정했음. 그러나 이 방법은 토질에 따라, 지면의 경사도에 따라, 비가 온 기간에 따라 같은 양의 비가 내렸어도 측정치가 일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평한 지면에 물통을 지지대인 측우대에 놓고 비가 온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되었음. 이렇게 비가 내린 양을 규격화된 방법과 용기에 비가 온 양을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다는 생각을 거의 시도한 나라가 없었음. 비가 내린 양을 객관화된 방법으로 정량화 시키려는 과학적 사고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음.

○ 기 타

위의 금영측우기는 1837년 충청도 관찰사가 근무하던 공주 감영에 설치했던 것임. 이 곳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측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모두 망실되어 없어지고 오직 유일하게 이것만이 현존하고 있음.



○ 조성연대

1837년 (조선 헌종 3년). 가장 하단의 원통 밑면에 새겨진 “도광(道光) 정유제(丁酉製)”의 기록으로 조선시대 헌종 3년 1837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조대 이후 측우기 제도를 부활하면서 제작된 조선 후기의 측우기들이 모두 세종대의 측우기를 모델로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금영측우기의 조성은 세종대 1442년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 현 상

본래 공주 감영인 금영에 설치되어 강우량을 측정하던 때에는 높이 10cm 남짓의 원통 3개를 상하로 연결하고 납땀으로 고정해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한 높이 31cm의 긴 원통형 그릇이었는데, 현재는 연결 부분이 떨어져 분리할 수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당시에는 측우기를 세웠던 측우대와 빗물을 측정하던 주척(周尺)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측우기가 남아있고, 측우대와 주척은 없다.

○ 내용 및 특징

긴 원통형 그릇에 고인 빗물을 주척으로 채는 방식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과학 기구이다. 측정 원리는 매우 간단하나, 그 과학적 아이디어는 심오하다. 측우기 이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내린 비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없

었기 때문이다. 자연 현상의 정량적 측정은 근대과학을 전근대의 비과학과 구분하게 해주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다.

○ 기 타

이 금영측우기는 1837년 충청도 관찰사 청사였던 공주 감영에 설치했던 것으로 이후 역사의 혼란기에 사라졌다가, 1971년 한국문화재 반환운동의 결과 일본에서 돌려받아 현재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 문헌자료

측우기 관련 사료는 연대기 사료에 매우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료만 제시해 본다.

『세종실록』 92권 23년 (1441년) 4월 29일(을미)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 간 분수[分數]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적확하게 비가 온 분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宮中)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괴인 분수를 실험하였는데

『세종실록』 93권 23년 (1441년) 8월 18일(임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감사(監司)가 우량(雨量)을 전보(轉報)하도록 이미 성법(成法)이 있사오니, 토성(土性)의 조습(燥濕)이 같지 아니하고, 흙속으로 스며 든 천심(淺深)도 역시 알기 어렵사오니, 청하읍건대,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짓고 쇠로 그릇을 부어 만들되,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하여, 대(臺) 뒤에 올려 놓고 비를 받아, 본관(本觀) 관원으로 하여금 천심(淺深)을 척량(尺量)하여 보고하게 하고, 또 마전교(馬前橋) 서쪽 수중(水中)에다 박석(薄石)을 놓고, 돌 위를 파고서 부석(趺石) 둘을 세워 가운데에 방목주(方木柱)를 세우고, 쇠갈구리[鐵鉤]로 부석을 고정시켜 척(尺)·촌(寸)·분수(分數)를 기둥 위에 새기고, 본조(本曹) 낭청(郎廳)이 우수(雨水)의 천심 분수(分數)를 살펴서 보고하게 하고, 또 한강변(漢江邊)의 암석(巖石) 위에 표(標)를 세우고 척·촌·분수를 새겨, 도승(渡丞)이 이것으로 물의 천심을 측량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아뢰게 하며, 또 외방(外方) 각 고을에도 경중(京中)의 주기례(鑄器例)에 의하여, 혹은 자기(磁器)를 사용하던가, 혹은 와기(瓦器)를 사용하여 관청 뜰 가운데에 놓고, 수령이 역시 물의 천심을 재어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문(傳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5권 24년 (1442년) 5월 8일(정묘)

호조에서 아뢰기를,

“우량(雨量)을 측정(測定)하는 일에 대하여는 일찍이 벌써 명령을 받았사오니, 그러나,

아직 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다시 갖추어 조목별로 열기(列記)합니다.

1.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鑄造)하여 기구(器具)를 만들어 명칭을 측우기(測雨器)라 하니, 길이가 1척(尺) 5촌(寸)이고 직경(直徑)이 7촌입니다.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고 매양 비가 온 후에는 본관(本觀)의 관원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는, 주척(周尺)으로써 물의 깊고 얇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日時)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즉시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둘 것이며,

1. 외방(外方)에서는 쇠로써 주조(鑄造)한 측우기(測雨器)와 주척(周尺) 매 1건(件)을 각도(各道)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상항(上項)의 측우기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자기(磁器)든지 혹은 와기(瓦器)든지 적당한 데에 따라 구워 만들고, 객사(客舍)의 뜰 가운데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도록 하며, 주척(周尺)도 또한 상항(上項)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대나무로 하든지 혹은 나무로 하든지 미리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수령(守令)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살펴보고는 주척(周尺)으로써 물의 깊고 얇은 것을 측량(測量)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日時)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두어서, 후일의 참고에 전거(典據)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증보문헌비고』 권3 의상2 (1770년)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에 따라 측우기(測雨器)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실록(實錄)》 가운데에 측우기에 대한 조항(條項)을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 앓게 된다. 요즈음은 비록 비를 비는 시기는 아니나 수표(水標)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여 그 얇고 깊음을 알고자 하는데, 이 기구에는 지극한 이치가 있으며, 또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서운관(書雲觀)으로 하여금 이를 만들어 팔도(八道)에 놓게 하고 양도(兩都 개성과 강화)에도 만들어 놓게 하라. 이것이 일리우(一犁雨 발갈기에 알맞게 내린 비)·일서우(一鋤雨 김매기에 알맞게 내린 비)를 보고하는 데에 비하면 매우 정밀하다. 무릇 비가 오는 것과 물이 고이는 것을 장문(狀聞)할 때에는 영하(營下)에서 본 측우기(測雨器)의 양(量)을 측정한 기록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보고하게 하라. 그리고 탁지로 하여금 두 벌을 만들어 들이게 하여, 하나는 창덕궁(昌德宮)에 놓고, 하나는 경희궁(慶熙宮)에 놓게 하라. 또 대궐 가운데에는 풍기(風旗)가 있는데 이는 곧 옛부터 바람을 점치려는 뜻으로서, 창덕궁의 통제문(通濟門) 안과 경희궁의 서화문(西華門) 안에 돌을 설치하고, 거기에 풍기대[風旗竹]를 꽂아 놓았었다. 지금도 그 예(例)를 따라 경희궁과 창덕궁에 모두 측우기를 설치하라. 옛날에 바람 불고 비 올 때마다 명하여 자세히 살피게 한 선성(先聖)의 뜻을 체념(體念)해 볼 때,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바람과 비가 순조로운·것은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지금의 이 명령 또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또 (영조가) 하교하기를, “다시 들으니, 《실록》에서 측우기는 돌을 설치하고 그 위에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하늘을 공경하는 성왕(聖王)의 뜻이다. 이번에 만들어 들여올 때에는 두 대궐과 두 서운관의 측우기도 모두 돌로 대(台)를 만들게 하되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척 너비는 8로하고, 대 위에 둥근 구멍을 만들어 측우기를 안치하는데, 구멍의 깊이는 1촌으로 한다. 그리고 척도(尺度)는 경신년(庚申年 1740년 영조 16년)에 만든 새 자[新尺]를 사용하라.” 하였다. [영조(英祖) 경신년(庚申年 1740년 영조 16년)에 관중추(判中樞) 유척기(兪拓基)가 강원도(江原道) 삼척부(三陟府)에 있는 세종조(世宗朝) 때에 만든 포백척(布帛尺)을 가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도형법(度衡法)을 참고하여 황중척(黃鍾尺)·주척(周尺)·영조척(營造尺)의 여러 격식을 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자세한 것은 악고(樂考)에 보인다.]

『영조실록』 46년 (1770년) 5월 1일(정축)

(팔도와 양도에 측우기를 만들어 우수의 다소를 살필 것 등을 명하다)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하고,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치계(馳啓)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이는 곧 옛날에 일풍 일우(一風一雨)를 살피라고 명하신 성의(聖意)를 본뜬 것이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듣건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측우기는 석대(石臺)를 만들어 안치(安置)하였다고 하였다. 금번 두 궁궐(宮闕)과 두 서운관(書雲觀)에 모두 석대를 만들되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척이요, 넓이는 8촌이며, 석대(石臺) 위에 둥그런 구멍을 만들어 <측우기를> 얹히는데, 구멍의 깊이는 1촌이니, 경신년(영조 16, 1740년)의 신제척(新製尺)을 사용하라.”

하였다.

창덕궁측우대 측우기명(測雨器銘) (1782년)

“구리로 주조(鑄造)한 높이 1척 5촌, 원의 직경 7촌 되는 측우기로 우량(雨量)을 재는 것은 세종 24년(1442) 시작되었습니다. 서운관(書雲觀)과 각도(各道)의 군현(郡縣)에서 비가 올 때 마다 우량을 재어서 보고(報告)하였습니다. 선대왕(先大王, 영조) 46년(1770)에 옛 제도를 따라 창덕궁, 경희궁의 두 궁궐과 팔도(八道) 양도(兩都; 松都(개성), 江都(강화))에서 측우기로 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기기는 작으나 두 성조(聖祖; 세종, 영조)께서 물난리와 가뭄을 다스리는데 크게 힘쓰신 뜻이 거기에 있으니 어찌 소중하지 아니합니까?

성상 6년(정조6년, 1782) 여름 경기전역이 크게 가물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성상께서는 자신을 책(責)하고 언로(言路)를 터놓으며, 친히 기우제단에 나와 제사를 올리고, 밤새도록 머물러 있다가 날이 샌 뒤 옥문(獄門)으로 가서 사형수를 제외한 죄수들을 석방하여 비가 오기를 빌었습니다. 도성(都城)에 있는 백성들이

이를 우러러 보고 감격하며, 우는 사람까지 있었으며,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이처럼 애쓰시니 비가 꼭 올 것이고, 비록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비 온 것이나 같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해가 지기도 전에 큰 비가 밤까지 내려 우량(雨量)이 1촌 2분이나 되었으니, 이는 실로 성상께서 지성하심에 하늘이 감동한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그래도 비가 미흡한 것을 걱정하시고 내각에 분부하여 측우기를 이문원 정원에 설치하고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비가 흡족히 내리자 신(臣) 염조와 신(臣) 지검에게 글을 쓰라 하시니, 이 기쁨을 기념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臣)들은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라,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먼저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감히 그 걱정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가 온 다음에는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감히 그 기쁨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측우기에는 임금과 백성들의 걱정과 기쁨이 얽혀있으니, 신(臣) 등이 공순하게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글을 새깁니다. 여기 있는 측우기의 1푼 1치를 보고도, 멀리 떨어진 곳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적으면 가물까 염려되고, 많으면 홍수 날까 상심하게 되니 언제나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분부를 받들어 직제학 신 심염조가 글을 짓고, 직제학 신 정지검이 글을 씁니다.”

『정조실록』 32권, 15년 (1791년) 4월 23일(정묘)

측우기의 수심 수치를 측량하는 법식을 정하다

전교하기를,

“측우기의 수심 수치를 써서 올릴 때 그 깊이가 매번 서로 다르고 시한도 역시 일정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른 새벽부터 오시(午時) 초삼각(初三刻)까지, 오정(午正) 초각부터 인정(人定)까지, 인정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 이전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써서 올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잡기(雜技)에서 공로가 있는 자를 실직에 의망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뜻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사(醫司)·역원(譯院)·화사(畫寫)·누국(漏局)·율관(律官) 등은 모두 명칭에 따라 실지 성과를 책임지우는 뜻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상감의 관원들은 가만이 누워서 출사 일수만 채우고 있으니, 무의미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비를 고대한 끝에 비가 왔는데도 수심의 수치를 성의껏 측량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제조가 검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제조를 추고하라. 앞으로 다시 소홀히 할 경우에는 본 관상감의 겸교수(教授)를 전임시키는 규정을 없애고 삼력관(三曆官)과 수술관(修述官) 등의 봉록을 모두 임시로 줄일 것이며, 행수 관원(首官員)은 관상감의 대장에서 이름을 삭제하겠다. 이 전교를 그들이 숙직하는 곳에 써보내 명심하게 하라.”

하였다.

『일성록』 정조17년 계축(1793년) 7월 17일(무신)

수원부(水原府)에 측우기 및 주척(周尺)을 내려보냈다.

○ 수원 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본부에는 이달 13일에 먼지쟁이 내린 뒤 14, 5일 이틀 동안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내의 방리(坊里)가 50개 면(面)인데 탄강(呑江) 아래쪽 바닷가에 위치한 30여 개 면은 13일에 비가 골고루 흡족하게 내려 과연 부족하다는 탄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수원부 근처와 탄강 위쪽의 여러 면은 그날 내린 비가 겨우 먼지쟁이에 불과했으므로 논의 작물에까지 손상이 가지는 않았지만 밭에 심은 여러 곡물 중 모래땅이나 메마른 고지대의 것은 더러 혹 병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원하게 비가 한번 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가 내린 곳에는 조도(早稻 올벼)가 한창 익어가고 중도(中稻 중벼)는 이삭이 패었고 만도(晩稻 늦벼)는 싹이 터서 각종 밭작물과 함께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바다 근처 30개 면에는 비가 고르게 내렸다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후에 농사 형편을 보고할 때에는, 수원부 이내 및 원근 각 면에 혹 이번처럼 지역에 따라 강우량이 차이가 날 경우 낱날이 구별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여러 도(道)와 양도(兩都)에서는 비가 내린 상황을 모두 측우기 수심이 몇 치 몇 분이었다고 장계로 보고하니, 본부에서도 이에 따라 하라. 측우기와 주척은, 경의 아들이 해당 방에 있으니 호조에서 가져오게 해서 이 유지(有旨)까지 함께 내려보낼 것이니 경은 잘 수령하라.’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51권, 23년(1799년) 5월 22일(기묘)

가뭄을 당하여 반성하고 풍속 교화에 힘쓰도록 전교하다

차대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참으로 덕이 부족하여 이런 가뭄을 당한 것이다. 주자(朱子)는 해, 달, 별이 온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화롭고 산은 별거숭이가 되지 않고 못은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만물이 제 자리를 잡고 잘 생육되는 공효를 삼았다. 만물이 자리를 잡고 생육되게 하는 일은 바로 나의 책임이다.

신해년 이후로 내린 비의 많고 적음을 반드시 기록해 두었는데 1년치를 통계해 보았더니, 신해년에는 8척 5촌 9푼이었고 임자년에는 7척 1촌 9푼이었고 계축년에는 4척 4촌 9푼이었고 갑인년에는 5척 8촌이었고 을묘년에는 4척 2촌 2푼이었고 병진년에는 6척 8촌 5푼이었고 정사년에는 4척 5촌 6푼이었고 무오년에는 5척 5촌 6푼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의 이번 달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지난해 이달에는 측우기의 물깊이가 거의 1척 남짓이나 되었는데 올해 이 달에는 내린 비가 겨우 2촌이었다. 가을 추수가 어떨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백성들의 실정은 참으로 매우 딱하다.

□

○ 조성연대

측우기의 가운데 단의 바깥에 새겨진 ‘도광(道光) 정유제(丁酉製)’라는 기록으로부터 도광 연호의 정유년에 해당하는 조선 헌종 3년(1837)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현 상

원형의 청동 주물로 제작되어 있으며 하단과 중단 3단의 세 단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측우기(測雨器)이다. 하단의 아래쪽은 바닥이 막혀 있어 물을 담아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중단과 상단은 끼워 맞추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1). 각 단의 연결 부위와 위쪽은 대나무처럼 도드라진 마디가 있다.



그림 1. 금영 측우기 하단(좌), 중단(중), 상단(우)의 모습(좌측)과 연결 부분 모습(우측)

세 단의 연결 부위는 홈의 두께나 모양이 약간씩 달라서 특정한 위치에서 잘 맞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 단을 연결했을 때 각 단 사이에서 물이 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각 단의 원통 높이는 둘레를 따라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높이는 비슷해 보인다. 3차원 정밀 측정을 통한 정밀한 계측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측우기 중단의 외면과 하단의 아래에는 제작 당시 새긴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남아 있어 이름과 크기 그리고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중단에는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라는 이름과 함께 측우기의 높이, 직경, 제작 시기가 새겨져 있으며 하단의 바닥에는 측우기를 담당하던 통인(通引), 급창(及唱), 사령(使令)이라는 하급관리의 직책이 쓰여 있다(그림 2).

본 측우기의 제작 시기는 명문을 통해 1837년(헌종 3)에 충청도 공주 감영에서 설치해 사용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측우기는 높이 31.86cm, 바깥지름 15.3cm의 원통형 모양으로 명문에 새겨진 높이 1척 5촌, 두께 7촌과 비교해보면 주척(周尺)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우기에 담긴 강수량을 측정하던 막대는

남아 있지 않다. 하단의 바닥에는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한자가 얇고 희미하게 보인다.

측우기의 세 단을 맞추면 안쪽 내경은 아래쪽과 위쪽이 같아지게 되는데 이는 강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적합한 모양이다. 측우기를 세 단으로 분리해서 만든 이유는 중단과 상단을 두어 측우기 안쪽의 물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거나 바깥쪽의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강수량 측정시 중단과 상단을 분리해서 측정의 정밀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금영 측우기의 중단(좌) 바깥과 하단(우) 아래에 새겨진 명문

○ 문헌자료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측우기 기록은 1441년(세종 23)에 찾아볼 수 있다.

『세종실록』 92권 23년 (1441년) 4월 29일(을미)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 간 분수[分數]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가 온 분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宮中)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괴인 분수를 실험하였는데 ...(하략)

이후, 측우기와 측우기를 이용해 관측한 강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다수의 사서에 남아 있으며 측우기에 대한 현대 연구 자료와 사료도 많이 남아 있다.

○ 기 타

이 측우기는 충청도 공주 감영이 설치되었던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71년 문화재 반환운동의 일환으로 중앙관상대가 다시 돌려받았고 현재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대관 ‘금영 측우기’에서 발췌)

금영 측우기가 제작 된 이후, 현재까지의 이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837년 충청도 공주에 제작 설치

- 1913년 충청도 도지사가 인천측후소장 와다유지(和田雄治)에게 전달
- 1915년 와다유지(和田雄治)가 개인적으로 일본으로 가져감
- 1918-1971년 와다유지(和田雄治) 사망 이후 일본 기상청에 보관, 전시
- 1969년 중앙관상대장(양인기)이 일본 기상청 장관(吉武素二)과 반환 협의
- 1971년 일본 기상청 장관(高橋浩一郎)이 중앙관상대에 금영 측우기 반환
- 1971년 금영측우기를 보물 제561호로 지정



그림 8.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보완조사보고서



1. 측우기와 측우대의 제작에 관한 기록

1) 측우기를 제작한 기록은 세종 대에 시작된다. 세종 23년(1441) 4월 29일(음)에 세자(문종)는 비가 내릴 때 땅으로 들어간 분수(分數)를 알기 위해 동기(銅器)를 만들어 궁중에 두고 비가 내린 분수를 측량하였다. 세종 24년(1442) 5월 8일(음력)에 호조에서 주척(周尺)으로 길이 1척 5촌, 지름 7촌인 측우기(測雨器)를 주철(鑄鐵)로 제작하여 서운관(書雲觀) 안에 있는 측우대에 설치하고, 서운관 관리가 주척으로 수심을 측량하여 척촌분(尺寸分)을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지방 8도에는 주철로 만든 측우기와 주척 1건씩을 보내고, 이와 동일한 측우기를 자기(磁器) 혹은 와기(瓦器)로 번조(燔造)한 후 객사의 뜰에 측우대를 만들어 설치하게 하였다. 이때 주척은 중앙에서 보내준 주척을 바탕으로 하여 대나무 혹은 나무로 만들고, 수령은 비가 내린 형상을 직접 살핀 후 주척으로 측량한 수심의 척촌분을 보고하게 하였다.

1442년에 제작된 측우기는 ‘임술년 측우기’라 할 수 있다. 측우기의 관측은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다.

2) 영조 46년(1770) 5월 1일(음)에 영조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상위고(象緯考)」를 편찬한 것을 계기로 세종 대의 제도를 따른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하게 하였다. 영조는 새로 제작한 측우기를 창덕궁, 경희궁, 팔도(八道), 양도(兩都)인 개성유수부와 강화유수부에 설치하여 강우량을 살피게 하였다.

이때 영조는 세종 대의 제도를 따라 석대(石臺, 측우대)를 만들어 창덕궁, 경희궁, 두 서운관에 설치하게 하였다. 측우대의 크기는 포백척(布帛尺)으로 높이 1척, 넓이 8촌, 측우대 윗면의 구멍 깊이는 1촌이 되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두 서운관’은 창덕궁 금호문 밖에 있던 관상감(觀象監) 본감(本監)과 경희궁 개양문 밖에 있던 관상감 별감(別監)을 말한다. 서운관은 세조 12년(1466)에 관상감으로 개칭되었다.

측우대를 만들 때 이용한 포백척은 ‘경신년 신제척(新制尺)’인데, 이는 경신년(영조 16년, 1740)에 삼척에 있던 세종 대의 포백척을 바탕으로 하고 『경국대전』을 참고하여 만든 포백척이다. 포백척을 새로 만든 것은 우의정 유척기가 요청한 결과였다.

1770년에 제작된 측우기와 측우대는 ‘경인년 측우기’와 ‘경인년 측우대’라 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측우기 관측 자료는 대부분 1770년 이후의 자료이며, 임진왜란 이후 1770년까지는 수표 기록으로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3) 정조 6년(1782) 5월 23일(음)에 정조는 우사단(霧祀壇)에 행차하여 기우제를 지내고 궁궐로 돌아왔는데, 포시(晡時, 오후 4시)에 비가 내렸다. 관상감에서 측우기의 수심이 1촌 5푼이라 보고하였다. 5월 24일에 정조는 규장각에서 새로 측우기를 만들어 수심을 측정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제 환궁한 다음에 비가 내린 뜻을 밝히는 명(銘)을 지어 측우대에 새기라고 하였다. 9월 12일에 정지감이 정조 앞에서 측우기명(測雨器銘)을 읽었다. 또한 정조는 정조 17년(1793) 7월 17일(음)에 측우기와 주척을 수원부(水原府)에 하사하였다.

4) 와다 유지(和田雄治, 1859~1918)는 일본의 기상학자이자 해양학자로 1904~1915년에 한국에 있으면서 기상 업무를 총지휘했다. 그는 1904년 8월에 인천에 있던 일본 중앙기상대 제3임시관측소장에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1907년 통감부관측소장, 1908년 농상공부관측소장, 1910년 조선총독부관측소장을 역임하다가 1915년에 퇴직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와다는 조선의 측우기와 강우량 관측 기록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발표했으며, 그 속에는 그가 목격한 측우기와 측우대가 다수 있었다. 와다가 목격하고 크기를 잴 측우기는 총 4기였고, 1기는 소문으로 들었다.

① 경북궁 영추문 밖 매동의 관측소에 있다가 총독부관측소 소유가 된 측우기 : 깊이 30.6cm, 내경 14.7cm, 측우대 있음

②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앞뜰에 있다가 총독부관측소 소유가 된 측우기 : 깊이 22.2cm, 내경 14.4cm, 두께 0.30~0.45cm, 측우대 있음

③ 함경남도 함흥 관찰도청 앞뜰에 있다가 총독부관측소 소유가 된 측우기: 깊이 29.3cm, 내경 14.5cm, 두께 0.24~0.49cm, 측우대 있음

④ 충청남도 공주 관찰도청 앞뜰에 있다가 와다유지 소유가 된 측우기 : 깊이 31.6cm, 내경 14.0cm, 두께 0.50~0.73cm, 주척의 길이 20.7cm, 측우대 있음

⑤ 강원도 춘천의 측우기 : 소문으로 들음

이와 별도로 와다가 측우기는 없고 측우대만 남아있다고 한 것은 6기였다.

① 창덕궁 내 규장각

② 전라남도 함평군

③ 강원도 강릉군

④ 함경북도 경성군

⑤ 평안남도 관찰도청에 있다가 관측소로 이관된 것

⑥ 경상남도 통영에 있다가 관측소로 이관된 것

2. 현존하는 측우기와 측우대

1) 대구 선화당 측우대(보물 842호)

건륭 경인년인 1770년(영조 46) 5월에 대구감영에서 제작하여 설치한 측우대이다. 측우대의 전면에 ‘測雨器’, 후면에 “測雨臺/乾隆庚寅五月造”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1770년에 영조가 세종 대의 제도를 따라 측우기와 측우대를 제작하여 팔도 감영에 설치하라고 명령한 측우대의 실물에 해당한다. 와다의 기록을 따르면, 이 측우대는 경상감영 선화당(宣化堂)의 뜰에 있다가 총독부관측소로 옮겨진 것이다. 현재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측우대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370×370mm, 높이 460mm이며, 윗면 중심에 있는 구멍의 지름은 160mm, 깊이는 43mm이다. 경신년 신제척의 1척을 46.2cm로 보면 측우대의 높이는 1척, 넓이는 8촌, 구멍의 깊이는 1촌이 된다.

2) 창덕궁 측우대(보물 844호)

1782년(정조 6) 5월에 창덕궁 규장각의 이문원 뜰에 설치한 측우대이다. 측우대의 상면과 하면을 제외한 네 면에 심념조가 짓고 정지검이 쓴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명문은 ‘측우기명(測雨器銘)’이란 제목으로 『내각일력(內閣日曆)』 1782년 9월 14일, 『한경지략(漢京識略)』에 수록되어 있으며, 정지검의 『철재진적(澈齋眞蹟)』에는 그 탁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9> 정지검의 『철재진적』

측우대의 명문은 ① 측우기는 세종 24년에 구리로 주조하였으며 높이 1척 5촌, 직경 7촌이라는 사실, ② 영조 46년에 세종 대의 제도를 따라 측우기를 만들고, 창덕궁, 경희궁, 팔도, 강화부, 개성부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③ 정조 6년 여름에 기우제를 지낸 후 비가 내렸고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 이문원 뜰에 측우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이문원 측우대의 명문과 번역문이다.

(제1면)

測雨之有器實昉於 世
宗二十四年範銅爲之高
一尺五寸圓徑七寸置書
雲觀及諸道郡縣每雨尺
其深以聞 先大王四十六
年得其舊制鑄置昌德
慶熙二宮及八道兩都其
爲器雖小 兩聖朝憂勤
水旱之政在焉顧不重歟
上之六年夏畿甸大旱圭

(제2면)

璧徧舉靈應未普於是
我 聖上責躬求言 親禱雩
壇屏繖盖御袞冕竟夕露
處既將事坐而待朝歸路
駐輿釋死囚以下情輕者
是日都人士女瞻望感激
至有泣下曰 聖上之爲
民憂勤如此天豈不雨雖
不雨民悅之猶雨也日未
晡果大雨及夜準一寸二
分此實我 聖上至誠之

(제3면)

所感而猶憂其未洽 命
內閣鑄置測器於摛文院

之庭以候之雨既洽 命
臣念祖銘臣志儉書盖志
喜也臣等近臣也其未雨
也必先知我 聖上爲民
之憂而不敢不同其憂既
雨也又必先知我 聖上
爲民之喜而不敢不同其
喜是器也 君民之憂喜
係焉臣等敢不敬守而謹

(제4면)

候哉遂拜手稽首爲之銘
曰相此分寸度彼方塊少
固慮早多亦傷澇繼茲萬
年唯適是禱

直提學臣沈念祖奉
教撰

直提學臣鄭志儉奉
教書

測雨之有器，實昉於世宗二十四年，範銅爲之，高一尺五寸，圓徑七寸。置書雲觀及諸道郡縣，每兩尺其深以聞。先大王四十六年，得其舊制，鑄置昌德·慶熙二宮及八道兩都。其爲器雖小，兩聖朝憂勤水旱之政在焉，顧不重歟。上之六年夏，畿甸大旱，圭璧徧舉，靈應未普。於是我聖上，責躬求言，親禱雩壇，屏繖盖。御袞冕，竟夕露處，既將事，坐而待朝。歸路駐輿，釋死囚以下情輕者。是日都人士女，瞻望感激，至有泣下曰，‘聖上之爲民，憂勤如此，天豈不雨。雖不雨，民悅之猶雨也。’日未晡，果大雨，及夜準一寸二分，此實我聖上至誠之所感。而猶憂其未洽，命內閣鑄置測器於摛文院之庭以候之。雨既洽，命臣念祖銘，臣志儉書，盖志喜也。臣等，近臣也。其未雨也，必先知我聖上爲民之憂，而不敢不同其憂。既雨也，又必先知我聖上爲民之喜，而不敢不同其喜。是器也，君民之憂喜係焉，臣等敢不敬守而謹候哉。遂拜手稽首，爲之銘曰，相此分寸，度彼方塊，少固慮早，多亦傷澇。繼茲萬年，唯適是禱。

直提學，臣沈念祖，奉教撰。

直提學，臣鄭志儉，奉教書。

우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실로 세종 24년(1442)에 시작되었으니, 구리로 주조하고 높이는 1척 5촌, 원의 직경은 7촌이었다. 서운관과 여러 도의 군현에 설치하고 비가 올 때마다 그 깊이를 재어 알렸다. 선대왕(영조) 46년(1770)에 옛 제도를 따라 측우기를 만들고 창덕궁, 경희궁 두 궁궐과 팔도, 양도(강화, 개성)에 설치하였다. 그 기기는 비록 작지만 두 성조(세종, 영조)께서 수재와 한재를 걱정하고 부지런히 하신 정치가 담겨있으니 어찌 소중하지 아니한가. 성상 6년(1782) 여름에 경기 지역에 큰 가뭄이 있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때 우리 성상께서 스스로를 탓하고 신하들의 뜻을 물었으며, 직접 우사단(雩祀壇)에서 기도할 때 양산도 물리치셨다. 곤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밤새도록 밖에 머무셨고, 제사를 마친 후에는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셨다. 돌아오는 길에 가마를 멈추고 사형수 이하의 죄가 가벼운 사람을 석방하셨다. 이날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바라보며 감격하였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이처럼 걱정하고 부지런히 하시니 하늘이 어찌 비를 내리지 않겠는가. 비록 비가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의 기쁨은 비가 내린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해가 지기 전에 과연 큰비가 내려 밤에는 1촌 2분이 되었으니 이는 실로 우리 성상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 성상께서는 그래도 그 미흡함을 걱정하시고 내각에 명령하여 이문원 뜰에 측우기를 만들어 설치하고 우량을 살피게 하셨다. 비가 흡족히 내리자 신 심념조에게 명(銘)을 짓고 신 정지검에게 쓰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신들은 근신(近臣)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걱정하심을 먼저 알고 그 걱정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 비가 내리면 우리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기뻐하심을 먼저 알고 그 기쁨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측우기에는 임금과 백성의 걱정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으니 신들이 감히 공경히 지키고 부지런히 살피지 않겠는가. 이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명을 짓는다.

이 측우기의 분과 촛을 살피 저 멀리 떨어진 곳의 사정을 헤아리네.

비가 적으면 가물까 염려되고 많아도 홍수가 날까 상심하네.

이후로 만년 동안 오직 적당하기만을 기도하네.

직제학 신 심념조가 명령을 받들어 짓고, 직제학 신 정지검이 명령을 받들어 쓰다.

이문원 측우대는 1910년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경성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창경궁 명정전,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을 거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3) 금영 측우기(보물 516호)

도광 정유년인 1837년(헌종 6)에 충청도 공주감영에 설치된 측우기이다. 측우기는 3개의 원통으로 구성되며, 중단 원통의 표면에 “錦營/測雨器/高一尺五寸/徑七寸/道光丁酉製/重十一斤”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높이 1척 5촌, 직경 7촌’이란 크기는 세종 대에 제작된 측우기의 크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하단 원통의 바닥면에 “入番通人/及唱次知/使”이란 명문이 있는데, 통인, 급창, 사령이 측우기를 담당하는 관리였다.



와다의 기록을 따르면, 이 측우기는 와다가 소유했다가 1915년에 일본으로 반출하여 일본기상청에 기증하였다. 이 측우기는 1971년 6월에 일본기상청에서 한국의 중앙관상대로 반환하였으며, 현재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존재가 확인된 유일한 측우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복제품이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여주 영릉에서 전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영릉의 측우대는 관상감 측우대를 바탕으로 하여 복제하였다.

4) 통영 측우대(보물 1652호)

통영에 설치된 측우대이다. 전면에 “測雨臺/辛未二月日”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어, 1811년 혹은 1871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통영 지역의 강우 기록이 19세기 전반부터 나타나는 점을 들어 181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와다의 기록을 따르면 경상남도 통영에 있다가 총독부관측소로 옮겨졌으며, 국립서울과학관을 거쳐 현재는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다.

5) 관상감 측우대(보물 844호)

조선시대 관상감의 뜰에 설치된 측우대이다. 와다의 기록을 따르면 매동 관측소에 있다가 총독부관측소로 옮겨진 것으로 현재는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이 측우대가 제작된 시기에 대해 세종 23년(1441)에 서운관에 측우기를 설치한 사실을 근거로 144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영조 46년(1770)에 관상

감에 설치한 ‘경인년 측우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로서는 제작 시기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6) 연경당 측우대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 뜰에 설치된 측우대이다. 팔각형의 석재 기둥으로 크기는 지름 285mm, 높이 605mm이고, 상단의 구멍 지름은 160mm, 깊이는 25mm이다. 연경당(演慶堂) 건물이 1827~1828년에 건축된 것을 근거로 1828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작 시기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보감(國朝寶鑑)』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탁지지(度支志)』
- 『내각일력(內閣日曆)』
- 『한경지략(漢京識略)』
- 『철재진적(澈齋眞蹟)』

임정혁, 「和田雄治의 조선기상학사연구: 측우기와 강우량 관측기록 조사」 『한국과학사학회지』 27-2, 2005.

조하만, 김상원, 전영신, 박혜영, 강우정, 「조선시대 측우기 등장과 강우량 관측망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기』 25(4), 2015.

김일권, 「『승정원일기』 영정조대 30년간(1770~1779) 측우기록과 우량주척 고찰」 『조선시대사학보』 84, 2018.



○ 현 상

[측우기 현상]

- 지정현황 : 보물 제561호
- 명 칭 :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
- 소유자(관리자) : 국유(기상청)

-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신대방동,기상청)
- 수량 : 1기
- 규격 : 내부 중심 높이 31.69cm, 외부 높이 32.14cm,
상부 내경 14.06cm, 상부 외경 15.3cm, 무게 6.2kg
- 재질 : 청동
- 형식 : 3개 원통으로 구성된 측우기
- 조성연대 : 조선 헌종 3년(1837)

[측우대 4점 현상]

- 지정현황 : 보물 제842호
- 명칭 : 대구 선화당 측우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기상청)
-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신대방동,기상청)
- 수량 : 1기
- 규격 : 가로·세로 37cm, 높이 46cm
가운데 구멍 직경 16cm, 길이 4.3cm
- 재질 : 화강암
- 형식 : 방형의 석재
- 조성연대 : 조선 영조 46년(1770)

- 지정현황 : 보물 제843호
- 명칭 : 관상감 측우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기상청)
-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신대방동,기상청)
- 수량 : 1기
- 규격 : 높이 87.6cm, 세로 59.7cm, 가로 94.5cm
- 재질 : 화강암
- 형식 : 방형의 석재
- 조성연대 : 조선 세종 23년(1441) 추정

- 지정현황 : 보물 제844호
- 명칭 : 창덕궁 관상감 측우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재지 : 국립고궁박물관
- 수량 : 1기

- 규 격 : 높이 30.3cm, 가로 45.3, 세로 45.5cm
- 재 질 : 대리석 추정
- 형 식 : 방형의 석재
- 조성연대 : 조선 정조 6년(1782) 추정

- 지정현황 : 보물 제1652호
- 명 칭 : 통영 측우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과학관)
- 소재지 : 국립중앙과학관
- 수 량 : 1기
- 규 격 : 측우대 44×43×44.3cm, 받침돌 91cm, 21cm
- 재 질 : 측우대(회록색응회질사암), 받침돌(산성응회암질암)
- 형 식 : 방형의 석재와 받침돌
- 조성연대 : 조선 1811년 또는 1871년

금영 측우기는 원통형 기둥 모양이며, 구리와 주석을 섞은 청동으로 주조하여 만들었다. 표면은 매끄럽게 마연되어 부드럽고 가질한 흔적이 뚜렷하다. 현재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거의 동일한 크기로 분리된다. 연결 부위에는 홈을 파서,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띠를 두른 듯 굴곡이 있기 때문에 모두 연결하면, 세 마디가 있는 대나무 모양처럼 보인다. 연결 부위에서는 납 성분이 높게 검출되어, 납땀의 가능성이 있다. 원래 측우기를 세우는 측우대와 빗물을 측정하는 주척(周尺)이 함께 있었겠지만 현재는 측우기만 남아 있다.

측우기의 외면 가운데 부분에는, ‘錦營/ 測雨器/ 高一尺五寸/ 經七寸/ 道光丁酉製/ 重十一斤’이라는 명문이 있다. 또한 바닥면에는, ‘入番通引/ 及唱/ 次知/ 使令’이라고 새겨져 있다. 측우기가 설치된 지역과 크기, 무게, 담당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다.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방형의 기둥모양이며, 가운데는 지름 16cm, 길이 4.3cm의 구멍이 있어 측우기를 놓을 수 있는 구조이다. 앞면 한 가운데에는 ‘測雨臺’, 뒷면에는 ‘乾隆庚寅五月造’라고 새겨져 있어서, 영조 46년(1770)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1917년 『조선고대관측기록보고』의 내용을 보면, 영조 46년에 제작된 측우기는 모두 7기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측우기는 모두 없어지고, 대구선화당 측우대 만 남아 있다.

관상감 측우대는 단순한 방형이 아니라 층이 있는 구조로,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측우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이다. 현존 유물은 대부분 방형인데 비해, 다른 형태로 주목된다. 창덕궁 관상감 측우대는 화강암이 아닌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표면이 매끄럽게 가공되었고 네 면에 긴 명문이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통영 측우대는 받침돌을 함께 갖추고 있다. 방형의 측우대 아래에 원형의 받침돌이 있다. 기단에 해당하는 받침은 다른 측우대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측우기를 세우는 구멍은 깊이가 상당해서, 다른 측우대와 비교된다.

○ 내용 및 특징

측우기는 빗물을 모아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기물이다. 용도와 기능에 맞게 조형된 것으로, 표면에 특별한 장식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지나친 장식은 측정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영 측우기는 본래의 용도에 충실한 기형을 갖추고 있다. 바닥은 편평하고 기물의 두께는 대체로 일정하며, 표면의 마무리도 매끈하게 처리되었다. 주조 과정에서 생기는 잡티의 흔적이나 불순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세 개로 분리되는 부분도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어, 고르게 만든 제작 수준을 알 수 있다. 모두 연결했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기형의 안정감이 있다.

마디가 있는 외형은 단조로운 형태에 덧붙인 미적 감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기능에 필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측우기는 들어서 측우대에 세워야 하고 다시 내려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측우기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일 수도 있다. 표면은 마무리가 잘 되어 매끄럽다. 또한 투명하게 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청동 기물이고 안에 물이 많다면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서,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면에 옷칠의 가능성이 있다. 측우기의 겉면과 바닥면에는 가질의 흔적이 뚜렷하다. 가질 작업은 기물을 만들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회전판에 걸어 표면을 고르게 깎고 다듬는 과정이다. 일정한 선이 반복되는 형태로 남아 있다. 가질을 통해 표면의 색이 드러나고 고른 상태가 된다. 그런데 측우기의 표면은 매끄러울 뿐 아니라, 코팅된 것처럼 질감이 느껴진다. 투명칠로 표면을 마감했는지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옷칠은 자체로 접착력이 있어, 금속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표면의 광택을 높이고 부식 방지에도 효과적이어서, 옛 기물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종실록』 96권(24년, 1442년 5월 8일)의 기사에는, “외방(外方)에서는 쇠로써 주조(鑄造)한 측우기(測雨器)와 주척(周尺) 매 1건(件)을 각도(各道)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상항(上項)의 측우기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자기(磁器)든지 혹은 와기(瓦器)든지 적당한 데에 따라 구워 만들고, 객사(客舍)의 뜰 가운데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도록 하며” 라고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금속으로 주조한 측우기는 중앙에서 제작하여 내려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이 측우기도 공주 감영인 금영에 설치되었지만 제작 주체는 중앙의 장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절한 비례와 균형, 표면 마무리 등 측우기의 완성도와 명문의 유려한 글씨체는 중앙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측우기는 유일하지만 측우대는 네 점이 전한다. 먼저 관상감 측우대는 조선 초기

광화방 관상감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초기 관상감이 자리한 이후, 위치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대 측우기와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유물로 추정된 것이다. 만일 가정이 성립된다면, 가장 오래된 측우대로 의미가 있고 세종대 시작된 새로운 문화를 확인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명문을 통해, 영조 46년인 1770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 권114(영조 46년)에는,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하고,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치계(馳啓)하여 알리도록 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듣건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측우기는 석대(石臺)를 만들어 안치(安置)하였다고 하였다. 금번 두 궁궐(宮闕)과 두 서운관(書雲觀)에 모두 석대를 만들되,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척이요, 넓이는 8촌이며, 석대(石臺) 위에 둥그런 구멍을 만들어 <측우기를> 얹히는데, 구멍의 깊이는 1촌이니, 경신년(126)의 신제척(新製尺)을 사용하라’라고 적었다. 기록을 통해 영조가 세종의 옛 제도를 따라, 측우기와 측우대를 마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례가 계속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유물이 대구 선화당 측우대이다.

영조에 이어 즉위한 정조시대에도 관련된 유물이 전한다. 정조 6년(1782) 6월에서 7월경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자, 측우기를 만들어 비가 오기를 기원했다. 당시 제작된 측우기는 전하지 않지만 측우대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창덕궁 관상감 측우대는 길고 자세한 명문을 새겨 넣어, 측우기가 제작된 경위와 그 뜻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측우대의 네 측면에 조각한 명문은 일부가 마멸되어 완전하게 해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정조연간에 지은 『한경지략(漢京識略)』에 전문이 실려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측우기가 단순히 비를 측량하는 기구가 아니라, 비와 관련된 신령한 기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우제를 치르고 특별한 소망이 담긴 기물로 제작되어, 다른 측우대와 구별되는 재질로 우수하게 만들었다. 석재를 잘 다듬고 유려하게 새긴 글씨체도 중앙의 장인이 제작한 것을 보여준다.

통영 측우대는 받침대를 갖추고 있으며, 앞면 중앙에 ‘測雨臺’와 ‘辛未二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명문을 통해, 1811년(순조 11)이나 1871년(고종 8)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측우기를 세우는 구멍이 다른 측우대와 비교하면 너무 깊어,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혹은 후대에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 현상, 내용 및 특징

1) 금영측우기

보물 제561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영측우기는 1837년(헌종 6)에 구리로 원통형으로 제작하고 표면을 연마한 것이다. 상중하 3분기(分器)로 구성되어 있으며 3분기 가운데 하분기는 바닥 부분이 막혀 있고 약간의 부식상태가 관찰된다. 상·중·하분기는 미세하게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아 서로 끼워 맞추도록 하였으며 접합부는 대나무 마디처럼 제작하여 상부의 분기를 하부에 끼워 맞추더라도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 기형(器形)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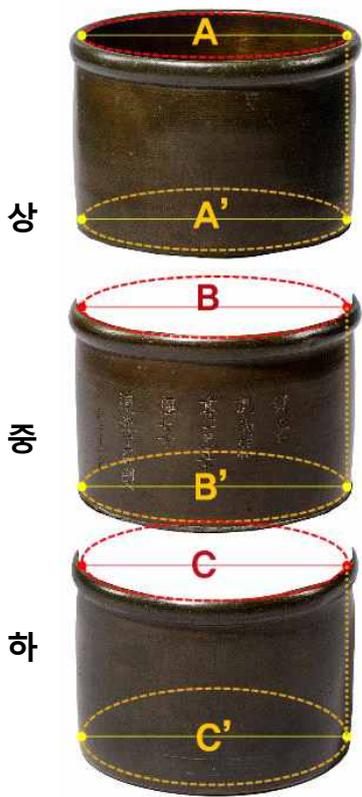


그림 1. 측우기의 구성

표 1. 측우기 3분器 부위별 안지름(단위 : mm)

부위		1	2	3	4	평균	편차
상	A	141.02	140.65	140.15	141.0	140.61	
	A'	139.90	138.55	137.67	139.06	138.71	-1.014
중	B	138.96	139.01	139.50	139.22	139.16	+0.38
	B'	138.67	138.76	138.91	139.21	138.78	-0.28
하	C	141.52	141.06	140.33	140.75	140.97	+2.03
	C'	-	-	-	-		
평균						139.65	

표 2. 측우기 中,下器 하부 바깥 지름(단위 : mm)

부위	1	2	3	4	평균
중	150.47	150.89	151.17	150.47	150.75
하	147.22	146.62	147.53	147.71	147.27
평균					149.01

표 3. 측우기 3분器 부위별 높이(단위 : mm)

부위		1	2	3	4	5	6	평균	평균
상	내	101	103	104	102	101	104	102.5	102.5
중	내	101	101	100	101	101	100	100.7	100.7
하	내	98.5	99.2	98.7	98.9	99	98.5	98.8	
	외	103	102	104	105	106	105		104.2
합계								302	307.4

※ 3분기 결합 시 내부 중심높이 316.9mm, 외부 길이 321.4mm

상·중·하 3분기의 안지름은 평균 139.65mm고, 바깥 지름은 평균 149.01mm로 두께는 대략 10mm가량 된다. 내외 지름을 평균하면 144.33mm다. 3분기의 각 높이는 평균 102.46mm로 주척으로 5치[寸]에 해당한다. 분기별 높이의 합은 307.4mm지만, 결합했을 때 내부 높이

는 316.9mm, 외부 높이는321.4mm다. 평균하면 319.15mm다.(표1~3)

조선시대 각종 문헌자료와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척도를 분석한 『동물도량형』(남문현, 문화재관리국,1992)에 따르면 주척(周尺)은 206~207mm다. 이를 기준으로 금영측우기의 수치를 대입해보면 높이는 각 분기를 조립했을 때보다 각 분기의 높이를 합친 값이 1자 5치에 가깝고, 지름은 내외 직경의 중심 값이 7치에 가까우며, 주척은 206mm 기준 값에 근접하다.(표 4)

표 4. 금영측우기의 주척 정합도(높이 1자 5치 기준/ 지름 7치 기준)

구분	금영측우기	내부	환산치 206	환산치 207	외부	환산치 206	환산치 207	내외 평균	환산치 206	환산치 207
높이	3분기 조립	316.90	1.538	1.530	321.40	1.560	1.552	319.15	1.549	1.54
	3분기 각합	302.00	1.466	1.459	307.00	1.490	1.483			
지름	분기별평균	139.65	0.678	0.674	149.01	0.718	0.723	144.33	0.7	0.697

상분기와 중분기의 경우, 내경의 차이가 0.38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중분기와 하분기의 경우 2mm가까이 차이가 나서 고정하지 않을 경우 빗물이 샐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복제품으로 실험한 결과 실제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다.(그림 2)



그림 2. 물이 새는 모습

표 5. 측우기 3分器 부위별 무게(단위 : g)

부위	복제품 무게	물 포함 무게
상	1,777.5	3,346.5
중	1,742.5	3,311.5
하	2,547.5	4,116.5
합계	6,067.5	10,774.5
기록비교	11근 ▶ 6,200	11,585.1
편차	132.5	810.6

※ 11근(斤)=6200g으로 계산(실제 금영측우기 무게)

※ 주척은 207mm로 환산

※ 물 무게 =반지름(72.45)×반지름×π(3.14)×높이(309)

◀ 국립고궁박물관의 복제품으로 시험

중분기의 하단부와 상분기의 하단부에서 납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상분기의 납땜흔보다 중분기의 납땜흔이 두꺼운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분기별 크기의 차이로 중분기를 하분기에 고정하여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중분기 하단부의 두꺼운 납땜 흔

측우기의 실제 무게는 복제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약 6200g(11근, 6.2kg)으로 물을 가득 찼을 경우 11.6kg 정도 된다. 무게상 상중하 3분기는 서로 고정해야만 물을 넣은 채로 운반 또는 물 빼는 것이 가능한 구조다.

측우기의 상중하 각 분기의 높이는 5치로, 결합했을 때 안쪽 연결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된다. 즉, 주척 없이 눈짐작만으로도 강우량을 대충 알 수 있는 구조다. 측우기는 3분기로 구분 제작됨으로 인해 기기 자체가 척도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 측우대

측우대는 구리, 자기, 와기 등으로 제작된 측우기를 노천에 두기 위해 설치하는 받침 대다. 주로 석재를 다듬어 제작하였는데 그 크기와 형태는 다양하다. 1910년 조선총독 부관측소장을 역임한 와다유지(和田雄治)의 『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대정 6)에 따르면 그가 목격한 측우기는 총 4기며, 측우기 없이 존재하는 측우대는 6기였다고 기록했다. 측우기와 함께 존재했던, 측우대만 존재했던 현존하는 측우대는 모두 5기로,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관상감 측우대는 기상청에,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국립고궁박물관에, 통영 측우대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창덕궁 연경당 측우대(미지정)는 연경당의 입구에 노출되어 있다.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후면에 ‘測雨臺’라고 새기고 “乾隆庚寅五月造”라는 시기가 각자되어 있어 1770년(영조 46)에 제작되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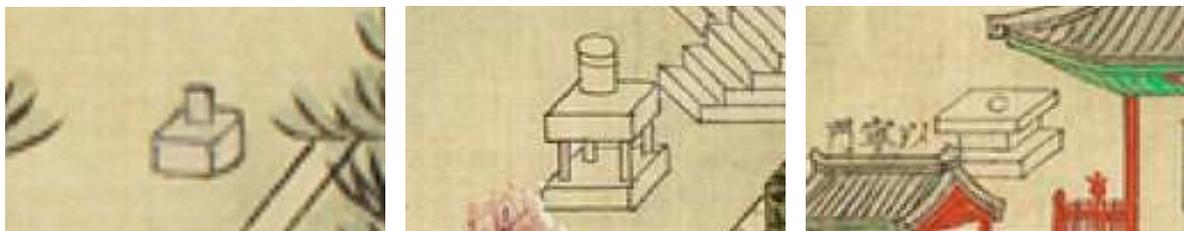
알 수 있다. 크기는 상면의 길이와 폭이 367×370mm, 높이 460mm이며, 윗면 가운데 있는 구멍은 지름이 155mm, 깊이가 42mm다.

1770년 영조는 세종대의 제도에 따라 측우기를 제작하여 팔도감영에 보내고, 측우대는 세종대의 척도를 고증하여 만든 신제척(1740년 제작) 가운데 포백척을 따라 높이 1자, 길이와 폭 8치, 구멍의 깊이 1치로 제작케 하였다. 세종조 『국조오례의』를 영조 20(1744년)에 개간하여 『국조속오례의』로 편찬하였는데 여기 「서례」에 실린 포백척의 그림을 실측한 결과, 반자[半尺]가 230mm였다(남문현, 『동물도량형』-조선시대척도자료 조사용역보고서, 문화재관리국,1992). 이에 따르면 1자는 460mm로 선화당 측우대는 세종대의 측우기 제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보물 제843호 관상감 측우대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상면의 길이와 폭이 945×597mm, 높이 876mm로 다른 측우대에 비해 크고 높은 편이다. 윗면 가운데 있는 구멍은 지름이 165mm, 깊이가 47mm다. 제작된 시기에 관해서는 세종 23년(1441)에 서운관에 측우기를 설치한 사실을 근거로 144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작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1828~183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궐도>의 수강재 근처에 놓여있는 측우대와 형태가 닮아 있다.

-보물 제844호 창덕궁 이문원 앞마당에 있던 측우대는 대리암으로 제작되었으며, 각자된 ‘측우기명(測雨器銘)’ 통해 1782년(정조 6) 5월에 만들어졌고, 그 연원을 세종대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윗면의 길이와 폭이 453×455mm, 높이 303mm이며, 윗면 중심에 있는 구멍의 지름은 162mm, 깊이는 43mm다. <동궐도>의 이문원(내각) 앞뜰에 받침돌 없이 놓인 것으로 그려진 측우대가 이것이다.

이문원 측우대의 재료로 사용된 대리암은 조선시대에 옥석(玉石)으로 불리던 비교적 격식있는 석조물을 만들 때 사용되던 암질이다. 화강암보다 덜 단단해 가공을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문원의 측우대를 대리암으로 만든 것은 국왕과 관련된 내용을 사면에 새기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문원 측우기와 측우대

중희당 측우기와 측우대

수강재 측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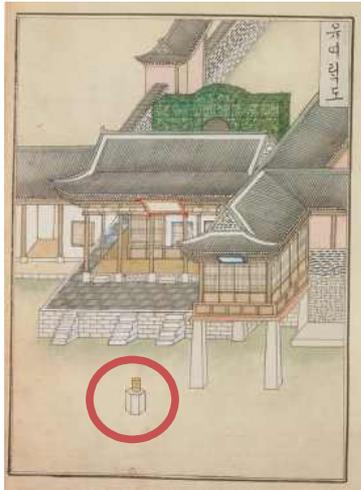
그림 4. <동궐도>에 표현되어 있는 측우기와 측우대

-보물 제1652호 통영 측우대는 회록색 응회질 사암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상면의 길이와 폭이 440×430mm, 높이는 443mm이고, 윗면 상부 중심에 있는 구멍은 지름이 166mm, 깊이가 163mm다. 구멍의 깊이가 다른 측우기보다 깊어 후대에 변형되었거나, 구멍의 깊이가 주척으로 5치를 넘고 있으므로 3분기로 구성된 측우대는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형 이질의 측우기를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지방에 설치하는 측우기의 경우 자기(磁器)나 와기(瓦器) 등으로 만들기도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측우대 하단부는 직절하여 다듬지 않고 짧은 다리를 둔 형태로 다듬었다. 현재 원형의 받침돌이 있는데 산성응회암 질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름은 910mm에 높이는 210mm다. 재질이 다르고 다른 측우기의 경우 대부분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래 구성품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제작시기는 전면에 “測雨臺 辛未二月日”이란 각자가 있어, 1811년 혹은 187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연호가 적혀 있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다.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 전면에 설치된 측우대는 화강암 재질로, 309×315mm의 각석재를 하부는 지대석으로 남기고 상부만 팔각 기둥형으로 다듬어 만든 것이다. 팔각 한 변의 길이는 118mm고, 상부 중심에 있는 구멍의 지름은 160mm, 깊이는 25mm로 다른 측우대에 비해 구멍의 깊이가 얕다. 명문이 없어 제작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다.

1793년 수원유수부에 측우기와 주척을 내려 보낸 기록이 있다. 그때 내려 보낸 측우기는 화성행궁 유여택 앞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모습이 현릉원 행행과 을묘년 행사의 기록을 혜경궁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했던 『덩니의궤』(1797년)에 그려져 있다. 화성행궁 <유여택도>에 표현된 측우대는 6각형이다. 연경당의 측우대는 8각형이지만 형태상 화성행궁의 것과 비슷하다. 일제 강점기에 지방의 측우대가 관측소나 여러 장소로 옮겨 설치되었으며, 화성행궁이 1910년 자혜의원으로 개조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연경당의 측우대는 화성행궁의 측우대가 옮겨 설치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연경당의 측우대가 화성행궁의 그것이라면 제작 시기는 1793년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한다.



화성행궁 <유여택도>



화성행궁 측우기



창덕궁 연경당 측우기

그림 5. 『명니의궤』권39(1797년 제작, 프랑스 미테랑 도서관 소장)에 표현된 측우기와 측우대

표 5. 현존 측우대의 제작시기 및 각 부위별 치수(단위 : mm)

측우대	소장처	제작시기	재질	길이	폭	높이	구멍 지름	구멍 깊이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기상청	乾隆庚寅五月造 1770년 (영조 46)	화강암	367	370	460	155	42
보물 제843호 관상감 측우대	기상청	1441년 (세종 23) 추정	화강암	945	597	876	165	47
보물 제844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국립고궁 박물관	1782년 (정조 6)	대리석	453	455	303	162	43
보물 제1652호 통영 측우대	국립중앙 과학관	辛未二月 1811/1871년	회록색 응회질 사암	440	430	443	166	163
미지정 창덕궁 연경당 측우대	창덕궁 연경당 앞	1793년 추정	화강암	309	315	609	160	25



보물 제842호



보물 제843호



보물 제844호



보물 제1652호



연경당 측우대

○ 문헌자료

● 『세종실록』 세종 23년 8월 18일 임오 4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호조에서 서운관에 측우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 『세종실록』 세종 24년 5월 8일 정묘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호조에서 아뢰기를, "우량(雨量)을 측정(測定)하는 일에 대하여는 일찍이 벌써 명령을 받았사오나, 그러나, 아직 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다시 갖추어 조목별로 열기(列記)합니다.

1.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鑄造)하여 기구(器具)를 만들어 명칭을 측우기(測雨器)라 하니, 길이가 1척(尺) 5촌(寸)이고 직경(直徑)이 7촌입니다.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고 매양 비가 온 후에는 본관(本觀)의 관원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는, 주척(周尺)으로써 물의 깊고 얇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日時)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즉시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둘 것이며,

1. 외방(外方)은 쇠로써 주조(鑄造)한 측우기(測雨器)와 주척(周尺) 매 1건(件)을 각도(各道)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상항(上項)의 측우기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자기(磁器)든지 혹은 와기(瓦器)든지 적당한 데에 따라 구워 만들고, 객사(客舍)의 뜰 가운데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도록 하며, 주척(周尺)도 또한 상항(上項)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대나무로 하든지 혹은 나무로 하든지 미리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수령(守令)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살펴보고는 주척(周尺)으로써 물의 깊고 얇은 것을 측량(測量)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日時)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두어서, 후일의 참고에 전거(典據)로 삼게 하소서.“

● 『연려실기술』 제3권 / 세종조 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세종 24년 임술에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었다. 《의상전고(儀象典故)》에 상세히 쓰여 있다.

● 『영조실록』 46년 (1770년) 5월 1일(정축)

(팔도와 양도에 측우기를 만들어 우수의 다소를 살필 것 등을 명하다)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하고,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치계(馳啓)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이는 곧 옛날에 일풍 일우(一風一雨)를 살피라고 명하신 성의(聖意)를 본뜬 것이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듣건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측우기는 석대(石臺)를 만들어 안치(安置)하였다고 하였다. 금번 두 궁궐(宮闕)과 두 서운관(書雲觀)에 모두 석대를 만들되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자요, 넓이는 8치며, 석대(石臺) 위에 둥그런 구멍을 만들어 <측우기를> 얹히는데, 구멍의 깊이는 1치니, 경신년(영조 16, 1740년)의 신제척(新製尺)을 사용하라.”하였다.

●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3일 乾隆(淸/高宗) 35년

上曰, 測雨器制度, 何如? 浩修曰, 圓而且端, 長爲一尺五寸矣。上曰, 尺則與家禮圖尺相同乎? 浩修曰, 然矣。上命浩修讀測雨器制度記, 命趙?傳教曰, 今番測雨器, 更問實錄奉考, 設石以置, 此亦欽敬之聖意也。今番製入時, 兩闕兩雲觀測雨器, 皆造石臺, 高布帛尺一尺, 南北廣布帛尺八寸, 而石臺上造圓穴, 以安測雨器, 而穴深以布帛尺一寸 모두 석대를 만드는데, 높이는 포백척으로 1자, 남북의 너비는 포백척으로 8치다. 그리고 측우기를 안치할 것으로 석대 위에 둥근 구멍을 만들되 구멍의 깊이는 포백척으로 1치다.

●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6일

測雨器尺樣, 無乃太小乎? 浩修曰, 庚申年, 有依黃鍾制造成者如是, 故亦依此爲之矣, 上曰, 舊樣亦似不如是矣。命浩修讀測雨器編訖, 上問蔡濟恭曰, 測雨器長一尺五寸, 則量尺出器外, 然後便於執用矣。尺用二尺, 何如? 濟恭曰, 好矣 상께서 채제공에게 물기를 측우기의 길이가 1자 5치이니 기기 밖에서 비의 양을 재려면 연후에 잡아 사용하기 편하도록 자는 2자짜리를 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채제공이 좋다고 답하다.

● 『청장관전서』 간본 아정유고 제5권, 문(文)

측우기(測雨器)에 대한 명(銘) 병서(并序)창덕궁 내각에 설치된 측우대에 각자된 내용과 동일

● 『일성록』 정조17년 계축(1793년) 7월 17일(무신)

○ 수원 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본부에는 이달 13일에 먼지잠이 내린 뒤 14, 5일 이틀 동안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내의 방리(坊里)가 50개

면(面)인데 탄강(呑江) 아래쪽 바닷가에 위치한 30여 개 면은 13일에 비가 골고루
흡족하게 내려 과연 부족하다는 탄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수원부 근처와 탄강 위
쪽의 여러 면은 그날 내린 비가 겨우 먼지잼에 불과했으므로 논외 작물에까지 손
상이 가지는 않았지만 밭에 심은 여러 곡물 중 모래땅이나 메마른 고지대의
것은 더러 혹 병들기도 하였습니다. …(중략) …전교하기를, “바다 근처 30개 면
에는 비가 고르게 내렸다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후에 농사 형편을 보고할
때에는, 수원부 이내 및 원근 각 면에 혹 이번처럼 지역에 따라 강우량이 차이가
날 경우 낱낱이 구별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여러 도(道)와 양도(兩都)에서
는 비가 내린 상황을 모두 측우기 수심이 몇 치 몇 분이었다고 장계로 보고하니,
본부에서도 이에 따라 하라. 측우기와 주척은, 경의 아들이 해당 방에 있으니 호
조에서 가져오게 해서 이 유지(有旨)까지 함께 내려 보낼 것이니 경은 잘 수령하
라.’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붙임]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의견 1>

- 제출일자 : 2020. 1. 23.(목)
- 제출자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의견요지 : 기존 명칭 유지 요망

1. 문화재청 변경(안)에 대한 의견

- 문화재청에서 제기한대로 국민들에게 명확한 지정정보 제공을 위해 명명 규칙에 따른 명칭변경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공주감영 측우기」와 「대구감영 측우대」는 측우기와 측우대 명칭이 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우선, 충남 공주에는 공주감영이 아닌 충청감영이 있었고, 대구에는 대구감영이 아닌 경상감영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 명칭 부여에 충청감영과 경상감영을 사용해왔고, 타 감영에 대해서도 도(道)명+감영 형태의 명칭을 사용해왔습니다.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등

- 또한, 기존과 연관성이 적은 명칭으로 변경된다면 인식 연속성 부재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금영 측우기」와 「대구 선화당 측우대」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면 타 문화재들과의 명칭 통일성이 유지되는 동시에 유물의 가치와 의의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금영 측우기」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 「금영 측우기」 명칭은 「공주 금영 측우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 「금영 측우기」의 중단에는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라고 이름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유물의 명칭에 금영 측우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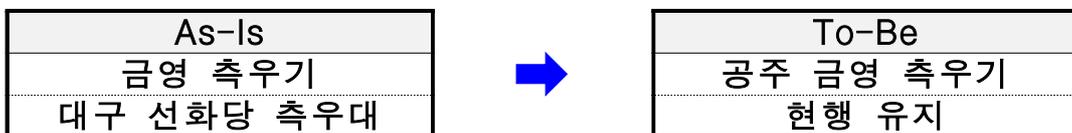
- 또한, 인식 연속성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할 때 기존 명칭인 「금영 측우기」를 포함하는 것이 명칭변경을 통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보다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명확한 지정정보 제공을 위해 소재지 표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금영 측우기」의 명칭은 **명확한 지정정보 제공과 동시에 명문의 반영 및 연속성 확보가 가능한 「공주 금영 측우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3. 「대구 선화당 측우대」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 「대구 선화당 측우대」의 명칭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대구 선화당 측우대」라는 명칭에 이미 해당 유물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어 명확한 지정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소재지 표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명칭인 「대구 선화당 측우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선화당(宣化堂)”이라는 명칭이 대중적이지 않긴 하나, 각 감영의 중심 건물을 일컫는 말로써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위치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구 선화당 측우대」 명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결론

- 유물의 역사성 반영과 명칭의 연속성, 그리고 명명규칙을 존중하여 검토한 결과 기상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 2>

- 제출일자 : 2020. 12. 31.(화)
- 제출자 : 손**
- 의견요지 : '감영' 명칭 수정 요망

(의견)

측우기와 측우대를 국보로 승격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명칭 사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공주감영측우기 : 충청감영측우기
대구감영측우대 : 경상감영측우대

감영이나 감사를 일컬을 때 팔도의 도명을 앞에 붙여야지
도시명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평양감사가 아니라 평안감사라고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공주감영이나 대구감영도
충청감영이나 경상감영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1-002

2.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

가. 심의사항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가치 규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8830) 관계 전문가 조사(19.5.3/6.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7차 회의(19.1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9.12.31~20.1.31)하고, 국보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부산 북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釜山 福泉洞 十一號墳 出土 陶器 龜裝飾 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 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건 2점(기대 1점, 단경호 1점)
- 규 격
- ① 원통형 기대 : 높이 48.7cm. 입지름 24.5cm. 기벽 두께 0.8~1.0cm.
- ② 단경호 : 높이 30.4cm. 입지름 18.0×18.6cm. 복경 최대 지름 28.5cm.
- 재 질 : 토도(土陶)

- 형 식 : 의례용 도기
- 조성연대 : 가야(5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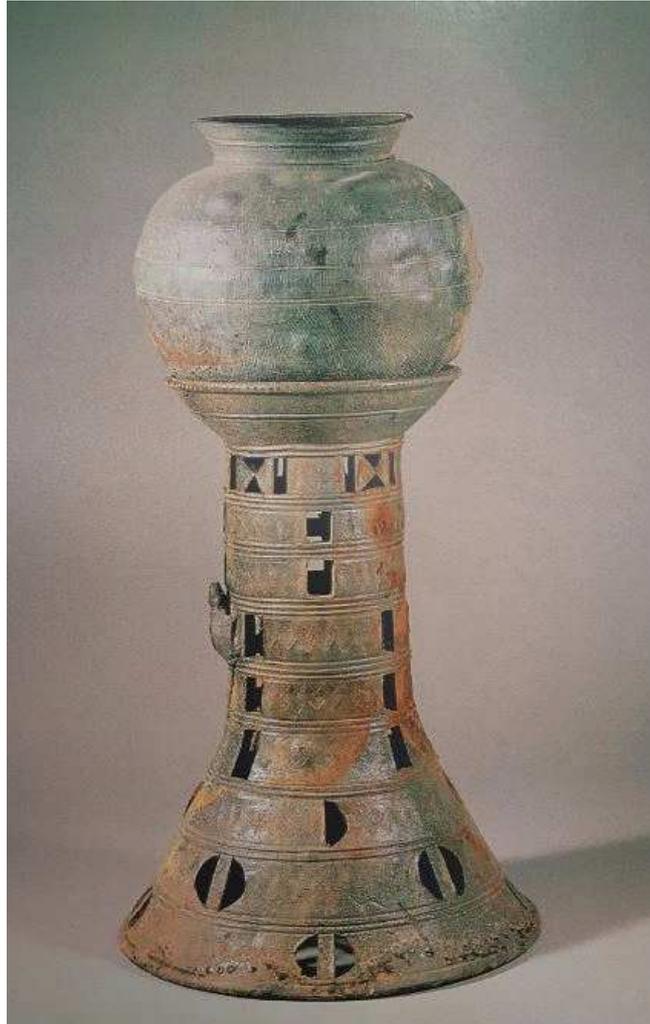


그림 25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동래 복천동 11호분은 1980년부터 1981년까지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한 수혈식 석실분으로서 주곽인 11호분과 부곽인 10호분이 한데 연결된 대형 무덤으로서 5세기 가야시대 수장급의 무덤이었다. 통형 그릇받침과 토기 항아리는 가야시대 고분 중에서 도굴 당하지 않은 복천동 11호분의 석실 서남쪽에서 출토되어 출토지가 명확하고 5세기 가야시대 무덤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유물은 통형 그릇받침 위에 목이 낮은 토기 항아리가 올려 있던 상태 그대로 출토된 드문 희귀한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 또한 매우 크다. 기대와 항아리는 규모가 크고 형태가 조화롭고 안정적인 점, 기대 표면에 자연스럽게 시유된 점, 11단을 나누어 단계별로 다양한 종류의 투창을 뚫고 지그재그로 침선문양을 새겨 넣은 점 등 여러 면에서 가야 토기 제작의 기술적인 성취를 엿볼 수 있어 예술적 가치도 크다.

이 유물은 가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들 중에서 깨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어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기대 중앙 부분에는 거북이 토우 한 마리를 부착되어 있는데 삼국시대 토우 중 거북이 토우가 붙어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이처럼 이 토기 세트는 다른 지역의 토기들과는 달리 원통형 기대의 표면에 거북이 토우를 부착한 가야 의례기로서 조형적인 가치도 탁월하다.

따라서 복천동 11호분 출토 기대와 항아리 세트는 가야시대 토기 제작 기술과 의례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1)이 원통형기대 및 단경호는 수혈식석곽분인 부산 복천동11호분(주곽) 남쪽단벽에 접해서 출토되었는데, 이 고분은 주곽은 수혈식석곽분(11호)이고, 부곽은 토광목곽으로 이루어진 주부곽식 고분이다. 이 토기는 세트를 이루는 유물로 전혀 훼손되지 않고 매장원상 그대로 출토되어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다.
- 2)기대위에 올려진 단경호는 몸통이 거의 둥근 공모양을 이루고 있고, 짧은 목은 2줄의 돌대로 구분하였으며, 구연부는 수평으로 약간 밖으로 벌어진다. 몸통가운데에도 3줄의 돌대를 돌리고 몸통전체에 타날문을 시문하였다.
- 3)기대는 몸통의 아래 부분이 서서히 벌어져 안정되고 그 위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위에서 단경호를 받치는 부분에서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몸통전체를 돌대로 9등분하여 밀집파상문대를 시문하고 사이사이에 직사각형 투창을 배치하였는데, 이대 3단에는 반월창형 투창을 배치하였다. 몸통의 중간에 길이 7.2cm의 1마리의 사실적 거북이 토우를 붙여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 4)유물의 규모는 단경호는 높이 26.6cm, 구경 18.6cm. 동최대경 26.6cm이며, 기대는 높이 48.7cm, 구경 24.5cm, 저경 34.5cm이며, 거북이 토우는 길이 7.2cm, 몸통너비 3.1cm이다.
- 5)이 원통형기대 및 단경호는 출토지와 부장상황이 명확하고 형태와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우며, 세트로서의 중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동래 복천동 11호분 출토 원통모양 그릇받침과 항아리(圓筒形 器臺 및 短頸壺)는 가야 시대 고분에서 보기 드물게 거의 완전한 상태로 일괄 출토된 가야 시대의 장송 의례 용 토기이다. 복천동 11호분은 5세기 경의 부산에 있었던 가야 세력의 수장급 인물의 무덤으로, 발굴 당시 인근의 10호분과 함께 주곽과 부곽을 이루는 대형 고분임이 밝혀졌다. 또한 11호분은 가야 고분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된 중요한 고분이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여러 토기들 중에서도 보존 상태와 조형성이 뛰어나 이 토기 세트는 다른 가야 지역 토기들과는 달리 원통형 기대의 표면에 거북이 모양이 장식적으로 붙어 있는 토우부 토기로서 주목된다. 거북이의 조형성 뿐만 아니라, 안정된 조형 감각과 세련된 문양 표현 등으로 볼 때,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라고 볼 수 있는 이 토기 세트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부산 복천동고분군의 대형 무덤에는 목이 짧은 항아리와 원통 모양의 항아리받침대는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무덤의 주인공 머리맡 또는 부장품을 넣은 부곽에서 출토되었다. 항아리가 놓인 원통모양 항아리받침대는 무덤에 묻힌 주인공을 위해 특별히 넣은 공헌용 토기이다. 지금까지 복천동고분군의 무덤에서 원통모양의 항아리받침대는 주로 규모가 가장 큰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에서 1점 또는 2~4점정도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은 1점이다. 고배·항아리·바리모양 항아리받침대 등의 토기류는 크고 작은 개별 무덤에서 수 점에서 수십점 이상 출토되지만, 원통모양항아리받침대는 가장 큰 무덤들에서 대부분 1점이 출토되어 가장 중요한 토기 공헌품이었음을 나타낸다. 복천동 11호 무덤 출토 항아리와 항아리받침대는 복천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항아리와 항아리받침대 중에서 형태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부장 당시의 모습을 유지한 상태로 확인된 희소한 사례이다. 또한 원통모양 항아리받침대가 5세기 초의 형태에서 5세기 후반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이는 등 원통모양항아리받침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백제·신라·가야 등 삼국시대의 항아리그릇받침대에 거북이 모양의 토우가 장식된 사례는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항아리받침대가 유일하다. 거북이모양의 토우에 대해서는 김수로왕의 탄강신화의 구지가에 등장하는 거북이를 표현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제된 항아리받침

대에 매우 사실적인 거북이 모양 토우를 부착하여 예술성을 배가하였다.

항아리와 항아리받침대는 파손이나 결실이 전혀 없이 사용 당시의 모습을 완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아가리 끝에서 다리 아래까지 여러 종류의 무늬가 새겨져 있어 장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작품으로 삼국시대는 물론 우리나라의 토도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파손된 조각을 접합하여 복원한 복천동 32호 무덤 출토 원통모양항아리받침대는 각부(다리) 위단에 개·말·멧돼지 모양의 토우를 붙여 장식하여 작품성이 뛰어나지만, 위에 항아리가 놓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또 어떤 형태의 항아리가 놓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보물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형 식

		
항아리 받침과 항아리	높은 받침대[器臺]	목이 짧은 항아리[短頸壺]

이 토기는 부산 복천동 11호분의 주곽 서남부에서 완벽한 형태로 출토된 일괄품으로, 높고 긴 발(鉢)형 그릇받침[器臺]과 짧은 목 항아리[短頸壺]로 구성되어 있다. 기대는 위쪽 구연부는 2단의 발형이고 아래쪽 굽 부분은 3단으로 치마처럼 벌어지고 중간의 몸체 부분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6단으로 구분되는 형태인데, 몸통 중앙의 아래쪽부터 6번째 단에 1마리의 거북이 부착되어 있다. 기대는 아래쪽부터 몸통 전체를 2-3줄의 돌기대로 구획하였다. 맨 아래쪽 3단에는 반원형(半圓形) 투창이, 그 위 3단에는 길쭉한 직사각형의 투창이, 맨 위 2단에는 짧은 직사각형의 투창이, 맨 위 1단에는 X자형 투창이 뚫려 있고, 사발형으로 벌어진 구연부는 2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항아리의 형태는 바닥에 굽 받침이 없이 둥그스름하고 몸통 전체가 둥근 공 모양이며, 구연부는 2단의 돌대로 구획되어 목이 낮고 구형 몸체는 음각선으로 3단 구획되어 있다. 기대에 문양대를 구획한 곳에는 이빨의 개수가 다른 문양새기개로 물레를 돌리며 침선(針線)을 긋는 빗살점열문(櫛描点列文)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대와 항아리는 둘다 전체적인 형태가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투창과 문양을 새겨 넣어 장식성도 강하다.

○ 조성연대 : 5세기

○ 출토 현황

1980년 10월 23일부터 1981년 2월 15일까지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복천동 고분군에 대한 제1차 발굴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복천동 10호분과 11호분은 원래 하나의 고분으로서 주곽인 11호분과 부곽인 10호분이 한데 연결된 대형 무덤이었다. 이중 복천동 11호분은 수혈식 석실분으로서 주곽(主槨)이었고, 복천동 10호분은 토광 목곽분이었는데 11호분의 부곽(副槨)에 해당되었다. 특히 복천동 11호분은 발굴 당시 도굴되지 않은 상태여서, 5세기경 가야 문화 연구에 매우 귀중한 고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천동 유적



북천동 11호 무덤 내부

이 토기는 북천동 11호분은 석실 안쪽의 남서부 벽에 기대어 출토된 5세기 가야 시대의 전형적인 토기이다. 매우 높은 기대 위에 목이 낮은 항아리가 올려 놓인 상태 그대로 하나도 깨진 곳이 없어 원형대로 출토된 보기 드문 예이다.



북천동 11호 무덤 내부에서 토기 일괄품이 원형대로 발굴된 상태

가야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기대와 단경호로 구성된 토기 중에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보존 상태가 매우 좋으며, 조형적으로도 뛰어나다.

○ 내용 및 특징

북천동 11호분 출토 토기 일괄은 1점의 원통형 기대 위에 밑이 둥근 원저 단경호 1점, 총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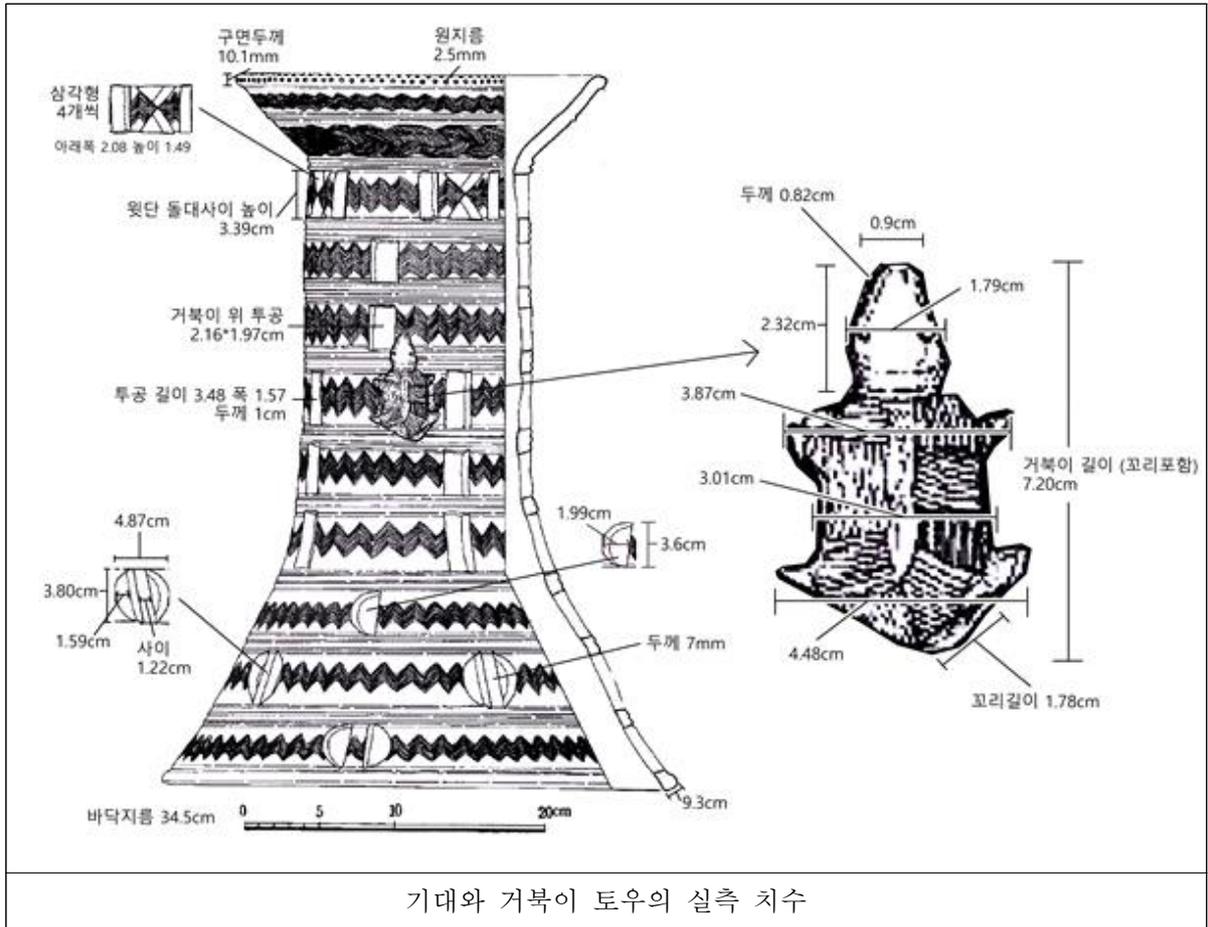
1) 원통형 기대

기대는 치밀질의 흙을 고온에서 구워 단단해진 토기 위에 자연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기대의 전체 높이는 48.7cm로 매우 높고, 전체적으로 위아래 부분은 나팔처럼 벌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수직으로 올라간 형태이다.

이 그릇받침은 아래쪽부터 몸통 전체를 11등분으로 되어 있다. 항아리를 놓아두는 위쪽 구연부는 2단의 발(鉢)처럼 생긴 부분과 이것을 떠받치는 길이가 길고 높은 받침[臺脚]은 6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가장 아래쪽 굽 부분은 3단으로 치마처럼 벌어져 있다. 구연부의 입지름은 24.5cm이고 구면의 두께는 1.01cm이고, 밑지름은 34.5cm이며 두께는 0.93cm이다.

몸체의 중간 6단쪽에 1마리의 거북이 부착되어 있다. 거북이의 전체 길이는 꼬리를 포함하여 7.20cm이고, 앞머리는 0.9cm, 머리의 길이는 2.32cm, 머리의 가장 넓은 면은 1.79cm, 머리의 두께는 0.82cm이다. 거북 앞발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는 3.87cm, 거북의 몸통 부분은 3.01cm, 뒷발은 왼발부터 오른발까지 4.48cm, 꼬리길이는 1.78cm이다.

기대는 각각마다 3줄의 돌기대로 구획하고 있다. 맨 아래쪽 굽 부분은 3단까지 반달형[半月形]의 투창이 뚫려있다. 돌기대와 돌기대 사이의 빈 면에는 물레를 칠 때 끝이 뾰족한 빗치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상단에는 음각의 거치문대를 1줄 시문하고, 하단에는 긴 머리를 뿜은 것처럼 보이는 꼬은 밑집선문대를 장식했다. 도구로 음각의 거치문대를 돌아가면서 시문했다.



그 위 3단에는 길쭉한 직사각형의 투창이, 맨 위 2단에는 짧은 직사각형의 투창이, 맨 위 1단에는 X자형 투창이 뚫려 있고, 사발형으로 벌어진 구연부는 2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윗부분과 아래부분은 나팔형으로 벌어졌고 그 사이는 원통 모양이다. 그릇 전체 외면에는 진한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이 유약은 보통 자연유로 알려져 있다. 기면 전체는 굵은 돌대로 11개의 횡대로 구획을 했으며, 각 면마다 장방형, 혹은 반월형의 투창이 뚫려 있다. 아래쪽의 3개 구획은 반월형 투창이, 그 윗부분은 장방형 투창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 원통형의 맨 윗부분은 삼각형 투창과 장방형 투창이 규칙적으로 교대하며 배열되어 있다. 돌대와 돌대 사이의 횡대 부분 전체에는 14치 문양 새기개를 사용해서 상하 지그재그무늬를 조밀하게 그리면서 14줄의 침선무늬를 돌려 음각으로 새기고 있다. 아래쪽에서 2단째의 반월형의 크기는 가로 4.87cm, 세로 3.80cm, 좌우에 뚫린 투각 1.59cm, 가운데 막힌 부분 1.22cm, 두께 0.7cm이다. 3단째의 반월형은 가로 1.99cm, 세로 3.6cm이다. 그릇의 표면 전체에 자연스럽게 유약이 묻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번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대의 아래 부분을 비롯한 굽받침의 표면 일부에는 유약이 흘러내려 묻쳐져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다.



6단으로 이뤄진 원통 부분은 대체로 수직으로 되어 있다. 아래쪽부터 4단, 5단, 6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길이 3.48cm, 폭 1.57cm, 두께 1cm의 길쭉한 직사각형의 투공이 일렬로 뚫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아래 굽바닥 부분과 마찬가지로 돌대와 돌대 사이의 횡대 부분 전체에는 14치[齒] 문양 새기개를 사용해서 상하 지그재그형 14줄의 침선무늬로 음각으로 새기고 있다. 이때의 지그재그 무늬는 조밀한 굽바닥의 것보다는 조금 널찍널찍 새기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아래에서 6단째에 해당되는 원통형 기대의 중앙에는 거북형 토우 한 마리가 위쪽을 향해 네발을 벌리고 올라가는 자세로 조형화되어 있다. 꼬리를 포함한 거북이의 전체 길이는 7.2cm이며, 앞다리와 앞다리 사이 폭은 3.87cm, 뒷다리와 뒷다리 사이의 폭은 4.48cm이다. 몸의 가로 폭은 3cm이다.

거북이는 머리를 위로 뺏뺏하게 들고 앞발과 뒷발을 좌우로 각각 벌리고 있다. 거북의 얼굴은 뾰족한 편이며 두 눈은 음각으로 원형을 꼭 질러 표현하였다. 거북의 등은 마치 가마니 문양처럼 10여줄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엇갈려 반복하여 등껍질을 문양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거북의 꼬리는 오른쪽 등쪽으로 붙어 있다. 거북의 형태나 모습은 단순하게 소박한 편이다. 가야시대에 형상을 묘사한 토우가 드물기 때문에 거북이 형태를 별도로 만들어 기대를 부착시킨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례이다.



기대의 중간 투창과 침선무늬

기대 중간에 부착한 거북

거북 토우의 모습

수직 기대의 위쪽 부분은 가로 1.97cm, 세로 2.16cm의 비교적 짧고 넓은 직사각형 투창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맨 위 1단에는 1자형과 X자형 투창이 사방에 총4개가 뚫려 있다. 그 크기는 아래쪽은 2.08cm, 높이는 1.49cm이다.

한편 항아리를 올려야 하는 사발형 구연부는 돌기대에 의해 2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는 투창은 뚫려있지 않다. 다만 사발의 하단은 물레를 돌릴 때 8치[齒] 문양 새기개를 사용해서 'S'자형의 타래무늬를 음각으로 새기고 있다. 사발의 상단은 물레를 돌리면서 14치[齒] 문양새기개를 활용해서 침선무늬를 음각으로 새기고 있다. 기대의 구연부에는 상하 2단으로 연주문에 해당되는 원점문(圓點紋)을 지름 0.25cm 크기로 꼭꼭 눌러 장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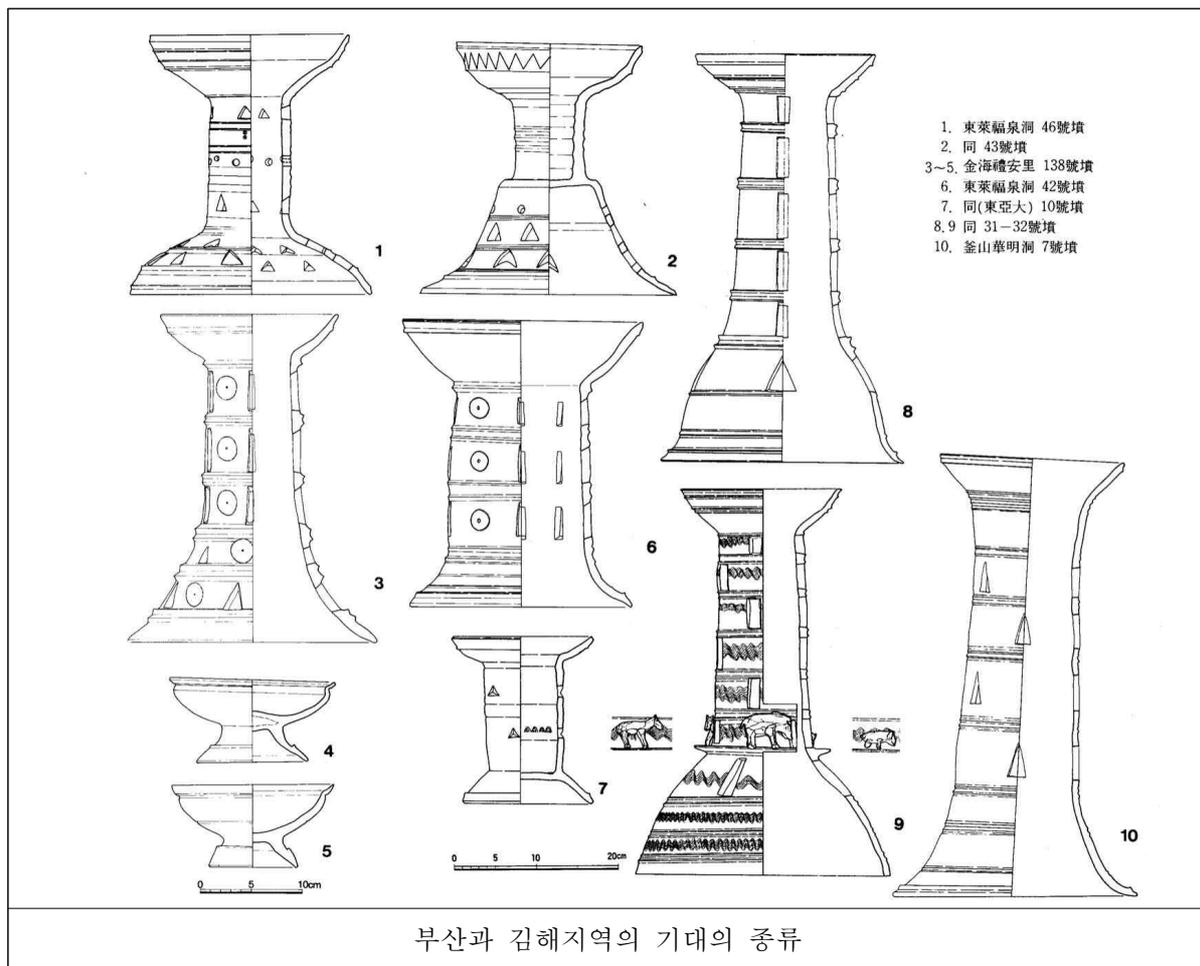


기대의 사발형 상하단의 침선무늬와 타래문양

기대의 구연부에 상하 2단의 원점 연주문

이 원형 토기 기대를 그릇의 하부에서 보면, 통형으로 상하가 뺨 뚫려 있다. 무엇보다도 높이가 높고 규모가 큰 기대임에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례감이 좋고

형태가 안정감이 있고, 투창의 배치나 지그재그의 침선문양 또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세밀하게 표현된 것도 특징이다.



부산과 김해지역의 기대의 종류

이 기대와 같이 상하가 나팔처럼 벌어지고, 가운데 부분이 수직의 통형이며 전체가 9-12단으로 구획되는 형식은 부산 북천동 31호분이나 32호분 및 부산 화명동 7호분에서 출토된 원통형 기대들과 유사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천동 32호분에서 출토된 원통형 기대는 여러 모로 공통된다. 후자는 돌기대에 의해 나팔형 굽바닥을 3단으로 구획하고, 그 위로 수직 통형은 6단으로 구획하고 길쭉한 직사각형 투창을 뚫었고, 나팔형 구연부를 2단으로 구획하고 있다. 구획된 각 면에는 지그재그형 침선무늬를 음각으로 새겼으며, 개, 말, 멧돼지와 같은 3점의 토우를 배치하고 있어 여러 면에서 형식과 양식이 일치한다. 다만 북천동 32호분의 것은 기대만 출토되었을 뿐 향아리의 존재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유물과 차이가 있다.

2) 향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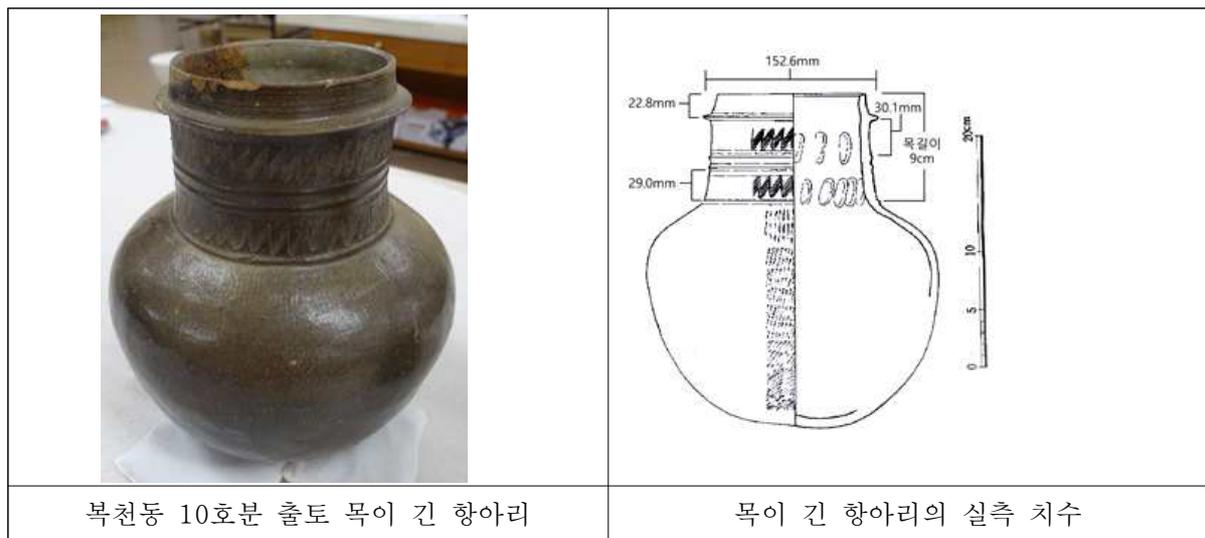
발굴 당시 기대 위에는 둥근 공형태의 토기 향아리가 놓여 있었다. 향아리의 전체

높이는 30.4cm이다. 몸체는 26.6cm, 목 부분은 짧은 편으로서 3.8cm, 가장 배부른 부분이 28.5cm이다. 항아리는 굽이 없으며, 대신 바닥부분에는 짚으로 깐 자리를 놓고 안팎으로 두드려서 성형을 했기 때문인지 짚자리문[繩蓆文]이 선명하게 장식되어 있다. 어깨에는 무늬가 없지만, 그보다 낮은 위치에 2단을 음각으로 구획하였으며, 상단은 높이 3.25cm, 하단은 높이 2.29cm이다. 구연부의 입지름은 대략 18.6-18.0cm이고, 구연부의 두께는 0.61cm이다.

한편 항아리의 바닥에 가까운 아래쪽에 지름 2.14-24.8cm 정도로 동그랗게 유약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다.

○ 기 타

그동안 복천동 11호분 출토 거북문 원통형 기대는 복천동 10호분에서 출토된 장경호와 한 세트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2019년 1차 조사 때에 원래의 복천동 11호분 거북 기대와 목이 낮은 항아리가 아닌, 복천동 11호분 거북 기대 위에 복천동 10호분 출토 장경호를 조사하였다. 이 항아리는 높이 29cm, 입지름 12.9cm, 동체 지름 25.4cm의 크기이며, 구연 두께는 5.6mm이다. 구연부 아래쪽의 전 부분의 최대 지름은 15.26cm이며, 목 길이는 9cm이다.



이 장경호는 다른 고분에서 출토되어 기대와 한 짝이 아니며, 표면에 유약이 매끈하게 시유되어 있어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제1차 조사(2019.5.3.) 때 기대와 장경호를 한 세트로 지정 조사했으나, 보고서에 의해 두 작품이 출토 당시의 원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래의 단경호를 제2차 조사(2019.6.3.)를 통해 원래대로 기대 위에 목이 짧은 항아리를 찾아 조사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鄭澄元 · 申敬澈, 1982, 『東萊福泉洞 古墳群 I』 圖面·圖版, 釜山: 釜山大學校博物館,
鄭澄元 · 申敬澈, 1983, 『東萊福泉洞 古墳群 I』 本文, 釜山: 釜山大學校博物館.
안춘배, 「伽倻土器와 그 領域의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 내용 및 특징

부산 북천동11호분(주곽)에서 출토된 이 토기는 몸통에 거북이 붙어있는 기대 위에 단경호를 올려놓은 세트토기이다. 단경호는 몸통이 거의 공모양을 이루고 있고, 짧은 목은 2줄의 돌대로 구분하고 구연부는 수평으로 약간 밖으로 벌어진다. 기대는 몸통의 아래 부분이 서서히 벌어져 안정되고 그 위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위에서 단경호를 받치는 부분에서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몸통전체를 돌대로 9등분하여 밑집과상문대를 시문하고 사이사이에 직사각형 투창을 배치하였는데, 아래 3단에는 반월창형 투창을 배치하였다. 몸통의 중간에 1마리의 거북이를 붙여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 문헌자료

鄭澄元 · 申敬澈, 1983, 『東萊 福泉洞古墳群 I』 釜山大學校博物館.

□

○ 현 상

부산시 동래구 북천동 11호분 석실 안쪽 남서부에 출토된 한 세트의 토기로서, 가야시대의 전형적인 토기이다. 기대와 향아리가 함께 놓여진 상태로 출토된 보기 드문 예로서(도 1), 보존상태가 좋고, 뛰어난 조형적 감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기대는 소성 및 문양 표현이 좋은 편이지만, 향아리는 태토가 정선되지 못하여 일부 표면이 부풀어 오른 곳이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도 1. 북천동 11호분석실 내부서남부 유물 출토 상태.

○ 내용 및 특징



도 2. 원통형기대와 단경원저호.



도 3. 기대의 거북이 토우 장식.

몸통 아래 부분이 둥그스름한 원저단경호와 원통형기대의 일괄품이다(도 2).

원통형 기대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토기로, 윗부분과 아래부분은 나팔형으로 벌어졌고 그 사이는 원통 모양이다. 그릇 전체 외면에는 진한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이 유약은 보통 자연유로 알려져 있다. 기면 전체는 굵은 돌대로 11개의 횡대로 구획을 했으며, 각 면마다 장방형, 혹은 반원형의 투창이 뚫려 있다. 아래쪽의 3개 구획은 반원형 투창이, 그 윗부분은 장방형 투창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 원통형의 맨 윗부분은 삼각형 투창과 장방형 투창이 규칙적으로 교대하며 배열되어 있다. 돌대와 돌대 사이의 횡대 부분 전체에는 빗같은 도구로 음각의 거치문대를 돌아가면서 시문했다.

아래에서부터 6번째 구획 부분에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위로 올라가는 자세로 조형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도 3). 꼬리를 포함한 거북이의 전체 길이는 7.2cm이며, 앞다리와 앞다리 사이 폭은 3.87cm, 뒷다리와 뒷다리 사이의 폭은 4.48cm이다. 몸의 가로 폭은 3cm이다. 눈이 음각으로 표현되었고, 등 부분에는 방향을 달리하는 빗금으로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가야시대에



도 4. 기대 구연부 음각원문대 세부.



도 5. 기대 구연부 하부 문양대.

는 형상을 표현한 토기나 토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거북이 형태를 조형하여 기대를 장식한 것은 매우 드문 예로서 주목된다.

기대 윗부분의 나팔형 구연부에는 지름 2.5mm 크기의 작은 원들이 돌아가면서 음각기법으로 2줄 장식되어 있다(도 4). 그 아래쪽에는 빗치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상단에는 음각의 거치문대를 1줄 시문하고, 하단에는 긴 머리를 뿜은 것처럼 보이는 꼬은 밀집선문대를 장식했다(도 5).

그릇 하부에서 보면, 그릇 전체에 수리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가야 토기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완벽한 상태로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6). 전체적인 비례 감각이 좋으며 안정감 있는 형태감을 보여준다. 문양은 세밀하게 표현되었고 소성 상태도 뛰어난 편이다.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소성되었는지, 기대의 아래 부분을 비롯하여 표면 일부에는 유약이 흘러내려 멍쳐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도 7).

발굴 당시 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원저단경호는 상당히 크고 안정감 있는 형태가 상당히 뛰어나다(도 8). 동체 중앙부에 음각선을 돌려서 폭 3.25cm와 폭 2.29cm의 2단의 횡대를 중앙부에 마련하고, 각 횡대 부분과 그 아래 동체부 전체에 타날문을 시문했다. 목은 매우 짧고, 구연부가 바로 나팔형으로 넓게 벌어진다. 나팔형의 구연부와 목 부분에는 돌아가며 양각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동체 여러 곳에 기포가 불룩하게 솟아올라온 부분이 많은데, 이는 태토가 충분히 정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에서 소성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동체 하부중 한 곳에서는 기포위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사방 2-2.5cm 내외의 타원형으로 정선되지 않은 태토가 보이는 곳이 있다(도 9).



도 6. 원통형 기대 내부.



도 7. 원통형 기대 하부 세부.



도 8. 원저단경호.



도 9. 원저단경호 중 세부.

이 항아리와 원통형 기대는 출토 당시부터 한 세트를 이루었던 의례용 토기이다. 가야 고분에서는 이렇게 토기가 세트를 이룬 상태로 완전하게 보존된 예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일괄품 토기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기대와 항아리의 형태 조화가 매우 훌륭하고 안정적이며, 기대 부분에 위로 올라가는 거북이 한 마리를 조형화한 점도 매우 세련된 양식을 보여준다. 이 항아리와 원통형 기대 세트는 5세기 가야인들의 뛰어난 조형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동안 이 원통형 기대 위에는 북천동 10호분에서 출토된 장경호가 올려진 상태로 소개되어 장경호와 한 세트라고 알려져 있었다(도 10).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장경호는 다른 곳에서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면에 유약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소성 상태도 기대와 완전히 다르다. 제 1차 조사에서는 이 장경호와 기대가 한 세트로 지정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조사했으나, 두 작품의 조형성이 서로 맞지 않고 출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조합임이 확인되어 원래의 단경호를 찾아 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 10. 장경호와 기대.



도 11. 복천동 10호분 출토 장경호.

1차 조사에서 조사된 장경호는 높이 29cm, 입지름 12.9cm, 동체 지름 25.4cm의 크기이며, 구연 두께는 5.6mm이다. 구연부 아래쪽의 전 부분의 최대 지름은 15.26cm이며, 목 길이는 9cm이다(도 11).

복천동 10호분과 11호분은 1980년 10월 23일부터 1981년 2월 15일까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했으며, 발굴보고서는 1982년과 1983년에 걸쳐 2권으로 간행되었다.¹⁾ 발굴조사 결과, 10호분과 11호분은 원래 하나의 고분으로, 11호분이 주곽, 10호분이 부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호분은 발굴 당시 도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5세기경 가야 문화 연구에 매우 귀중한 고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1) 鄭澄元·申敬澈, 1982, 『東萊福泉洞 古墳群 I』 圖面·圖版, 釜山: 釜山大學校博物館; 鄭澄元·申敬澈, 1983, 『東萊福泉洞 古墳群 I』 本文, 釜山: 釜山大學校博物館.



○ 현 상

<항아리>

소성상태가 매우 좋은 도질(경질)제로 파손이나 결실 등이 전혀 없는 완전한 형태이다. 몸통 표면 일부에 기포가 있어 표면에 요철면이 있고, 성형 시 표면을 두드린 자국이 남아 있다.

<항아리받침대>

소성상태가 매우 좋은 도질(경질)제로 파손이나 결실 등이 전혀 없는 완전한 형태이다. 수부·통부·각부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고, 몸통 바깥면 중앙부에 1마리의 거북이모양토우가 붙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 항아리는 아가리와 몸통으로 이루어졌다. 아가리는 밖으로 벌어졌고, 아가리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경사진 면을 이루고, 끝이 뾰족하다. 목 중간에 1줄의 돌대를 돌려 목을 위아래의 2단으로 구분하였다. 무늬는 없다.

몸통은 둥글고, 바깥면 전체에 평행선무늬가 타날되어 있다. 평행선무늬는 몸통 위 부위는 세로이고, 아래 부위는 비스듬하고, 바닥에는 무질서하다. 중간과 윗부분에 일정간격으로 3곳에 1줄의 침선을 돌려 4부위로 구분하였다. 평행선무늬를 두드린 후 황으로 선을 그었다.

- 항아리받침대는 일정 간격으로 돌대를 돌려 11단으로 구분하였다. 수부에서 발부까지 내부가 통으로 되었다. 항아리가 놓이는 수부는 반구형을 이루고, 돌대에 의해 2단으로 구분되었다. 아가리 끝은 도톰하고 바깥면에 단면 형태가 둥근모양인 무늬새기개로 위아래가 엇갈리도록 눌러 찍어 2줄의 연속원문을 새겼다. 아가리 두께는 10.1mm이다. 그 아래에는 10치 내외의 물결무늬를 새겼다. 그 아래에는 단면 삼각형의 돌대를 1줄 돌리고, 아래 단에는 12치의 새끼줄(絡繩)무늬를 새겼다.



사진 1. 복천동 11호 무덤 출토 향아리와 향아리받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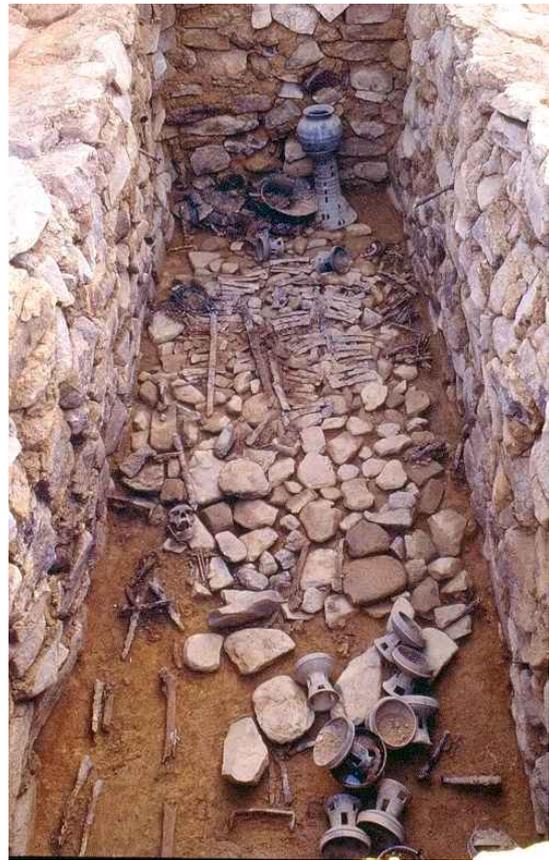


사진 2. 복천동 11호 무덤 내부 모습

수부와 통부의 경계에는 단면 삼각형의 돌대 2줄을 돌렸다. 통부는 일정 간격으로 3줄의 돌대를 돌려 4단으로 구분하고, 4단 아래는 2줄의 돌대를 돌려 다시 구분하여 통부를 모두 5단위로 구분하였다. 통부의 5개 단에는 12~14치의 섬세한 무결무늬를 새겼다. 통부의 최상단에는 세로로 대칭인 삼각형의 투공 양측에 세로로 긴 장방형의 투창을 1단위로 배치하였다.

세장방형의 투창은 아래 너비가 2.08cm이고, 높이는 1.49cm이다. 2단부터 5단에는 세로로 긴 장방형 투창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위로부터 아래로 4단에 배치된 투공의 크기는 높이 3.48cm, 너비 1.57cm이다. 위로부터 4단에는 1마리의 거북이모양 토우가 부착되었다. 거북이 토우는 머리가 위쪽으로 향해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다. 거북이 길이는 7.2cm이고, 몸통 너비는 3.01cm이다.

머리와 몸통, 꼬리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입·주둥이·목은 마름모꼴을 이루는데, 입이 튀어나왔고, 중앙부 양쪽에 속이 빈 둥근 도구로 눌러 눈을 표현하였다. 입·주둥이·목의 전체 길이는 2.32cm이고, 머리 최대 너비는 0.9cm, 아가리 너비 0.9cm, 두께 0.82cm이다. 몸통은 전체 형태가 5각형이고, 중앙부에 길이방향으로 면을 만들고, 사방 가장자리로 경사진 8면에 선을 그어 등껍질을 표현하였다. 앞쪽과

뒤쪽 두 곳을 튀어나오게 하여 다리를 표현하였다. 앞 다리와 뒷다리 사이의 거리는 3.87cm이고, 양 뒷다리 사이의 간격은 4.48cm이다.

몸통과 다리부 경계에는 2줄의 돌대를 돌렸다. 다리부는 일정간격으로 각각 2줄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1단에는 세로로 긴 반원형의 투창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투창 크기는 높이 3.63cm이고, 너비는 1.99cm이다. 중간단과 아래단은 좌우로 세로로 긴 반원형의 투창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였다. 투창의 크기는 높이 3.8cm, 너비 1.59cm이고, 투창 사이의 너비는 1.22cm이다. 다리 끝부분의 단면은 두툼하다. 몸통 아래쪽 중앙부에는 오른쪽으로 꺾인 꼬리가 표현되었다. 꼬리 길이는 1.78cm이다. 무늬를 새긴 후 투창을 뚫어 배치하였다.

전체적인 색상은 어두운 회색 또는 회흑색이고, 수부와 통부 표면의 꽤 넓은 범위와 각부 부근의 표면 일부에 옅은 흑녹색의 자연유가 덮고 있다.

항아리와 원통모양항아리받침대가 출토한 11호 무덤은 복천동고분군이 조성된 구릉 정상부에서 북동쪽으로 경사진 곳에 위치한다. 11호 무덤은 주인공이 묻힌 주곽이고, 북쪽에 별도의 구덩이를 파고 목곽을 설치한 후 부장품을 넣은 부곽이 배치된 구조이다. 주곽은 지하에 돌을 쌓아 만든 석곽이 있고, 커다란 4매의 뚜껑 돌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은 구조이다.

석곽 바닥에는 사람 주먹크기만한 넷돌이 남쪽과 북쪽 일부분을 제외한 공간에 깔렸고, 그 위에는 수십 매의 덩이쇠가 깔렸고, 칼끝이 북쪽으로 향해 3자루의 고리자루큰칼이 놓여 있고, 그 남측에 금동관이 놓여 있었다. 고리자루큰칼의 머리부위 방향인 남쪽의 짧은 벽 가까이에 항아리가 놓인 원통모양항아리받침대가 놓여 있고, 그 남측에 목가리개와 비늘갑옷이 놓여 있었다. 부곽에는 수백여점의 토기와 판갑과 말안장, 말 투구 등이 출토되었다. 항아리와 원통모양항아리받침대가 출토된 복천동 10-11호 무덤은 주곽과 부곽으로 이루어진 큰 무덤일 뿐만 아니라 권위를 상징하는 금동관과 고리자루큰칼 3점과 목가리개와 찰갑, 판갑, 말안장과 말 투구 등이 출토되어 삼국시대 부산지역의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鄭澄元·申敬澈 1982, 『東萊福泉洞古墳群』 I, 釜山大學校博物館

○ 기 타

1980년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1차 조사의 11호 무덤에서 출토한 국가귀속문화재임.

3.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像 一括)

가. 심의사항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7.12.29.) 관계 전문가 조사(’19.10.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7차 회의(’19.1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9.12.31~’20.1.31.)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0호(1983.9.29. 지정)
- 명 칭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불교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4구
- 규 격
 - 보살좌상 : 높이 35cm, 무릎 폭 19.35cm, 무릎 높이 5.44cm, 측면 폭 15.2cm
 - 아미타상 : 높이 33.6cm, 무릎 폭 22.5cm, 무릎 높이 7.17cm, 측면 폭 22.5cm
 - 관음보살 : 높이 25.9cm, 무릎 폭 25.9cm, 무릎 높이 7.6cm, 측면 폭 16.4cm
 - 지장보살 : 높이 25.1cm, 무릎 폭 18.3cm, 무릎 높이 5.5cm, 측면 폭 16.3cm
- 재 질 : 금동

- 형 식 : 보살좌상, 아미타여래삼존
- 조성연대 : 고려시대(보살좌상), 조선 초기(아미타여래삼존)



그림 51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 정확한 발견 장소

관련 문헌 사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발견 장소가 명확하여 한국불교조각 연구의 중요한 시각 자료이다.

2. 고려-조선 초기의 탑 안에 불·보살상 봉안 의례의 대표 사례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3구)과 금동보살좌상(1구)은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의 1층과 2층 탑신에 봉안되었던 것이다. 조선 전기에 탑 안에 불상을 봉안하는 의례가 특별히 유행하였음을 알려주는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3. 유례가 많지 않은 고려-조선 초의 금동불상

금동보살좌상은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초기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 금동불·보살상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

4.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수준의 제작 솜씨

위에서 언급한대로 무량사 오층석탑 탑신에서 발견된 보살좌상과 삼존불은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여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 비록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상 일괄은 조성 배경을 알려 줄만한 기록과 명문이 없으나 조선시대 초기에 불탑 속에 봉안되던 불상들이라는 점에서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2. 금동불상 일괄은 금동아미타불좌상과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이 한 세트를 이루며, 금동보살좌상은 따로 조성된 것으로, 금동아미타불삼존상과 금동보살좌상은 조형적인 특징을 통하여 각각 조선시대 초기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어 이 시기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금동불상과 보살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3. 복장 유물이 남아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 초기에 유행했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한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협시하는 도상 구성을 보여 주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정토 신앙 형태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주목됨.
4.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상 일괄이 불탑 속의 불상 봉안 의식을 행하였던 조선시대 초기의 불교신앙 형태를 알려준다는 점과 금동아미타불삼존상이 조선시대 초기의 아미타정토신앙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는 점, 이들 불상과 보살상이 조형적으로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지정 가치 있음)

-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고려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명대 티베트양식이 혼합된 15세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삼존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출토지가 명확한 작품이며, 작품의 예술성도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금동보살좌상은 다소 훼손되어 있지만,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보이는 작품이며, 위의 아미타삼존상과 함께 출토되었으므로 일괄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탑 내 불상을 봉안했던 사례는 군수리 목탑(백제), 경주 구황동 황복사지 삼층석탑(8세기 초)을 비롯하여,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고려 초),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고려), 금산사 오층석탑(고려), 수종사 오층석탑(조선 초)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량사 오층석탑은 중량감 넘치는 형태미를 자랑하는 고려 전기에 제작된 석탑이다. 석탑의 해체과정에서 출토된 불상들은 고려 전기와 조선 초기에 제작된 상들로, 탑의 초창 및 중수 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불상 4구는 각각의 시대적 특징과 층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3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출토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많은 여백으로 남아 있는 고려 전·중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작품으로 평가된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아미타삼존상은 고려 말 조선 초 유행한 관음과 지장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 도상을 구성하는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이 삼존은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 탑내 불상 봉안 신앙 및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탑 봉안 아미타삼존불상 중에서 구성이 완전하고, 규모도 크고 상태도 양호하다.

탑에서 출토된 사리기 일체와 일괄로 조사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이들이 도난 후 다시 되찾은 문화재라는 점도 역사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4구의 불상 자체만으로도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무량사(無量寺) 오층석탑에 봉안됐던 금동보살좌상(1구)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은 1971년 8월 오층석탑 해체 수리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발견된 불·보살상 가운데 대표 불·보살상인 4구가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 대상이다. 1구는 고려시대의 금동보살좌상이며, 3구는 조선 초기의 금동아미타여래불좌상이다. 금동아미타여래불좌상의 좌협시는 관세음보살상, 우협시는 지장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2> 무량사 오층석탑, 보물 제185호

1) 무량사 오층석탑 1층 탑신과 2층 탑신 봉안

1971년 8월, 무량사 오층석탑의 2층 탑신에서는 금동보살좌상이, 1층 탑신에서 금동아미타여래삼존불좌상이 발견되었다(도 2).²⁾ 1층 탑신의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별도의 장치없이 탑신 안에 봉안했으며. 광배와 대좌는 처음부터 없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삼존불이 각각 바라보는 방향을 달리했다는 점이다(도1 사진 왼쪽). 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앉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무량사 오층석탑처럼 탑신에 불상을 봉안한 사례는 통일기 신라부터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유행한 시기는 고려 후기-조선 전기이다. 이 시기에만 대략 10여건의 사례가 알려져 있는데,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품을 비롯하여 <심곡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감>, <남양주 수종사 봉안 금동불상군>(1492,1628년) <금산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보살좌상>(1492)이 있다. 무량사 오층석탑의 불상과 보살상은 탑 안에 봉안된 여러 사례 가운데 크기도 크고, 작품성도 뛰어나 일찍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도 1> 무량사 오층석탑 1층 탑신 발견 상태 (왼쪽), 발견 유물 일괄 (오른쪽), 1971년 8월 촬영

2) 출토지가 분명한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의 불·보살상

이처럼 무량사 오층석탑의 1층과 2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과 금동보살좌상은 출토지가 분명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한국 불교조각사 연구에서 귀중한 시각 자료이다.

3) 고려시대 금동보살좌상 : 유례가 드문 고려시대 금동보살상

금동보살좌상은 분실한 보관(寶冠)과 양 손, 파손된 뒷면 아랫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하다. 금동보살좌상은 주조 두께가 얇은데, 등 부분은 3.3mm, 바닥은 5.6-5.7mm이다. 이처럼 뒷면이 파손된 금동보살좌상을 2층 탑신에 봉안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도 3).

머리 위로 머리카락을 묶은 보계(寶髻)가 솟아 있고, 이목구비는 자그마하다.

2) 洪思俊, 「無量寺 五層石塔의 解體와 組立」, 『미술사학연구』 117, 한국미술사학회, 1973, p. 3.



<도 3> 금동보살좌상, 2층 탑신 발견

에는 직경 5.5mm의 백호공이 뚫려 있다.

보살상의 배 위에는 배를 가로지른 군(裙)의 윗 단이 있는데, 윗 단과 수직으로 띠 자락이 흘러내렸다. 군의를 묶은 띠가 매듭을 두 번 짓고 무릎 앞까지 흘러내린 모양은 드문 예이다. 머리, 등, 팔 등에 사각형의 주조흔이 남아있는데, 사각 구멍을 메운 부분도 있고, 구멍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도 있다. 다리에는 군데군데 도금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중앙으로 물려 있는 이목구비, 짧은 인중, 작은 입은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양 손은 잃었지만, 같은 재질의 금동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머리에서 내려 온 보살의 머리카락은 귀를 가로질러 어깨까지 드리워졌으며, 귀에는 꽃모양의 둥근 귀걸이가 있다. 좁은 이마

4)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양식 특징



<도 4>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1층 탑신 발견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3구는 모두 밀납을 이용한 중공식(中空式)으로 주조하여, 내부가 비어있다. 각 상의 주조 두께는 아미타불상은 6-10mm,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4-4.5mm의 두께로 불상에 비해 얇다. 중앙의 본존 아미타불상은 좌우 협시보살상에 비해 8cm 가량 앞은키가 크다. 내부에도 군데군데 도

금의 흔적이 남아있다. 3구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하고 있는데, 중앙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에 두었다. 좌우 협시보살은 서로 손을 대칭으로 들었다. 즉, 좌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상은 왼손을 위로 했으며, 우협시보살인 지장보살은 오른손을 위로 하여 대칭되게 하였다. 결가부좌한 다리 역시 좌우 협시보살상이 서로 대칭이어서, 관음보살은 왼발을 위에, 지장보살은 오른발을 위에 두었다. 3구 모두 손가락이 길고 뽀족하다. 3구 모두 통견(通肩) 형식의 동일한 가사를 걸쳤는데, 가슴을 가로지른 띠 매듭의 모양만 차이가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좌상은 전체적으로 도금 층이 잘 남아있으며, 직경 6.8mm의 수정 백호(白毫)는 깨어져 있다. 나발(螺髮)은 하나하나의 크기가 작으며, 중심 계주(髻珠)는 분실하여 현재 비어있다. 정수리의 정상계주가 특이하다. 정상계주는 소라모양으로 말려 있으며, 위로 뽀족하게 솟아 있어 특별한데, 이는 명나라 불상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양 가슴을 둥근 원으로 처리한 점도 특이하다.

좌협시보살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3개의 산(山)모양의 보관을 썼는데, 보관 중앙에 화불(化佛)이 선명하다. 가사 형식은 아미타불좌상과 동일하나, 목걸이와 영락 장식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머리에 쓴 보관은 함께 구조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백호 역시 따로 감입하지 않고 구조하면서 함께 만들었다. 좌우 무릎 위에는 4개 잎사귀로 구성된 꽃모양이 걸쳐져 있다. 이 꽃모양은 귀걸이, 목걸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살의 머리카락인 보발(寶髮)은 귀를 가로지른 후 세 가닥으로 나뉘어져 어깨 위를 덮었다.

우협시보살인 금동지장보살좌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 이외에는 좌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상과 좌우 대칭으로 표현했다. 머리에 쓴 두건은 양 어깨를 덮고 팔뚝까지 내려왔으며, 뒤에서 보면 두건의 끝단이 등에서 수평을 이룬다. 관세음보살좌상과 마찬가지로 귀걸이, 목걸이, 영락 장식의 꽃문양이 모두 같다.

3구는 얼굴 모습, 가사 형식, 손 모양이 동일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 작가가 3구를 함께 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본존 머리 위의 뽀족한 정상 계주, 가늘고 긴 손가락 등은 조선 초기 불상의 특징이어서 삼존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좌우협시보살좌상의 영락 장식이 양 무릎 위에 걸쳐지는 것도 조선 초기 보살좌상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탑 안에 불상은 봉안하는 의례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특별히 유행한 시기는 고려-조선 전기에 걸친 때이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 15세기에 집중적으로 유행했는데, 앞서 언급한 것대로 전북 김제 금산사 오층석탑 봉안 불상(1492년)이라든지, 같은 전북 익산 심곡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감과 금동 불상(15세기 추정), 경기도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상군(1493년과

1628년)을 꼽을 수 있다. 무량사 오층석탑 불·보살상도 이 시기에 기왕의 탑에 불·보살상을 추가 납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

○ 현 상

- 무량사(無量寺)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상 일괄은 1971년 8월부터 시행된 석탑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9점 중 4점임.
- 금동아미타불삼존상은 석탑의 3층 몸돌(탑신)에 봉안되어 있었으며, 금동보살좌상은 지대석과 기단부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금동아미타불좌상은 도금층이 남아 있으며, 입술에서는 붉은 채색의 흔적이 확인됨. 백호(白毫)는 수정같이 보이는 광물로 장식하였음. 머리 전면 좌측과 뒷면 일부에 나발(螺髮)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발견됨. 중앙 계주(髻珠)는 없어진 상태로, 흠만 확인됨. 머리와 상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모습임. 얼굴과 목 사이에 손상이 있으며, 목 뒤쪽 좌측에도 금이 가 있음.
-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에 금이 가 있으며,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오른쪽 발목 아래에 구멍이 나 있음. 두 보살상에서는 도금층과 일부 채색층이 확인됨..
- 금동보살좌상은 별도로 제작하여 씌웠거나 끼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보관(寶冠)과 양 손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며, 머리 양옆에서 흘러내린 관대(冠帶) 장식은 따로 만들어 부착함. 보살상의 뒷면은 아랫부분이 부러져 없어졌을 뿐만아니라 금이 나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음.

○ 내용 및 특징

1. 금동아미타불삼존상

(1) 금동아미타불좌상

- 불상은 통견(通肩) 방식으로 법의를 입고, 오른손은 들어 올리고 왼손은 다리 위에 내린 상태로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결한 채 가부좌하고 있음.
- 불상은 몸에 비해 머리가 약간 큰 듯하지만 안정된 비례를 갖추고 있음.
- 불상은 소라 형태의 정상 계주, 선명하게 구획된 가슴 표현, 끌어올려진 코 망울, 특징적인 귀 바퀴 등 갖추고 있어서 불신 각 부분이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음.
- 불상은 양감을 느낄 수 있는 손과 얇고 긴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시대 15세기의 특징을 갖추고 있음.
- 불상에 보이는 탑 형태를 이룬 정상계주와 육계, 두발은 티베트 불상을 참고로

하여 중국 명나라의 영락제(永樂帝)와 선덕제(宣德帝)가 조성한 영선(永宣) 불상의 형식과 유사함.

(2) 금동관음보살좌상

- 보살상은 아미타불상의 좌협시 보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보살상은 정면에 아미타불상의 화불(化佛)이 표현된 화관을 쓰고 있고, 통견 형식의 대의(大衣)를 입고 있음. 왼손은 들어 올리고 오른손은 무릎 위쪽에 내려뜨린 채 엄지와 중지를 맺어 설법인을 취함.
- 보살상은 아미타불상과 같이 몸에 비해 머리가 약간 큰 듯 하지만 안정된 비례를 갖추고 있음.
- 머리의 묶음(보계寶髻) 형태는 낮고 뒤로 젖혀진 모습이며, 머리 양옆의 보발(寶髮)은 귀를 가로 질러 어깨 위로 흘러내린 다음 다시 세 갈래로 나뉘어져 팔 위로 흘러 내리고 있음.
- 보살상은 부은 듯한 눈두덩, 살짝 튀어 나온 백호, 끌어올린 코 망울과 콧구멍이 표현된 코, 폭이 넓은 인중, 특징적인 귀 바퀴, 아미타불상과 같이 선명하게 표현된 가슴, 손금이 나 있는 양감 있는 손바닥과 가늘고 긴 손가락 등 사실적인 조형을 갖추고 있음.
- 보관은 전후좌우에 걸쳐 중앙이 솟아 오른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전면에는 화불과 함께 당초문인, 좌우면에는 당초문 만이 표현되었고, 후면에는 아무 문양이 표현되지 않음.
- 귀에는 +자로 음각된 원형의 귀걸이를 착용하였으며, 가슴에는 귀걸이와 같은 모습의 원형 장식이 있는 가슴걸이가, 팔에는 팔찌가 있음.
- 무릎 위까지 덮고 흘러내린 영락 장식은 장륙사(莊陸寺) 건칠보살좌상(1395년) 등 려말선초의 보살상부터 나타나는 특징임.

(3) 금동지장보살좌상

- 보살상은 아미타불상의 우협시 보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보살상은 아미타불상과 같이 몸에 비해 머리가 약간 큰 듯 하지만 안정된 비례를 갖추고 있음.
- 보살상은 두건을 착용하고 통견 방식으로 대의를 걸친 채 왼손은 들어 올리고 오른손은 무릎 위쪽에 내려뜨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 결하고서 가부좌하고 있음.
- 보살상이 착용한 두건은 이 상이 지장보살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각 진 모습의 두건은 어깨까지 감싸며 흘러내리고 있음.

- 보살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같이 살짝 튀어 나온 백호, 끌어올린 코 망울과 콧구멍이 표현된 코, 폭이 넓은 인중, 특징적인 귀 바퀴, 손금이 있는 양감 있는 손바닥과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갖추고 있음.
- 귀걸이와 가슴걸이 장식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형 속에 + 자 모양으로 단순하게 음각한 것보다 훨씬 섬세함. 정확하게 어떤 문양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국화문에 가까운 연꽃 문양일 가능성이 높음.
- 무릎 위까지 덮고 흘러내린 영락 장식은 장육사 건칠보살좌상(1395년) 등 려말 선초의 보살상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임.
- 보살상이 착용한 각진 모습의 두건은 조선시대 15세기 이후에 유행하기 시작함.

(4) 전체적인 특징

- 불상과 보살상들의 양쪽 발목 사이에 흘러내린 S자 형태의 법의 주름은 려말선초에 보이는 법의 표현 방식의 하나임.
-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좌상과 지장보살좌상이 협시하는 도상적인 구성과 불좌상을 중심으로 입상이 아닌 보살좌상이 협시하는 형식은 려말선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함.
- 금동아미타불삼존상이 지닌 이러한 도상적 구성과 형식, 조형적인 특징은 이들 존상이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임을 특징하게 함.
- 금동아미타불삼존상과 같이 불탑 속에 불상이 봉안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상 일괄과 같이 조성 연대를 달리하는 불상들이 함께 납입되는 것은 조선시대 15세기에 유행하였음.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金山寺) 오층석탑 봉안 불상들(1492년), 전라북도 익산 심곡사(深谷寺)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감과 금동불상들(15세기), 경기도 남양주 수종사(水鐘寺) 오층석탑 봉안 금동불상들(1493년, 1628년)은 대표적인 예임.

2. 금동보살좌상

- 보살상은 통견 방식으로 대의를 착용하고 오른손은 들어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둔 채 가부좌하고 있음.
- 보살상은 적당한 높이의 머리 묶음(보계), 장방형의 둥근 얼굴, 긴 상체, 적당한 폭과 높이의 무릎을 갖추고 있음.
- 보살상은 연주형 목걸이 장식과 화형 장식이 달린 가슴걸이, 무릎까지 흘러내린 영락 장식을 갖추고 있음. 화형 장식의 표현 형태는 고려시대 11세기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나타나는 특징임.
- 보살상의 복부 중앙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군의(裙衣)의 띠는 두 번의 매듭을 거쳐 두 갈래로 나뉘어 무릎 앞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보살상

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임.

- 보살상의 머리 뒷면 양쪽에 주조 흔적이 남아 있는데, 특히 안쪽에 보이는 선명한 주조 윤곽은 기존의 불상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임.

□

○ 현 상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의 1층 탑신석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과 3층(혹은 2층)탑신석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1구)의 4구임.
- 아미타삼존상은 고려의 전통양식을 주조로 하여 조선 초기 명대 티베트양식이 혼합된 조선 초기 불상 양식을 보여주고 있음.
- 보살좌상은 고려의 전통양식을 갖고 있음.

○ 내용 및 특징

- 주존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지장보살의 좌우 협시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오층석탑의 1층 탑신에서 발견되었다.
- 삼존상은 모두 고려 전통양식과 중국의 명대 티베트 양식이 혼합된 조선 초기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려 전통양식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명대 티베트 양식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 삼존은 모두 비례, 좌세, 수인, 복제가 동일하며 얼굴의 표현도 동일하여 처음부터 삼존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삼존의 주존을 중심으로 좌우의 협시상은 손·팔과 발·다리를 대칭으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배치하였다. 즉, 좌협시인 관음보살은 왼팔을 위로 들고 있고 우협시인 지장보살은 오른팔을 위로 들어 대칭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좌협시인 관음보살은 왼발을 위로 두는 향마좌를 취하였고 우협시인 지장보살은 오른발을 위로 두는 길상좌를 취하여 대칭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 삼존은 모두 하반신의 폭이 넓고 두꺼운데 비해 상반신은 길이가 짧으며 머리는 큰 비례를 보이고 있다.
- 삼존은 모두 승기지와 대의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선 초기의 다른 사례들로부터 유추해 보면 승기지 안에 균의를 착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승기지는 상단이 평행을 이루고 별도의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은 모습인데, 조선 초기 불보살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 승기지 바깥에 착용한 옷은 명확하지 않게 표현되었다. 오른쪽 상반신에 착용된 옷은 부견의이고, 대의는 왼쪽 상반신에서 시작하여 편단우견으로 착용되어 부견의 아래에서 복부를 가로지른 것이라 한다면 정면에 보이는 옷들의 조합이 설

명될 수 있지만, 뒷면에서 보이는 대의는 편단우견이 아니어서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마 조각가가 불상의 복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뒷면에 편단우견을 나타내는 각선이 주조과정에서 삭평 또는 생략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 존상들에 나타나는 고려 전통양식의 요소는 동체와 팔이 입체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점, 수인이 항마촉지인이 아니고 시무외-여원인의 변형 또는 설법인으로 표현된 점, 보살상의 하반신을 비롯한 전신에 영락장식이 표현된 점, 아미타불의 우협시로 지장보살이 나타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명대 티베트 양식의 요소는 육계 위에鬘珠가 표현된 점을 들 수 있다.
- 전체적으로 15세기 불상 양식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명대 양식은 거의 수용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단독의 금동보살좌상은 오층석탑의 3층(혹은 2층) 탑신에서 발견되었다.
- 보살상은 후면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지만 다행히 전면은 잘 남겨져 있다. 이목구비가 중앙에 몰려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고려시대 불상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목에서 하반신까지 늘어진 긴 영락장식은 매우 특이하나 삼국시대 작인 경주 남산 선방사곡 석조삼존불입상의 우협시상 등에 유례가 보이며, 고려시대 작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보살입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가슴에 착용된 승기지를 묶은 끈이 안쪽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한 표현은 캐나다 로얄온테리어박물관 소장 중국 金代 明昌六年(1195년)銘 목조보살입상 등을 비롯한 금대 보살상의 특징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 군의(온테리어박물관 상)와 승기지(무량사석탑 상)의 차이는 있지만 금대 보살상의 특징적 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표현은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고려에서도 사용된 표현법인 것으로 확인된다.

□

○ 조사내용

무량사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이다. 사찰의 창건은 전하는 기록마다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신라 말 梵日國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1633년에 중건된 중층 극락보전이 웅장하게 가람의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앞으로 중후함이 살아 있는 고려시대 오층석탑과 석등이 일렬로 자리하고 있다. 극락보전에는 1627년에 제작된 미륵불괘불탱(보물 제1265호)이 보관되어 있으며, 1633년에 제작된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주불로 봉안되어 있다. 이외 1636년에 제작된 동종, 1654년에

제작된 삼전패(보물 제1860호), 그리고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소조지장시왕상과 조선 후기에 제작된 오백나한 등이 사찰에 남아 있어 古刹로서의 寺格을 두루 갖추고 있다.

금동보살좌상 1구와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은 1971년 5층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이다.³⁾ 이때 출토된 유물로는 이들 4구의 금동불상 이외 소형 여래좌상 1구, 청동사리합, 사리호, 사리, 동경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 소형불상은 석탑의 재조립시 다시 봉안하였고, 봉안하지 않은 9점의 유물은 198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이들 문화재는 1989년 7월 13일 강도에 의한 도난사건이 발생하였고,⁴⁾ 그 중 2층 탑신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살좌상과 1층 탑신에서 출토된 2구의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은 2001년 2월 15일 문화재청사범단속반에 의해 회수되어 사찰로 소유권이 환부되었으며, 관음과 지장보살과 함께 1층 탑신에서 출토된 아미타불상은 2017년 여러 유통경로를 거쳐 인천의 모 미술관이 수장하게 되었는데, 수장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난품임을 인지하고 이를 문화재청에 자진 신고하고 되돌아온 문화재이다. 이들 삼존은 비로소 도난 이후 28년 만에 제 짝을 이루게 되었다.

해체 당시 홍사준 선생의 보고서에 따르면, 5층 탑신에서 석함(고 26cm), 청동외합, 내합, 수정소병, 다라니경, 자단목, 방분향, 청색사리(수정소병), 회백색사리 93과(청동병) 석함 안에 청동사리합이 발견되었고, 3층 탑신에서 소불 1구, 1층 탑신에서 도금 청동불 3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1971년 8월 31일자 동아일보 보도 역시 이와 대동소이한데, 출토 위치와 출토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5층 탑신에서 석함, 청동사리합(높이 26cm), 수정병(높이 3cm), 청동병(높이 4cm/4.25cm)이 발견되었으며, 2층 탑신에서 금동보살좌상(35.5cm), 금동여래좌상(7.5cm)이 발견되었고, 1층 탑신에서 금동불좌상 3구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⁵⁾ 동아일보 기사에는 홍사준 선생의 글에 보이지 않는 보살좌상 1

3) 석탑은 1971년 8월 28일~9월 1일에 해체하고, 1971년 9월 7일~14일까지 조립하였다.

4) 불교문화재도난백서에 따르면 “1989년 7월 13일 주지실에 복면 강도 2명이 침입하여 주지스님의 손발을 묶고 안면을 테이프로 붙여 움직일 수 없게 하고 준비해 온 용접기로 금고를 해체하여 금동불을 절취해 간 건으로 보인다. 절도수법으로 보아 전문절도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고 적고 있다. 『불교문화재도난백서』(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1999), p.194. 이때 불상 외 나머지 지정문화재인 청동사리외합, 청동사리내합, 사리병, 청동보살문원관, 동경 등도 함께 도난당하였다. 『같은 책』, p.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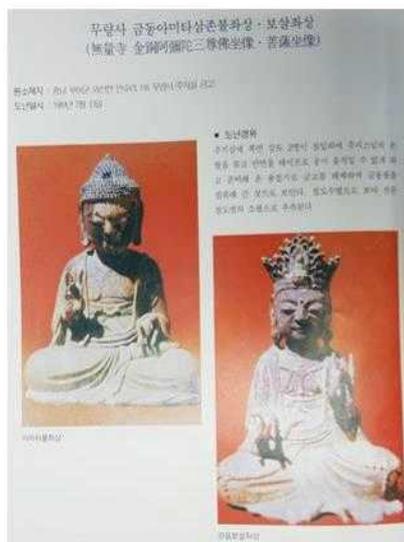
5) “三十一일 부여군 외산面 만수里 무량寺 보물 제八百十五호 五층석탑 해체 공사중 고려초기 금동 불상 五 점 과 청동사리합 등 보물이 쏟아져나와 도굴 흔적없이 불상을 가장 많이 가진 탑으로 등장하고 있다. 鄭永鎬교수(단국대박물관장, 문화재전문위원)을 반장으로 한 무량寺 五층석탑 해체복원반은 지난 二十九일부터 이석탑과 보물 二百三十三호 무량寺 석등 등二个의 석조물을 해체복원하고 있는데 첫날엔 五층 옥신부에서 높이 二十六cm의 석탑속의 청동사리합, 둘째날엔 二층 탑신부에서二个의 금동불상이, 그리고 셋째날엔 一층 탑신부에서 三개의 금동불상 좌상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각기 八 cm에서 三十六cm에 이르는 좌고를 가진 이들 五점의 불상들은 一층 중앙의 금동여래좌상을 제외하고는 전신에 정교한 영락(구슬염주)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것이 특징인데 불상의 유형으로 보아 무량寺가 창건된 고대 초기의 것으로 鄭교수는 추정하고 있다. 사리를 맞아들이는 불교의식에 따라 사리함은 아직 개봉하지 않고 있으나 도굴흔적이 전혀 없어 적지않은수의 사리가 들어 있을 것은 거의 확실하며 맨 아래층 기단부에서도 더많은 유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아일보 1971

구가 추가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사찰에 전하는 것은 불상 4구이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 불상은 3구는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 지장보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양식을 갖추고 있어 동일한 시기에 한 셋트로 조성된 삼존상으로 판단된다. 2층 탑신에서 발견된 보살좌상은 이들 금동불상보다 선행하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보살상이다.

<표> 1971년 오층석탑 출토 유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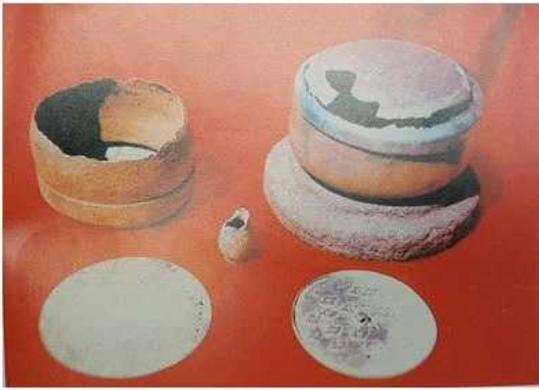
위치	홍사준 글	신문기사	비고
5층탑신	청동외함, 청동내함, 수정소병(청색사리1과), 청동병(회백색사리93과),다라니경, 자단목, 방분향	청동사리함	사리는 새롭게 金瓶을 제작하여 재봉안
3층탑신	도금좌불상		*조립시 3층 탑신부에 재봉안
2층 탑신		2개의 금동불상	
1층탑신	아미타, 지장, 관음의 도금청동불	3개의 금동불상	



도252. 불상(1987년 도난후 회수), 불교문화재단난백서



도253. 보살상(1987년 도난 후 회수), 불교문화재단난백서



도253. 사리장엄구(1997년 도난, 미회수), 도254. 무량사 오층석탑 전경
불교문화재단도난백서

(1) 금동보살좌상

우선 2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두 손과 뒷면 엉덩이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다. 봉안 당시부터 이와 같이 파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석탑을 건립하거나 중수할 때 파손된 불상을 공양물로 납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이 불상도 이러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보살상은 얼굴은 가름하고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고 부드럽게 모델링하였으며, 신체 비례는 늘씬하다. 머리 위에는 머리를 땅아 올려 四稜形의 寶髻를 형성하고 있다. 머리의 표면은 세밀하게 머릿결을 표현하였다. 이목구비가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한 얼굴의 표현은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좌상, 화성 출토 청동빈도로존자상, 개성 관음사의 석조관음보살좌상 등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일련의 불상들과 양식적 계보를 같이하고 있다.



도58. 금동보살좌상 정면



도59. 우측면



도60. 좌측면

작은 얼굴에 허리는 길고 무릎은 상대적으로 낮아 늘씬하고 세장한 비례감을 갖추고 있는데, 무릎 폭과 턱 아래 부분이 거의 정삼각형을 이루는 조선 초기 불상과는 다른 조형감이다. 이 보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세부 장식 표현에 있다. 첫째 양 귀밑에서 U자형으로 길게 늘어진 끈 모양의 장식이다. 이러한 장식은 조선시대 불상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중당 시기에 그려진 돈황 제149굴 문수·보현보살도와 五代의 돈황 벽화에서도 이어서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좌상을 비롯하여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불상에서 극히 드물게 확인된다.

둘째, 치마의 윗단 안쪽에서 걸쳐 흘러내린 띠 자락인데, 이 띠 자락은 흘러내리면서 두 번에 걸쳐 나비매듭 지어 멋을 부렸다. 이와 같은 표현도 고려 초기에 제작된 논산 개태사지 석조보살입상이나, 감지금니 대보적경 변상도(1006년 간행, 日本文化廳)에 그려진 보살입상, 당진 영탑사 협시보살좌상(11-12세기), 일본 야마구찌현 금동보살입상, 동국대박물관 금동보살입상 등 대체로 고려 전기에 속하는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이다.

셋째 목걸이의 표현이다. 이 보살상은 이중으로 목걸이를 걸치고 있는데, 이중의 영락장식과 함께 앞서 살펴본 끈 형태의 장식은 개성 관음사의 두 구의 석조 관음보살상과 유사하지만, 그 중 아래 쪽에 목걸이에 드리운 고리모양의 영락장식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생긴 영락장식은 일본 야마구찌현 금동보살입상이나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불상의 협시상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 이 세 가지 특징으로 볼 때 이 불상은 고려 전기에 제작된 보살상일 가능성이 크며, 봉납시기는 탑의 초창 때 사리기와 함께 봉납되었거나 아니면 중수때 봉납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1층 탑신에서는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발견되었다. 3구의 불상은 원래부터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 당시 같은 1층 탑신에서 발견되었지만, 법당에서 봉안된 것처럼 삼존이 나란히 앉아 있지 않았다. 이는 봉안 당시 1층 탑신의 잡석 채우기 등 구조적인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⁶⁾

본존 아미타불상은 통상 조선 전기에 제작된 외래양식의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머리 카락은 작은 나발로 구성되어있으며, 머리 위에는 큼직하고 형성된 肉髻를 가지고 있다. 육계 위에는 다시 소라모양의 정상계주를 올려놓았다. 머리의 중앙에는 중앙계주를 둔 것으로 보이나 손상되었다. 얼굴은 가름하며

6) 홍사준 선생의 보고서에는 “탑신내에는 川石과 질흙으로 다진 것인데 이 탑신내에서 阿彌陀, 地藏, 觀音의 鍍金靑銅佛이 南面하여 발견되었다. 佛像을 위한 아무런 裝置가 보이지 않았으나 흙으로 佛像들이 空間에 서 있도록 한 痕跡만은 엿보인다”라고 하여 흙으로 불상을 고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洪思俊, 「無量寺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美術史學研究』 117(한국미술사학회, 1973), p.3.

이목구비는 또렷하게 표현하다. 이마의 중앙에는 흠을 파고 별도로 제작한 백호를 박아 넣었고, 코는 크고 콧날이 오뚝하여 호남형의 인상이다. 귀는 타원형으로 둥글린 이륜과 구멍의 흔적을 남긴 꺾불이 자연스럽게 늘어졌고, 삼각와가 넓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목에는 좁은 간격으로 삼도가 표현되었고, 크게 연 가슴에는 U자형으로 처진 젓가슴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되었으며, 젓가슴 아래로는 ‘~’형의 복근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다. 착의는 통견의 대의를 걸쳤으며, 가슴에는 치맛단이 표현되었다. 치마를 묶은 띠 자락이 표현되었다. 띠는 나비 모양으로 매듭을 묶고 자락은 ‘八’字形으로 드리웠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끔 하여 자연스럽게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짓고 있다. 길상좌를 취한 무릎은 둥글고 부드럽게 처리하였고, 포개 엮은 다리를 앞으로 흘러내린 주름은 율동적으로 표현하였다. 좌우협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의 전체적인 상호의 표현과 비례 등은 본존불과 동일하다. 좌협시 관음보살은 사방에 꽃잎을 세운 보관을 착용하였고, 보관의 정면에 좌상의 아미타화불을 표현하였다. 특히 관음보살상의 坐法은 아미타불상과 지장보살과 달리 정확한 좌우대칭을 맞추기 위해 降魔坐로 표현되었다. 지장보살은 머리에 두건을 썼는데, 영암 용암사지 금동지장보살상과 두건과 목걸이 등에서 매우 흡사하다.

두 보살상의 가슴에는 중앙에 꽃무늬를 두고 세 부분에 영락 장식을 늘어뜨린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무릎 둘레에는 영락으로 장엄하였다. 대개 고려시대의 보살상에서 전신에 걸쳐 영락장식이 표현되는데, 이곳에서 생략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조선 전기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음보살은 머리를 닿아 둥근 보계를 만들었고, 보관의 턱을 이루는 머릿결은 좌우로 멋스럽게 빗어 넘겼고, 노출된 뒷머리는 직모로 처리하였다. 주름이 생략된 다리에는 탄력적인 다리의 굴곡이 감각적으로 드러내었다.

불상의 높은 육계, 분명한 이목구비 등의 상호의 표현, 세 가닥으로 늘어진 목걸이 장식과 무릎 주위에만 생략적으로 표현된 영락 장식, 턱 아래 부분과 무릎 폭과의 구도가 거의 정삼각형을 이루는 신체비례 등은 14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불상들과 시대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



도257. 아미타불상



도258. 좌측면



그림 259 배면



도258. 지장보살좌상



도259. 관음보살좌상



도260. 삼존불 출토당시(홍사준 글 재인용)

무량사 탑에서는 이외에도 청동내합, 청동외합, 동경, 동제보살문 원판, 소형불상 1구가 더 발견되었으며, 소형불상 1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00호로 지정되었다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 不義의 객에 의해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그 중 불상 3구만 회수되어 몇 해를 지나오다 최근(2017년) 다시 1구의 아미타불상이 제자리를 찾아 비로소 삼존이 짝을 이루게 되었다.

탑 내에 불상을 봉안하는 목적이, 처음에는 발원자의 염원을 담은 단순 공양물로서의 봉안되다가 차츰 釋迦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불탑 본연의 의미와 기능에 佛의 常住處라는 인식이 더해져 그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갔음을 말해준다. 이는 석탑 표면을 장엄하던 浮彫 방식에서 발전되어, 佛塔이 석가의 眞身뿐만 아

니라 報身과 化身 등의 佛身이 함께 常住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홍사준, 「無量寺 五層石塔의 解體와 組立」, 『미술사학연구』 117, 한국미술사학회, 1973.

정은우, 「無量寺의 불교조각-시대와 신앙을 담은 상징성과 염원-」, 『제1회 무량사 아미타학술회의 자료집』, 무량사, 2019.

4.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가. 심의사항

‘관북여지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북여지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 (‘17.10.20.) 관계 전문가 조사(‘19.9.24.) 및 과학조사(‘19.11.18~11.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7차 회의(‘19.1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9.12.31~’20.1.31.)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수 량 : 1첩(13면)
- 규 격 : 표지 31.0×20.0cm *상세규격 아래 참조
 - ① 제1면 길주목: 45.2×57.8cm, ② 제2면 명천부: 57.9×44.5cm, ③ 제3면 경성부: 47.7×57.6cm
 - ④ 제4면 부령부: 45.5×38.8cm, ⑤ 제5면 무산부: 44.4×87.3cm, ⑥ 제6면 회령부: 49.3×43.7cm,
 - ⑦ 제7면 종성부: 63.0×48.5cm, ⑧ 제8면 온성부: 56.0×39.4cm, ⑨ 제9면 경원부: 55.2×44.9cm,
 - ⑩ 제10면 경흥부: 54.4×50.2cm, ⑪ 제11면 함관령: 57.5×47.5cm, ⑫ 제12면 마운령: 57.3×48.5cm,
 - ⑬ 제13면 마천령: 53.0×56.0cm
- 재 질 : 종이에 채색
- 형 식 : 절첩(折帖)

○ 조성연대 : 1738년(영조 14)~1753년(영조 31) 사이



그림 63 ‘관북여지도’(동아대박물관 소장)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는 1719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계보를 잇고 있는 사본으로, 조청 정계를 전후로 함경도 지방 방어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잘 보여주는 지도이다. 길주 등 10곳의 소속 고을과 함관령 등 국방 상 중요한 고개 3곳에 대한 지도를 수록한 이 지도집은 지역 군사 정보의 집대성을 위해 지도 자료와 관련 통계를 어떻게 결합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2. 이삼의 지시로 처음 지도가 제작된 이래 최소한 17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본이 제작되어 사용되었고, 그 결과 동일 계열의 사본 8건이 함께 현존하는 사실 또한 조선 후기 지도의 제작과 활용, 모사, 전승의 양상을 실체적으로 구명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는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무오년’이라는 기년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이로써 지도에 기록되는 국방 정보의 개선 노력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이러한 측면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봉수 사이의 연락 관계를 실선으로 직접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의 다른 사본에서는 확인

되지 않는 특징이며, 조선 후기의 다른 지방을 그린 어떤 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이다. 아울러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의 제작자는 봉수 간의 거리까지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4.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여러 사본들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도별 지도집의 제작, 활용, 모사, 전승의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있는 7종의 지도 중 동아대학교 《관북여지도》는 상대적으로 후기의 사본이지만 보존 상태가 가장 좋고, 봉수 연락 체계의 표시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유일한 지도라는 측면에서 지정의 우선 순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동아대박물관 소장 ‘관북여지도’는 보존상태가 매우 좋을 뿐 아니라 함경도와 야인지역을 구분하거나, 봉화망과 봉화봉간의 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점, 봉화(烽火)의 신호법, 각 봉화간의 거리나 노선 등을 매우 자세하게 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이 인정된다. 한편, 고려대학교의 ‘관북지도’와 규장각의 ‘관북지도’는 동아대학교의 관북지도를 모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작시기도 떨어지고 작품의 수준도 떨어지는 지도이므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 《관북여지도》 석당본은 함경도 관방 군현과 군사 요충지를 필사본으로 자세하게 그린 지도이다. 두만강 북쪽의 지명이 이외의 지역과 같은 비중으로 표기되어 있어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2. 각 면에 지도가 회화식으로 자세하게 표현되었고, 여백에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호구수, 군사수, 역원 등 지리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각 군현의 지리적 구성은 규장각 소장 《관북지도》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관북여지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규장각본과 고려대학교 도서관본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봉수 간의 거리까지 상세하게 표기된 점은 본 유물의 사료적 가치를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

3. 무엇보다도 《관북여지도》 석당본의 중요한 점은 제작 연도를 알려주는 단서가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숙종 4년(1678년)의 무오식년(戊午式年)의 호구가 등재된 점, 숙종 10년(1684)에 병마첨사의 무산진(茂山鎭)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는 점, 숙종 38년(1712) 세워진 정계비(定界碑)가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본 유물이 1684년에서 1712년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관북여지도》 석당본 각 면에 표현된 지리적 특성의 수준이 매우 높다. 화사한 채색의 사용, 산세에 드러나는 준법, 강에 표현된 물결 등은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5. 이렇듯 《관북여지도》 석당본은 북방의 관방 군현지도 중 가장 오래되었고, 제작 시기도 유추 가능하며, 회화적인 완성도 역시 높은 중요한 문화재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6. 《관북여지도》 석당본을 조사하면서 규장각본과 고대도서관본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러나 석당본에 비해 규장각본과 고대도서관본은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고, 봉수 간의 거리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관북여지도》 석당본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을 뿐, 규장각본과 고대도서관본은 지정 보존할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가장자리와 접고 펴는 부분에 갈변과 주름이 있지만,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충식에 의한 피해 부분도 거의 없음

○ 내용 및 특징

1717년부터 1720년까지 함경남도병마절도사를 지낸 李森(1677-1735)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1740년대 사본으로 추정된다. 이삼의 함경도 지도집은 안변 등 함경도 관내 23곳의 고을과 함관령 등 주요 고개 3곳의 개별 지도를 수록한 것으로 최소한 18세기 전반 내내 계속 모사되며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지도집은 한 책 또는 두 책으로 편집되었으며, 동아대학교 소장 《關北輿地圖》는 두 책으로 편집된

함경도 지도 중 두 번째 책으로 길주 등 10곳의 고을과 고개 3곳의 지도를 담고 있다.

1712년 조청 정계 이후 이 지역의 방어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 진보, 봉수, 교통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지도에 더해 개별 고을의 행정, 경제, 국방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각종 통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각 고을의 경작지 면적, 호구 수(남녀 인구 수)를 기본 정보로 제시하고, 이어서 각 고을에 배치된 병력의 구성 및 수, 군량의 양, 파수 및 봉수의 거리 정보, 각 진과 보의 시설 규모와 배치된 병력의 구성과 수를 상세히 기록했다.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위의 지리지 정보중에 지도의 제작 상한을 알려주는 기년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戊午式’이라는 호구 조사 시기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어서,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을 바탕으로 1738년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려준다.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 제작의 하한 연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넓게 보아서는 長津府가 설치되는 1787년 이전이며, 지도 위에 기록된 무오식 인구 통계를 18세기 인구 변화 추이와 비교해 보면 1753년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사본은 현재 8건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는 무오년을 포함하여, 임진년(1712), 병오년(1726), 을묘년(1735) 등의 호구 조사 시행 연도가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임진년 통계는 이삼의 지시로 처음 지도가 제작될 때 인용된 것으로, 대다수 사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에 1726년과 1735년의 새 통계가 보완 자료로 추가되는 양상이 엇보인다. 이에 비해 동아대학교 소장본은 1712년의 통계는 배제하고 1738년의 새로운 통계를 전면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한편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봉수 간의 연결망을 실선으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지도를 포함하여, 이삼의 지시로 제작된 함경도 지도집의 다른 사본 7점(별표 참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며, 동일 시기는 물론 후대의 다른 지방의 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다른 모든 사본은 한 봉수가 어느 봉수들과 연결되는지를 글로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명천 동북방 인근의 北峯에는 그곳에 봉수가 있음을 나타내는 봉수 기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北應壽萬德烽 南應項浦烽”이라는 글로 주변 봉수와의 연락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소장 《관북여지도》의 제작자는 글 대신 봉수 사이에 실선을 직접 그어서 그 연락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봉수 사이의 거리를 기록함으로써, 지도를 읽는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는 그래픽 자료로서 지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이제까지의 봉수 관련 정보 제공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었다.

○ 문헌자료

이 지도와 동일 사본인 일본 동양문고 소장 《關北地圖》(관리번호: VII-2-228)에 1717년부터 1720년까지 함경남도병마절도사를 지낸 李森(1677-1735)이 지도 제작의 경위에 대해 기록한 글(1719년)이 있음.

『관북지도』 사본 일람표

명칭	소장처	관리번호	제작자	제작시기 추정	수량	형식	수록 내용	비고	평가
관북지도	일본 동양문고	VII-2-228	李森 (1677- 1735)	1723	1책 28매	채색 필사본	1.안변 2.덕원 3.문천 4.고원 5.영흥 6.정평 7.함흥 8.홍원 9.북청 10.이성 11.갑산군 12.삼수 13.단천군 14.길주 15.명천 16.경성 17.부령 18.무산 19.회령 20.종성 21.온성 22.경원 23.경흥 24.함관령 25.마운령 26.마천령 27.제관북도 지후 28.함경도도로	序:上之四五年(1719) 李森誌 跋:上之三年癸卯(1723) [陳夕]書	외국 소재
관북지도	고려대 도서관	貴706.2		1730~ 1740년대	1책 13매 (하)	"	14.길주 15.명천 16.경성 17.부령 18.무산 19.회령 20.종성 21.온성 22.경원 23.경흥 24.함관령 25.마운령 26.마천령	壬辰(1712) 壬子(1732) 乙卯(1735)	蟲蝕 심함
관북지도	"	貴706.3		1720년대	1책 23매	"	1.안변 2.덕원 3.문천 4.고원 5.영흥 6.정평 7.함흥 8.홍원 9.북청 10.갑산 11.삼수 12.이성 13.단천군 14.길주 15.명천 16.경성 17.부령 18.무산 19.회령 20.종성 21.온성 22.경원 23.경흥 24.마천령 25.마운령 26.함관령	上之四五年(1719) “祖考幸北靑時 代兵使作“	-앞표지 없음. 包匣 있음. -회화성 高
관북지도	서울대 규장각	古4709-19		1730~ 1740년대	1책 13매 (상)	"	1.안변 2.덕원 3.문천 4.고원 5.영흥 6.정평 7.함흥 8.홍원 9.북청 10.이성 11.단천군 12.갑산 13.삼수	壬辰(1712) 乙卯(1735)	날 장 으 로 해체 상태
관북지도	"	古4709-40		1730년대	2책 26매	"	제1첩: 0.關北摠覽地圖 1.안변 2.덕원 3.문천 4.고원 5.영흥 6.정평 7.함흥 8.북청 9.홍원 10.이성 11.단천군 12.삼수 13.갑산 14.길주 15.명천 16.경성 17.부령 18.무산 19.회령 20.종성 21.온성 22.경원 23.경흥 24.咸關嶺上下通路 25.西關摠覽圖	壬辰(1712) 丙午(1726)	날 장 으 로 해체 상태

명칭	소장처	관리번호	제작자	제작시기 추정	수량	형식	수록 내용	비고	평가
관북여지도	동아대 박물관	3951		1740년대	1책 13매 (하)	"	14.길주 15.명천 16.경성 17.부령 18.무산 19.회령 20.종성 21.온성 22.경원 23.경흥 24.함관령 25.마운령 26.마천령	戊午式(1738)	
관북지도	국립중앙 박물관	本10053		1730년대	1책 26매	"	1.안변 2.덕원 3.문천 4.고원 5.영흥 6.정평 7.함흥 8.홍원 9.북청 10.이성 11.단천군 12.삼수 13.갑산 14.길주 15.명천 16.경성 17.부령 18.무산 19.회령 20.종성 21.온성 22.경원 23.경흥 24.함관령 25.마운령 26.마천령	규장각4709-40의 모사본 (정보 생략)	蟲蝕 있음
북관여지도	"	購2152		1730년대	1책 26매	"	1.안변 2.덕원 3.문천 4.고원 5.영흥 6.정평 7.함흥 8.홍원 9.북청 10.삼수 11.갑산 12.이성 13.단천군 14.길주 15.명천 16.경성 17.부령 18.무산 19.회령 20.종성 21.온성 22.경원 23.경흥 24.마천령 25.마운령 26.함관령	규장각4709-40의 모사본 (정보 생략)	蟲蝕 심함

□

1. 지도의 제작시기

이 지도에서는 인구 통계 등에 무오년(戊午年)식을 이용하였다.

17세기 무오년은 숙종 4년 1678년이 있고, 그 후에는 18세기 무오년(戊午年)은 영조14년 1738년이다. 이 지도에서 무산부가 설치된 것을 보면 1684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이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1684년 이후에 맞이하는 무오년인 1738년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도는 1738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2. 지도의 구성

함경도는 조선 초기부터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이 지도는 함경북도에 해당되는 10개 군현인, 길주목, 명천부, 경성부, 부령부, 무산부, 회령부, 종성부, 온성부, 경원부, 경흥부를 대상으로 하고 함관령과 마운령 그리고 마천령을 그린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철령(鐵嶺) 이북의 땅을 관북(關北)이라 했다. 이곳에는 행정구역상으로 함경남·북도가 마천령산맥을 경계로 자리한다.

3. 지도의 특색

1) 함경도와 야인지역을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지역의 산악은 색깔을 넣어 그렸는데 야인지역의 산악은 검정색으로 단조롭게 처리하고 있다.

2) 봉화망과 봉화봉간의 거리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가. 조선시대 봉화망

조선시대 봉화망은 5거(炬)로 되어 있었다. 함경도는 제1거로 동북노선이라고 하며, 함북의 경흥에서 한양까지 직봉이 122개이고 간봉이 58개로 도합 180개의 봉화망이 있었다.

전국의 봉화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거로(동북노선) : 함북 경흥(慶興) - 서울(직봉 122, 간봉 58, 계 180)

제2거로(동남노선) : 경남 동래(東萊) - 서울(직봉 44, 간봉 110, 계 154)

제3거로(서북내륙노선) : 평북 강계(江界) - 서울(직봉 79개, 간봉 21, 계 99)

제4거로(서북해안노선) : (義州~서울 간 직봉 71, 간봉 21, 계 92)

평안도 의주로부터 해안으로 황해도를 거쳐 한성 무악 서봉에 이르는 봉수

제5거로(서남노선) : (順天~서울 간 직봉 61, 간봉 24, 계 85)

전라도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에 이르는 봉수

이와 같은 직봉 외에 동래(東萊) 간비도(干飛島)로부터 안동 봉지산(峰持山) 직봉간의 중간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선 간봉과, 특히 국경방면의 전선 초소로부터 본진과 본읍으로 보고하는 단거리선 간봉 등이 있었다.

이러한 봉수대 수는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직봉 402, 간봉 271, 계 673개소에 달하였다. 각 봉수대의 거리는 변방 제일선의 연대가 그 중요성에 비추어 10~15리 이하로 조밀하게 배치되었고, 내지봉수로 옮겨갈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는데, 평상시 낮에 연기로써 신호하는 서울에서 먼 주수(晝燧)지역은 20-30리 간격, 서울에 가까운 야화(夜火)지역은 40-50리 정도가 기준이었다.

그리고 각 봉수 노선별로 봉수 상준처(相準處)의 산 이름과 거리 등을 기록하여 이를 관할 지방 관아의 영진(營鎭)으로부터 중앙의 병조와 승정원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는 봉수제도가 국가안보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나 봉화(烽火)의 신호법

봉수(烽燧)의 관장은 중앙의 경우는 병조의 무비사(武備司)가, 지방의 경우는 관찰사나 수령, 병사(兵使), 수사(水使), 도절제사, 순찰사 등 모든 군사책임자가 그

임무를 맡았다.

봉수대에 봉수군과 오장이 배치되어 기거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봉수군은 주야로 근무를 서는 고역을 직접 담당하였고, 오장(伍長:監考)은 대상(臺上)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봉수군을 통솔하고 봉수대의 이상유무를 수령(守令:鎭將)에게 보고하였다.

봉수대(烽燧臺)에서는 거수(炬數, 봉화수)를 달리하여 정세의 시급함을 나타냈는데, 평상시에는 1거(炬), 왜적이 해상에 나타나거나 적이 국경에 나타나면 2거, 왜적이 해안에 가까이 오거나 적이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거, 우리 병선(兵船)과 접전하거나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왜적이 상륙하거나 국경에 침범한 적과 접전하면 5거씩 올리도록 하였다.

만약 적침이 있을 때 안개와 구름, 비나 바람 등으로 봉수에 의해 전달이 불가능할 때 봉수대는 포성(砲聲)과 각성(角聲)으로 주위의 주민과 수비군에게 급보를 알리고,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가서 알리기도 하였다.

서울 남산에 있는 5개의 봉수대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병조(兵曹)에 종합 보고하였다. 병조에서는 매일 새벽 승정원(承政院)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알리고, 변란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즉시 승정원에 보고하였다.

봉수는 동서남북의 어느 변경에 위치한 봉수대에서 올린 봉화이든지 약 12시간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봉수군의 태만, 봉수대의 관리 소홀로 봉화가 올려지지 않거나 또는 불통되는 등 전달 소요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 규정이 제정되었다.

근면한 봉수군은 승진 또는 표창하며, 반면 일을 게으르게 하거나 결번(缺番)과 대립(代立), 거짓 봉화, 그리고 오장, 수령 등 관계 관원이 감시감독을 게을리 할 때는 엄벌로 다스렸다. 처벌 내용은 장(杖) 70~100대, 파직, 적과 접전했는데 봉화하지 않거나 적이 침입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을 때는 봉수군과 수령 모두 목을 베었다.

다. 함경도 경성부의 봉화망

장평봉 15 나적봉 10 강덕봉 20 송곡봉

장평봉 15 고봉봉 15 남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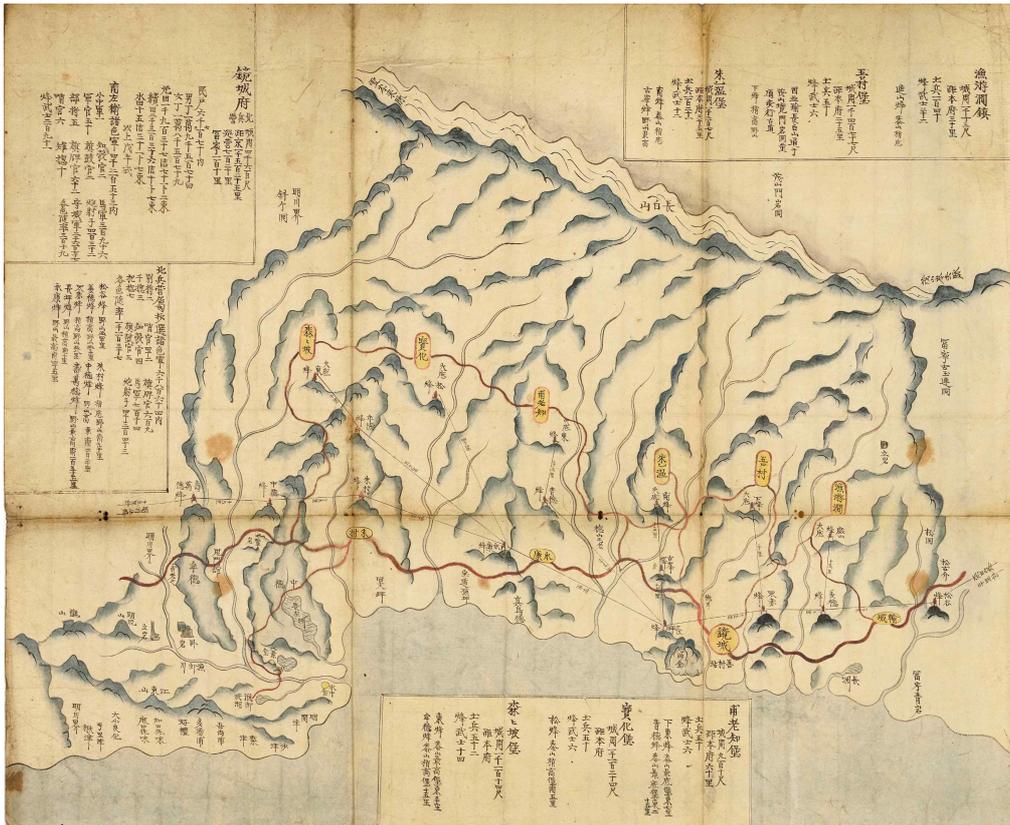
장평봉 25 청덕봉 25 동봉

장평봉 40 영강봉 40 주촌봉 15 중덕봉 15 수만덕봉

각 봉화간의 거리는 15리나 20리, 25리나 40리 등 일정하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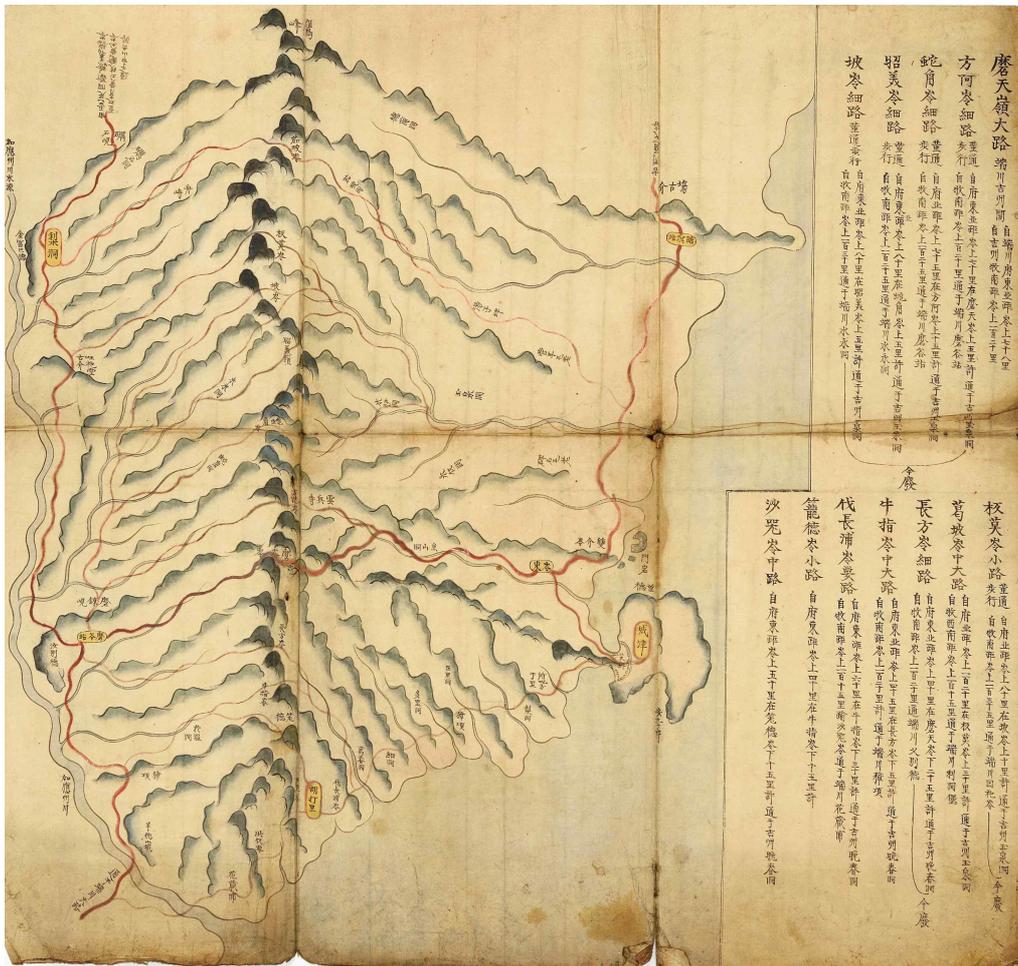
각 봉화간의 거리나 노선 등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한 지도가 없다.

경성부의 지도(각 봉화간의 거리와 노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3). 함경도의 도로망

함관령, 마운령, 마천령 지도를 보면 도로를 대로(大路), 중로(中路) 중대로(中大路) 소로(小路), 세로(細路)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도에도 붉은 선으로 도로를 표시했는데 대로는 굵은 붉은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아래 마천령 지도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

I. 현상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된 《관북여지도》(이하 《관북여지도》 석당본)는 총 13면으로 구성되었다. 장첩된 지도의 크기는 균일하지 않다. 가로로 1번 접고 세로로 1~2번을 접는 책자 형식이다. 표지에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길주이북(吉州以北)’이라는 소제가 첨가되었다. 첫 장에는 동빈(東濱) 김상기(金庠基, 1901-1977)의 해제가 적혀 있다. 지도는 총 13면으로, 10장이 목(牧)과 도호부의 지도, 나머지 3장이 도로 정보이다.

목(牧), 도호부, 진(鎭), 보(堡)는 황색의 원형과 타원형으로, 묘도로는 붉은 색 실선으로 그렸다. 부목(府牧)에는 성곽 규모, 군위(軍衛) 명칭, 군관의 수, 병사(兵士)의 종류, 서울과의 거리, 북병영이 위치한 경성(鏡城)과의 거리, 남병영인 북청(北靑)과의 거

리와 민호(民戶), 전결(田結) 등을 상세히 부기하였다.

《관북여지도》 석당본의 마지막 3장(11면-13면)은 각각 함관령(咸關嶺), 마운령(磨雲嶺), 마천령(磨天嶺)의 지도이다. 각 지역의 대로를 표현하여 이정(里程)을 첨가하였고, 구간 사이에 세로(細路), 소로(小路), 중로(中路), 대로(大路)를 상세히 그렸다.

II. 내용 및 특징

《관북여지도》 석당본은 17세기 말-18세기 초의 함경도 관방 군현과 군사 요충지를 필사본으로 그린 절첩식 지도책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지 ‘관북여지도(關北輿地圖) 길주(吉州) 이북(以北)’

- 1면 길주목(吉州牧) / 2면 명천부(明川府)
- 3면 경성부(鏡城府) / 4면 부녕부(富寧府)
- 5면 무산부(茂山府) / 6면 회령부(會寧府)
- 7면 종성부(鍾城府) / 8면 온성부(隱城府)
- 9면 경원부(慶源府) / 10면 경흥부(慶興府)
- 11면 함관령(咸關嶺) / 12면 마운령(磨雲嶺)
- 13면 마천령(磨天嶺)

《관북여지도》 석당본 각 면에는 각 지역에 해당하는 실경이 지도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호구수와 군사 수, 역원 등의 지리적인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지도 외곽에는 각 부에 설치된 성의 둘레, 인근 읍과의 거리, 인구수, 전답 수 등이 해서체로 가지런히 적혀있다.

부, 목, 행영, 진, 보 등은 황색 원형 안에 표기되었고, 산천과 도서는 담묵의 청록색을, 도로는 적색을, 각 봉수 계통은 먹색 직선을 사용하였다. 특히 봉수와 봉수를 연결하고 그 거리를 적은 것은 여타 지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 지도만의 특성이다. 군비와 군사시설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두만강 이외의 지역도 여타 지역과 동등하게 표현한 점도 그러하다.

현재 《관북여지도》 석당본과 유사한 지도가 여러 점 남아있다. 규장각 소장의 《관북지도》(이하 규장각본)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관북여지도》(이하 고대도서관본)가 대표적인 유물이다. 규장각본, 고대도서관본 모두 지도에 표기된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산천, 고개, 도로, 봉수로 등의 맥락과 연결 체계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당대의 지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게다가 회화적 표현 또한 훌륭하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도서관본의 경우 박락이 너무 심하고 봉수로 사이의 거리 표기가 생략되었다. 그리고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규장각본과 고대도서관본은 지정문화재로 선정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반면 《관북여지도》 석당본에는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실마리들이 제공되어 있다. 예컨대 지도에서 ‘무오식(戊午式)’이라는 표기가 발견되는데, 이는 숙종 4년(1678) 무오년에 행해진 호구 조사에서 나온 숫자에 의거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빈 김상기가 해제에서 밝힌 ‘숙종조 제작’이라는 구절과도 연관된다.

또한 5면에 <무산부(茂山府)>가 등장하는데, 무산부는 숙종 10년(1684) 3월 25일, 부녕의 차유령(車踰嶺) 서쪽과 회녕의 노진령(蘆田嶺) 남쪽 등 무산진에 편입시켜 병사첨사진을 부(府)로 승격한 장소이다. 《관북여지도》 석당본이 1684년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또한 숙종 38년(1712)경 중국과의 국경선 설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는데, 이 지도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본 유물 제작의 하한 연대를 추정케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관북여지도》 석당본은 1684년에서 1712년 사이에 제작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북방의 관방 군현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따라서 《관북여지도》 석당본은 현존하는 군현 지도 가운데 이른 시기의 지도이고, 지리적, 사료적 가치는 물론 회화사적 가치 또한 상당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20-01-005

5.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景宗 王世子冊封 敎命)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 세척, 형태보정, 결손부 보강, 재장황 등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景宗 王世子冊封 敎命)’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20.1.21.),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 ※ 국립고궁박물관 자체 보존처리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가로 37.5cm, 길이 318cm
- 재 질 : 종이, 직물, 금속
- 등 재 일 : 2017년
- 제작연대 : 조선(1690년)
- 문화재내용
 - 숙종 16년(1690)에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제작한 교명이다. 교명문은 숙종이 28세의 나이에 아버지가 되지 못하여 왕업이 무너질까 두려웠다고 한 뒤에, 세자의 뛰어난을 칭찬하고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면서 효성과 우애, 학문에의 매진 등을 훈계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성됨.

<전체 사진>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앞면)



경종 왕세자책봉 교명(뒷면)

라. 보존처리 전 현 상태

- 전체적으로 구조 해체, 재료 손상, 접힘, 들뜸, 오염과 얼룩 현상이 있음.
- 교명문은 부분적으로 울이 휘어지고 접힘 현상이 있으며, 전체 면이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
- 교명문의 표지 직물, 좌·우 장황직물(갈색, 상아색), 상·하 변아(邊兒) 회장직물(쪽색)은 모두 배접지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좌·우 갈색 장황직물에서는 부분적으로 울 풀림 현상과 백색 오염이 관찰됨.
- 우측의 교명 끈(대자帶子)은 금속꽃이(침자籤子)와 함께 축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
- 뒷면 배접지(직물과 종이)가 분리되고 배접지 손상이 관찰됨.

<세부 사진>



교명 끈(대자) 분리



우측 장황 및 화면 분리



좌측 장황 및 화면 분리



본문과 배접층 분리



본문 접힘



표지 직물 분리

마. 보존처리 방법

○ 보존처리 방침

- 보존처리를 통해 추가손상을 예방하며 원형을 보존함.
- 처리 전 과학적 조사와 정밀한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보존처리 방안을 수립함.
- 분리 및 손상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교명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보존처리 방안을 모색함.
- 보존처리는 가역성(可逆性) 있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며,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결정함.

○ 보존처리 세부과정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조사 분류	세부 내용
상태조사 및 기록	사진촬영, 실측, 손상도면 작성 등
장황 형식 조사	장황 연결방식, 직물문양 등 조사
비파괴 조사	적외선 촬영, 색도측정 등
재질분석	교명문, 장황직물, 배접지, 인장 등 구성 재질 분석(XRF, SEM-EDS, 현미경 관찰 등)

- **해체:** 교명문과 장황, 배접지, 상·하축을 순서에 맞게 각각 해체하여 분리함.
- **세척 및 목서 안정화:** 부드러운 붓 등 소도구를 사용하여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고, 목서부분은 번짐 방지를 위하여 아교 등으로 안정화 처리 함.
- **과거 배접지 제거 및 형태잡기:** 교명문과 장황을 분리한 후 과거 배접지를 제거하고, 휘어져있는 을 부분을 정렬하여 형태를 보정함.
- **보강처리 및 배접:** 본 유물과 유사한 직물을 사용하여 결손부를 보강처리한 후, 본문과 장황을 배접처리하고 건조함.
- **장황 및 보관상자 제작:** 배접된 교명문과 장황직물, 상·하축, 교명 끈을 순서에 맞게 연결하여 장황함.

- 꺾게말이축과 오동나무 보관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하고 수리기를 부착함.
- 처리 후 상태 기록 및 보고서 작성

바. 보존처리 기간 : 2020. 3. ~ 2021. 3.(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강 및 운송, 과거 보강제 해체, 오염제거, 채색층 안정화 및 보강 등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시장으로부터 ‘부석사 조사당 벽화(浮石寺祖師堂壁畫)’의 현상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20.1.8.),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위탁 보존처리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 수 량 : 6면
- 규 격 : 높이 2,050cm, 폭 750cm 내외
- 재 질 : 흙벽에 채색
- 지 정 일 : 1962. 12. 20.
- 제작연대 : 고려 후기(1377년 경)
- 문화재내용
 - 부석사 조사당 안쪽 벽면에 사천왕과 제석천, 범천을 6쪽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해체 분리된 벽화를 별도로 부석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흙벽 위에 녹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붉은색·백색·금색 등으로 채색하였다. 훼손된 부분이 많고 후대에 덧칠하여 원래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울동감 넘치는 유려한 선에서 고려시대 불화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전체 사진>



라. 보존처리 전 현 상태

-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부석사 조사당 안쪽 벽면에 사천왕과 제석천, 범천을 6쪽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6면을 각기 건물에서 해체·분리하여 목재 보호틀 내에 보관. 현재는 부석사 내 성보박물관에서 보관·전시하고 있음.
- 해체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존처리가 수행된 바 있으나 현재 벽화 자체의 열화와 더불어 과거의 보존처리 재료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상태. 6면 전반에서 채색층 손상, 구조적 손상, 과거 보존처리 재료의 열화 등의 손상 양상이 보임.
- 과거 보존처리 재료에서 기인한 백색(염 풍화)·흑색(고착재료 열화) 오염과 과도한 광택 및 얼룩으로 인해 본래 색채를 알아보기 어렵고, 이전에 사용된 고착처리제가 채색층을 필름과 같이 경화시켜 채색층의 박리·박락이 심각함.
- 6면 모두 벽체 골격 구조에서 비롯한 황균열이 있으며, 과거에 석고로 메움·보강됨. 현재는 보강부위 일부가 균열, 탈락 등의 발생으로 물성이 약화되었고, 보강부위 외에도 추가적인 균열이 발생하였음.



흑색오염물(범천)



백색오염물(서방광목천)



과거 고착처리제에 의한 얼룩 및 변색(동방지국천)



과거 고착처리제에 의한 얼룩 및 변색(동방지국천)



채색층 박리.박락(제석천)



채색층 박락(북방다문천)



과거 보강부위 손상(서방광목천)



과거 보강부위 손상(북방다문천)



과거 보강부위 균열(제석천)



벽체 횡균열(서방광목천)

마. 보존처리 방법

○ 보존처리 방침

- 보존처리를 통해 안정성과 물성을 향상시켜 벽화의 퇴락을 예방
- 처리 전 과학적 상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보존처리 방향 및 세부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적합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역성 있는 보존처리 기법 및 재료를 사용
- 보존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자료화 할 것

○ 보존처리 세부과정

- **벽화 보강 및 운송:** 6면 일괄 운송 혹은 부분 운송 여부 및 일정을 소유자 (부석사)와의 협의로 결정하며, 벽화 보강 후 문화재 운송 전문업체와 무진 동차량으로 운송함. 운송 전 손상방지를 위하여 벽화 보강-표면 보호 (Facing) 처리 후 완충하여 채색층을 보호하고 벽화 프레임 포장
- **처리 전 조사:** 과학적 분석 및 보존 상태 조사·기록, 과거 적용된 보존처리 재료와 벽화 재질 분석, 벽화 내부구조 안정성 조사하여 보강 방안 수립
- **과거 보강제 해체:** 처리 전 조사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과거 보존 처리 된 보강제의 제거·해체 범위 및 방법을 수립(벽화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 **과학적 보존처리: (오염물 제거)** 적용성연구로 선정한 건·습식세척 기술 로 처리부위 보존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행
- **과학적 보존처리: (채색층 안정화 및 보강)** 박리·박락 부위를 대상으로 적용성연구로 선정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안정화 및 고착처리
- **과학적 보존처리: (벽체 구조보강)** 벽체 균열 부위, 앞서 해체한 과거 보강 부위에 적합한 보강제를 이용하여 메움·보강
- **보존처리 기록화:** 벽화 운송부터 조사, 보존처리까지 전 과정을 사진, 영상, 보존처리 카드 등 다양한 매체로 상세하게 기록

바. 보존처리 기간 : 2020. 4. ~ 2026. 12.(착수일로부터 80개월)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벽화 보강 및 운송 처리 전 조사						
		과거 보강제 해체				
			과학적 보존처리			
					보존처리 기록화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金駟孫 琴)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 표면오염물 제거, 손상부 재접착 등 보존처리 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재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대구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金駟孫 琴)'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19.4.3.), 2019년 제3차 본 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19.4.11.), 보존처리 계획 보완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동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20.1.23.)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 심의사안으로 다시 부의함
- ※ 국립대구박물관 자체 보존처리

다. 문화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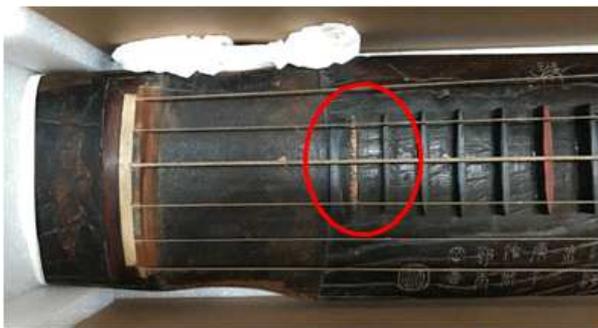
- 소유자(관리자) : 김**(국립대구박물관 기탁)
- 수 량 : 1점
- 규 격 : 너비 19cm, 길이 160cm, 높이 10cm
- 재 질 : 목재
- 지 정 일 : 1988. 6. 16.
- 제작연대 : 조선(15세기)
- 문화재내용
 - 조선시대 문신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이 사용하던 거문고로, 중앙부분에 탁영금(濯纓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음. 거문고의 머리 부분인 용두(龍頭)와 줄을 엮어 고정시키는 운족(雲足), 끝 부분인 봉미(鳳尾), 줄을 고정시키는 괘(樑)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기로서는 유일하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됨.



김일손 거문고

라. 보존처리 전 현 상태

- 전체적인 외형과 칠 등 양호
- 부속품인 16개의 괘(樑) 중 16번괘, 15번괘의 손상 발생
 - 16번괘 본체와의 접촉면 손상되어 분리·이탈
 - 15번괘 본체에서 분리·이탈되지는 않았으나 약하게 흔들리고 있음.



좌단(坐團), 현침(絃枕), 16괘 부분



16번괘 손상 부분(확대)

마. 2019년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보류)에 따른 보완 사항

보완 사항	보완 결과	비고
과거 보존관리 이력조사를 통한 보존상태 비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구박물관에 수탁(1997. 2. 17.) - 수탁 전 특이점 없음(소유자 및 문화재청 확인), 수탁 후 안정한 상태로 보관·관리 	문화재청 담당부서 검토 완료
구체적 손상원인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요구로 청도박물관 특별전(2018. 11. 20.~2019. 2. 10.) 출품을 위해 청도박물관 담당자가 대여 - 특별전 종료에 따른 운송·반환 중(2019. 2. 26.) 괘의 손상 확인(국립대구박물관 관계자) - 영상 확인 결과 포장 때는 문제없었으므로, 포장 후 수장고에서 차량 탑승 중, 또는 운송 중에 충격으로 접착이 약화된 부분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손상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움. 	
인문학적 학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자료 제출: ‘거문고 유래와 탁영금’ (탁영금 탄생 528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자료집, 2018.9.9.) 	

바. 보존처리 방법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세척: 표면건식세척(붓과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표면 오염물 제거)
- 손상부 접합: 가역성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재접착
- 보존처리 후 기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완료 보고

사. 보존처리 기간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반출

안건번호 동산 2020-01-008

8. 보물 제2018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金銅冠) 등 3건 국외 반출

가. 심의사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한 ‘보물 제2018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등에 대한 국외 반출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일본 국립역사박물관 등 2개처와 공동주최하는 「가야」 특별전 전시출품을 위해 ‘보물 제2018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등 3건에 대한 국외 반출 신청이 있어(’19.12.31.) 자체 상태점검(’20.1.28.)을 실시하였음.
- 이에, 동 사안에 대해 국외 반출 허가 여부를 심의에 부의하는 것임.

- *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국보, 보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나,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 * 2016년 제6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에 대해서는 박물관 자체점검 실시 승인

다. 주요현황

- 신청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 반출대상 : ‘보물 제2018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등 3건 3점
- 반출국가 :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규슈국립박물관)
- 반출목적 : ‘가야’ 특별전 전시(’20년 도쿄올림픽 기간 중 순회전시)
- 반출기간 : 2020. 6. 8. ~ 2020. 12. 16.
- 전시기간 : 2020. 7. 6. ~ 2020. 9. 6.(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20. 10. 12 ~ 2020. 12. 6.(규슈국립박물관)

라. 우리 청 의견

- 동 반출 건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가야’에 대한 순회전시를 개최하여 가야를 포함한 삼국시대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양국간 학술연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계획서 및 점검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화재의 상태가 양호하고 전시장소의 여건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반출 허가 타당함

마. 상태점검 조사 결과

- 점 검 자 :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전문가
- 점검대상 : 보물 제2018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등 3건 3점
- 점검기간 : 2020. 1. 28.
- 점검내용 : 국외전시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전시품 상태 및 취급 시 유의사항 점검

- 점검결과 : 국외전시 가능(상태 양호)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붙임 1. 국외반출 허가신청 목록 1부.
2. 점검결과 1부.
3. 전시계획서 1부.
4 국외반출 상태점검 조사서 1부. 끝.

붙임 1

국외반출 허가신청 목록(3건 3점)

허가 신청 목록(3건 3점)			
1	① 지정 번호	보물 제2018호	
	② 명 칭	금동관	
	③ 수 량 / 형 태	1건 1점 / 관(冠)	
	④ 규 격	높이 19.7cm, 너비 19.2cm, 깊이 9.0cm, 무게 96.8g	
	⑤ 소 유 자	국유	
	⑥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⑦ 비 고	고령지산26 / 고령 지산동 32호분	
2	① 지정 번호	보물 제2042호	
	② 명 칭	고리자루 큰 칼(용봉문)	
	③ 수 량 / 형 태	1건 1점 / 칼	
	④ 규 격	길이 81.0cm, 환두부 너비 4.8cm, 도신장 64.0cm, 도신평 3.3cm	
	⑤ 소 유 자	국유	
	⑥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⑦ 비 고	경상17 / 합천 옥전 M3호분	
3	① 지정 번호	보물 제2042호	
	② 명 칭	고리자루 큰 칼(봉황문)	
	③ 수 량 / 형 태	1건 1점 / 칼	
	④ 규 격	길이 113.1cm, 환두부 너비 5.0cm, 도신장 90.8cm, 도신평 3.9cm	
	⑤ 소 유 자	국유	
	⑥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⑦ 비 고	옥전2-253(진위-2641) / 합천 옥전 M3호분	

붙임 2

점검 결과

구분	사진 및 조사 결과
<p>거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보물 제201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안 조사 결과 1983년 보존처리 이후 안정한 상태임 ◦ 관의 후면은 아크릴 수지로 전면이 보강되어 있음
<p>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 (보물 제204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보물로 신규 지정된 문화재로 보존처리 이후 안정한 상태임 ◦ 접합, 보강 부위에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봉황문 고리자루 큰 칼 (보물 제204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보물로 신규 지정된 문화재로 보존처리 이후 안정한 상태임 ◦ 검의 신부가 2개체로 분리된 상태이며, 분리된 부분에 부식 징후나 녹이 확인되지 않음

□ **전시 개요**

- (전 시 명) 가야(가제)
- (전시기간)
 - (역박): 2020.7.6.(월)~2020.9.6.(일) *개막일 포함
 - (규박): 2020.10.12.(월)~2020.12.6.(일) *개막일 포함
 - * 반출예정기간: 2020.6.8.(월)~2020.12.16.(수)
- (전시장소)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A(약 390㎡)
 -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특별전시실(약 1500㎡)
- (전 시 품)
 - (역박): ‘南齊書’ 등 245점(예정)
 - (규박): ‘馬形埴輪’ 등 320점(예정)
 - * 국외반출 예정 대상품 ‘금동관(보물 제2018호)’등 177건 229점 포함
- (주 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국립규슈박물관

□ **전시 목적 및 기대 효과**

-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기간에 순회전을 개최하여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한일 교류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순회전 공동개최 기관 간 학술연구 증진에 기여
- 향후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일본 관광객 유치에 기여

□ **전시 구성**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구 분	내 용
(프롤로그) 가야란 무엇인가?	- 일본 고분시대 서로 협력과 경쟁하며 활약한 한반도 남부 가야 여러 나라 소개 -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중심으로 일본 왜와의 교류관계사를 소개
I. 가야를 말해주는 것 1. 철생산 2. 중후하고 화려한 무장 3. 가야토기의 미 4. 장대한 왕릉군	- 가야 성장의 기반을 철 생산, 철제 무장, 화려한 토기 제작, 거대한 왕릉군 축조로 나누어 살펴보아 가야 문물의 미와 압도적인 존재감 조명  김해 퇴래리 소업  김해 대성동 M1  김해 퇴래리  합천 옥전 M4
II. 가야로의 길 1. 동아시아와 바다의 길 2. 고분으로 본 가야 3. 맹주로서의 대가야 4. 대가야의 비약	- 동아시아 여러 사회를 교역을 연결한 가야의 역할 강조 - 가야의 고분문화를 규모와 형태, 부장품의 변화상으로 조명  창원 다호리 M1  김해 양동리 M322  고령 지산동 M32  합천 옥전 M3
III. 가아인은 북으로 남으로 - 4세기 1. 동아시아와의 관계 2. 금관가야와 왜	- 4세기 가야의 대외교섭을 주도한 금관가야 집중 조명 - 철을 교역품으로 대규모의 항구를 정비하고 국제사회로 전진해 나가는 금관가야의 모습과 왜와의 관련성을 소개  김해 양동리 M162  김해 대성동 M88  김해 대성동 M29  김해 대성동 M88
IV. 가야왕과 국제정세 - 5~6세기 1. 대가야의 중국 견사 2. 대가야 소가야와 왜	- 5~6세기 가야사회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대가야사 집중 조명 - 중국 남제 사신 파견(479년)과 백제-신라-왜와의 정치경제적 국제질서 유지 - 대가야, 소가야와 왜와의 교류 변천관계 소개  남원 월산리 M5  고령 지산동 M32  고령 지산동 M73  합천 옥전 M1  고성 송학동
V. 가야의 황혼 - 6세기 전·중반 1. 강국의 틈에서 2. 멸망까지	- 6세기,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살아남고자 한 가야 여러 나라의 생존 전략과 가야의 멸망 과정 조명  합천 옥전 M11  고성 내산리 M8  의령 경산리 M2  남원 월산리 M5
(에필로그) 가야사와 현재	- 가야와의 교류를 통해 왜의 사회와 문화는 크게 발전 - 옛 바다를 사이로 이웃한 가야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한일 양 지역의 유구한 교류관계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

[규슈국립박물관]

구 분	내 용
<p>제 I 부. 가야와 왜</p> <p>(서장) 가야란 무엇인가</p> <p>제1장 가야의 성립과 전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아시아와 비단길 2. 가야의 성립까지 3. 사회의 흥망 <p>제2장 가야의 무위(武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사의 무장 2. 항쟁과 국가형성 <p>제3장 가야의 국제관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편 2. 가야와 왜 <p>제4장 사회의 특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기생산 2. 가야 토기의 아름다움 3. 강국 사이에서 <p>(종장) 지금, 가야가 이야기 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사를 전반적으로 소개, 한국 국외반출품 중심으로 전시 - 가야의 성립·흥망과 왜와의 교류를 최신 조사연구 성과로 소개 - 일본 고분시대의 ‘왜’는 중국과 한반도의 여러 국가들과 대외교류를 하며, 가장 가까운 가야와는 이웃나라로 빈번히 교류함 - 가야에서 들어 온 철 소재는 왜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본 장에서는 철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야 여러 나라와 일본 왜와의 교류관계사를 조명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창원 다호리 M1</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해 양동리 M270</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고령 지산동 M32</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합천 옥전 M4</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해 퇴래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합천 옥전 M3</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합천 옥전 M3</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해 대성동 M1</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함안 도항리 M10</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합천 옥전 M1</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김해 대성동 M88</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함안 말이산 M4</div> </div>
<p>제 II 부. 도래인</p> <p>(서장) 도래인이란 무엇인가</p> <p>제1장 벼농사와 국가 건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벼농사와 함께 2. 한지와의 만남 <p>제2장 도래인과 삶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뱃길로 이어지는 사람들 2. 도래인과 왜인의 생활 <p>제3장 기술 혁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업의 시작 2. 요리혁명 3. 철의 은혜 <p>제4장 도래 말과 도래 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다를 건너는 말 2. 최초의 목장 3. 하니와 목장 4. 고분시대의 명마 <p>(종장) 마지막으로 도래인이 이야기 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여러 나라로부터 일본열도에 도래인이 가져 온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는 장으로 일본 출토품을 중심으로 전시 - 일상 생활에서의 요리와 그릇, 논밭의 경작, 소와 말의 사육과 이용 등 이후의 일본 문화를 형성하는 많은 요소에 대해 조명 - 고분시대의 도래문화가 초반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시행착오를 거쳐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착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특히 동아시아사에 남은 가야의 문화적 발자취를 조명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도래인 모양 하나와 (이치하라시 교육위원회)</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초기 스에키(5세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이동식 부뚜막(5세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가락바퀴(5세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나선상 반지(5세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총각부주(5세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말의 치아(5세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말모양하니와(6세기)</div> </div>

□ 순회전시 기관 개요 및 전시품 안전관리 방안

○ (일반현황)

-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일본 치바현 사쿠라시 소재,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인간문화연구기구 운영, 1983년 3월 개관, 제1~6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등 운영
- 규슈국립박물관: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소재, 2005년 10월 개관, 3층 3개 전시실 및 4층 16개 전시실 운영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규슈국립박물관

○ (안전관리)

- 관내 24시간 보안요원 상주 및 전시실 내 전담 방호인력 배치
- 건물 내부 및 전시실 내 동작감지기 및 내외부 감시카메라 운용, 전자 보안경보시스템 구비, 지진 대비 면진 시스템

○ (전시환경)

- 24시간 공조시스템 운영 및 관리(온도 16~24℃, 습도 45~60%)
- 자외선, 열 차단 및 조도 조절 가능한 LED 조명 시스템 등 적용

○ (화재예방)

- 관내 복합 화재탐지기 설치, 경비원 및 중앙감시실 동시 쌍방 감시, 순찰
- 전시실 및 수장고 내 자동열감지기, 자동연기감지기, 수동경보시스템 구비
- 불활성 가스 질소 소화 설비, 분말 소화기 및 소화전 구비 등

○ (국제교류 전시 이력)

-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교류 전시 ‘文字がつなぐ—古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전시품 40건 등 전시
- 규슈국립박물관: 2018년 일중문화교류협정 체결 40주년 기념 특별전 ‘삼국지’, 전시품 161건 등

□ 전시품 상태점검 및 포장 운송, 보험

-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직 및 보존담당자가 직접 상태점검 후 포장
- 전시품의 포장은 포장재 포장 후 오동나무 상자, 크레이트 격납 순으로 3중 포장하여 이동 중 전시품의 안전성 확보
- 운송방식은 국외반출입은 항공운송, 일본국내 이동은 육로운송으로 진행 (일본 현지 운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송은 문화재 전문 운송회사에서 담당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2인 이상이 호송관으로 동행하여 운송 및 설치 입회·감독
- 일본 현지 안전한 이동을 위해 순회기관 직원 1인 이상의 호송관 동행 및 보안요원 등 배치
- 지정문화재 포함 전시품은 전 위험담보(wall-to-wall) 보험 가입

검 토 사 항

IV.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1-009

9. 보물 제336호 정지장군 갑옷(鄭地將軍 甲衣)

가. 검토사항

‘보물 제336호 정지장군 갑옷’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로부터 ‘보물 제336호 정지장군 갑옷’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이 있어(’16.8.25.) 관계전문가 조사(’19.6.17.) 및 보완조사(’19.7.12.), 보존처리 겸 과학조사(’18.8.~9월)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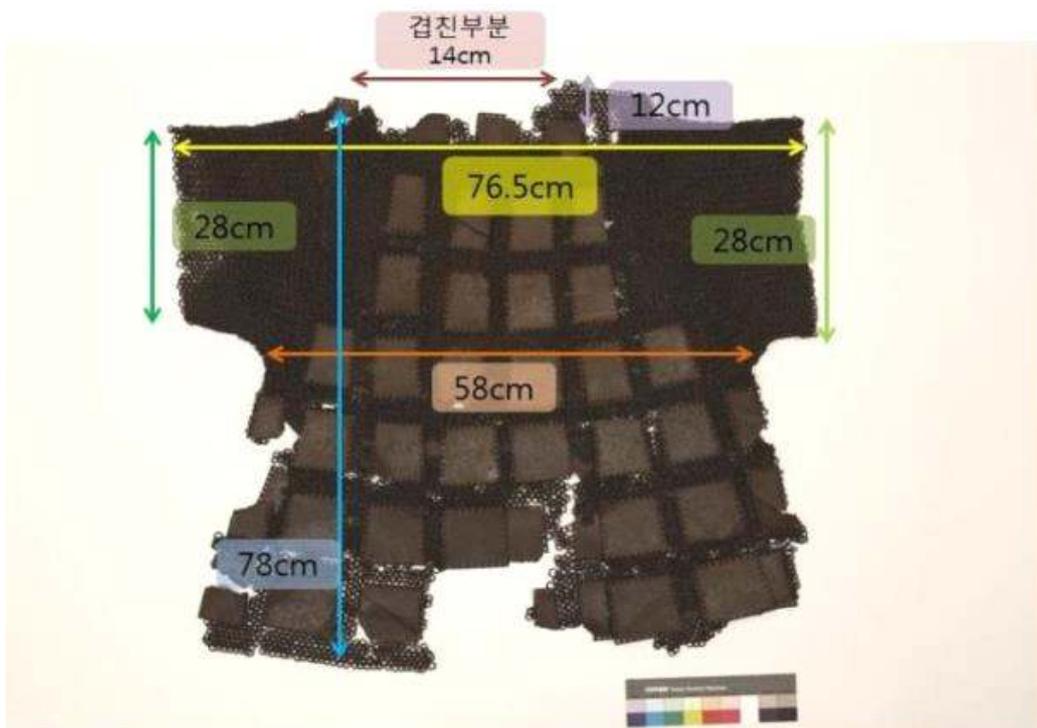
- 지정현황 : 보물 제336호(1963.1.21. 지정)
- 명 칭 : 정지장군 갑옷(鄭地將軍 甲衣)
- 소유자(관리자) : 하동정씨문중(광주시립민속박물관)
- 소재지 : 광주 북구 서하로 48-25,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수 량 : 1착
- 규 격 : 세로 78.8×가로 76.5cm, 품 58.0cm, 소매너비 28.0cm, 무게 9.1kg
- 재 질 : 철
- 형 식 : 쇠미늘과 쇠고리를 연결해 만든 철제 갑옷
- 조성연대 : 고려 후기 추정(14세기)



정지장군 갑옷(앞)



정지장군 갑옷(뒤)



정지장군 갑옷의 크기(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정지장군의 갑옷은 고려말 정지장군(1347-1391)이 실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착용하였다고 하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와 1963년 보물 제336호로 지정된 경번갑 갑옷

유물로서 한국 갑주사(甲冑史)는 물론 세계 갑주사에서도 중요한 유물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고려시대 14세기의 유일한 경번갑 유물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둘째, 갑옷의 착용자와 착용 시기가 밝혀진 유물로서 조선 초기 『세종실록』이나 『국조오례의서례』에 도설된 경번갑이나 이후 전세된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 경번갑 유물 등에 영향을 끼쳐 그 학술적인 가치가 뛰어나다.

셋째, 고려시대의 갑옷 유물 중에서 유일하고 희귀한 경번갑의 예로서 주목된다.

넷째, 쇠미늘을 규칙대로 배치하고 뒷판 끝 중앙을 트임처리하며, 쇠미늘의 가장 자리를 처리하는 방식과 쇠고리를 단점식과 리벳식으로 만들고 5개의 고리를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갑옷의 실용성과 조형성이 확인되어 고려말 금속공예의 기술적인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정지장군 갑옷 유물은 전세유물로서 착용자나 착용시기를 정확히 확정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옷 하단부의 상당 부분이 결실되고 파손되어 그 원형을 완전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흠결을 지니고 있어, 이 유물을 국보로 승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1. 정지장군 갑옷의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 인정

- 정지(鄭地, 1343~1391, 49세) 장군 갑옷은 조선전기 경번갑보다는 시대가 올라가는 고려 후기 갑옷으로 추정됨.
- 『세종실록』 등 조선전기 경번갑 도설과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임.
- 세계 갑주사에서 동아시아, 고려 경번갑으로 역사적 중요성과 학술적 가치 인정됨.
- 고려시대 철을 단조하여 찰찰을 제작하는 기술과 철환을 제작하는 기술, 경번갑을 제작하는 기술 수준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음.

2. 정지장군 갑옷의 진정성 및 완전성 미흡

- 현재 정지장군 갑옷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口傳에 의한 것이므로 정지장군의 갑옷인지 추정될 뿐임.
- 문화재 명칭을 ‘傳 정지 장군 경번갑’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지장군 갑옷 형태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 추정됨.
 - 앞 여밈이 겹쳐져야 착장이 가능한 형태임. 갑옷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힘든 형태로 여겨짐.

- 목 부분의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여밈 장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
- 앞중심 하단 부분과 뒷면 우측 하단 부분의 손상으로 완전한 형태 파악이 어려운 상태.

보물 제336호 정지장군 갑옷의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실제적 착용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 갑옷 형태의 불완전성, 여밈장치 등의 미확인, 부분적 훼손으로 완전한 형태 파악의 불가능 등의 이유로 국보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지정 가치 미흡)

정지장군은 고려시대 후기에 활약했던 무신으로 그가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갑옷은 하동정씨 문중에 전해 내려오며 현재 광주시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갑옷은 조선시대와는 형태와 구성이 다르고 정지장군의 문중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점 등을 참고한다면 고려시대의 것으로 여겨진다.

본 유물은 현전하는 유일한 형태의 경번갑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손상, 손실된 부분이 많아 유물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로서의 예술적 가치 및 연구자료로서의 충실성에 있어 완벽하지 않다. 또한 유물이 문중에 전해 내려왔다는 사실 외에 정지장군의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유일한 고려시대의 경번갑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모습과 연원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보로 지정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미흡)

정지장군의 갑옷은 전쟁사에 착용된 방어용 무기로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경번갑 유물인 동시에 역사적인 인물인 정지 장군이 착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어 군사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보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를 인정받아 일찍이 1963년 보물 제336호로 지정된 바 있다.

군사사(軍事史)에서 본 유물의 가치는 역사성, 대표성, 학술성, 제작기술, 국제적 보편성과 특이성 측면에서 우수함을 지니고 있다.

1. 갑옷 유물 중에서 연대가 올라가는 고려시대의 희귀한 유물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고려시대 갑옷은 절대적인 유물 부족으로 인해 『고려사(高麗史)』,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등 문헌 기록에 의존하여 형태와 특징을 추측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크기, 재질, 형태, 구조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만으로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2. 착용자와 착용시기가 밝혀진 유물이기에 시대적 대표성이 높다. 현존하는 갑옷 유물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라와 가야 고분 출토된 갑옷, 조선 후기 포(袍) 형태의 갑옷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 갑주의 경우 18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시대 미상, 착용자 미상의 유물이 대부분이며 임진왜란 이전의 갑주 유물이 매우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1347년(충목왕 3)~1391년(공양왕 3)이라는 생몰 연대와 양광, 전라, 경상도의 도절제체찰사(都節制體察使)라는 신분이 확실한 정지 장군의 유물은 고려 말 장수(將帥)의 경번갑을 대표하는 의미가 더해진다.
3. 조선시대 경번갑의 문헌 기록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사료이며, 이로 인해 한국갑주사의 열쇠가 되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물이 착용되었던 고려시대에는 경번갑의 기록이 없으나, 조선전기 『세종실록』 오례나 『국조오례의서례』 등의 군례(軍禮) 병기도설(兵器圖說)에는 경번갑의 그림과 간단한 설명이 있다. 반면에 조선시대 경번갑은 반쪽만 남아있는 유물 1점만 전해져서 온전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조선시대 경번갑 문헌 기록의 실체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자료이자 경번갑의 변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계승되는 갑주의 계보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4.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보이지만 제작기술 면에서 정교한 공예기법이 포함되고 완성도가 높다. 하나의 철판을 만들 때에도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꼭지점에 착용자의 피부나 옷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밀하게 재단하고 꼭지점을 잘라낸 후 사면의 철판을 둥글게 감았고 꼭지점이 뾰족하지 않도록 마무리하였다. 철고리 역시 2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서 교대로 연결하면서 제작효율을 높였다. 무엇보다 보수한 흔적이 남아있어 당시 착용했음을 입증하며 제작방식 뿐 아니라 수리방식과 기술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5. 세계갑주사에서 유럽의 경번갑이 동아시아로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이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등 서역(西域)과의 교류 관계를 밝히는 단서가 되는 중요한 의미의 유물이다. 한국에서 경번갑에 관한 사료는 적지만 세계갑주사에서

경번갑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경번갑의 특징을 지닌 갑옷이 쇠사슬갑옷에서 판금갑옷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입혀졌고, 유럽 외의 지역에서는 터키, 이란, 페르시아, 인도, 필리핀, 러시아, 몽골, 일본에서 유물이 발견된다. 특히 무슬림 군대의 전술과 자연환경으로 인해 중동, 이슬람권 갑옷은 유럽의 전신갑주에 비해 가볍게 착용했기에 경번갑이 널리 착용되었다. 경번갑(鏡幡甲), 즉 거울 경(鏡), 기치 번(幡)으로 이루어진 명칭 역시 국제적 교류를 입증한다. 거울처럼 빛나는 원형의 철판을 가슴에 두고 주변의 철판과는 사슬(철환)로 연결한 Krug 흉갑을 거울 갑옷, Mirror Armor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보편성 외에도 각국의 독자적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번갑은 철판에 조각, 상감, 보석 등의 장식을 하였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철고리에 글자를 압인하는 반면 조선에서는 가장자리의 선단에 문양을 장식하였다. 경번갑의 기본적인 특징은 지니되 각 나라의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갑주는 중국이나 몽골 갑주로 오인되어 독자성과 주체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경번갑 사료들로 인해 세계갑주사에서 한국 갑주의 위치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교류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시대 정지(鄭地) 장군의 갑옷은 현존하는 갑옷 유물 중에서 제작연대가 매우 올라가고 한국 경번갑의 계보를 밝혀 세계갑주사 교류와 변천을 밝혀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역사성, 시대적 대표성, 학술성, 제작기술의 우수성, 국제적 보편성과 특이성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으나, 파손과 결실로 인해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제작시기나 착용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형 식

쇠미늘과 쇠고리를 서로 연결하여 엮어 만든 철제 갑옷으로 경번갑(鏡幡甲)과 쇠

자갑(鎖子甲)의 결합 형식이다. 옷의 구조는 목깃 부분이 네모지고[方領], 소매가 짧으며 앞이 여미게 되어 있는 반소매 포(袍)의 형식이다. 갑옷의 전체 길이는 78cm로 엉덩이를 덮는 정도이고, 앞중심에서 겹쳐 입었을 때 가슴둘레는 78cm이며, 소매는 쇠고리만으로 연결하여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32cm로 되어 있다. 갑옷의 몸판은 가로 4-8.5cm, 세로 7.5-8.0cm의 장방형 철판으로 만든 쇠미늘과 지름 1.0cm의 쇠고리를 연결하였는데, 미늘의 크기는 목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커져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다. 갑옷의 앞면은 6조각의 쇠미늘을 상하로 연결해서 좌측 3줄, 우측 3줄로 배치하였고, 뒷면은 7조각의 쇠미늘을 상하방향으로 연결하여 좌우 5줄을 배치하여 총 91매가 사용되었다. 쇠미늘은 구멍을 뚫어 각각의 쇠고리를 걸었고, 고리의 양끝은 서로 겹치게 작은 못을 박아 빠지지 않게 연결하였다. 겨드랑이 부분으로 갈수록 미늘의 수가 줄어 4매를 한 줄로 두 줄씩 연결하여 몸통의 움직임이 편하게 만들었다. 한편 소매 부분에는 미늘이 없고 팔꿈치까지 올 정도로 짧으며 고리의 연결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되어 있다. 갑옷은 앞 여밈으로 되어 있는데, 앞 중심에서 왼쪽과 오른쪽 자락이 서로 1줄씩 겹쳐지게 여며서 겹으로 보기에 쇠미늘은 좌우 4줄만 보이도록 되어 있다. 갑옷은 목과 겨드랑이 부분이 앞자락에서 뒷자락으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정지장군 갑옷(뒤)

정지장군 갑옷(앞)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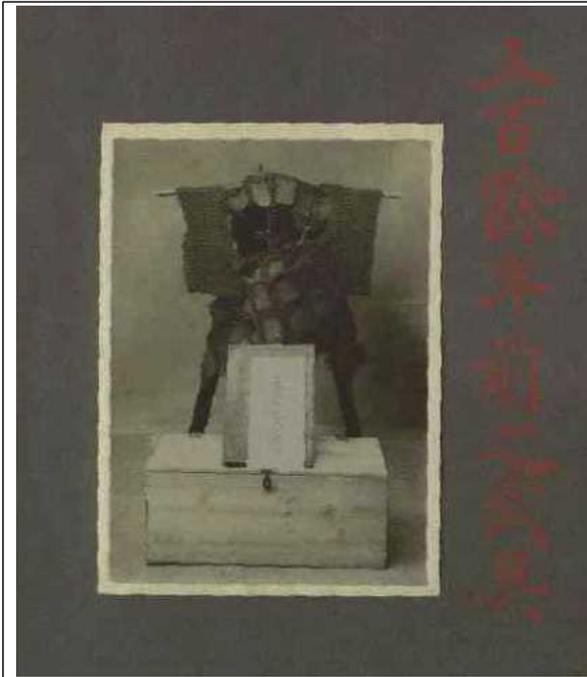
○ 조성연대 : 고려 14세기

이 갑옷은 고려 말 무신 정지장군(1347-1391)이 왜의 두목 '왜산지(倭山智)'를 무찌를 때 직접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공민왕 14년(1365)에 사마시에서 장원하였고, 이듬해 문과에도 급제하여 문무를 겸비하였는데, 왜구의 침탈이 극심했던 고려 말에 전라도 안무사, 해도도원수, 전라도 관찰사, 문하평리(門下評理) 등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민왕 23년(1374) 수군 창설을 주창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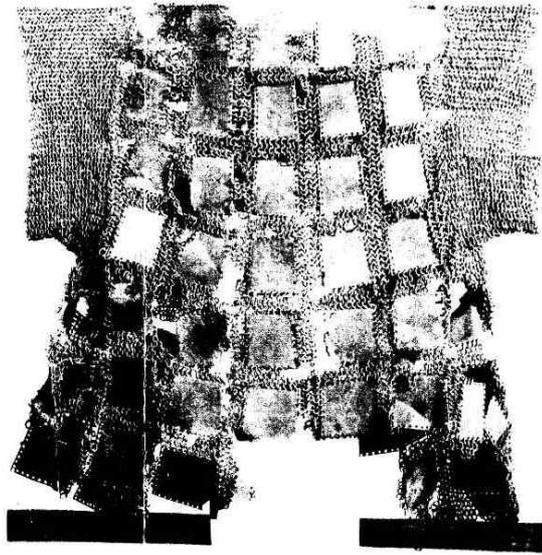
던 그는 우왕 9년(1383)에는 적선 120여 척이 경상도 연해로 침입해 오자 불과 47척의 전선을 이끌고 관음포에서 왜적을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다. 우왕 14년(1388)에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동참하여 공양왕 2년(1390) 2등 공신에 봉해져 판개성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공양왕 3년(1391)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갑옷은 장군의 유품으로 후손인 하동 정씨 문중에서 간직하여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으나, 정지장군이 직접 착용하였다는 기록이나 제작했을 당시의 명문 등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유물에 대한 조선시대의 기록은 몇 가지가 전하고 있다. 조응록(趙應祿, 1538-1623)이 1592년부터 1615년에 집필한 『죽계일기(竹溪日記)』 권1의 1593년(만력 21) 12월 기사를 보면 “광주의 김덕령(金德齡, 1567-1596) 장군이 담양부사 이경린(李景麟을, 1533-1606 이후)을 삼례에서 만날 때 천근이나 돼 보이는 쇠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 정지장군의 갑옷”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담양부사 이경린은 임진왜란 중 김덕령의 종군을 권유하면서 자신의 봉급을 털어서 전투에 필요한 제반 기구를 마련하는 등 의병활동을 적극 지원한 인물이다. 이때 김덕령이 착용한 쇠갑옷이 정지장군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정조 초에 이민서(李敏叙, 1633-1688)가 지은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56 중 ‘왜란시정토인(倭亂時征討人) 김덕령전’에는 “김덕령장군의 자손이 대대로 간직한 정지장군의 철의(鐵衣)를 입고 정지장군의 묘소에 가서 제사를 올렸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이 갑옷은 1593년 이후부터는 정지장군의 갑옷으로 조선 사회에 알려져 있었으나 18세기 말 정조 초까지도 그것은 광주에 있는 김덕령장군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1915년에 전라남도 광주공립보통학교(현재 광주서석초등학교)에서 간행한 『향토사료』에 흑백사진과 ‘500여 년 전 무구(五百餘年前之武具)’라는 제목과 함께 실려 있다. 내용 속에는 ‘500여 년 전의 철갑(鐵甲)으로, 종가에서 잘 보관하고 있으며 고려의 정지장군의 갑옷이고,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은 그의 9대손이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흑백사진 속에는 쇠갑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고, 그 아래쪽에 갑옷을 넣어두었던 궤의 모습도 보인다.



<오백년전정지무구(五百餘年前之武具)>, 1915년 향토사료



1960년 <지정문화재대상> 국보 제51호 정지장군 환삼, 국가기록원 자료

○ 지정 현황

정지장군 갑옷은 정지장군의 20세 종손인 정영근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을 1955년, 당시 광주 상무대의 육군통신학교 최석남 교장과 전남대학교 박물관의 김창호 관장이 발견하여 전남대 박물관에서 보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63년 1월 21일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강철 위원 등이 조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336호 ‘정지장군 환삼(環衫)’으로 지정하였고, 1976년 9월 14일부터 광주광역시 시립민속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 12월 23일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의해 ‘정지장군 갑옷(甲衣)’로 바뀌었다.

해당 유물은 철제로 되어 있어 표면에 녹이 심하게 슬어 198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에 의뢰하여 긴급 보존처리를 실시한 바 있었다. 당시 유물 표면에 붙은 이물질들을 브러시와 치과용 소도구를 이용해 닦아 주었으며 에틸 알콜로 여러 차례 세척하였다.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는 이물질들은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스레 하나하나 제거하였다. 쇠고리와 쇠고리 사이의 연결 부분은 칫솔로 부드럽게 닦아 내어 먼지 등을 제거하였다. 이처럼 탈염처리 뿐 아니라 X-ray 촬영을 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한국의 갑주> 보고서에 수록되었고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상설전시 및 2000년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시에 출품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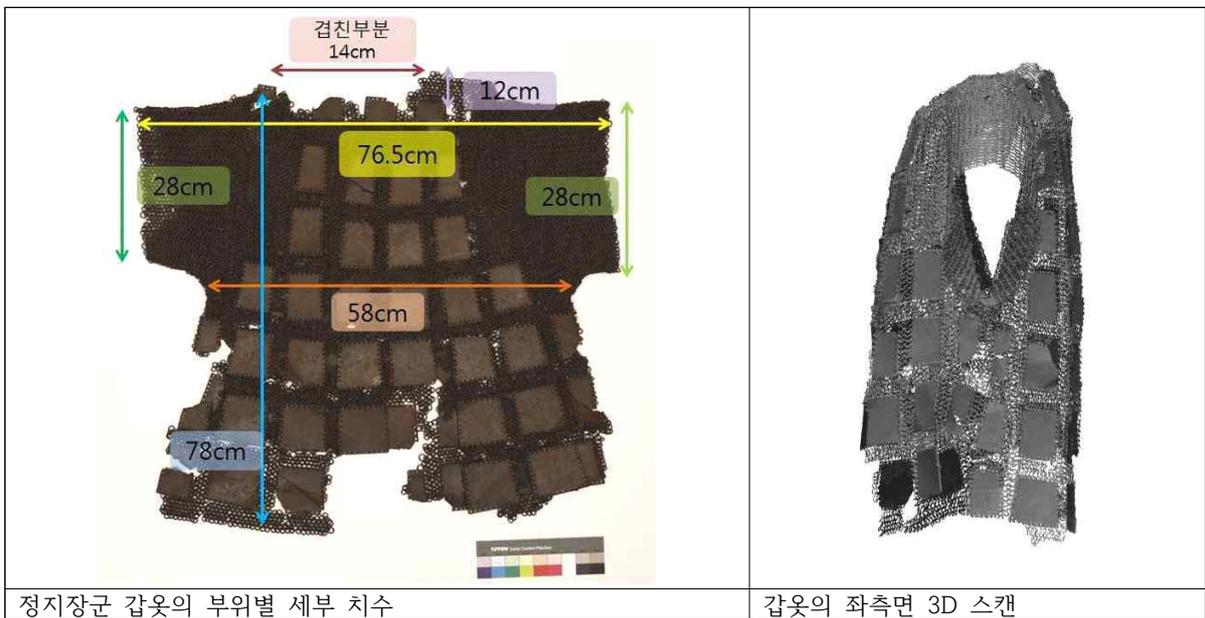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1. 정지장군 갑옷의 구조와 치수

정지장군 갑옷은 쇠미늘[鐵札]과 쇠고리[鐵環]를 엮어서 만든 철제 갑옷이다. 전체적으로 옷의 구조는 목깃이 네모지고[方領] 소매가 짧으며 옷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며 앞을 여민 저고리(袍) 형식이다. 갑옷의 상하 길이는 78cm이고, 소매의 가로 길이는 76.5cm이다.

네모난 목깃은 너비 14cm, 길이 12cm이다. 짧은 소매는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차이가 있다. 왼쪽은 목깃부터 어깨길이까지 소매길이 17cm, 진동 32cm이다. 오른쪽 소매길이 19cm, 진동 30.5cm이다. 소매끝의 너비는 28cm이다. 방형의 목깃과 짧은 소매 부분은 쇠고리만으로 연결하여 어깨와 팔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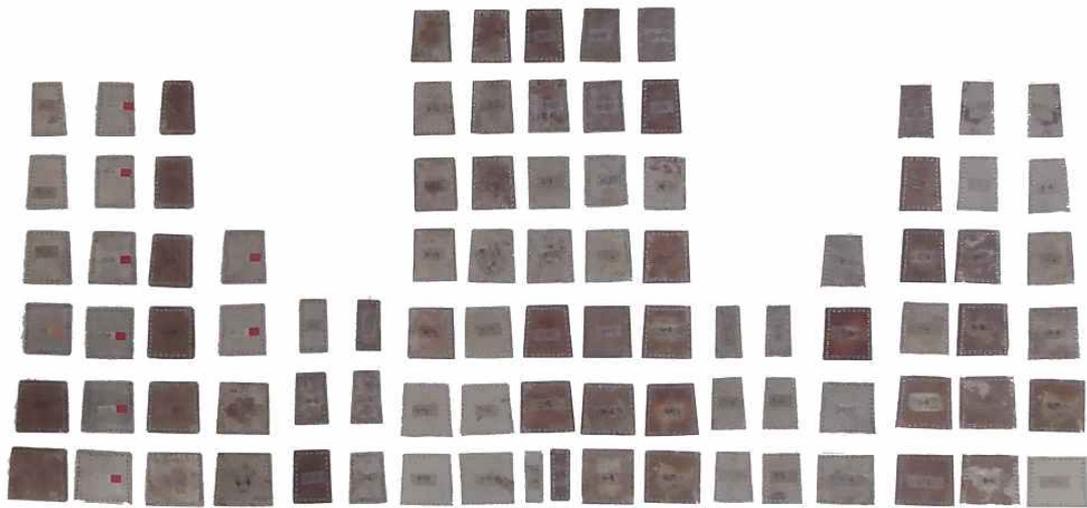


철제 갑옷은 좌우의 옷깃을 앞쪽 중심에서 겹쳐 여미는 형식이다. 겹치는 부분은 쇠미늘 2줄 정도이며 17cm 정도이다.

갑옷의 몸판은 가로 4-8.5cm, 세로 7.5-8.0cm의 장방형 철판으로 만든 쇠미늘과 지름 1.0cm의 쇠고리를 연결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쇠미늘의 수량은 앞쪽 왼쪽 몸판(FL) 18매, 오른쪽 몸판(FR) 22매, 뒷판(B) 38매로 총 78매이다. 쇠미늘의 현존 숫자와 배열상태를 확인한 결과 일정한 규칙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앞쪽 좌우 몸판의 쇠미늘은 각각 1-2열은 3매, 3열은 4매, 4-6열은 5매씩[3+3+4+5+5+5] 25매, 총50매였다. 뒤쪽 몸판의 쇠미늘은 1-4열은 5매, 5-7열은 7매씩 [5+5+5+5+7+7+7] 41매였다. 이를 통해 원래 이 갑옷의 쇠미늘은 앞뒤 총 91매였다고 추정된다. 다만 뒷판 중앙 부분의 쇠미늘은 착용시 편리를 위해 1/2 크기로 갈라져 좌우에 배치되어 있어 전체 쇠미늘은 총92개였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존하는 쇠미늘은 총78매여서 14매의 쇠미늘이 결실되었다고 판단된다.



철판의 배열 상태



쇠미늘 92매의 제작 복원



정지장군갑옷 복원 앞판 오른쪽

정지장군갑옷 복원 뒷판

정지장군갑옷 복원 앞판 왼쪽

2. 쇠미늘과 쇠고리의 제작 및 연결 기술

쇠미늘의 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이지만 가로 약 4-8.5cm, 세로 약 7.5-8.0cm로서 각 열과 각 부위마다 크기가 차이를 보인다. 쇠미늘은 전체적으로 위보다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넓어진다.

1) 쇠미늘

쇠미늘은 겉에서는 매끈한데, 네 가장자리는 안쪽으로 살짝 말아 둥글게 오그려서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쇠미늘의 가장자리에는 0.5-0.7cm의 간격으로 지름 0.3cm의 구멍을 안에서 밖을 향해 뚫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체나 옷에 닿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쇠미늘에 뚫린 구멍의 개수는 좌우의 것은 10개이고, 위쪽의 것은 8개, 아래쪽의 것은 9개이다. 구멍의 개수에 의해서도 상하가 길고 위가 좁고 아래가 품이 넓은 구조의 옷으로 기능성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쇠미늘의 겉모습



쇠미늘의 안쪽 모습

쇠미늘은 90개는 같은 장방형의 형태이지만, 뒷판 중앙의 가장 안쪽의 것 1/2 크기의 장방형이어서 양쪽으로 갈라져 말을 타기에 용이하게 된 구조이다.



갑옷 뒷판 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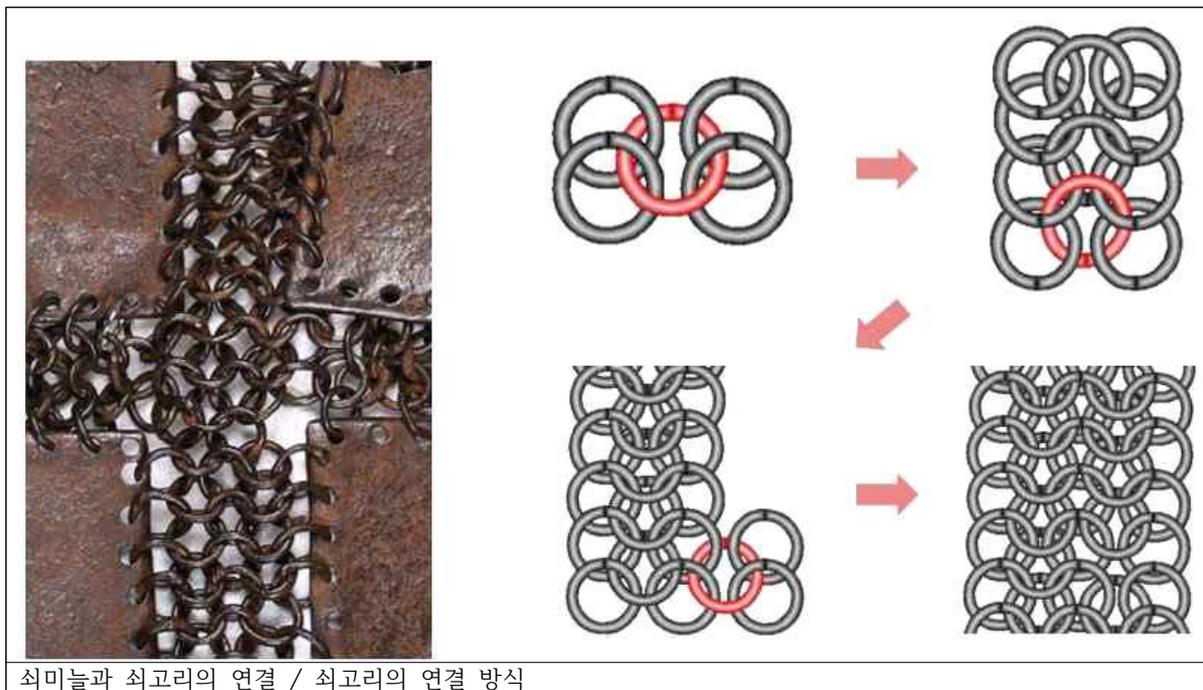
뒷판 하단 중앙 부분

2) 쇠고리

먼저 쇠고리는 지름 1cm이고 안지름 0.7-0.8cm인데, 쇠고리의 종류는 2가지로 구분된다. A종은 단접형이고, B종은 리벳형이다. 단접형은 철사를 둥글게 감아서 잘라낸 양 끝을 답전해서 결합한 형식이다.



쇠미늘과 쇠고리를 연결하는 방식은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있다. 쇠미늘에 쇠고리를 걸고, 쇠고리는 상하좌우로 걸어 총5개의 고리묶음이 하나의 단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단접형 쇠고리는 쇠미늘과 고리를 연결하거나, 고리와 고리를 상하좌우로 연결하는 부위에 90도 간격으로 일정하게 연결할 때 사용한다. 리벳형은 고리의 양 끝을 단조하여 두께를 만든 후 작은 구멍을 뚫고 여기에 작은 못을 끼워 마감하는 방식이다. 리벳형의 위치는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는 모서리 등의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부위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단접형을 미리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난 후 양자를 연결할 때 리벳형으로 마감했다고 판단된다.



리벳형은 단접형에 비해 제작을 할 때에도, 연결을 할 때에도 시간과 품이 많이 든다. 이에 쇠미늘에는 단접형을 매달고, 그것을 다시 연결할 때에는 리벳형을 사용한다. 하나의 쇠미늘과 다음 쇠미늘 사이에는 가로와 세로 방향 모두 5줄의 고리가 연결되는데, 2번째와 4번째 줄은 단접형을, 1번째, 3번째, 5번째 줄은 리벳형을 사용하여 철판의 구멍과 일반 고리, 혹은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였다.

이렇게 쇠미늘과 쇠미늘 사이를 쇠고리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고리에 여러 개의 고리를 걸어서 조이거나 늘리기도 하였다. 단접형 쇠고리와 리벳형 쇠고리는 총 20,000여 개였다. 이러한 쇠고리를 배열하여 코를 줄이거나 늘려 깃과 소매 배래 부분의 형태를 만들어나갔다.



특히 이러한 배열을 통해 이 갑옷이 실제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첫째 앞판은 목을 네모지게 파서 입을 수 있게 만들었다. 뒷판이 7열인데 비해 앞판은 1열이 적은 6열로 줄이고, 대신 그 부분을 쇠고리에 의한 방형 목깃으로 처리한 점이다.

둘째 몸판의 소매를 쇠고리만으로 처리하여 움직임에 최대한 보장한 점이다.

셋째 몸판의 옆구리에 쇠미늘을 앞뒤좌우로 1매씩 더하여 몸통의 구조를 확보한 점이다. 몸판의 소매 아래 옆구리 부분을 앞뒤판에서 좌우마다 각각 1매씩 총 4매를 늘인데서 확인된다. 곧 앞판의 경우 1-3열까지 3,3,4였다가 4-5열에서 5매로, 뒷판의 경우 1-4열은 5매였다가 5-7열에서 7매로 각각 좌우 1매씩 총 4매를 더한 것에서 확인된다.

넷째 정지장군 갑옷의 전체 무게는 9.04kg이다. 일반적으로 쇠미늘만으로 제작된 갑옷의 경우 그 무게가 30-40kg인 것에 비해 3배 이상 가벼웠다.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몸체 밀착되어 착용하기에 좋고 움직일 때에도 편리하였다.



3) 손상 및 보수 흔적

정지갑옷은 고려 말 정지장군이나 임진왜란 때 김덕령장군이 실제 착용하였던 때문인지, 보수하여 사용한 흔적이 있다. 쇠미늘의 경우 칼이나 화살에 의해 파손된 부위를 철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절단하고 쇠고리를 연결해서 보수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에 들어서도 정지갑옷은 손상이 진행되어 보수하였다. 철제로 제작된 갑옷의 특성상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붉은 녹이 슬어 있다. 쇠미늘의 경우 표면이 박락되거나 판재가 꺾이거나 절단되어 손상된 부분이 있다. 쇠고리가 결실된 부분이 있으며, 단접형의 경우 접합 부분이 떨어져 틈새가 벌어지고, 리벳형의 경우 못이 빠져 나가 있다. 이에 198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한 적이 있어 표면의 녹 제거와 탈염처리 및 연결고리 중 일부를 보수하였다. 2019년 조사 당시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었다.

3. 우리나라의 갑옷 유물

정지장군 갑옷과 같이 쇠사슬을 엮어 만든 경번갑이나 쇠자갑 유물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1점, 국립고궁박물관에 1점,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이중 숭실대학교박물관의 것은 정지장군의 것처럼 쇠미늘과 쇠고리가 연결된 형식이고, 뒤의 2점은 쇠고리만으로 연결한 쇠자갑의 형식이어서 차이를 볼 수 있다.

숭실대학교박물관의 갑옷 유물은 전체 형태와 구조가 정지장군 갑옷 유물과 유사하게 쇠미늘과 쇠고리를 연결하여 경번갑과 쇠자갑의 절충형식이다. 몸판은 정방형의 쇠미늘을 쇠고리로 연결했지만 방형의 목깃과 소매는 쇠고리로만 된 점도 일치한다. 쇠미늘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형태인데, 철판의 단수는 앞판 6단, 뒤판 7단인 것도 동일하다.

다만 숭실대박물관의 것은 전체 총길이 82cm, 가로 75.4cm이고, 품 70cm로서 품이 넓으며, 소매가 짧고 목깃이 넓고 높은 점이 다르다. 정지장군의 쇠미늘이 장방형인데 비해 숭실대학교의 것은 정방형인 점도 차이를 보인다. 유존하는 쇠미늘에 의해 판단할 때 앞판과 뒤판의 쇠미늘의 배치와 수량이 다르다. 앞판의 경우 1-3열까지 쇠미늘은 3매, 4-6열은 4매로 총21매[3+3+3+4+4+4]이고, 뒤판의 경우 1-4열까지는 7매, 5-7열까지는 9매로 총55매[7+7+7+7+9+9+9]로 추정된다. 재료의

경우에도 송실대의 것은 가죽이나 직물이 일부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이것이 원래 갑옷에 부착되어 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송실대학교박물관의 갑옷은 앞뒤 모두 왼쪽 부분 한쪽만 남아 있어 정확한 원형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4. 우리나라 경번갑의 사례

우리나라의 갑옷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판갑(板甲)과 찰갑(刹甲)이 대부분이다. 조선시대에는 유성룡의 찰갑과 이봉상의 원수, 부원수용 2벌, 정충신 장군의 두정갑 등이 현존하는 대표적인 갑옷이다.

경번갑의 사례로는 조선 전기 『세종실록』 오례 서례와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로 확인할 수 있고, 조선 후기 『춘관통고(春官通考)』에도 도설이 있으나 이전 것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쇠고리만으로 켜진 갑옷은 쇠자갑(鑊子甲)이라 부르고, 쇠미늘과 쇠고리로 연결한 것은 경번갑(鏡幡甲)이라 부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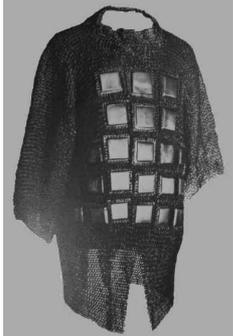
있었다. 이로 미루어 정지장군의 갑옷은 장방형의 쇠미늘을 잇대는 경번갑(鏡幡甲)이어서 쇠사슬만으로 연결하여 엮는 쇠자갑(鑱子甲)과는 차이가 있다.



도설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세로로 긴 철판 4-6개를 좌우로 겹친 후 이들을 쇠고리로 연결한 모습이다. 쇠자갑과 달리 안감이 있고 소매와 도련의 가장자리를 따라 연화당초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둥근 깃[團領]은 목을 가릴 수 있도록 높이 올라와 있고 앞여밈에는 짧고 좁은 끈이 매달려 있다. 고려말 정지장군의 갑옷 유물과 조선시대 문헌에 그려진 그림 및 기록과 비교해보면 우선 쇠미늘이 쇠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앞길과 뒷길에만 철판이 있고 소매부분은 쇠고리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정지장군의 갑옷 유물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쇠미늘이 1겹인데 비해 조선의 그림에는 좁고 긴 직사각형의 쇠미늘 여러 개를 가로로 나란히 겹친 후 이것들을 쇠고리로 연결한 것이 차이점이다. 유물의 파손으로 인해 확인되지는 않으나 목깃의 형태나 안감 유무, 소매 길이 및 앞여밈끈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어쨌든 정지장군 갑옷과 같은 형식의 갑옷은 쇠미늘의 방호력과 쇠고리의 활동성을 동시에 추구되어 세계 갑주에서 널리 착용되었다. 중세유럽에서는 10-13세가 쇠자갑의 전성기였다가 이후 판금갑옷으로 대체되어 13세기 후반부터 쇠자갑을 기본으로 팔다리의 바깥면이나 팔꿈치와 무릎 및 손등과 발등을 철판으로 덮는 트랜지션 아머(transition armor), 판금갑옷과 쇠자갑이 결합된 플레이티드 메일 아머(plated mail armor)가 있는데 이것이 경번갑의 원리나 구조와 상통한다. 동양에서는 기병(騎兵)들은 말을 탈 때 노출되는 무릎이 취약하여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과 철환을 결합한 갑옷이 개발되었다. 14-15세기의 페르시아나 인도 및 터키와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보인다. 중국에서는 경번갑에 관한 기록이나 유물이 거의 없는 반면, 일본에서는 철판의 형태와 고리의 연결방식을 개발하여 다양한 경번갑을 활용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몽골군의 갑옷은 두정갑, 쇠자갑, 피찰갑 혹은 철찰갑의 형태이며, 경번갑 형태의 갑옷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정지장군 갑옷과 유사한 형태의 것은 러시아의 ‘칼란타르’나 13세기의 ‘베흐테레’가 있다.

			
칼란타르(Калантарь)	베흐테레(Бехтерец)	대몽골 쇠자갑	몽골군사박물관 쇠자갑

○ 기 타

정지장군 갑옷은 하동정씨 경렬공파 종친회에서 1976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에 위탁 협약을 맺어 기탁한 이후 계속 반복하여 연장하고 있다. 본 유물은 1963년 지정 당시에는 정지장군 환삼(環衫)이었다가, 2011년 12월 23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변경으로 정지장군 갑옷[甲衣]으로 부르고 있지만, 쇠미늘과 쇠고리로 연결되는 구조나 형식으로 미루어 볼 때 경번갑이 확실하므로 정지장군 경번갑(鏡幡甲)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제 유물의 특성상 공기 중에서 부식되어 붉은 쇠녹이 발생하므로 1984년 조사 후 1985-8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했으며, 201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가 진행되었다. 그와 동시에 유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2018년 충남역사연구원에서 유물에 대한 재현복원이 되었다.

○ 참고문헌

- 고복남 (1986),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일조각.
- 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군복식발달사』.
- 김정자, 임영자 (1996), 「고려시대의 갑주에 관한 고찰」, 『복식』 29.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韓國의 甲冑』. 미술사.
-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
- 박가영 (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효진 외(20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경번갑 보존 및 제작기법 연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지』 제8호.

전라남도 광주공립보통학교 (1915), 『향토사료』.

조응록 (1593), 『죽계일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8), 『정지장군 갑옷 복원제작 보고서』

□

○ 현 상 : 앞중심 하단 부분과 뒷면 우측 하단 부분 손상(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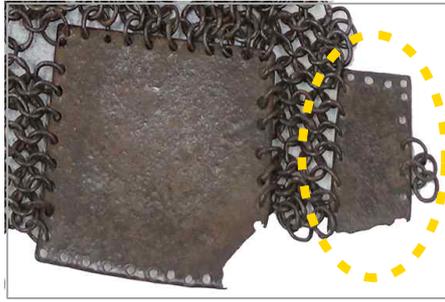
[그림 1] 정지장군 갑옷 앞면
철찰 세로 6줄, 가로 3~4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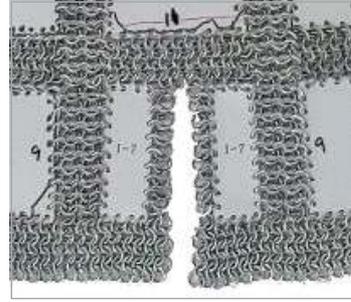
[그림 2] 정지장군 갑옷 뒷면
철찰 7줄, 가로 5~7열

• 형태

- 鐵札과 鐵環을 연결하여 만든 반팔형 긴 상의형. 짧은 뒷트임 있음.
- 비실용적인 앞길 구조와 목둘레
 - 뒷길에 비해 앞길 좌우의 폭이 넓어 실제 착용이 어려운 구조.
 - 좌우 앞길 넓어 앞중심에서 14cm 이상(철찰 2줄) 겹쳐져야 착용 가능.
 - 갑옷은 대부분 앞중심선에서 만나는 對襟 구조가 일반적임.
 - 비정상적인 구조로 판단됨.
- 뒤트임 : 馬上衣로 적합.
 - 뒷길 중심 하단(좌측)에 부서진 가장 작은 철찰의 부분 확인됨. 좌·우 1쌍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 좌측만 남아 있음(그림 3·4).
 - 철찰 크기 : 너비 2.2cm, 세로 7.9cm 추정(현재 5.5cm 정도).



[그림 3] 뒷길 좌측 하단 뒤트임
부분의 철찰과 철환



[그림 4] 경번갑 재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



[그림 5] 정지장군 갑옷 치수(국립문화재 연구소 제공)

- 치수 및 무게
 - 치수 : 길이 78cm, 너비 76.5cm, 폭 58cm, 고대 34cm, 소매너비 28cm
 - 제시된 치수는 평면에 놓고 실측했을 때의 대략적인 치수이므로 실제 착용치수는 다를 수 있음(그림 5).
 - 무게 : 현재 상태 8.8kg 정도

- 철찰과 철환
 - 철찰은 좌우 앞길과 뒷길에만 사용. 소매 부분은 철환으로만 제작.
 - 철찰 특성
 - 현재 개수 : 총 78매
 - ①앞길 우측 21개(그림 6) ②앞길 좌측 19개(그림 7) ③후면 38개

- 철찰 형태 : ①사다리꼴 ②갑옷 하단으로 갈수록 철찰의 크기 커짐.
- 철찰 크기 : 가로(4.0cm ~ 7.9cm), 세로(7.5cm ~ 7.9cm), 뒤트임 부분의
- 성분 : 철과 탄소 합금강철(아공석강 조성의 철을 723℃ 정도에서 단조한 것으로 추정됨)
- 철찰 구멍 : 철환 끼우기 위한 구멍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음.
- 철찰 가장자리 : 안쪽에서 감아 마무리함(그림 8).



[그림 6] 앞길 우측 철찰(21개)



[그림 7] 앞길 좌측 철찰(19개)



[그림 8] 철찰 안쪽에서 감아 마감한 가장자리·안에서 바깥으로 뚫은 구멍

○ 철환 종류와 특성

- 종류: ①민겹친형 못(이하 '민철환')
- ②고정못형 못(이하 '못철환')(그림 9)
- 종류 1(민철환) : 개폐 불가능, 못철환 연결용으로 사용, 못철환보다 약간 작은 형태

- 종류 2(못철환) : 개폐 가능(못), 직경 1cm 정도. 철찰 연결용 또는 민철환 연결용으로 사용, 민철환에 비해 정교한 제작.



※ 용어 ‘고정못형 철환’과 ‘민겹친형 철환’(이효진 외 2012: 112)

- 성분 : 철과 탄소 합금강철(아공석강 조성의 철을 723℃ 정도에서 단조), 철찰보다 탄소 함량 낮음.

[그림 9] 못이 빠진 못철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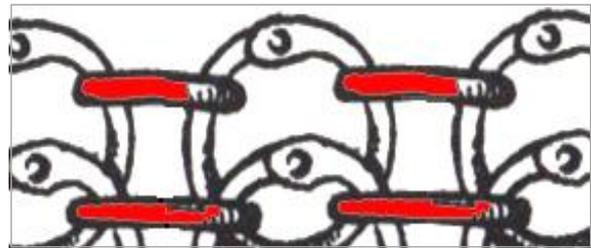
- 철찰과 철환의 연결방법

- 철찰에 ‘못철환’ 연결
- 일반적 연결방법 : 상하·좌우 철찰과 철찰 사이에 5개의 철환 사용(철찰-못철환-민철환-못철환-민철환-못철환-철찰)(그림 10·11)
- 어깨 고대점에서 소매끝까지 철환 46줄 사용
- 우측 소매 둘레 철환 102개 사용, 좌측 소매 둘레 철환 108개 사용



[그림 10] 철환 연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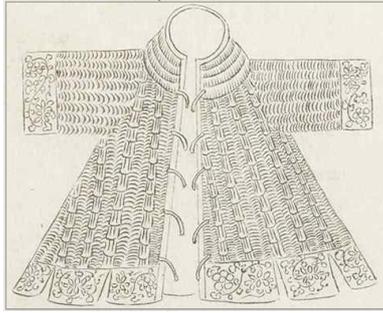
(못철환-민철환-못철환-민철환-못철환)



[그림 11] 철환 연결 방법 도식화

(못철환-민철환-못철환-민철환-못철환)

- 여밈방법 : 정지장군 갑옷의 여밈방법은 확인 불가능.
 - 조선시대 경번갑은 끈으로 묶는 방식으로 확인됨(그림 12~13).
 - 15세기 이란 경번갑의 걸쇠 사용 방식 확인됨(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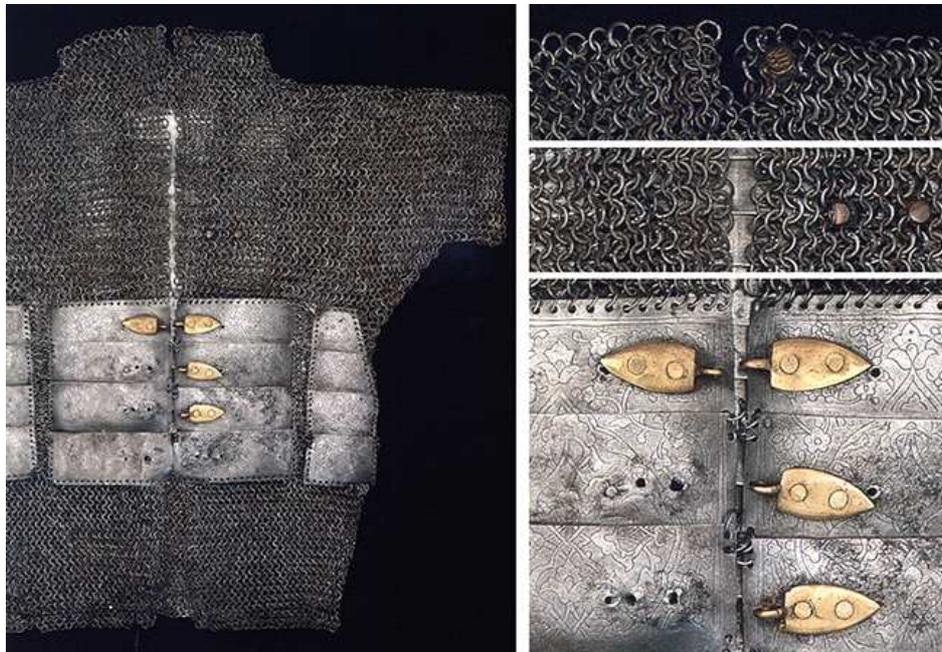
[그림 12] 경번갑
『世宗實錄』 卷133



[그림 13] 경번갑
『國朝五禮序例』 卷4



[그림 14] 경번갑
『春官通考』 卷75



[그림 15] 15세기 이란 경번갑의 여밈장치

- 가장자리 처리방법 : 가장자리에는 민철환으로 마감.
 - 목부분 처리방법 : 철환 8개 연결(그림 15)
(철찰-못철환-민-못-민-못-민-못-민-못-민철환)
 - 밑단 처리방법 : 6개 연결(철찰-못철환-민-못-민-못-민철환)(그림 17)
 - 선단 처리방법 : 4개 연결(철찰-못철환-민철환-못철환-민철환)
 - 뒤트임 세로선 처리방법 : 좌우 각각 2개씩 연결(철찰-못철환-민철환)



[그림 16] 목 부분 철환 처리방법
(철찰-못철환-민-못-민-못-민-못-민철환)



그림 17 밑단 철환 처리방법
(철찰-못철환-민-못-민-못-민철환)

- 뒷면 왼쪽 어깨 부분에 보수된 철편 2개 확인됨(그림 18).
 - 하단 : 철환으로 메꾸는 방식(그림 19)
 - 상단 : 안팎으로 철편 대고 안쪽에서 못 10개 박아 겉에서 마무리(그림 20·21).



[그림 18] 뒷면 왼쪽 어깨 보수



[그림 19] 뒷면 하단 보수법(겉)
철환으로 메꾸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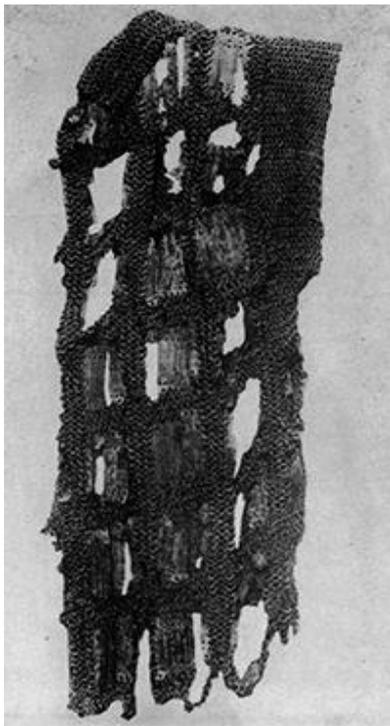


[그림 20] 뒷면 상단 보수 부분(겉)
겉에 철판 대고 고정시킴



[그림 21] 뒷면 상단 보수 부분(안)
안에도 철판 대고 안에서 못박음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이하 숭실대 갑옷) 경번갑과의 비교
 - 숭실대학교 박물관 소장 경번갑 형태(半破, 그림 22·23)



[그림 22] 1934년 제시된 갑옷
이효진 외 2012: 111



[그림 23] 2012년 보존처리 후 숭실대 갑옷
이효진 외 2012: 111

- 일제강점기 선교사로 활동했던 존 부츠(J. L. Boots)가 1934년 발표한 『Korean Weapons and Armor』에 처음 발표됨. 사진에 왼쪽 반만 남은 것으로 제시됨.
- 2012년 용인대학교 문화재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에서 보존처리함.
- 송실대 갑옷과 정지장군 갑옷의 유사점
 - 구조 : 철찰과 철환(못철환·민철환)의 연결로 제작된 경번갑이라는 점.
 - 길이 : 긴 상의 정도 비슷한 길이
 - 송실대 갑옷 철찰의 고정 철사가 겹면으로 처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지장군 갑옷 보수 첩편의 경우에도 못 끝이 겹면으로 처리됨.
- 송실대 갑옷과 정지장군 갑옷의 차이점
 - 송실대 유물은 『세종실록』·『국조오례서례』 경범갑과 형태 유사. 따라서 조선시대 경번갑으로 추정됨(그림 24·25).
 - 송실대 유물은 좁은 첩편을 『세종실록』·『국조오례서례』처럼 여러개 연이어 고정한 형태이고 정지장군 유물은 넓은 첩편 1장을 사용함.
 - 송실대 갑옷에는 것이 있음.



[그림 24] 송실대 유물 첩편



[그림 25] 『세종실록』 경번갑 첩편

- 『세종실록』 권133 경번갑과의 차이
 - 정지장군 갑옷은 1장의 첩철을 사용한 반면, 조선시대(세종실록)의 경번갑은 여러 개의 첩철을 연결하여 하나의 조각으로 사용함.

- 정지장군의 갑옷은 철 부분만 남아 있고 유기질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나 『세종실록』 경변갑에는 철환으로 만든 호항 부분이 있고 수구와 도련에는 화문이 있는 선단 장식이 있음(그림 26·27).



[그림 26] 鏡幡甲

세종실록 133권, 五禮 軍禮序例 兵器
 “鐵札及鐵環相間以綴曰鏡幡甲”



[그림 27] 경변갑 상상도

김원철 작품

○ 문헌자료

『世宗實錄』, 『國朝五禮序例』, 『春官通考』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문화재窓』, 겨울호, 32~33쪽.

김원철 블로그, <https://m.blog.naver.com/dnjscjf1717/220225908044>.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7, 『韓國의 甲冑』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9, 「보물 제336호 정지장군 갑옷 재질 분석 결과」.

세계일보 2017. 12. 21 [공감!문화재] 갑옷의 혁신, <http://m.segye.com/>

이효진 외 4인, 2012,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경변갑 보존 및 제작기법 연구」 『韓國基督教博物館誌』 8,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1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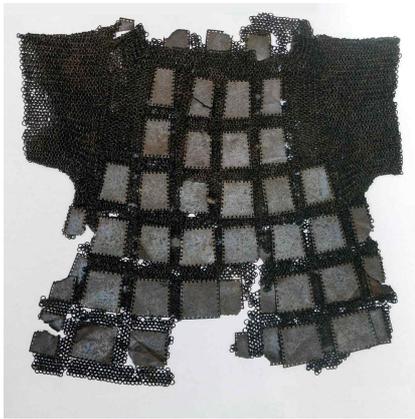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9, 「정지장군 경변갑 재현 자문회의 자료」.

Robinson, H. Russell, 1967, Oriental armour, New York: Walker and Co.

□

○ 현 상

정지장군의 갑옷은 철로 만든 사각형의 갑옷미늘[鐵札]과 철사로 작은 고리[鐵環]를 엮어 연결하여 만든 경번갑(鏡幡甲)이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에 소매가 달려있고, 앞중심은 겹쳐지도록 여미게 되어 있다. 현재 목둘레와 앞면 아래부분, 그리고 철환이 손상되거나 손실된 부분이 많은 상태여서 제작 당시의 원형을 갖추고 있지 않다.



<갑옷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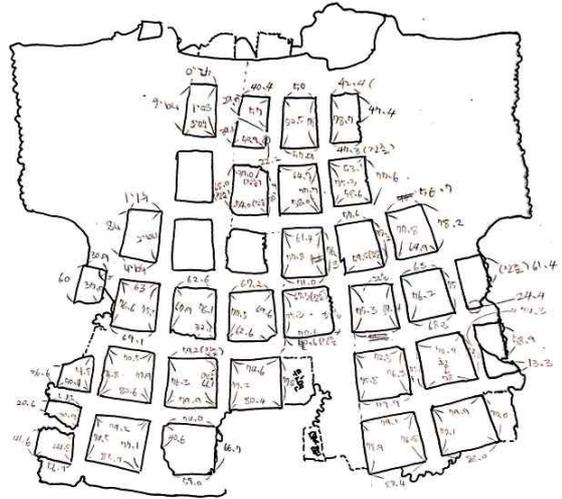


<갑옷 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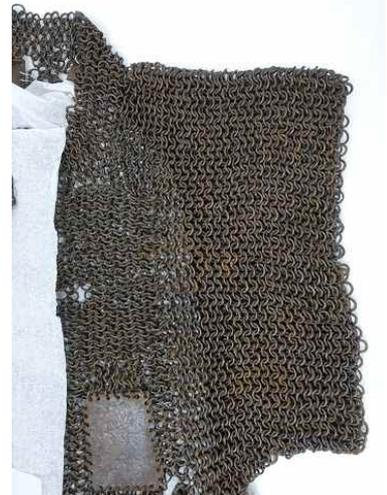
본 유물은 정지(鄭地) 장군이 착용하였다고 전해지는 갑옷인 경번갑으로 하동 정씨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다. 정지(1347~1391)는 고려후기 문하평리, 양광전라 경상도도도절제체찰사 등을 역임한 무관으로 위화도회군의 공으로 2등공신으로 봉해지기도 했다.

정지장군의 갑옷은 앞뒤길은 사각형의 철판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철판의 크기가 커지며 개수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아랫부분이 넓어지는 사다리꼴의 형태이다. 현재의 상태는 앞길의 오른쪽과 왼쪽 모두 아랫부분이 손실된 부분이 많으나 겨드랑이 아랫부분을 포함하여 철판이 달린 상태는 다음과 같다. 앞길의 겹길과 안길은 위에서부터 가로방향으로 철판이 3개씩 2줄 → 4개씩 2줄 → 5개씩 2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뒷길은 위에서부터 5개씩 4줄 → 7개씩 3줄로 추정된다. 소매는 철판없이 철고리로만 엮어 연결이 되었는데 활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갑옷 크기>

<철판 크기>



<앞 안길>

<앞 겹길>

<소매>



<소매 확대>

<철판 이음 부분-겹>

<철판 이음 부분-안>

경번갑에 대해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의 군례 서례에 “쇠미늘[鐵札]과 쇠고리[鐵環]를 서로 사이하여 엮은 것은 ‘경번갑(鏡幡甲)’이라 한다(鐵札及鐵環相間以綴曰鏡幡甲)”라는 설명과 함께 그림이 실려있다. 그리고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와 춘관통고(春官通考)』에도 유사한 경번갑에 관한 도설이 있으나 『춘관통고』의 것은 『국조오례의서례』와 동일하다. 이 도설은 모두 조선시대의 것으로 정지장군의 경번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뒤길의 형태가 사다리꼴의 형태라는 것과 소매는 철환으로만 엮여 있는 점, 그리고 앞뒤길은 철판을 철환으로 연결한 점 등은 유사하다. 그러나 철판이 정지장군의 것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게 폭이 넓은 데 비해 조선시대의 것은 폭이 좁은 철판 여러 개를 겹쳐놓고 철환으로 연결하였으며, 수구와 도련에 당초문의 장식이 달려있다. 또한 앞 중심에 가는 끈이 달려있어 여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매의 길이도 조선시대의 것이 더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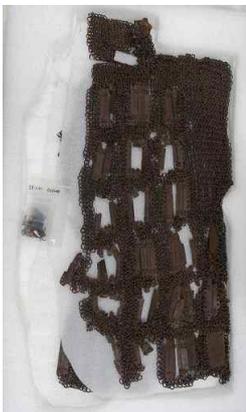
이러한 양식의 경번갑이 현재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 조사자는 실물을 열람하지 못하여 정확한 비교 분석은 어려우나 사진상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조선시대의 경번갑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숭실대의 경번갑도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손실된 부분이 많으나 좁고 긴 철판을 여러개 겹친 후 철환으로 엮어서 연결하였다. 이와 달리 정지장군의 갑옷은 조선시대 경번갑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유물의 보존상태는 완벽하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경번갑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 경번갑>



<국조오례의서례 경번갑>



<숭실대학교 경번갑>



<숭실대 경번갑 철판>



<숭실대 경번갑 철판 연결 부분>

○ 문헌자료

『世宗實錄』

『國朝五禮儀序例』

『春官通考』

○ 기 타

본 유물은 정지장군의 종손인 정영근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현재 광주시립 민속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1960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



○ 형 식

- 전투와 군사훈련, 군례(軍禮)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복식으로서, 철판과 철판 사이에 철판로 만든 고리를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짧은 소매의 저고리 모양으로 만든 갑옷이다. 목둘레선과 앞, 뒤 하단에 손상이 있으며 철판과 고리 역시 부분적으로 파손 혹은 결실된 것이 많다.

○ 조성연대 : 14세기

- 정지 장군(1347-1391, 충목왕3-공양왕3)이 왜구를 물리칠 때 직접 착용했던 갑옷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아쉽게도 이를 증명할 명문(銘文)이나 묵서(墨書),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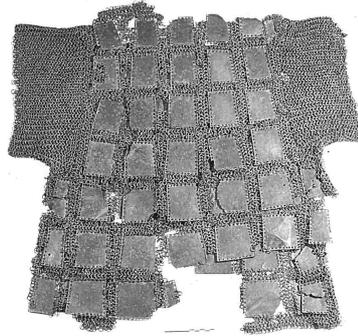
1. 갑옷의 전체 구조

- 짧은 소매가 달리고 앞이 트이며 방령(方領; 네모난 목둘레선의 것)이 달린 상의(上衣)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방령의 저고리나 포(袍)는 앞중심선이 맞닿거나 쏠이 조금 겹치는데 비해 본 유물은 목둘레선의 겹침분이 약 17cm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진다.
- 철판 사이사이에 지름 1cm 내외의 철고리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철판의 형태가 사다리꼴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크기가 큰 철판을 배열하였기 때문에 갑옷 역시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진다. 몸판 부분에만 철판이 있고 목둘레와 소매는 철판 없이 고리로만 연결되어 있다.
- 뒷목둘레선 부분과 앞길 하단 부분의 파손이 심하고 오른쪽 옆선 부분도 손상이 심하다.

- 직물이나 가죽 등 다른 재료가 부착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철(鐵)로 만든 판과 고리만으로 구성된다. 전체 중량은 9.04kg이다. (2019. 6. 19. 측정)



그림 1. 갑옷(앞)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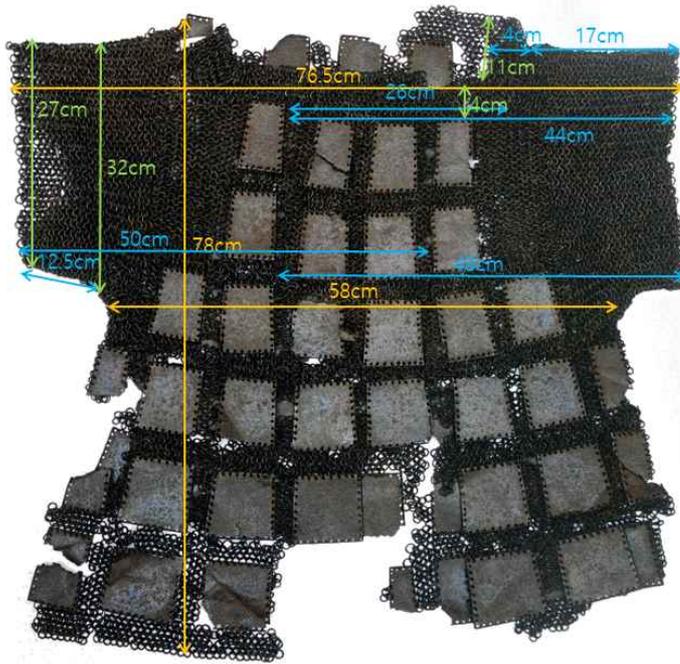
갑옷(뒤)(좌우변환)
『한국의 갑주』. p.189



착용모습과
파손부위(좌우변환)
『한국의 갑주』. p.91

2. 갑옷의 부위별 크기

- 갑옷은 총길이 78cm, 앞폭 58cm, 전체 가로길이(왼쪽 소매 끝부터 오른쪽 소매 끝까지의 길이) 76.5cm이다.
- 앞이 트여있으며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깊게 여며지는 형태이다. 윗부분을 기준으로 철판 2줄 가량 겹쳐지고 겹침분은 약 17cm 정도이다. 왼쪽 앞길 끝에서 소매 끝까지 너비는 44cm, 오른쪽 앞길 끝에서 소매 끝까지 너비는 50cm로서, 둘을 더한 치수가 전체 가로길이인 76.5cm보다 20cm 가까이 크다. 그러나 좌우 앞길 모두 아랫부분의 파손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나 치수의 파악이 어렵다.
- 소매는 왼쪽과 오른쪽의 치수에 차이가 있다. 오른쪽 소매는 진동 32cm, 소매 끝[袖口]너비 27cm, 소매 배래 길이 12.5cm인 반면, 왼쪽 소매는 진동 30.5cm, 소매 배래 길이 12cm이다.
- 네모난 형태의 깃너비는 4-4.5cm이며 뒷깃과 앞깃의 차이는 11cm이다. 깃이 끝나는 옆고대점 부위부터 소매 끝까지의 어깨길이는 왼쪽 17cm, 오른쪽 19cm이다.



전체 사진(앞)과 부위별 치수



오른쪽 앞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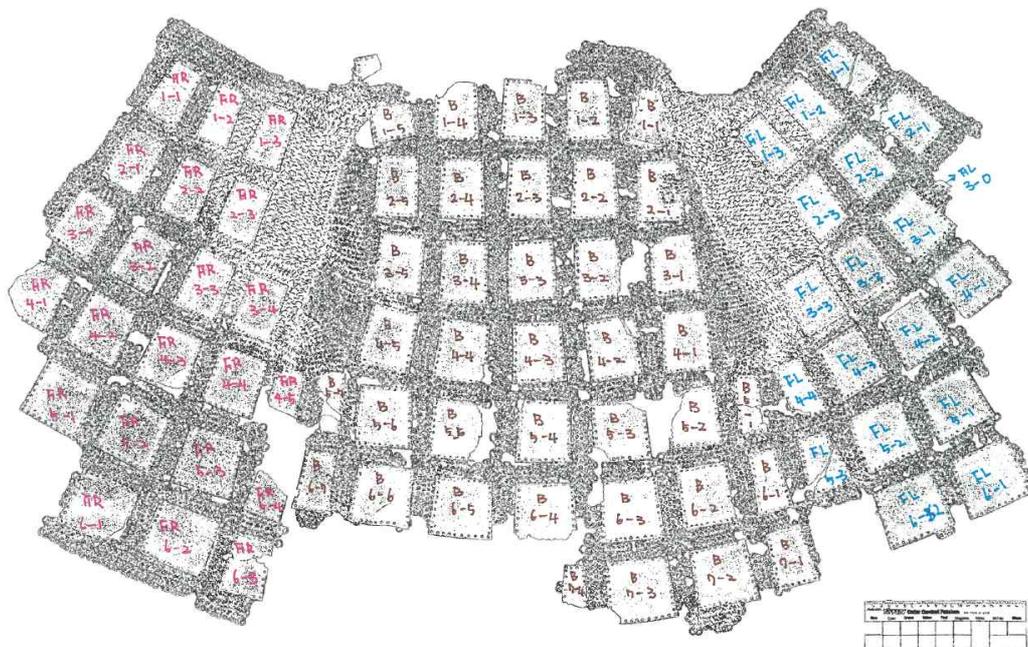


왼쪽 앞길 형태

- 철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유동성이 매우 크고 형태안정성이 낮을 뿐 아니라 파손부위가 적지 않고 결실된 철고리가 많아서 정확한 치수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철고리가 배열된 밀도에 따라 계측치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유물 보호를 위해 장력이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펼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좌우가 완전한 대칭은 아니어서 좌우 치수가 0.5-2cm 차이가 나는 부위도 있었다.

3. 철판과 철고리

- 현재 남아있는 철판의 수량은 앞길 왼쪽(FL) 18매, 앞길 오른쪽(FR) 22매, 뒷길(B) 38매로 총 78매이다. 배열상태로부터 결실된 철판을 유추해보면 앞길은 좌우 각각 25매씩(3+3+4+5+5+5), 뒷길은 41매(5+5+5+5+7+7+7)로 원래 총 91매의 철판으로 만들어졌으리라 추정된다. 구간부(軀幹部)인 몸통을 보호하도록 앞뒷길에 일정한 간격으로 철판을 배열하였으며, 앞뒤 뿐 아니라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보호하도록 옆선 부분에도 세로로 2줄, 가로로 3단이 되도록 배열하였다.



철판의 배열 상태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 철판의 형태는 위보다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이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 넓어

진다. 크기는 가로 약 4-8.5cm, 세로 약 7.5-8.0cm로서, 부위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하나의 철판도 사다리꼴의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철판의 예리한 가장자리와 모서리에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판을 마름질한 후 가장자리[邊]는 안쪽으로 둥글게 말고 모서리[角]는 용접하여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매



철판(겉)



철판(안)

끈한 장방형 철판이 보이고 안에서는 가장자리에 테를 두른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철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0.5-0.7cm 일정한 간격으로 지름 0.3cm의 구멍을 뚫었으며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천공(穿孔)하였다.

- 철고리의 지름은 약 1cm이며 고리의 연결방식에 따라 2종류로 구분된다. 유형 ①은 철사를 둥글게 감고 양끝을 겹쳐서 만든 간단한 고리이고, 유형 ②는 고리의 양끝을 겹쳐 작은 구멍을 뚫고 못을 끼워 넣어 고정된 리벳 방식이다.



철고리 유형①



철고리 유형②



못이 빠진 유형②

- 유형②는 유형①의 고리에 비해 제작과 연결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①과 ②를 한 줄씩 교대로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하나의 철판과 다음 철판 사이에는 가로와 세로 방향 모두 5줄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2번째와 4번째 줄은 유형①의 민자 고리를, 1번째, 3번째, 5번째 줄은 유형②의 리벳 고리를 사용하여 철판의 구멍과 민자 고리, 혹은 민자 고리와 민자 고리를 연결하였다. 또 하나의 배열 원칙은 코를 줄이고 늘리는 원칙이다. 아래 오른쪽 그림의 철판 아래 4번째 줄과 5번째 줄을 보면 2개의 민자 고리(유형①)가 1개의 리벳 고리(유형②)에 끼워져 있다. 이런 방식으로 코를 줄이거나 늘리면서 깃과 소매 배래 부분의 형태를 만들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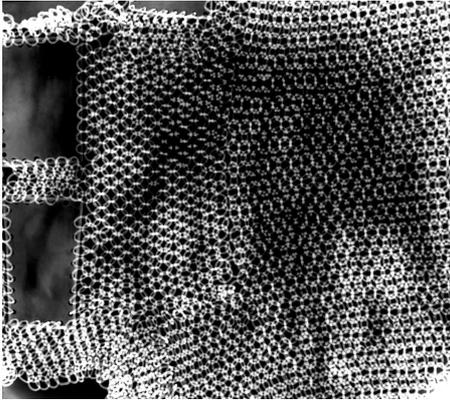
철고리의 교대 배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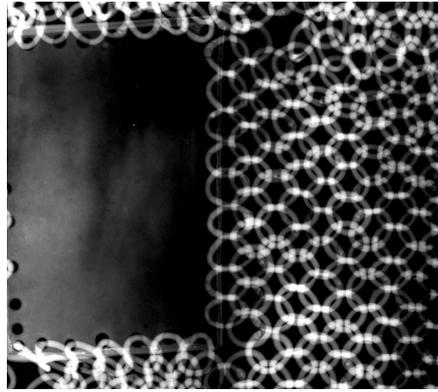
코줄이기 배열 원칙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1985년 8월에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1985년 12월까지 보존처리하였고,⁷⁾ 2019년에는 철의 붉은 녹 제거작업과 복원품 제작을 위한 유물사진 촬영 및 실측, 도면 작성 등의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래 X선 촬영사진을 보면 철고리의 가지런한 배열과 하나의 중심고리에 4개의 고리가 반복 연결된 제작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7) 문화재보존과학센터(2012), 『문화재와 X선필름 : 자료집 I』, p.239



X선 촬영사진
『문화재와 X선필름 : 자료집I』,
p.240



X선 촬영사진 (확대)
『문화재와 X선필름 : 자료집I』,
p.241



기본연결



연결반복

4. 손상과 보수

- 철을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붉은 녹이 슬었으며, 철판 표면이 박락(剝落)되기도 하고 굴절되거나 절단된 철판도 있다. 철고리의 경우는 리벳 고리의 못이 빠지거나 민자 고리의 틈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철판과 철고리는 전체가 결실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파손되기도 하였다.
- 앞길 오른쪽 어깨 부분의 철판에서는 착용 당시의 보수 흔적이 발견된다. 파손된 철판 위에 가로 세로 모두 조금 작은 크기의 철판을 겹쳐서 대고 철사를 관통시켜 고정된 흔적과 구멍이 뚫린 철판을 철고리로 연결하여 구멍을 메운 흔적이 남아있다.
- 최근에 보수한 은색 고리도 여러 군데에서 산견된다. 후대의 보수 복원작업임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원래의 재질이나 색상과는 다른 은색 고리를 사용하여 파손 부위를 보수하였다. 이러한 보수는 철판의 올바른 위치를 잡고 보다 정확한 치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발생하는 과도한 마찰을 감소시켜서 손상을 방지한다.



철판의 보수 흔적 : 철판
덧대기 방식



철판의 보수 흔적 : 철고리
메우기 방식



후대의 보수 흔적: 은색
고리로 연결

○ 내용 및 특징

- 한국 갑주(甲冑) 유물의 연대는 대부분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본 유물은 고려시대의 희소한 갑옷 유물일 뿐 아니라 유일한 경번갑 유물이다. 조선시대 기록에 남아있는 경번갑은 조선시대 온전한 유물이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 경번갑은 철로 만든 갑옷미늘과 고리를 서로 엮어서 만든 갑옷으로서 철편 혹은 철편이 가지는 방호력과 고리가 가지는 활동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갑옷이다. 직사각형 갑옷미늘을 가로로 연결하고 세로로 연결하여 만든 찰갑(札甲)과 철사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엮은 쇠자갑(鑊子甲)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유물은 넓고 긴 사다리꼴 철편을 사용하였기에 찰갑과 결합이 아니라 판갑과 쇠자갑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중세 유럽에서도 동일한 원리의 갑주가 있었다. 유럽은 10세기부터 쇠사슬갑옷(쇠자갑)의 전성기였다가 이후 판금갑옷으로 대체되면서 13세기 후반부터 쇠자갑을 기본으로 구간부, 팔과 다리의 바깥면, 팔꿈치와 무릎, 손등과 발등의 주요부위를 철편으로 덮어 보호하는 트랜지션 아머(transition armor)가 등장했다. 판금갑옷과 쇠자갑이 결합된 플레이티드 메일 아머(plated mail armor), 메일 앤 플레이츠(mail and plates), 메일 앤 스플린츠(mail and splints) 역시 경번갑의 원리나 구조와 상통하는 갑옷이다. 경번갑은 한국 고유의 갑옷 형식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된 새로운 형식의 갑옷으로 서역을 거치고 중국을 통해 한국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보호하는 신체부위는 구간부에 집중되어 있다. 철편은 앞길과 뒷길의 몸통 부분만 사용하였고 목의 깃과 팔의 짧은 소매는 고리만 연결하여 면을 확장하였다. 여기에 중량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앞중심 부분을 깊게 겹쳐서 2겹으로 만든 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여겨진다.

- 정교한 제작기술이 돋보인다. 특히 피부나 옷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철판의 가장자리를 말아서 처리한 제작방식이나 철고리의 코줄이기와 코늘리기 방식은 진보된 제작기술을 입증한다.
- 파손부위의 2가지 보수 흔적으로부터 이 유물이 선물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로 착용한 갑옷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제작 및 수리기술 보유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문헌자료

1. 경번갑(鏡幡甲)에 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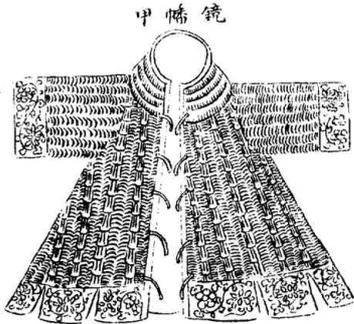
- 본 유물의 연대보다 시기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초기부터 경번갑의 문헌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는 수은갑(水銀甲)이나 유엽갑(柳葉甲)과 같은 철갑(鐵甲), 피갑(皮甲), 지갑(紙甲) 등을 갑옷[甲]이라 묶어서 설명하고 이와는 다른 형식의 갑옷 2가지를 기록하였으니 하나는 철판으로 만든 고리를 엮어 만든 쇠자갑이고 다른 하나는 철판과 철고리를 사이사이 엮어 만든 경번갑이다.

철사(鐵絲)로써 작은 고리[小環]를 만들어 서로 꿰는 것은 ‘쇠자갑(鑊子甲)’이라 하고, 쇠미늘[鐵札]과 쇠고리[鐵環]를 서로 사이하여 엮은 것은 ‘경번갑(鏡幡甲)’이라 한다.

以鐵絲作小環相貫曰鑊子甲。鐵札及鐵環相間以綴曰鏡幡甲。

『世宗實錄』 卷133, 五禮 軍禮 序例 兵器 甲冑

- 이밖에도 1474년(성종 5) 간행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의 도설과 조선 후기 『춘관통고(春官通考)』에도 경번갑 도설이 있다. 철사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로 꿰는 갑옷을 쇠자갑이라 하고, 철찰과 철환을 사이사이 서로 연결한 것을 경번갑이라 한다는 내용은 모두 같다. 도설의 그림들을 보면 본 유물과는 다른 점이 보인다. 첫째, 소매길이가 조금 더 길고 둥근 깃은 목을 가릴 수 있도록 높이 올라왔으며 앞중심 부분이 겹쳐지지 않고 맞닿은 점, 둘째 철판이 1장이 아니라 세로로 긴 철판 4-6개를 좌우로 겹친 후 이들을 철환으로 연결한 점, 셋째 쇠자갑과 달리 안감이 있고 소매와 도련의 가장자리를 따라 연화당초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종실록』 경번갑



『국조오례의서』 경번갑



『춘관통고』 경번갑

- 갑옷제도에 대한 기록 외에도 조선시대 경번갑의 제작에 대한 기록이 실록(實錄) 기사로 남아있다. 1414년(태종 14)에는 당시 군기감(軍器監) 부정(副正)이자 최무선(崔茂宣)의 아들인 최해산(崔海山)으로 하여금 중국의 경번갑을 만들어서 샘플, 즉 견양(見樣)을 각 지역으로 나누어 보내도록 하였는데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하였다. 이전에 각도에서 월과(月課)로 조달하던 갑옷 품목을 두두미갑(豆豆味甲), 별철갑(別鐵甲) 등 가죽끈으로 갑옷미늘을 엮은 갑옷 대신 철로 엮은 쇠자갑(鎖子甲)으로 변경한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었다.⁸⁾

2. 유물과 착용자 관련 기록

- 조응록(趙應祿)의 『죽계일기(竹溪日記)』에는 “1593년, 광주의 김덕령 장군이 담양부사 이경린을 삼례에서 만날 때 친근이나 돼 보이는 쇠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 정지 장군의 갑옷”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⁹⁾
- 1915년에 간행된 전라남도광주공립보통학교(1911년 광주서석초등학교의 교명)의 『향토사료』에도 갑옷에 대한 내용이 전한다. 『향토사료』는 일종의 사회과 교재로 정지 장군 갑옷의 흑백 사진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이 실려 있다. “500여 년 전의 철갑(鐵甲)으로, 종가에서 잘 보관하고 있으며 고려의 정지 장군의 갑옷이고, 정충신은 그의 9대손이다” 등의 내용이다.¹⁰⁾ 후손 충무공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은 임진왜란 때 종군하였고 정묘호란 때 부원수를 지낸 무신(武臣)이다.

8) 罷軍器副正崔海山、判官梁淮、直長孫君達、錄事尹謹職。初、命海山監造中國鏡幡甲、將以分送各道、海山不自監造故也。本監曾以豆豆味甲八部、別鐵甲三部爲月課、命止之、命作鎖子甲三部。『太宗實錄』卷28, 太宗 14年 11月 4日 癸卯

9) 안보연, “[공감!문화재] 갑옷의 혁신, 정지장군의 갑옷”, 세계일보 2017년 12월 2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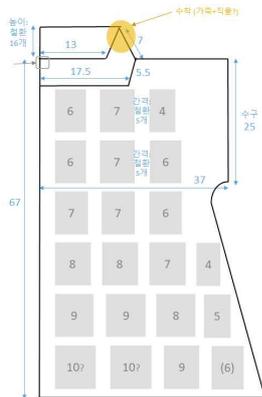
10) 안보연, “[공감!문화재] 갑옷의 혁신, 정지장군의 갑옷”, 세계일보 2017년 12월 21일자

○ 기 타 : 송실대박물관 소장 경번갑과 비교

- 전반적인 형태와 구조는 정지(鄭地) 장군 갑옷 유물과 매우 흡사하다. 철판과 철고리로 연결된 경번갑이고, 몸판 부분만 철판이 있고 소매와 깃 부분에는 철판이 없이 철고리로만 이루어져 있다. 짧은 소매가 달려있고 앞이 트이며 네모난 깃인 방령이 달린 엉덩이 길이의 상의 형태 갑옷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아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형태이며, 철판의 단수는 앞 6단, 뒤 7단인 점도 동일하다.
- 차이점으로는 철판의 구성, 소매와 깃의 형태, 앞트임의 겹침분, 재료, 각 단의 철판 수량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큰 차이점은 철판의 구성으로, 정지장군 경번갑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철판인데 비해,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경번갑은 찰갑처럼 4매에서 11매의 좁고 긴 말각형 철판을 가로로 겹쳐서 하나의 단위 철판을 만든 후 다시 이를 철고리로 연결하였다. 양자 모두 짧은 소매가 달려있으나 조선시대 경번갑 유물이 정지 장군 경번갑보다 소매는 더 짧고 품은 더 넓으며 깃너비가 넓어서 목부분이 더 올라온다. 현재 상태는 반파(半破)된 왼쪽만 남아있으므로 정확한 원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앞중심선의 철고리가 하나의 선으로 정렬되는 것을 보았을 때 겹침분이 없이 좌우가 맞닿는 대금(對衿) 형식의 앞트임이라 추정된다. 재료 역시 차이가 있다. 정지 장군 갑옷은 판도 고리도 모두 철(鐵)로 만들었으나, 조선시대 갑옷은 부분 부분 가죽이나 직물이 수착되어 있다. 앞과 뒤의 철판 단수(段數)는 같지만, 각 단의 철판 수량은 차이가 있어 앞은 정지장군 유물이 더 많고 뒤는 조선시대 유물이 더 많다. 앞은 앞중심의 겹침분 차이로 인한 것이고 뒤는 조선시대 경번갑 철판덩이의 너비가 정지장군 경번갑 철판보다 가로너비가 좁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의 철판덩이가 배열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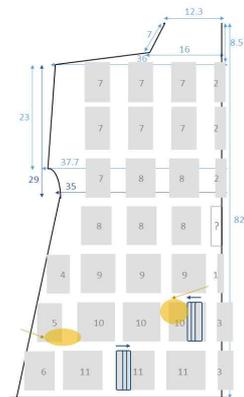
경번갑 앞면(안쪽)



도식화 앞면(안쪽)



경번갑 뒷면(안쪽)



도식화 뒷면(안쪽)

표 1. 경변갑 유물 비교표

	정지장군 경변갑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경변갑
시대	고려 말	조선
지정사항	보물 제366호(1963.1.21.지정)	비지정
소유자 (관리자)	하동정씨종친회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박물관)
공통점	철판과 철고리로 연결	철판과 철고리로 연결
	몸판만 철판이 있고 소매,깃은 없음	몸판만 철판이 있고 소매,깃은 없음
	앞트임, 짧은 소매, 엉덩이 길이	앞트임, 짧은 소매, 엉덩이 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짐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짐
	철판의 단수: 앞 6단, 뒤 7단	철판의 단수: 앞 6단, 뒤 7단
차이점	철판은 1장으로 구성	4~11장의 세로로 긴 철판이 가로로 겹쳐서 기본단위 철판을 구성
	가로(소매양끝사이) 76.5cm, 세로(총길이) 78cm, 품 58cm : 소매배래길이 12.5cm, 깃너비 4cm	가로(소매양끝사이) 약 75.4cm, 세로(총길이) 82cm, 품 70cm : 소매가 더 짧고 품은 넓으며 깃너비 (7cm)가 넓어서 목을 더 높이 감쌘
	앞중심 부분에서 좌우가 깊게 겹쳐짐	앞중심에 겹침분 없이 대칭으로 맞닿음
	재료가 철로만 이루어져 있음(철판, 철고리)	철판, 철고리 뿐 아니라 가죽, 직물이 부분 부분 수착됨
	각단의 철판 수량(추정치) 앞: 좌우 각25매씩(3+3+4+5+5+5) 뒤: 총41매(5+5+5+5+7+7+7)	각단의 철판 수량(추정치) 앞: 좌우 각21덩이씩(3+3+3+4+4+4) 뒤: 총55덩이(7+7+7+7+9+9+9)

-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경변갑의 특징은 철판의 겹침 방향이다. 이슬람권이나 러시아의 경변갑은 가로로 긴 철판을 세로방향으로 겹치는데 비해 본 유물은 세로로 긴 철판으로 가로방향으로 겹쳐서 정사각형에 가깝게 모양을 만든 후 이를 다시 사슬로 엮어서 서로 연결하였다.

10. 보물 제1487호 서직수 초상(徐直修 肖像)

가. 검토사항

‘보물 제1487호 서직수 초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7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제5차 회의('17.5.2.)에서 ‘보물 제 1487호 서직수 초상’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되어 관계 전문가 조사('19.4.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487호(2006.12.29.지정)
- 명 칭 : 서직수 초상(徐直修 肖像)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216.8×94.3cm, 화면 148.0×73.5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96년(정조 20)
- 제작자 : 이명기(李命基), 김홍도(金弘道) 합작



그림 1. 서직수 초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서직수초상>은 정조 연간 명성을 누린 김홍도와 이명기의 합작품으로 1796년이라는 제작시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당시 가장 진보한 화법을 사용하여 정세하게 그려졌다는 점에서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사대부초상화 중의 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직수 초상>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기 지정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서직수초상>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승격하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서직수는 조선후기 벌열의 하나인 달성서씨 출신이지만 평생의 관직 생활 동안 당상관 자리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향리에 은거하여 수련한 처사나 학문에

몰두한 학자도 아니었다. 초상화에서 인물의 역사적 비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서직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던 평범한 사대부의 한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인물의 역사성이나 지명도는 국보로 승격할만큼 중요하지 않다.

둘째, <서직수 초상>은 조선 후기의 수준 높은 초상화임에는 분명하나 국보로 승격시킬 만큼 예술적 탁월성 면에서 동시기 다른 사대부 초상화와 크게 차별되지는 않는다.

셋째, 그림에 적힌 서직수의 자평은 그림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서직수 62세 즉 1796년이라는 제작시기가 서직수의 용모와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심화된 연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직수 초상>은 당대의 유명 화가가 최신의 화법을 적용한 합작품인 점에서 회화적 가치는 있지만 국보로 승격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이명기, 김홍도 필 서직수 초상>은 사실적이고 정교한 인물의 묘사와 두 대가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초상화 중에서도 중요한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초상화 주인공의 지명도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조선 후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었던 초상화들 가운데서도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대표적인 작품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국보로 격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1. <서직수 초상>은 당대 최고 화원인 김홍도와 이명기의 합작품으로 동시기에 유행한 서양화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 서직수는 조선 후기에 노론의 가학적 배경을 지닌 사대부로 지방관을 거치며 서화골동을 즐겼을 뿐 정치적, 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2. 조선시대는 유교사회로 숭현사상(崇賢思想)의 팽배와 더불어 초상화가 널리 제작된 결과, 현재 <이제현(李齊賢) 초상>(제110호)을 비롯해 <안향(安珦) 초상>(제111호), <송시열(宋時烈) 초상>(제239호), <윤두서(尹斗緒) 자화상>(제240호), <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제317호)까지 총 5점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정탁(鄭琢) 초상>(제487호)을 비롯한 76점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3. <서직수 초상>은 주인공의 역사적 학문적 비중이 높지 않은 반면, 표현기법은 상당한 수준을 보여준다. 국보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초상화 속 주인공의 역사적 중요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대부 초상화의 국보 승격 기준’을 마련하여 보물로 지정된 작품을 일괄 조사하여 승격하는 것이 ‘국보’의 위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미흡)

1. <서직수 초상>은 뛰어난 형태 묘사와 투시법, 명암법을 구사하면서도 높은 품격을 보여주어 정조대 초상화의 백미로 꼽히는 걸작이다. 당대 최고의 화가인 이명기가 얼굴을, 김홍도가 신체를 그린 독특한 초상화이다. 서직수가 자찬을 통해 제작시기, 제작자를 밝혔으므로 사료적인 가치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2. 이 작품의 서직수는 62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젊은 외모를 갖추었다. 서직수가 쓴 자찬에도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1796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작품에 대한 좀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서직수 초상>이 보물로 지정된 지 10년 남짓된 상황에서 현재 국내 초상화 분과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작품은 <태조 어진 상>과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자화상> 뿐이다. 이러한 사유로 국보 승격 대상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현 상

1916년 6월 5일 일본인 이케요치 도라키치로(池内虎吉)에게서 1엔에 구입한 것으로 한번 개장된 상태에서 박물관에 입수되었다. 푸른색 유소가 남아 있으며 상하 회장의 푸른 비단은 기하학 문양이 있는 바탕인데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탈색된 얼룩이 있다. 상축의 단면은 긴 타원형을 1/4로 자른 형태이다. 화면 상단 왼편 모서리를 따라 모양으로 갈색 얼룩이 있는데 개장 전부터 있었던 오염으로 생각된다. 뒷면의 하축 부분에는 종이를 덧대어 보강하였다. 전체적으로 화면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서직수 초상>은 동파관(東坡冠)을 쓰고 미색 도포를 입은 서직수가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서 있는 전신입상이다. 약간 비스듬한 자세의 좌안팔분면이며 신발을 신지 않고 어두운 갈색조의 깔개 위에 버선발로 서 있다. 등간격의 가로선으로 누빈 상태를 표현한 듯 선을 따라 살짝 가해진 명암은 깔개의 도톰하고 폭신한 질감을 전달한다. 이처럼 깔개의 형태나 재질, 신발을 신지 않은 자세 등은 다른 초상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요소이다.

화면 오른쪽 위에 “李命基畫面 金弘道畫體 兩人名於畫者 而不能畫一片靈臺 惜乎 何不修道於林下 浪費心力於名山雜記 槩論其平生 不俗也貴 丙辰夏日 十友軒六十二歲翁自評”이라는 자평이 묵서로 적혀있고 “徐直修印”이라는 백문방인이 찍혀있다. 자평 중에 ‘名山雜記’ 녀 자는 원래 쓴 글자를 지우고 그 옆에 다시 적어 넣은 것이다. 서직수는 문집 『십우헌집초(十友軒集抄)』를 남겼는데 초상화에 쓰인 자평이 「희제화상(戲題畫相)」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자평을 통해 <서직수 초상>은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김홍도가 몸을 그린 합작품이며 제작시기는 자평이 쓰여진 1796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96년 당시 62세 된 서직수의 얼굴이 나이에 비해 매우 젊어 보이는 점에 의문이 들어 제작시기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좌우의 어깨선은 고쳐 그린 흔적이 남아 있다.

화산관(華山館) 이명기(李命基, 1756-1813 이전)는 도화서 화원 집안 출신으로 초상화를 특히 잘 그려 1791년 정조의 41세 어진을 그릴 때 주관화사로 발탁되었다. 이때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는 동참화사로 이명기와 함께 어진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십우헌(十友軒) 서직수(徐直修, 1735-1811)는 밀양부사를 지낸 서명인(徐命仁, 1707-1780)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31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혜릉참봉(惠陵參奉)으로 출사하였지만 대과에는 나가지 않았다. 금산군수, 가산군수, 현릉원령(顯隆園令)을 거쳐 인천부사를 역임하였다. 서직수가 김홍도·이명기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계기는 서직수가 1789년 10월부터 1790년 9월까지 수원 현릉원령으로 봉직할 때였다고 본다. 현릉원 원찰인 용주사 불화를 그리기 위해 1790년 김홍도와 이명기가 용주사에 와 있을 때 셋은 친분을 쌓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직수 초상>은 윤곽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부드럽게 처리하고 복색과 얼굴색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설채하였으며 잔 붓질로 얼굴의 입체감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동파모, 도포, 버선, 깔개에 명암을 적극적으로 가했으며 특히 앞쪽을 향한 버선발의 모델링은 화가의 기량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양쪽 어깨 윤곽선과 오른쪽 단령깃 부분은 윤곽선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 참고문헌(발표 연대순)

- 이수미, 「서직수 초상」, 『조선시대 초상화 I』, 국립중앙박물관, 2007, pp. 207-208.
조선미, 「서직수 초상」, 『한국의 초상화: 형과 영의 예술』, 돌베개, 2009, pp. 337-341.
이경화, 「초상에 담지 못한 사대부의 삶-이명기와 김홍도의 <徐直修肖像>」,
『미술사논단』 제34호, 2012, pp. 140-165.

□

○ 현 상

- 한 점 내리단이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음새 없이 한 장의 비단에 동과 관을 쓰고 열린 황색의 도포를 입은 채, 허리에는 검정색 띠를 두르고 흰 버선발로 서있는 전신상 인물을 묘사했다. 바닥에는 회색 직물 같은 것이 깔려있는데 가로로 선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좌측에는 분홍색의 작은 점이 줄 위에 29개 정도 찍혀 있다.

- 화면 오른쪽 위에

李命基畫面金弘道畫體兩人名於畫者
而不能畫一片臺靈
惜乎何不修道於林下浪費心力於名山
雜記槩論其平生不俗也貴
丙辰夏日十友軒六十二歲翁自評

이라는 자평이 묵서로 적혀있다. 네 번째 줄 끝에 “徐直修印”이라는 백문사각인장이 찍혀있으며, “名山雜記”는 먼저 썼던 글씨를 지우고 그 옆에 다시 적었다.

- 화면 왼편 위쪽 모서리의 테두리 부분이 갈색으로 얼룩져 있는데, 이와 맞붙은 회장에는 얼룩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족자 일부분이 오염되었다가 개장하면서 상황을 새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장황 비단에는 아주 작은 격자무늬가 있고, 화면 테두리에 가는 청색 비단 띠를 두르고 회장을 이어붙인 것은 조선시대 전통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반달 및 하측은 새로 장황할 때 교체한 것으로 여겨지며, 하측 뒷면을 보면 좌우 끝 부분에 종이를 세로로 길게 덧대었는데 중국이나 일본 표구에 자주 나타나는 방식이다.

- 그림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별도의 보관상자는 없다.

○ 내용 및 특징

- 초상화를 그린 이명기(李命基, 1756-1813 이전)는 본관은 개성으로 자는 사수(士受), 호는 화산관(華山館)이다. 도화서 화원 집안 출신으로 초상화를 특히 잘 그려 1791년 정조어진 도사의 주관화사로 활약했다. 장수도(長水道) 찰방을 역임

했다.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이후)는 본관은 김해로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園), 서호(西湖), 단구(丹邱) 등이다. 대대로 무반을 배출한 중인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정조의 신임을 얻어 안기찰방, 연풍현감 등 지방 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김홍도는 영조어진, 정조어진을 그렸고,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도석화, 풍속화 등에 두루 능했다.

- 초상화의 주인공인 서직수(1735-1811)는 본관은 달성으로 자는 경지(敬之), 호는 십우헌(十友軒)이다. 진사시에 합격하여 금산군수, 가산군수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문집 『십우헌초(十友軒抄)』가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초상화의 자평과 같은 내용이 「희제화상(戲題畫相)」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 서직수의 자평에 따르면 얼굴은 이명기가, 몸은 김홍도가 그렸다고 한다. 윤곽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옅은 채색으로 이목구비와 얼굴의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반면 동과모, 도포, 머선에는 명암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서양화법을 수용했던 이명기의 초상화법이 잘 드러난다. 양쪽 어깨 윤곽선과 오른편 단령깃 부분은 윤곽선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 생생하게 표현한 얼굴, 극사실적인 수염의 묘사, 자연스러운 자세와 실감나는 의복의 표현 등에서 당시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던 두 화가 이명기, 김홍도의 솜씨를 잘 보여준다. 합작을 한 화가가 분명하게 알려진 드문 초상화이며, 실내에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서있는 입상으로도 매우 희소한 사례이다.

○ 참고문헌

조선미, “서직수 초상” 『한국의 초상화』 (놀와, 2007)

이수미, “서직수 초상” 『조선시대 초상화 I』 (국립중앙박물관, 2007)

이경화, 「초상에 담지 못한 사대부의 삶-이명기와 김홍도의 <徐直修肖像>」, 『미술사논단』 (제34호), 2012년

○ 기 타

- 소장처의 기록에 따르면 1916년 6월 5일 일본인 이케우치 도라키치(池内虎吉)로부터 1엔에 구입하였으며, 현재 덕수 5688로 등재되어 있다. 2006년에 보물 1487호로 지정되었다.

□

- 축(軸)의 아랫단과 윗단(上繪粧, 上回粧)은 짙은 하늘색 비단으로 하얀 얼룩들이 발견되며, 그림 둘레의 변(邊)은 그림 바탕보다 옅은 미색이며, 무늬가 있는 하늘색 비단으로 경계를 구분함.

- 그림의 왼쪽 상단 부분에서 오염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됨.

- 상축(上軸)의 윗면에 있는 2개의 환(環)으로부터 유소(流蘇)가 드리워져 있음.

- 나무상자에 담겨 보관되고 있으며, 상축(上軸)은 반달 모양(1/2)이 아니라 1/4쪽 형태이며, 원형의 하축(下軸) 축수(軸首) 끝부분에 “5.16 池內”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池內”는 일제강점기의 고미술상인 이케우치 도라키치(池內 虎吉)의 소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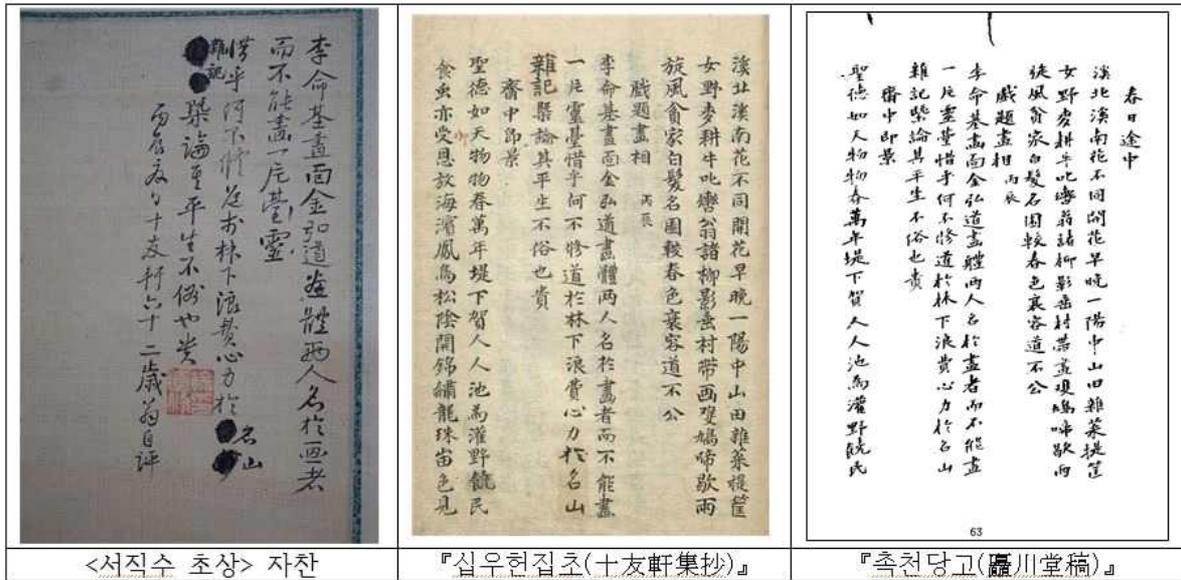


-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김홍도가 몸체를 그렸다. 두 사람은 그림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한 조각의 영대(靈臺, 정신이나 마음)는 그려내지 못했다. 애석하구나. (나는) 어찌해 산림에서 도를 닦지 않고, 명산을 돌아다니거나 잡문을 짓느라 마음과 정력을 낭비했는가. 한 평생을 개관해보니 속되지 않고 귀하구나. 1796년 여름 십우헌 62세 늙은이가 자평하다(李命基畫面 金弘道畫體 兩人名於畫者 李不能畫一片靈臺 惜乎何不修道於林下 浪費心力於●●●●名山雜記 概論其平生 不俗也貴 丙辰夏日 十友軒 六十二歲翁 自評).”라는 자찬(自讚)이 적혀 있음. 백문방인 “서직수인(徐直修印)”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지워진 글씨를 확인하기 위해 9월 적외선 촬영을 하였으나 아래의 글씨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서직수의 몸체를 그리면서 도포 깃의 윤곽선을 수정하였는데, 특히 보는 이의 입장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의 수정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왼쪽
자찬(自讚)	적외선 촬영		오른쪽
		<서직수 초상> 양 어깨 부분	

○ 내용 및 특징

- <서직수 초상(徐直修 肖像)>은 머리에 동파관(東坡冠)을 쓰고, 미색 도포(道袍) 차림의 서직수(徐直修, 1735-1811)가 두 손을 모은 채 하얀 머선발로 회색의 누비 깔개 위에 서 있는 야복본(野服本) 사대부 초상화임.
- 머리에 정자관·동파관·복건(幅巾)을 쓰고 심의(深衣)나 도포를 입은 야복본(野服本)은 성리학을 신봉한 사대부의 검박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면서 관복본(官服本)과 함께 널리 유행한 형식임.
-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는 자찬은 주인공 서직수가 완성된 초상화를 실견한 다음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희제화상(戲題畫相)」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문집 『십우헌초집(十友軒集抄)』(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축천당고(蠹川堂稿)』(국립중앙도서관)에 모두 실려 있음.



<서직수 초상> 자찬

『십우현집초(十友軒集抄)』

『축천당고(巖川堂稿)』

- 1796년 쓰인 자찬에서 먹으로 지운 네 글자 옆에 “名山雜記”라 적혀 있고, 『십우현초집』을 보면 도삭(刀削)된 자리에 덧댄 종이 위에 “어명산잡기(於名山雜記)”라고 기록되어 있다. 1805년 이후에 필사된 『축천당고』에는 “어명산잡기(於名山雜記)”라고 적혀 있음.
- 현재 1796년에 적은 자찬과 1798년 이후 필사된 『십우현초집』, 『축천당고』의 서체의 모두 다르므로, 앞으로 서직수의 서체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자찬에서 서직수가 자신의 초상화를 실견하고 외형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내면의 정신이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전신사조(傳神寫照)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불만을 직접 표시한 것이 주목됨.
- 또한 “비록 자신이 산림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이 속되지 않았다.”라며 찬문을 끝내고 있어 서화나 골동, 원예 등의 호사취미를 즐겼던 문화인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유추됨.
- 서직수와 당대 최고의 화원 김홍도, 이명기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790년으로 추정됨. 서직수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관리하는 현릉원령(顯隆園令)으로 1789년 10월부터 1790년 9월 30일까지 재직할 때, 화원 김홍도, 이명기, 김득신 등은 1790년 2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현릉원 원찰인 용주사의 후불탱화를 제작함. 그리고 같은해 조성된 용주사 승정명종(龍珠寺 崇禎銘鐘)에 “통훈대부 현릉원령 신 서직수(通訓大夫 顯隆園令 臣 徐直修)”이라 서직수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줌.



- 당대 최고의 화원에 의해 그려진 만큼 동시기에 유행한 최신 기법인 서양화법이 적용되어 입체적이면서도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임.
- 얼굴 표현에서 윤곽선을 최소화하면서도 붓질로 안면의 양감과 굴곡을 나타낸 것이나, 여러 가지 색채를 사용한 눈동자에서 이명기 특유의 인물화법이 확인됨.
- 신체비례에서 얼굴과 몸이 8등신에 가까워 사대부로서의 위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도포와 버선 표현에서 주름선을 따라 짙은 색을 칠한 다음 그 위에 밝은 흰색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인물의 비례가 적절하고, 안면의 특징을 충실하게 묘사한 것이나 음영법으로 입체적 효과를 살린 것으로 보아 상당한 화격을 지닌 사대부 초상화라고 할 수 있음.



○ 문헌자료

『십우헌초집(十友軒集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축천당고(蠡川堂稿)』, 국립중앙도서관

○ 기 타

국립중앙박물관 기록에 의하면 ‘1916년 6월 5일 이케우치 도라키치에게 1엔’에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음.



○ 현 상

1. 상황 상태 : 1916년 6월 5일 일본인 이케요치 도라키치에게 1엔에 구입할 당시 축의 상태였음. 구입 이후 개장한 흔적이 발견됨. 장황된 족자 앞으로 옥색 술이 두 줄 내려와 있음,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음
2. 화면 상태 : 작품 좌측 중간 이상부터 상단부까지 진한 갈색의 얼룩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드리워져 있음. 인물상 중간에도 까만 때가 묻어 있고, 바닥에 흐릿한 점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음. 배채한 흔적은 없음. 작품 뒷면 상단 장황 부분에 연필로 ‘李命基畫面 金弘道畫體 十友軒(徐直修) 肖像’이라고 적혀 있음.

○ 내용 및 특징

1. <서직수 초상(徐直修肖像)>은 18세기 후반 김홍도(金弘道, 1745-1806)와 이명기(李命基, 1756-1802)가 함께 그린 초상화이다. 화면 우측 상단에 적힌 서직수(徐直修, 1735~1811)의 자찬(自讚)에 따르면, 그의 나이 62세인 1796년에 제작되었다. 얼굴은 이명기가, 몸은 김홍도가 그린, 조선시대에 보기 드문 합작 초상화이다. 그림 속의 서직수는 중정관에 도포를 입었고, 흑색 광다회를 둘렀으며, 실내에 서 있다. 얼굴에 비해 몸이 지나치게 과장된 좌안 8분면의 전신 입상이다. 실내 장면임을 부각하기 위해 바닥의 누비 등대석이 표현되었고, 신발을 벗은 채 버선발로 서 있다. 얼굴 표현에서 탁월한 묘사력이 돋보인다. 윤곽선을 배제하고 섬세한 붓질로 안면의 양감과 굴곡을 표현하였다. 얼굴의 특징, 예를 들면 점, 주름, 피부결까지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어깨 부분에서 선이 여러 번 수정된 흔적이 발견된다. 이 부분의 비단도 심하게 마모되어 올이 풀려있다.

빛과 음영에 따른 안면과 의습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초상화 전반에서 발견된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을 밝게, 왼쪽을 어둡게 채색하여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머리에 쓴 중정관(冲正冠)은 형태가 과장되게 느껴질 정도로 진한 농묵을 구사하여 입체감이 강조되었다. 흰색 버선도 바탕에 누런색을 칠한 후 그 위에 밝은 흰색을 더하였다.

2. 서직수는 조선 후기 벌열 중 하나인 달성 서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밀양부사를 지낸 서명인(徐命仁)이다. 서직수는 1791년 평안북도 가산군수에 제수되었으나 부모의 병을 이유로 1794년부터 약 4년간 관직을 떠나 서울에 머물렀다. <서직수초상>은 이 기간 중인 1796년 제작되었다. 이는 그의 나이 62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림의 서직수는 60대의 노년이 아닌 40대의 중장년 얼굴을 지니고 있다.

3. 화면 상단 우측에는 서직수의 자찬이 적여 있다. 원문과 번역문이다. 이 원문은 그의 문집인 『십우헌집초』, 「희제화상」에 동일하게 적혀 있다.

“李命基畫面, 金弘道畫體. 兩人名於畫者, 而不能畫一片靈臺. 惜乎! 何不修道於林下, 浪費心力於名山雜記. 概論其平生不俗也貴. 丙辰夏日 十友軒六十二世翁自評.”

“이명기가 얼굴을 그렸고, 김홍도가 몸을 그렸다. 두 사람은 그림으로 이름난 이들이건만 한 조각 정신은 그려내지 못하였구나. 아깝다! 내 어찌 임하에서도 닦지 않고 名山雜記에 심력을 낭비하였던가! 그 평생을 대강 논의해 볼 때 속되지 않았음만은 귀하다고 하겠다. 병진년(1796) 하일 십우헌 예순두 살 늙은이가 자신을 평하다.”

4. 서직수 자찬 중에서 ‘名山雜記’는 원래 글자를 까맣게 지우고 그 위에 고쳐 써 넣은 것이다. 『십우헌집초』의 「희제화상」에서도 동일하게 수정되어 있다. 문장 중간에 주문방인이 찍혀 있다.

○ 문헌자료

- 『十友軒集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蠹川堂稿』, 국립중앙도서관

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1-011

11.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가. 검토사항

‘최광지 홍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최광지 홍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 (‘19.4.18.) 관계전문가 조사(‘19.9.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 소유자(관리자) :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읍 석동길 68-9
* 2015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탁품으로 관리였으나, 2020.2.10. 종중으로 반환되었음
- 수 량 : 1점
- 규 격 : 62.4×61.6cm, 배접지 포함: 64.0×64.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조성연대 : 1389년(고려 창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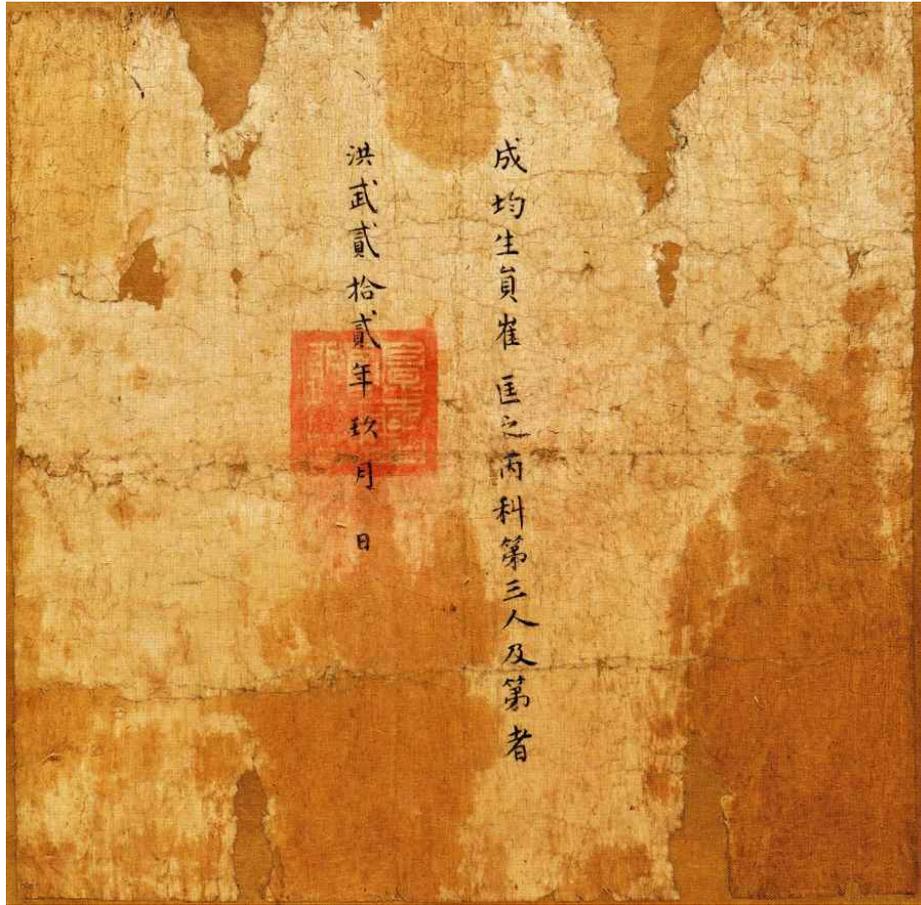


그림 1. 최광지 홍패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 최광지 홍패(崔匡之紅牌)는 1389년(창왕 1)에 최광지에게 발급된 홍패로서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 사용되었다. 전래과정에서 문서의 상단과 하단 일부가 손상된 상태이나, 문서의 첫머리에 ‘王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准王命賜’란 문구로 시작하는 문서식을 적용한 고려시대의 홍패와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최광지 홍패는 문서식(文書式)과 필체(筆體) 그리고 발급년월일에 찍힌 새보(璽寶) 등을 통하여 고려말 조선초의 관제(官制) 및 새보 사용의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389년(창왕 1) 문과에 급제하여 받은 崔匡之의 홍패는 약 631년 전 고려 말에 발급된 홍패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전주 부안의 전주최씨는 여말선초를 거치면서 14명의 司馬 및 문과 합격자를 배출할 만큼 가계와 인물이 번성하였다. 문과 합격자의 숫자로 보더라도 전주최씨는 여말선초의 중요한 가문이었고 최광지의 홍패는 여말선초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고려시대 홍패를 연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1205년(희종 1) 4월 발급 張良守 홍패(국보 제181호).
2. 1305년(충렬왕 31) 5월 발급 張桂 홍패(보물 제501호)
3. 1355년(공민 4) 발급 楊以時 홍패(보물 제725호)
4. 1376년(우왕 2) 발급 楊首生 홍패(보물 제725호)

이외에도 안동 구계서원 소유로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290년 禹倬에게 발급된 홍패가 있다. 이 홍패는 훼손이 심하여 결락된 부분이 많고 현재는 5행이 남아 있다. 특히 연호 부분이 결락 되어 정확한 발급일을 알 수 없다. 다만 충렬왕 16년(1290) 5월에 政堂文學 鄭可臣이 지공거가 되고 判秘書事 金賸이 동지공거가 되어 진사를 뽑게 되었고, 崔咸一 등 31명에게 급제를 주었다는 『高麗史』(권 75, 選舉志1, 科目1)의 기록을 토대로 발급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전하는 6건의 고려 홍패 가운데 최광지 홍패는 연대순으로 가장 늦게 발급된 것이다. 다만 다른 고려 홍패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고려국왕지인’이 훼손 없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점에서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어보는 명나라 초대 황제인 홍무제가 1370년 공민왕에게 내린 것으로, 이전에 나온 홍패가 왕명을 받은 관사가 발급한 데에 비해 이 홍패는 왕의 어보를 찍음으로써 왕명을 직접 시행하는 문서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4건의 고려시대 홍패가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최광지 홍패를 보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이어진 홍패의 발급 양식이 고려시대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문서의 문화재적 가치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崔匡之 紅牌』는 홍패라는 문서의 성격상 고려의 과거 제도 및 문서 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른 6점의 홍패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왕명을 직접 발현한 왕명문서로서의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른 6점은 모두 왕명을 근거로 관사에서 발급한 문서였다. 그러나 왕의 옥새를 날인한 왕명문서 양식으로 변모된

양상을 볼 수 있다.

『高麗史』에 충렬왕 2(1276)년 ‘宣旨’란 용어 대신 ‘王旨’로 바꾸어 사용하게 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당시 문서에 적용된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었다. 고려말의 홍패에 ‘王旨’ 양식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물이란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에 미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璽寶 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문서를 통해 고려말에 보이는 문서제도의 변화가 조선에 그대로 승계되었고, 이를 토대로 『經國大典』에 조선식 문서제도로 정착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에 조사 대상의 홍패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해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書誌事項

崔匡之 紅牌 / 禮部(高麗) 撰.

筆寫本. [高麗 昌王 1(1389)]

1張. 62.4 × 61.6 cm.(배접용지 포함 64.0 × 64.3 cm.)

國王印 : 高麗國王之印.

○ 현 상

조사본 『崔匡之紅牌』는 전북 부안의 全州崔氏 松涯公派 종중에 대대로 전승되어 온 문서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되어 보관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종중으로 반환된 상태이다. 문서는 본래 상단과 하단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보존처리 이후 안정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최광지 홍패(崔匡之紅牌)는 1389년(창왕 1)에 최광지(崔匡之, 생몰년 미상)에게 발급된 홍패이다.

최광지의 생물연대는 상세하지 않으나, 공민왕대 공조참의를 지낸 월당(月塘) 최담(崔澗, 1346-1434)의 장남이다. 조부(祖父)는 최을인(崔乙仁)이며, 증조부(曾祖父)는 최용봉(崔龍鳳), 고조부는 최아(崔阿)이다. 동생인 최덕지(崔德之, 1384~1455)는 세종대에 배출된 학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고려 시대의 과거는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雜科)로 구별되며,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관이 될 수 있는 시험이었기에 양대업(兩大業)이라 불렸다. 다만 고려시대는 한·당유학(漢唐儒學)의 영향으로 경학(經學)보다 사장(詞章)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양대업 가운데서도 제술업이 더욱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무신을 선발하기 위한 무과는 1390년(공양왕 2)년에 설치했으나 실제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홍패(紅牌)는 국가에서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발급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새로 급제한 자의 홍패는 사신을 보내어 그 집에 가서 하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명종(明宗) 8년(1178) 6월에 어사대(御史臺)에서 아뢰기를,
“옛 제도에서는 새로 급제(及第)한 자의 홍패(紅牌)를 사신을 보내어 그 집에 가서 하사하였으므로 <사신을> 맞이하고 대접하기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난한 선비는 그 대접을 감당할 수 없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어전(御前)에서 홍패를 하사하시기를 요청하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중서문하부(中書門下府)에서 반박하여 아뢰기를,
“선왕(先王)의 제도에 반드시 사신을 그 집으로 내려 보내어 홍패를 하사하도록 한 것은 그 <급제한 자가 사는> 마을[里閭]을 영예롭고 빛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부러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학문을 권면(勸勉)하고자 한 까닭입니다. 하물며 이 제도는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왕이> 제가(制可)하였다.

(八年六月 御史臺奏, “舊制, 新及第紅牌降使就賜于家, 迎待煩費, 寒士不克供辦. 自今, 請於簾前賜牌.” 中書門下府駁奏, “先王之制, 必降賜于家者, 將以榮耀里閭, 使人歆羨勸學. 況行之已久, 仍舊便.” 制可)

高麗史 卷七十四 志 卷第二十八 選舉 二

또한 과거 급제자에게는 홍패 외에도 안장떨린 말을 별도로 하사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고려시대에 과거 급제자를 대우하는 예의를 알 수 있다.

숙종(肅宗) 7년(1102) 3월 지주사(知奏事) 윤관(尹瓘)이 지공거(知貢舉), 사재경(司宰卿) 이굉(李宏)이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진사(進士)를 뽑았는데, <왕

께서〉 복시(覆試)를 보시어 조서(詔書)를 내려 을과(乙科) 강척(康滌) 등 5명, 병과(丙科) 11명, 동진사(同進士) 17명, 명경업(明經業) 3명, 은사(恩賜) 5명에게 급제(及第)를 내려주었다. 아울러 투화(投化)한 송(宋)의 진사 장침(章忱)을 불러 시험하여 별두을과(別頭乙科)의 급제를 내려주고 〈그로〉 인하여 홍패(紅牌)와 안장 딸린 말을 하사하였다.

(七年三月 知奏事尹瓘知貢舉, 司宰卿李宏同知貢舉, 取進士, 覆試, 下詔, 賜乙科康滌等五人·丙科十一人·同進士十七人·明經三人·恩賜五人及第. 并召試投化宋進士章忱, 賜別頭乙科及第, 仍賜紅牌鞍馬.)

高麗史 卷七十三 志 卷第二十七 選舉 一

조사 대상 최광지 홍패(崔匡之紅牌)는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62.4×61.6cm 내외로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문서의 원형은 상부와 하단의 손상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잃어 버린 상태이나, 내용과 인문(印文) 등은 온전히 전하고 있어 가치가 있다.

문서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인장이 찍혀 있다. 인문의 크기는 10.0×10.0 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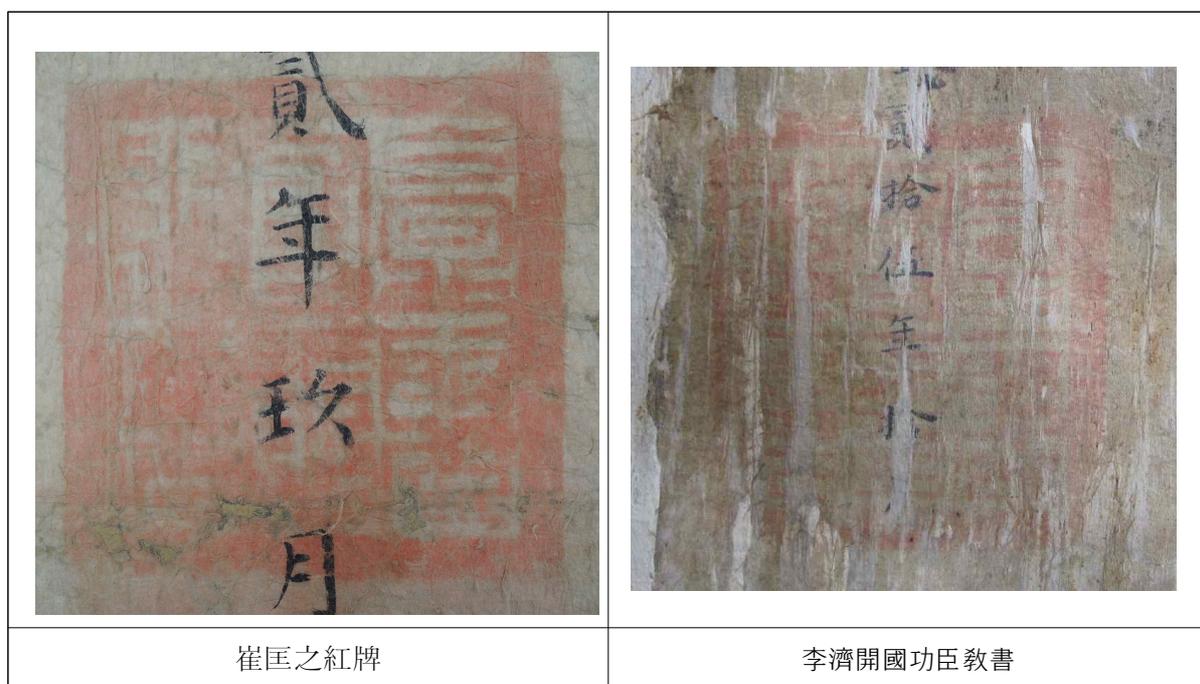
문서에 보이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하여 그 내

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공민왕(恭愍王) 19년(1370) 5월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금인(金印) 1개[顆]를 하사하였는데, 거북 모양의 인끈이 매달려 있으며, 그 글에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고 쓰여 있었다.

(恭愍王十九年 五月, 太祖高皇帝, 賜金印一顆, 龜紐螭綬, 其文曰: 高麗國王之印)
高麗史 卷七十二 志 卷第二十六 輿服 一 王印章

이 기록을 토대로 「高麗國王之印」은 명나라 초대 황제인 홍무제가 원이 망한 뒤인 1370년(공민왕 19)에 고려 국왕에게 내려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인장은 1392년(태조 1) 10월에 조선 태조 이성계가 개국일등공신인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인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開國功臣教書)」에도 사용되고 있어 조선 개국 직후에까지 계속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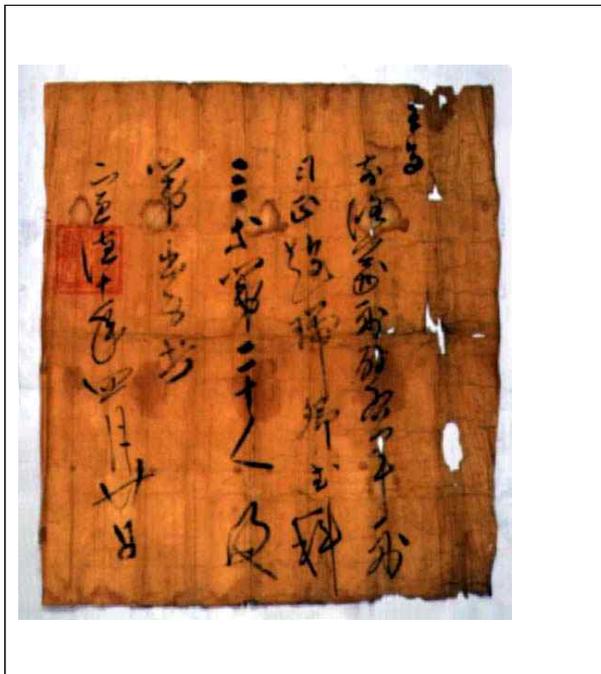


고려말 조선초에 발급되었던 홍패로서 현재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유물은 모두 7점이 확인된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은 1205년(희종 1) 4월 장양수(張良守)에게 발급된 홍패(국보 제181호)이며, 1305년(충렬왕 31) 장계(張桂)에게 발급된 진사시(進士試) 급제 홍패 및 1459년(세조 5) 장말손(張末孫)에게 내려준 문과 급제 홍패(보물 제501호), 1435년(세종 17) 4월 조서경(趙瑞卿)에게 발급된 무과 홍패(보물 제954호), 1435년(세종 17) 4월 이임(李臨)에게 발급된 무과 홍패(보물 제1006호) 5건은 1290년(충렬왕 16)년 이후 발급된 것이다. 또한 보물 제725호로 지

정된 「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 가운데 1355년(공민왕 4) 과거 급제 흥패 및 1376년(우왕 2) 과거 급제 흥패 등이 있다.



국보 제181호 장양수 흥패



보물 제954호 조서경 무과 흥패



보물 제725호 양수생 흥패

이들 흥패 가운데 ‘准王命賜’란 문구로 시작하는 흥패는 1290년(충렬왕 16)부터 1376년(우왕 2)년까지 발급된 흥패에 보이고 있는데, 각각의 유물에 보이는 문서 식(文書式)과 필체(筆體) 그리고 발급연월일에 찍힌 새보(璽寶)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고려말 조선초의 관제(官制) 및 새보 사용의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 문헌자료

박재우, 「고려시대 紅牌의 양식과 특징 - 장양수홍패를 중심으로-」(『고문서연구』 제37호, 2010. 8)

박성호, 「여말선초 紅牌, 白牌 양식의 변화와 의의」(『고문서연구』 제40호, 2012.02)

박성호, 「새로 발견된 고려말 문과 홍패의 고문서학적 고찰과 사료로서의 의의 - 1389년(고려 창왕1) 최광지 홍패 - 」(『고문서연구』 제48호, 2016.02)

○ 지정사례

국보 제181호 장양수 홍패 (1975.10.13지정)

보물 제501호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1969.02.19.지정)

보물 제954호 조서경 무과홍패(1988.06.16.지정)

보물 제1006호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홍패(1989.05.23.지정)

보물 제725호 남원양씨 종중 문서 일괄(1981.07.15.지정)

보물 제1564-7호 이순신 관련 고문서 - 이순신 무과홍패(2011.04.27.지정)



○ 현 상

문서의 1/3 이상이 훼손되었으나 중간 부분인 본문과 인장 부분은 훼손되지 않았다.

○ 내용 및 특징

고려 창왕 1년(1389) 9월에 崔匡之가 문과에 급제하자 국왕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내려준 합격증서인 홍패로,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
洪武貳拾貳年九月 日.’

홍패에는 위의 본문과 함께 발급일의 중간 부분에 ‘高麗國王之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의 규격은 10×10cm이다. 이 홍패는 대대로 전북 부안군의 松崖公派 문중 齋舍인 留節庵에 보관되어 왔다. 약 200여 년 전에 출간된 전주최씨 1805년(을축보) 족보에도 ‘홍패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紅牌至今留在)’고 밝혀져 있다.

최광지는 여말선초의 인물이며 본관이 全州이다. 방목과 족보에는 그의 생몰년이 나와 있지 않으나 그의 아버지 崔灑(1346~1434)과 아우 崔德之(1379~2455)의

생몰년 등을 고려하면, 1370년 무렵 태어나 1450년을 전후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광지의 호는 松崖, 시호는 文簡이다. 아버지 최담과 어머니 全州朴氏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났으며, 아우 崔直之와 함께 1389년에 성균 생원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였다. 급제 뒤에 禮賓寺 少尹과 集賢殿 提學을 지냈다. 묘는 전주 所陽의 周德山에 있다.

○ 기 타

전주최씨 松崖公派 종중에 전래 되어 온 것으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 보관되었으나 최근 종중으로 반환되었다.



○ 현 상

『崔匡之 紅牌』은 창왕 1(1389)년 崔匡之에게 발급한 문과 홍패이다. 우왕 14(1388)년 명나라의 遼東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했던 李成桂가 위화도에서 회군해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후 문서양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양상이 반영된 문서이다. 홍패 본문의 기재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고려의 홍패 본문 기재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공통된 기재방식인 합격자의 ‘신분 + 성명 + 등제명 + 성적 + 급제(출신)자’의 순으로 기재된 것은 동일하다. 다만 발급 연월일 위에 ‘高麗國王之印’이란 주인이 날인되어 있다. 지금껏 고려말 문서 가운데 이 ‘高麗國王之印’이 날인된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고려말 문서와 조선초의 문서양식의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서지사항

崔匡之 紅牌 / 禮部(高麗) 撰.

筆寫本. [高麗 昌王 1(1389)]

1張. 62.4 × 61.6 cm.(배접용지 포함 64.0 × 64.3 cm.)

國王印 : 高麗國王之印.

○ 내용 및 특징

崔匡之 紅牌는 창왕 1(1389)년 崔匡之에게 발급된 문과 홍패이며, 전북 부안의 全州崔氏 松涯公派 종중에 수장되어 있었다. 崔匡之는 고려 문과에 급제하고 문하시중을 지낸 전주최씨 문성공 崔阿의 5대손이며, 전주 한벽당의 주인인 月塘 崔灑

(1346-1434)의 장남이다. 최담은 우왕 3(1377)년 문과에 급제하고, 조선시대에는 知珍州事와 집현전 제학을 지냈다. 崔匡之의 생물연도는 알 수 없으나, 창왕 1(1389)년 ‘병과 제3인’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전통적으로 관리를 선발하던 방법은 크게 他薦에 의한 방법과 自薦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타천에 의한 관리선발 방법에는 蔭敍와 薦擧가 있었다. 음서는 신분이나 가문을 보고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이고, 천거는 개인의 학문적·정치적 능력이나 덕행을 기준으로 등용한 것이다. 自薦에 의한 방법은 科擧와 取才가 있었다. 과거는 학식이나 문장을 기준으로 시험을 거쳐 고위관리를 등용한 제도이나, 취재는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였다.

관리선발에 있어 고대에는 음서가 우세하였으나 근대로 올수록 과거가 우세하였다. 음서는 父祖의 음덕으로 관리가 되는 방법으로, 공신과 5품 이상 관원의 아들 1명은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천거제도도 활발하게 운영하였다. 공민왕 10(1361)년 이후부터는 천거 대상자를 가리켜 ‘현량’이라 하였다.

고려시대부터 문과를 중시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과거라 함은 문과를 의미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4대 왕인 광종 9(958)년 後周 출신 귀화인 한림학사 雙冀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 목적은 왕권을 위협하던 호족 출신의 무장을 대신하여 문신을 관료 기구에 편입시켜 왕권 강화에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성종 때 과거제를 한층 강화시켜 覆試制를 시행하였다. 개경에 있는 문신에게는 매월 詩賦를 지어 바치게 하여 문예 승상의 기풍을 더욱 조장했다. 인종 14(1136)년에 일종의 과거시행법인 科擧節目을 제정함으로써 완비되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는 製述科(進士科)·明經科·雜科·僧科로 구분된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합격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기에 중요시되었으며, 흔히 양대업이라 불렀다. 공양왕 2(1390)년에 무신을 선발하기 위해 무과를 설치했으나, 실제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채 고려가 멸망되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의 國學生(土貢), 지방에서 천거한 豪族子弟(鄉貢), 외국인인 賓貢들은 아무런 예비시험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예비시험이 생겨나게 되었다. 현종 15(1024)년 각 지방에서 시행하는 예비시험인 鄉試(界首官試)를 시행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한 자는 개경의 국자감에서 재시험을 보아 합격하면 본시험인 禮部試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초기의 과거시험 절차는 계수관시에 합격한 鄉貢進士·開京試/西京試의 통과자·현직 관료·國學生·私學十二徒生들은 본고사의 예비고사인 국자감시에 응시해서 합격한 경우에만 본시험인 禮部試(東堂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예부시에 통과하면 국왕이 주재하는 覆試(親試)를 치렀는데, 여기서 예부시 급제자의 순위가 결정되었다. 고려의 최상위 과거인 예부시의 覆試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紅牌를 지급했다.

과거 시험관 즉 坐主를 知貢舉라고 하고 합격자를 門生이라고 불렀는데, 양자 사이의 관계는 부자관계와 같아 평생 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坐主와 門生 간의 관계는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더 촉진시켜서 권세가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로서 과거의 문벌을 형성시키는 폐단이 생겨 궁극적으로는 통치체제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坐主門生制를 약화시키기 위해 親試를 시행하다가, 공민왕 18(1369)년에 元의 제도를 모방한 鄉試·會試·殿試의 科擧三層制를 채택하여 해결하였다. 또 시험시기도 선종 1(1084)년에는 3년에 1회씩 시험을 치르는 式年試制를 채택했으나,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실시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규정상 노비와 같은 천인·불효와 불충 등의 큰 죄를 지은 자를 제외한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나, 실제로 과거를 통하여 관리가 되는 것은 관료나 향리의 자제들이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다 같이 문신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으나, 제술과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여러 가지 글을 짓는 시험이었고, 명경과는 유교경전을 해석하는 시험이었다. 일반적으로 경학보다도 문예가 더 숭상되었기 때문에 제술과가 더욱더 중시되었다. 제술과는 詩·賦·頌·策 등의 詞章으로써 인재를 뽑는 것이며, 명경과는 유교의 경전으로 시험하였다. 잡과는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으로 그 격이 낮았으며, 법률·의학·천문·지리 등 기술 과목으로 시험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과거 급제자 명단을 桂籍이라 하였다. 같은 해 과거 급제자 명단을 수록한 책을 同年錄이라 하는데, 이는 조정에서 만들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동년록을 모아 정리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현존하는 고려시대 동년록은 극히 적은 편이다.

○ 문헌자료

박성호, 여말선초 紅牌, 白牌 양식의 변화와 의의. 고문서연구 40 (2012. 02) 1-34.

박성호, 새로 발견된 고려말 흥패의 고문서학적 고찰과 사료로서의 의의 - 1389년 (창왕 1) 최광지 흥패-. 고문서연구 48 (2016. 02) 1-25.

박재우, 고려시대 紅牌의 양식과 특징 - 「장량수흥패」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7 (2010. 8) 1-33.

丁時采, 朝鮮王朝時代の 科擧制度研究. 論文集(建國大) 10 (1979) 277-298.

李鍾春, 李朝의 科擧制度 研究. 論文集(淸州教育大學校) 8 (1972) 89-113.

○ 기 타

전북 부안의 전주최씨 松涯公派 종중에 대대로 전승되어온 문서이다.

고려시대에도 과거 급제자에게 홍패를 발급하였는데, 현재 6건의 고려 홍패가 전래되고 있다. 1건은 희종 1(1205)년 4월 張良守에게 발급한 홍패이고, 5건은 충렬왕 16(1290)년 이후의 홍패이다. 고려가 몽고에 완전히 복속된 시기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양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시간적인 차이와 함께 정치적·사회적 양상의 추이를 볼 수 있다. 전래되고 있는 고려 홍패는 다음의 7건이다.

<표> 전래하는 고려 홍패

發給年月	姓名	等位	冒頭文章	寶印	指定	所有者
희종 1(1205) 4.	張良守	丙科及第	?	?	국보	울진장씨
충렬 16(1290) 5.	禹倬	丙科及第	准王命賜			영남대 박물관
충렬 31(1305) 5.	張桂	同進士及第	准王命賜		보물	영주 인동장씨
충혜즉위(1330) 11.	李子脩	二科第四人	准王命賜			한국국학진흥원(寫本)
공민 4(1355) 2.	楊以時	同進士出身	准王命賜		보물	순창 남원양씨
우왕 2(1376) 6.	楊首生	乙科第二人	准王命賜	?	보물	순창 남원양씨
창왕 1(1389) 9.	崔匡之	丙科第三人	?	高麗國王之印		부안 전주최씨 송애종중

충렬왕 이후에는 예부시 급제자에게 ‘准王命賜’란 문구로 시작하는 홍패를 발급하였다. 이는 관사에서 왕명을 받들어 관인을 날인해 발급한 것이고, 당해 문서에는 시험을 관장한 坐主人 지공거와 동지공거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准王命賜’란 문구로 시작하는 홍패는 충렬왕 16(1290)년부터 우왕 2(1376)년까지 발급된 홍패에 보이고 있다. 관사에서는 왕명을 받들어 官印을 날인해 발급하였다. 그러나 조선초에는 문무과 급제자에게 ‘王旨’ 또는 ‘教旨’라는 문구로 시작한 홍패를 발급하였다. 조선초의 홍패에는 고려말의 홍패와는 달리 王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准王命賜’란 문구는 ‘奉教賜’로 바뀌었다. 양식을 갖추어 寶印을 날인해 발급하였다.

창왕 1(1389)년 발급된 『崔匡之 紅牌』는 전래과정에서 문서의 상단이 제거되어 고려 국왕의 수결도 분명하지 않으며, 가장자리 몇 군데가 손상된 상태이다. 따라서 문서의 첫머리에 기록된 ‘准王命賜’란 문구 부분이 훼손되어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창왕 이후 왕명문서의 첫머리에 놓인 다른 사례를 고려할 때, 훼손된 부분에는 아마도 ‘王旨’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왕발급의 문서양식에 있어, 우왕 14(1388)년 遼東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했던 李成桂가 위화도에서 회군해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후는 변화가 생겼는데, 이때부터 ‘准王命賜’도 ‘王旨’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6종 홍패는 왕명을 받은 官司가 발급한 데 반해, ‘王旨’란 표현을 통해 『崔匡之 紅牌』는 왕명을 직접 시행한 완결된 형태의 문서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도 세종 이전에 발급된 홍패에는 ‘教旨’ 대신 ‘王旨’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經國大典』이 반포되기 전까지는 고려시대의 문서 양식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행을 바꾸어 ‘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전래되는 다른 고려의 홍패 본문 기재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합격자의 ‘신분 + 성명 + 등제명 + 성적 + 급제(출신)자’의 기재방식은 고려말과 조선시대 홍패의 공통된 기재방식이다. 신분은 ‘성균생원’인데, 이도 당시의 성균관 명칭과 부합된다. 고려는 성종년간 국자감을 설치하였고, 충렬왕 원(1275)년 국학으로 개칭했다가 충렬왕 24(1298)년 성균감, 충렬왕 34(1308)년 성균관, 공민왕 5(1356)년 국자감, 공민왕 11(1362)년 성균관으로 개칭하였었다. 창왕 1(1389)년은 성균관으로 개칭된 이후이다.

‘병과 제3인 급제’도 타당한 형태이다. 고려말 문과 등제 구분은 을과·병과·동진사로 하였는데, 전체 32명의 급제자 가운데 을과 3명·병과 7명·동진사 22명이었다. 당시엔 金汝知가 을과 제1인이었고, 최광지는 전체 순위로는 6위였다. 이때 동생 崔直之는 동진사 11으로 병과 함께 동방 급제하였다.

행을 바꾸어 ‘洪武貳拾貳年玖月 日’이라 홍패의 발급 연월일이 기재되었다. 연호는 명의 초대황제의 연호가 기록되었고, 연호의 武자는 피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인 피휘 양식과는 다르다. 연도 표기의 숫자도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고 갖은 숫자이다. 발급 연월일 위에 주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인문은 ‘高麗國王之印’이다. 고려말 고려왕은 왕 황실의 부마였으므로, 원에서 ‘駙馬高麗國王印’을 내려주어 사용하였었다. 이 ‘高麗國王之印’은 명의 홍무제가 공민왕 19(1370)년 공민왕에게 내려준 옥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려말 문서 가운데 이 ‘高麗國王之印’이 날인된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다만 조선 개국 직후 태조 1(1392)년 개국공신 李濟에게 내린 개국공신교서에 ‘高麗國王之印’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크기는 10.0 × 10.0 cm이며, 동일 印文으로서는 가장 선명한 인문이다.

○ 지정사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고려의 홍패는 아래의 4종이다.

- 張良守. 丙科及第. 희종 1(1205) 4. 국보 제181호. 울진장씨.
- 張桂. 同進士及第. 충렬 31(1305) 5. 보물 제501호. 영주 인동장씨. 准王命賜.
- 楊以時. 同進士出身. 공민 4(1355) 2. 보물 제725호. 순창 남원양씨. 准王命賜.
- 楊首生. 乙科第二人. 우왕 2(1376) 6. 보물 제725호. 순창 남원양씨. 准王命賜.

12.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가. 검토사항

‘안동권씨족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안동권씨족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3.10.24.) 관계전문가 조사('14.5.9.)를 실시했으나, 2014년도 제7차 동산분과위원회('14.12.11.)에서 동종문화재(族圖類) 보완조사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19.11.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민속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61.5×219.8cm, 화면 61.5×191.0cm
- 재 질 : 비단에 묵서(墨書)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 조성연대 : 1454(단종 2)~1456년(세조 2)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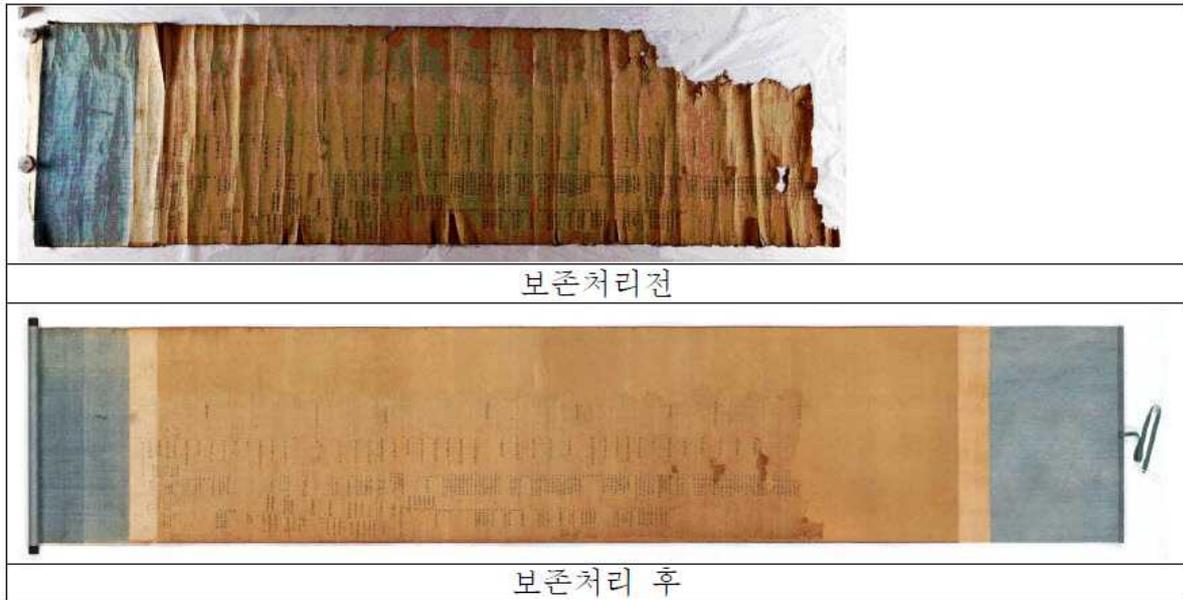


그림 1. 안동권씨족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단종 2(1454)년에서 세조 2(1456)년 사이에 寫圖된 것으로 權呂溫을 기점으로 현손인 端宗을 포함한 内外의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에 權自愼의 아들인 權瑕를 기점으로 7대손 琴琥에 이르기까지의 내외 후손들이 추록되어 있다. 이는 성종 7(1476)년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로 알려지는 『安東權氏成化譜』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는 譜圖錄으로 여기에는 顯德王后(1418~1441)와 端宗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의 諱字는 世祖의 왕위 찬탈과 관련되어 폐위된 관계로 인하여 떼어낸 附籤의 흔적만 남아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초기의 族譜資料일수록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세기 중반에 제작되어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唯一本 族圖라는 것만으로도 주목되는 一次史料이며, 나아가 세조 2(1456)년의 死六臣의 사건과 연계된 顯德王后와 端宗과의 관련 家系記錄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安東權氏族圖>보다 앞선 태종 원(1401)년에 寫圖된 <海州吳氏族圖> 뿐만 아니라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世系>·<慶州

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의 행방이 묘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成宗 7(1476)년 무렵에 간행된 『安東權氏世譜』와 더불어 조선조 초기의 譜錄 編纂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古文書일 뿐 아니라 조선조 초기의 政治史· 社會史·生活史 등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에 <安東權氏族圖>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신청이 있게 되면서, 이들 양자는 상호관계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도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安東權氏世譜』와 더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현재까지 전해지는 한국 最古의 族圖이며, 한국의 初期 系譜學 연구의 핵심적 문헌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는 1454년(단종 2)에서 1456년(세조 2)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권여온(權呂溫)을 기점으로 현손인 단종을 포함한 내외의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에 권자신(權自愼)의 아들인 권하(權瑕)를 기점으로 7대손 금호(琴琥)에 이르기까지의 내외 후손들이 추록되어 있다. 특히 족도에 나타난 현덕왕후(顯德王后)와 단종의 諱字는 떼어낸 부침(附籤)의 흔적만 남아있어 조선 초기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조사본은 15세기 중반에 제작되어 전래되었고, 후대에 추가되는 등 보록(譜錄) 편찬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고문서로서 당대의 정치·사회·생활사 등의 연구를 위한 1차 사료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현전하는 族圖로는 1401년(태종 원년)에 吳先敬(?~?)이 寫圖한 <海州吳氏族圖>와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 獨樂堂 所藏의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가 있다고 하나 <海州吳氏族圖>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

조사대상 문화재<安東權氏族圖>는 현재까지 그 실체가 알려진 한국 最古의 族圖이며, 한국의 初期 系譜學 연구의 중요문헌이다.

系譜學적 측면에서 조선시대 초기일수록 族譜資料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때문에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조사대상 문화재<安東權氏族圖>는 계보학은 물론 <安東權氏族圖>에 수록된 인물들의 중요도로 볼 때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요 史料이다.

조사대상 문화재<安東權氏族圖>보다 일찍(태종 원(1401)년) 작성된 <海州吳氏族圖>와 16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의 행방이 묘연하여 그 실체를 파악 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볼 때 국가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安東權氏世譜』(成宗 7(1476)년 간행)는 조사대상 문화재<安東權氏族圖>와 더불어 조선조 초기의 譜錄 編纂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 관련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安東權氏族圖>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된다면, 두 자료의 상호관계에 의한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 족도류(族圖類) 현황파악 후 추가조사, 가치 비교검토 필요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指定申請本 <安東權氏族圖>의 書誌記述과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記述>

[安東權氏族圖] / [編纂·寫圖者不明].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端宗 2(1454)~世祖 2(1456) 推定].

1卷物 : 圖, 4段, 61.5×191.0cm ; 61.5×219.8cm. 絹類. 卷軸裝(改裝).

題 名 : 原題의 缺失로 정확한 題名은 알 수 없으며, 國立民俗博物館이 보존처리공사를 실시할 때에 '安東權氏族圖'로 命名하였다.

現 狀: 세로 61.5cm 가로 219.8cm 크기의 1枚物로 2011년 2월 9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약 2년에 걸쳐 保存處理를 실시하였으며, 裝訂은 改裝되었으나 序頭部의 일부가 缺落되어 완전한 原狀은 아니다.

所藏歷: 國立民俗博物館이 1999년 7월 21일에 公開購入한 文化財이다.

其 他: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族圖임.

申請歷: 2013년 10월 24일에 국가문화재(보물) 지정신청이 접수되어 2014년도 제7차 동산분과위원회(2014.12.11.)에서 지정이 보류된 바 있으나, 최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가 국가문화재(보물) 지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상호 관련이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再調査가 실시되었다.

既指定: 族譜類 및 族圖類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現 狀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의 國立民俗博物館이 1999년 7월 21일에 公開로 購入한 國有文化財로 현재 國立民俗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의 현재 상태는 세로 61.5cm 가로 219.8cm 크기의 1枚物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보존처리공사가 실시되었으며, 裝訂은 改裝되었으나 序頭部의 일부가 缺落되어 완전한 原狀이 아니다.

○ 內容 및 特徵

일반적으로 族譜는 父系를 중심으로 血緣의 관계를 圖表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한 종족의 系譜로 譜牒·世譜·世系·家乘·家牒·家譜·姓譜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가의 史乘과 마찬가지로 祖上을 존경하고 宗族의 단결을 뜻하며, 후손들에게 촌수의 遠近에 관계없이 화목의 풍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高麗史』에 의하면 高麗朝에도 양반과 귀족들은 그들 씨족의 系譜를 기록하는 것을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官制로 宗簿寺에서 族屬譜牒을 관장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에도 巨家の 貴族들 사이에는 譜系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族圖는 특별한 체제에 구애되지 않고 代의 次數에 따라 1매의 書寫材料에 從으로 寫圖한 族譜 이전의 家系記錄 또는 族譜의 초기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조부터 15세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親家와 外家の 家系를 기록하였으며, 15세기 중반에 이르러 譜圖를 기본으로 字標, 凡例, 附錄, 序跋文 등이 추가되면서 정식의 族譜로 발전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현전하는 族圖로는 태종 원(1401)년에 吳先敬(?~?)에 의하여 寫圖된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하여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 獨樂堂 所藏의 <驪州李氏

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단종 2(1454)년에서 세조 2(1456)년 사이에 寫圖된 것으로 權呂溫(15세, ??)을 기점으로 현손인 端宗(1441~1457)을 포함한 内外의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에 權自愼(17세, 1418~1456)의 아들인 權瑕(18세, ??)를 기점으로 7대손 琴琥(??)에 이르기까지의 내외 후손들이 추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성종 7(1476)년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로 알려지는 『安東權氏成化譜』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는 譜圖錄으로, 비단 바탕에 權呂溫의 자녀와 자손 336명의 관계를 朱色線으로 표시하고 두루마리(卷子)로 장황하였다. 여기에는 顯德王后(1418~1441)와 端宗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들의 諱字는 世祖의 왕위 찬탈과 관련되어 폐위된 관계로 인하여 떼어낸 附籤의 흔적만 남아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의 主體인 顯德王后는 조선조의 유일한 安東權氏 출신의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安東權氏世譜』에는 빠져 있으며, 族圖에 기재된 인물을 비롯하여 비단 바탕에 朱色線, 두루마리 장황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外家の 血統을 밝히기 위하여 제작된 端宗의 外曾外家の 族圖가 아닌가 한다.

文宗(1414~1452)은 동궁이던 때에 上護軍 金五文(??)의 따님에게 처음으로 嘉禮를 행하고 徽嬪으로 맞았으나 徽嬪은 요사스러운 방술을 일삼다가 발각됨으로써 廢庶人이 되었으며, 또 宗簿寺少尹 奉礪(1375~1436)의 따님을 純嬪으로 책봉하였으나 8년이 지나 허물이 있게 되자 폐위를 시켰다. 그 뒤 세자궁의 중2품의 良娣인 權氏를 세위 嬪으로 맞이하였는데, 이분이 곧 顯德王后이며 魯山(단종)을 출산한지 7일 만에 薨去하였다. 이처럼 顯德王后 權氏는 문종이 즉위하기 전에 端宗을 출산하고 薨去하였으나 문종이 즉위한 후에 王后로 追封되었으며, 단종 2(1454)년에는 仁孝順惠의 徽號가 追上되었다.

그러나 世祖(1417~1468)가 등극한 후 친정 오라비인 權自愼(1418~1456)이 成三問(1418~1456) 등과 端宗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극형을 당하자, 顯德王后도 죄인의 일가라 하여 廢位되었다. 顯德王后의 부친인 權專(1372~1441)은 관작이 追削되어 庶人이 되고 顯德王后의 初陵인 安山の 昭陵도 파헤치기까지 하였다. 그 후로 中宗朝에 金正國(1485~1541)을 비롯한 儒臣들의 끈질긴 주장에 의하여 결국 顯德王后는 복위되었으며, 뒤에 昭陵을 복위하여 楊州에 있는 文宗의 顯陵으로 移葬하였다. 權自愼과 權專의 부자는 肅宗朝에 復位되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초기의 族譜資料일수록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세기 중반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唯一本 族圖라는 것만으로도 주목되는 一次史料이며, 나아가 세조 2(1456)년의 死六臣의 사건과 연계된 顯德王后와 端宗과의 관련 家系記錄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

가된다.

또한, 현재 <安東權氏族圖>보다 앞선 태종 원(1401)년에 寫圖된 <海州吳氏族圖> 뿐만 아니라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의 행방이 묘연한 현실을 감안할 때, 成宗 7(1476)년 무렵에 간행된 『安東權氏世譜』와 더불어 조선조 초기의 譜錄 編纂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古文書일 뿐 아니라 조선조 초기의 政治史·社會史·生活史 등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에 <安東權氏族圖>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신청이 있게 되면서, 이들 양자는 상호관계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도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安東權氏世譜』와 더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編纂·寫圖者不明], [安東權氏族圖]. -- 筆寫本. -- [筆寫地不明]: [筆寫處不明], [端宗 2(1454)~世祖 2(1456) 推定]. 國立民俗博物館 所藏本.
- 權躋·權擘 共編, 徐居正·朴元昌·崔灝元 增編修正, 『安東權氏世譜』. 木板本. [安東府]: [尹壕], [成宗 7(1476)年 推定].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所藏本.
- 國立民俗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國立民俗博物館, 2012.
- 國立民俗博物館 編, 「安東權氏族圖」. 서울: 國立民俗博物館, 2012.
- 정재훈,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집. 서울: 서강대학교, 1989.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안동권씨 종보사: <http://www.andongkwon.or.kr/>

○ 其 他 (소장 경위 등)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族圖로,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의 國立民俗博物館이 1999년 7월 21일 公開購入한 族圖이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族圖』는 2013년 10월 24일에 국가문화재(보물) 지정신청이 접수되어 2014년도 제7차 동산분과위원회(2014.12.11.)에서 지정이 보류된 바 있으나, 최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가 국가문화재(보물) 지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상호 관련이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再調査가 실시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族譜類 및 族圖類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書誌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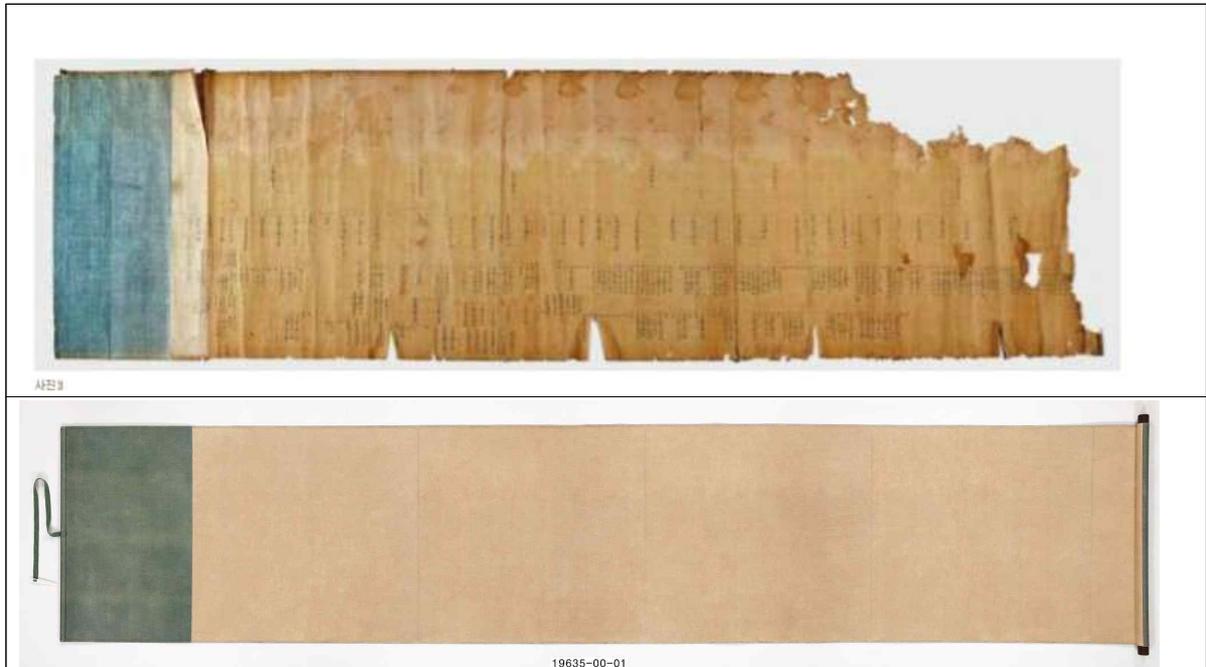
[安東權氏族圖] / [編纂·寫圖者不明].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端宗 2(1454)~世祖 2(1456) 推定].

圖, 4段, 61.5×191.0cm ; 61.5×219.8cm. 絹. 卷軸裝(改裝).

○ 現 狀

조사본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는 국립민속박물관이 1999년 7월 21일에 공개로 구입하였고, 2011년 2월 9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약 2년에 걸쳐 보존처리를 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크기는 세로 61.5cm, 가로 219.8cm 크기로 서두부(序頭部)의 일부가 결락되었으나, 그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 內容 및 特徵

족도(族圖)는 족보(族譜)의 초기형태로 주로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유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에 정간(井間)을 긋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수직의 선을 통해 자손 관계를 도식한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족보를 “한 씨족(氏族)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으로 정의하는데, 족도 역시 형식은 다르나 성(姓)과 본관(本貫)이 같아서 동조의식(同祖意識)을 가진 친

족(親族)을 기록한 가계(家系)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족도(族圖)에 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을 통하여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작성 시기는 태종대로부터 시작하여 성종대를 하한으로 하고 있다.

① 사헌부(司憲府)에서 노비(奴婢)의 사의(事宜)를 아뢰기를,
"대소 인원(大小人員)이 소송하는 노비(奴婢)는, 재주(財主)의 본종(本宗)과 사촌(四寸), 그리고 수양(收養) 등의 사람들은 비록 전계(傳繼)가 없더라도 판지(判旨)가 분명하니, 사리(事理)가 마땅히 다투고 바라겠지만, 그 나머지 탐람(貪婪)·간악(奸惡)한 무리들은 비록 본종(本宗)이 아니라 하더라도 족친(族親)이라 범칭(泛稱)하고, 그 족도(族圖)를 연결(連接)시켜 각각 모득(冒得)하기를 꾀합니다. 비록 당해(當該) 원리(員吏)가 바른 것에 따라 판결[決絶]하더라도 그대로 점유[仍執]하기 위하여, 곧 오결(誤決)이라 정소(呈訴)하여 시비(是非)를 변란(變亂)시키니, 송사(訟事)를 듣는 것이 날로 번다하여지고 부서(簿書)가 더욱 증가될 뿐만 아니라, 풍속(風俗)이 아름답지 못하니, 참으로 미편(未便)합니다. 금후로는 상항(上項)의 판지(判旨)에서 논(論)한 인원(人員) 이외에, 전계(傳繼)가 없는 자손(子孫) 이외의 사람이 족친(族親)이라 범칭(泛稱)하여 난잡하게 소장(訴狀)을 바치는 자는 그 종파(宗派)를 상고하여 분간(分揀) 금지(禁止)하고, 그 소송한 노비는 공가(公家)에 붙이소서. 그리고, 억지로 변명하는 자는 판지(判旨)에 따라 곤장 80대를 때려 수군(水軍)에 충당하고, 그른 것을 알고 자수(自首)하여 고(告)하는 자는 논(論)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21일 무자)

② 함길도 감사인 동지총제(同知摠制) 이원길(李原吉)과 전 감정(監正) 신임(申臨)등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바친 족도(族圖)를, 다시 방문(訪問)을 더 하여 족파(族派)를 속재(續載)하라." 하였다. 대개 원길(原吉) 등이 파(派)를 선원(璿源)에 연(連)해서 계달(啓達)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28일 신해)

③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소장(訴狀)을 올려서 복호(復戶)하고자 하는 자가 혹은 사조(四祖)의 자손이라 칭하고, 사사로이 족도(族圖)를 만들어서 분분(紛紛)하게 진소(陳訴)하는 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보계(譜系)가 소원(疏遠)하므로 분변(分辨)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종친록(宗親錄)과 유부록(類附錄)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럿이 다 같이 아는 바이고, 명백해서 의심 없는 자는 복호를 허락하게 하옵시고,

도조(度祖) 이상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더욱 소원하여 파계(派系)를 분변하기 어렵사오니, 그 징험할 만한 문계(文契)를 바치게 하여서 복호를 허락하게 하옵시고, 그 외에는 받지 말아서 모람(冒濫)의 폐단을 막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2월 28일 신축)

④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충순위(忠順衛) 임양선(林陽善)·신한생(辛漢生)·김양근(金良謹)·차중선(車仲善)·김사학(金思鶴)이 종부시(宗簿寺)의 《사왕선원족도(四王璿源族圖)》를 몰래 훔쳐서 자기의 이름을 연결(連接)하여 추록(追錄)한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수가(隨駕)한 판서(判書)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澹)·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과(李坡)·이극증(李克增)·어세겸(魚世謙)·어세겸(魚世恭)이 의논하기를,

“임양선이 범한 간사한 죄는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할 것이나,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고, 다만 자기의 족계(族系)를 선원(璿源)에 연결하여, 그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강상(綱常)에 관계된다고 이르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살펴보면, 벼슬을 얻고 역(役)을 면하는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애초에 그 할아버지를 배반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써 강상에 관계되는 예(例)로 삼아서 용서를 받지 못하나다면 정실(情實)이 가궁하니, 주모자인 임양선·신한생·차중선·김양근·김사학은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평안도의 극변(極邊)에 전가 입거(全家入居)913) 시키되, 그들 자신들은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4일 갑오)

⑤ 종부시(宗簿寺)에 전교하기를,

“이제 대왕족도(大王族圖)를 보건대, 왕후(王后)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별도로 왕후족도(王后族圖)를 만들어서 올리라.”

하였다.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3일 경인)

이같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조선 초기 족도의 작성은 왕실은 물론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성종대의 기록을 통하여 ‘대왕족도(大王族圖)’는 물론 ‘왕후족도(王后族圖)’와 같은 특정한 인물의 가계를 기록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족

도를 사사로이 작성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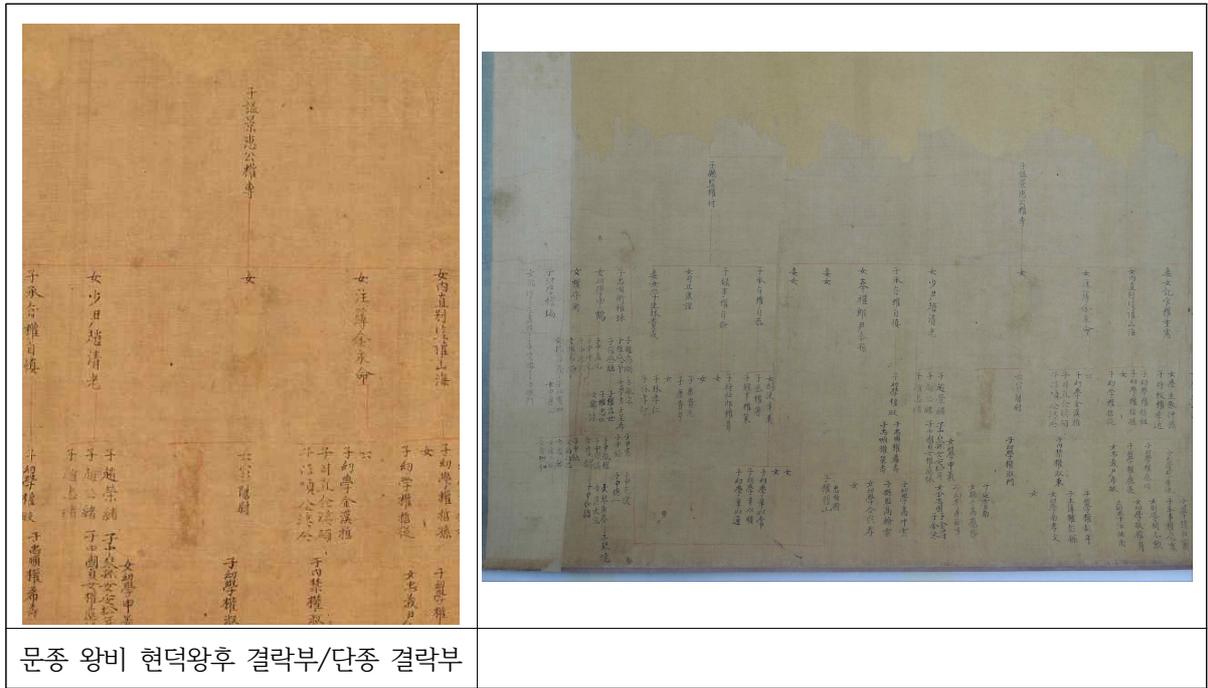
현존하는 족도 가운데 가장 앞서는 자료는 1402년에 작성된 「해주오씨족도(海州吳氏族圖)」로 알려져 있다.



<http://cafe.daum.net/oj300> 재인용

「해주오씨족도」의 크기는 가로 112cm, 세로 115cm로 정방형의 장지(壯紙)에 필사된 형태로 판단된다. 내용은 표제(表題), 족도(族圖), 발문(跋文) 및 작성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표제에 해당하는 ‘海州吳氏族圖’는 후대에 첨부된 것이다. 족도는 특별한 체제를 갖추지 않고 세대별로 종으로 후손들을 도식화하였는데, 이같은 보도(譜圖)를 기본으로 하여 자표(字標), 범례(凡例), 부록(附錄) 및 서문 및 발문 등이 추가되면서 후대의 족보라는 기록물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본 「안동권씨족도」는 1454년(단종 2)에서 1456년(세조 2)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권여온(權呂溫, ?~?)을 기점으로 현손인 단종(端宗, 1441~1457)을 포함한 내외의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에 권자신(權自愼, 1418~1456)의 아들인 권하(權遐, ?~?)를 기점으로 7대손 금호(琴琥, ?~?)에 이르기까지의 내외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다.



문종 왕비 현덕왕후 결락부/단종 결락부

「안동권씨족도」 가운데 나오는 권전(權專, 1371~1441)은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으로 문종의 왕비인 현덕왕후(顯德王后, 1418~1441)의 아버지이며 단종의 외조부(外祖父)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증 공조참의 권정중(權正中)이고, 아버지는 한성부윤 권백종(權伯宗)이다. 그런데 권전으로부터 연결된 가계도에는 현덕왕후와 관련된 기록이 결손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 아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단종 관련 기록도 보이질 않는다. 이들의諱字는 세조의 왕위 찬탈과 관련되어 폐위된 관계로 인하여 떼어낸 부첨(附籤)의 흔적만 남아있다.

권전은 1445년 원손의 외할아버지라 하여 좌의정에 추증되고, 1454년(단종 2)에는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1456년(세조 2) 단종복위사건에 참여한 아들 권자신(權自愼, ?~1441)이 피해를 받아 주살되면서 관작을 추탈당하고 서인으로 격하되었다. 1699년(숙종 25) 중종대의 소릉(昭陵: 顯德王后의 능) 추복과 관련되어 관작이 복구되면서 신원되었고, 1718년 화산부원군에 추증되었다.

조사본에는 권전에 대해 시호인 ‘경혜공(景惠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호는 1441년에 내려졌다가 1456년에 “권전은 그 아내와 아들 권자신의 대역죄로, 몸은 비록 죽었다 하여도 의당 법에 따라 고신(告身)을 추탈하고, 무덤 위 석물도 철거하고 제사도 없애야 한다.”고 하여 취소되었고 이후 1699년(숙종 25)에 비로서 복권되었다. 따라서 이 족도의 하한은 시호가 취소되는 1456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權專 / 文宗 王妃 顯德王后 결락부 / 權自慎

권자신은 현덕왕후의 동생이며 단종의 외삼촌이다. 1454년(단종 2)에 좌부승지에 이어 우승지가 되고, 1455년 호조참판에 승진되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에 단종의 외숙부로서 세조의 즉위에 협력하지 않았다. 1456년에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단종복위를 도모하였으나 김질(金磧)의 고변으로 발각되어 사육신 등과 함께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다. 1699년(숙종 25)에 관직이 복구되고 뒤에 영월의 장릉(莊陵: 단종의 능)에 배향되었다. 조사본에는 권자신의 관직을 ‘승지(承旨)’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족도의 상한 시기는 승지가 되는 1454년 이후라 판단된다.

한편 조사본 「안동권씨족도」에는 후대에 추록한 부분이 확인된다. 추록한 부분은 권자신의 아들 권하(權瑕)의 내외자손도로, 기록이 소략하지만, 대략의 추록 시기는 추정할 수 있다. 즉 권하의 외현손인 高應陟(1531~1605)은 ‘縣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족보 등에 기재된 관직이 ‘司成’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高翰雲(1552~1601)도 ‘縣監’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는 1573년(선조 6)에 진사, 1585년(선조 18)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 文獻資料

송준호, 「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그 해석」, 『조선사회사연구』 (1987)

정재훈,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집 (1989)

김용선, 「족보 이전의 가계기록」, 『한국사시민강좌』 24(1999).

國立民俗博物館 編, 「安東權氏族圖」(2012)



○ 현 상

세로 61.5cm 가로 219.8cm 크기의 1枚의 絹帛(素)에 필사된 卷軸裝형태의 族圖로 앞부분이 훼손되어 완전하지 않다.

原題는 입수 당시 없었으나 國立民俗博物館에서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체적으로 保存處理하여 卷子형식으로 改裝하고 ‘安東權氏族圖’라 명명하고 제첨하였다.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비단에 權呂溫의 자손 336명의 관계를 朱色의 界線으로 표시하고 卷子로 장황하였다.

<安東權氏族圖>는 족도의 기재 인물, 비단 바탕에 朱色 계선, 두루마리 장황 등의 규모면에서 볼 때, 왕실의 外家血統을 밝히기 위해 제작된 端宗의 外曾外家の 族圖로 추정된다.

< 書誌記述 >

[安東權氏族圖] / 未詳. 寫圖. 筆寫本.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端宗 2(1454)~世祖 2(1456)].

1軸 : 圖, 4段, 61.5×191.0cm ; 61.5×219.8cm. 絹帛(素). 卷子裝(改裝).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代의 次數에 따라 1매의 비단에 寫圖한 家系圖이다. 1454년(단종 2)에서 1456년(세조 2) 사이에 寫圖된 것으로 權呂溫(?~?)으로부터 현손인 端宗(1441~1457)을 포함한 후손들과, 후대에 權自愼(1418~1456)의 아들 權瑕(?~?)로 부터 7대손 琴琥(?~?)에 이르기까지 內외의 후손들이 추록되어 총 336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1476년(성종 7)년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로 알려지는 「安東權氏成化譜」 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는 族圖이다.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비단에 權呂溫의 자손 336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顯德王后(1418~1441)와 端宗을 기재되었으나 이들이 폐위되어 지워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흔적만 남아 있다.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族圖>의 主體인 顯德王后는 조선조의 유일한 安東權氏 출신의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安東權氏世譜』에는 빠져 있으며, 族圖에 기재된 인물을 비롯하여 비단 바탕에 朱色線, 두루마리 장황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外家の 血統을 밝히기 위하여 제작된 端宗의 外曾外家の 族圖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權躔·權擘 共編, 徐居正·朴元昌·崔灝元 增編修正, 『安東權氏世譜』. 木板本. [安東府] : [尹壕], [成宗 7(1476)年 推定].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所藏本.
- 國立民俗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國立民俗博物館, 2012.
- 國立民俗博物館 編, 「安東權氏族圖」. 서울 : 國立民俗博物館, 2012.
- 정재훈,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집. 서울 : 서강대학교, 1989.
- 이해준, 「조선시대 가계기록과 족보」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 2012
- 최순권, 「족보 이전의 가계기록, 『안동권씨족도』」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2012)
- 박지선, 「『안동권씨족도』를 통해 본 조선초기의 장황」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 2012.
- 전지연, 「『안동권씨족도』의 보존과 복원」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 2012
- 오준석, 전지연, 「인공열화전 개발 및 『안동권씨족도』 보존처리 적용」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 2012

<관련자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

權躔·權擘 共編, 徐居正·朴元昌·崔灝元 增編修正, 『安東權氏世譜』. 木板本. [安東府] : [尹壕], [成宗 7(1476)年 推定].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所藏本.

○ 기 타

- 1999년 7월 21일 公開購入.
- 2013년 10월 24일에 국가문화재(보물) 지정신청 접수
- 2014년도 제7차 동산분과위원회(2014.12.11.)에서 지정 보류
- 2019년 10월 15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安東權氏世譜』가 국가문화재(보물) 지정조사 시 상호 관련이 밀접한 자료로 판단되어 再調査 실시

13.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

가. 검토사항

‘안동권씨세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안동권씨세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7.9.20.) 관계전문가 조사('19.10.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수 량 : 3권 3책
- 규 격 : 33.0×17.6cm, 半郭 25.3×13.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76년(성종 7) 판각, 후인(後印) 추정



그림 1. 안동권씨세보(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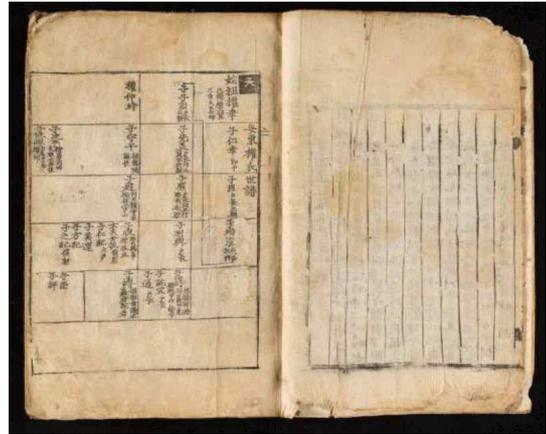


그림 2. 안동권씨세보(가계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권근(1352~1409)의 아들인 권躋(1387~1445)가 중국의 『蘇氏譜』를 모방하여 家譜를 小牒으로 만든 것을 권근의 손자인 권擘(1416~1465)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卒去하자, 권躋의 조카인 대제학 徐居正(1420~1488)이 尙州判官 朴元昌(?~?)과 大丘府使 崔灝元(1431~?)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하고 校閱한 安東權氏의 族譜이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成宗 7(1476)년에 慶尙監司 尹壕(1424~1496)에 의하여 慶尙道 安東府에서 3권(上·中·下) 3책(天·地·人)의 木版本으로 간행되었으며, 板刻과 刊行의 시기가 成宗 7(1476, 成化 12, 병신)년 무렵인 점에서 『安東權氏成化譜』·『安東權氏成化丙申譜』·『安東權氏丙申譜』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成宗 7(1476)년에 板刻·刊行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우리나라 最古의 唯一本 族譜이며, 安東權氏의 가족과 친족 제도사 및 우리나라 初期 系譜學 등의 연구에 중요한 문헌일 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아울러 國立民俗博物館에 소장되고 있는 <安東權氏族圖>와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이와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도 배가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安東權氏族圖>와 더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현재까지 전해지는 우리나라 最古의 族譜이며, 한국의 初期 系譜學 연구의 핵심적 문헌이다.

○ (보류)

조사본 『안동권씨세보』는 권제(權蹏, 1387~1445)와 권람(權擘, 1416~1465)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것을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상주판관 박원창(朴元昌, ?~?)과 대구부사 최호원(崔灝元, 1431~?)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하여 간행한 목판본 족보이다.

조사본은 현재 전해지는 족보 가운데 최고본(最古本)으로 학계 및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더욱 수록된 체제 및 내용에서 고려말 조선초의 역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이같은 유형의 족보류(族譜類) 및 족도류(族圖類)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존 최고본(最古本)으로서 한국의 보학(譜學) 연구의 핵심 문헌이라는 점에서 그 문화재적 가치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지정 검토에 있어서 족보(族譜)가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족보는 가계(家系)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이 개인 및 문중에 상당 수량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 현재 학계 및 일반에 알려진 조선초에 간행된 중요한 족보류에 대한 비교 검토 역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정 기준이 검토되고 그에 바탕을 두고 지정 대상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본 『안동권씨세보』에 대한 지정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는 成宗 7(1476)년에 板刻·刊行되어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最古의 族譜로 安東權氏의 가족과 친족 제도사 및 우리나라 初期 系譜學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다.

族譜類 및 族圖類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으나 國立民俗博物館 所藏의 <安東權氏族圖>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족보로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는 <安東權氏族圖>와 더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 족보류(族譜類) 현황과약 후 추가조사, 가치 비교검토 필요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指定申請本 『安東權氏世譜』의 書誌記述과 現狀은 다음과 같다.

○ 書誌記述

安東權氏世譜 / [權躡(1378~1445), 權擘(1416~1465) 共編] ; 徐居正(1420~1488), 朴元昌(?~?), 崔灝元(1431~?) 增編修正. -- 木板本. -- [慶尙道 安東府] : [尹壕(1424~1496)], [成宗 7(1476)年 板刻, 後印 推定].

3卷 3冊 : 四周單邊, 半郭 25.3×13.4cm, 有界, 世別 6段, 11行20字 註雙行 ; 上下內向黑魚尾, 33.0×17.6cm. 韓紙(楮). 線裝(改裝).

表 題: 安東權氏族譜(成化丙申譜) (墨書)

卷頭題: 安東權氏世譜

版心題: 譜

內 容: 一卷上(冊天); 安東權氏家譜序(3張, 徐居正), 跋文(1張, 崔鎮), 安東權氏世譜上(天~成, 上第1~57張). 一卷中(冊地); 安東權氏世譜中(珍~平, 中第1~54張), 一卷下(冊人); 安東權氏世譜下(章~恃, 下第1~58張, 下第58張 張號重複~下第63張까지 張次誤謬(第58[59], 第59[60], 第60[61], 第61[62], 第62[63]), 第64~71張), 推譜識(權靖夏, 後表紙裏面 墨書)

序 文: 安東權氏家譜序; 權本新羅宗姓金氏也羅季有金幸者守古昌郡時甄萱入新羅弑王辱妃高麗太祖赴救與萱相持幸/謀於衆曰萱義不共戴天盍歸王公以雪痛憤遂迎/降麗祖曰幸能炳幾達權乃賜姓權授太師以郡爲/食邑陞爲安東府幸生仁幸官至郎中仁幸生冊冊/自求爲本邑吏冊生均漢均漢生子彭子彭生先蓋/先蓋生廉廉生利興利興生仲時仲時有二子曰守/平曰守洪守平位至樞密副使生翰林學士趨趨生/僉議贊成坦坦生政丞文正公溥位冢宰秉文柄豐/功偉烈冠冕一時有五子皆封君曰準吉昌府院君//曰臯永嘉府院君曰煦鷄林郡公曰謙福安府院君/曰宗頂祝髮爲廣福君有三壻皆封君時稱一家九封/君守洪生大將軍子輿子輿生僉議評理頤頤生政/丞文坦公漢功權氏自冊爲吏以還中微不振者七/世至守平復興子孫趾美逮文正始大顯隆守洪之/後文坦亦復貴顯權氏遂分爲二大族今衣冠簪履/布列朝著餘數千指皆二族支派也居正外祖陽村/權文忠公近亦文正曾孫舅氏權文景公躡始脩家/譜小牒子吉昌權翼平公擘承先志廣採博訪大加/增潤亦未就緒居正與族姓商州判官朴元昌大丘/府使崔灝元又加搜問補其闕遺證其訛僞釐爲圖//譜二卷其爲譜詳於文正文坦以下而略其上者錄/其所可知而缺其所不可知將以傳信將來耳譜既/成倩慶尙道監司尹公壕刊于安東府予惟古者有/宗法序昭穆別支庶子孫雖百世可考自宗法廢而/譜牒興凡爲譜必推本其所自出而詳錄其所由分/明支派別親疎猶足以篤恩誼而正倫理者矣隋唐/而上置圖譜局以

掌撰述昏姻選舉皆關譜牒今中朝上自公卿大夫下至孤門單族亦莫不有譜上遡唐虞三代始封之祖而祖之雖高辛神農顓頊之遠皆一一接續而序次其譜系豈不以圖牒相傳得有所考歟吾東方自古無宗法又無譜牒雖巨//家大族絕無家乘纔傳數世有不記高曾祖考名號/者子孫寢以乖隔或不識總功之親視同路人何待/服盡親盡而後踈且遠哉如是而欲興孝悌成禮讓/豈不難乎此吾文景翼平所以拳拳於著譜而居正/之卒勉其志者也權氏自太師始封今六百年子孫/蕃衍詩書之澤悠久未艾蓋根深者未必茂源遠者流/益長理之必然也嗚呼自古名宗華胄不為不多當其/珪組蟬聯門地煥赫孰非可慕而可尊者乎曾未數/傳傾覆勳絕何哉由其先世封植未固而子孫遽以/驕奢失之也權氏世以清白傳家忠孝為心為子孫/者可不念祖宗積之之勤而思所以繼之之道乎記//曰人道親親也親親故尊祖尊祖故敬宗敬宗故收/族若能始於親親推及九族則所以厚本敦末者豈/有窮哉詩曰無忝爾祖聿脩厥德吾更為權氏子孫/勸之成化紀元之十二年蒼龍丙申(1476, 성종 7)正月上日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事達城君徐居正(1420~1488)剛中叙。(卷上頭)

跋 文: 自高麗太祖以來至于我/朝權幸子孫蕃衍其為顯達者難以枚舉其末/顯者不知有幾今達城徐相居正以權文/忠公外孫因文景權相躋翼平權相擊兩/公所撰族譜更加繫編為三帙使權氏/宗支會于一譜難微者昭然可稽倩于慶/尙監司尹相壕刊行尹相幸之裔二相適/外玄孫也亦樂為之從使刊于安東府命/鎮監督不日功訖徐相尊祖敬宗之意益/以著矣歲成化十二年丙申(1476, 성종 7)三月日中訓/大夫行安東大都護府教授崔鎮(?~?)謹跋。(卷上頭)

補 書: (第71張 B面) 始祖 權幸-子仁幸-子冊-①子均漢·②子光漢·③子謙漢-(②光漢)-①子完眞·②子完玉-(②完玉)-子儒允-子守-子貞幹-子位平-子叙元-子迪猷-子大眞-子闡-子備-子成祐-子珣-子希逢-子彝-子龜嶺-子謙-①子受益·②子受德·③子受福-(①受益)-子鯤·子雲/(③受福)-①子準·②子則·③子矩-(②則)-子洙。

識 語: [推譜識]; 成化譜(1476)三卷即吾宗首作之譜而嗣是而有甲午(1654)譜一卷兩譜板本緣何毀失而印本亦於京鄉諸/宗中無一現在處惟吾家珍蓄而世傳之憲廟己酉(1849)夏忠原漆枝宗人集以樞密派中系序/釐正事持明洞宗台書道其由懇借余初甚難之漆宗至發閱月待門之說故不得已許之/伊後台丈不祿[錄]累次督還於漆宗及周星(台丈長胤/郡守應駿)而每誘[誘]姑徐今漆宗又亡周星作三拜人於抱/川地而近且經一大劫灰意其家書籍盡入於散逸而吾譜應并而闕失其為歎惜鬱恨何如/而猶終不釋于中試托族弟士範壬午春觀光行覓于周星則果搜出于亂籍中而還之其喜/快不翅如拱璧[璧]之重獲士範之為我謀忠周星之終能踐言俱為可感而第甲午譜士範不記/而遺之甚恨士範期於從後推來云而周星又難作奈何或無難端於書歸歸氏之際耶且/成化譜積年滯彼任其雨淋蠹嚼幾於喪質余迺辛勤糊治多方修補而仍改粧衣僅成冊/樣宗中方議此可謂吾宗之琬琰鍾鼎而只有此單件則不可不因譜役重刊以廣之政是/亭當之/論而未知果能成就否也茲略記數語以示吾子孫萬望敬守而勿毀傷也時甲申(1884)膺月/望日也[權]靖夏(1806~1892)識。(卷下 後表紙裏面 墨書)

墨 書: 成化譜序文三丈/天字卷五十七丈/地字卷五十四丈/人字卷七十一丈/跋一丈/推譜識一丈(卷上 前表紙裏面)

藏書記: 晚對軒所藏(卷上·中·下 前表紙裏面 墨書)

印 文: 權商泉(卷上·中·下 前表紙裏面 및 卷頭 朱印)

現 狀: 장구한 세월을 거치는 동안 汚染·毀損·磨滅이 적지 않으며, 특히 版心과 上端 部分의 훼손이 심하다. 전체가 두꺼운 褙接紙로 褙接되어 그 두께가 倍加되었으나 본문은 缺張이 없는 良好한 상태이며, 上端의 磨滅된 곳에는 補筆이 많은 상태이다. 차후에 紙類文化財保存處理專門家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所藏歷: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359에 소재하는 玉峰 權暉(1552~1630)를 主享하

는 道溪書院 내의 晩對軒(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7호)에 소장되던 것을 서울대 학교 중앙도서관이 1980년 6월에 권응복(身元不詳)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 함.

其 他: 國立民俗博物館 所藏의 <安東權氏族圖>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族譜임.

申請歷: 安東權氏 宗報社의 요청으로 현 소장자인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이 國家指定文化財로 申請함.

既指定:: 族譜類 및 族圖類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現 狀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장구한 세월을 거치는 동안 汚染·毀損·磨滅이 적지 않으며, 특히 版心과 上端 부분의 훼손이 심하다. 전체가 두꺼운 배접지로 배접되어 그 두께가 배가되었으나 본문은 缺張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며, 上端의 마멸된 곳에는 補筆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차후에 紙類文化財保存處理專門家에 의한 보존처리공사가 요망된다.

○ 內容 및 特徵

族譜는 父系를 중심으로 血緣의 관계를 圖表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한 종족의 系譜로 譜牒·世譜·世系·家乘·家牒·家譜·姓譜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가의 史乘과 마찬가지로 祖上을 존경하고 宗族의 단결을 뜻하며, 후손들에게 촌수의 遠近에 관계없이 화목의 풍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族譜는 尊卑·行列(항렬)·嫡庶 등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있다. 본래 族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後漢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 대대로 高官을 배출하는 右族·冠族 등이 성립됨에 따라 門閥과 家風을 존중하는 사상이 높아졌으며, 그 후 六朝에 이르러 族譜의 작성 및 譜學이 발달하게 되었다.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別集』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族譜刊行은 명종 17(1562)년의 『文化柳譜』가 최초라 하였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 실정이며, 현재 문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최초의 現物 族譜는 성종 7(1476, 成化 12, 丙申)년에 간행된 安東權氏의 『安東權氏世譜』(成化譜)로 『文化柳譜』보다 80년 앞서고 있다. 그러나 『高麗史』에 의하면 高麗朝에도 양반과 귀족들은 그들 씨족의 系譜를 기록하는 것을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官制로 宗簿寺에서 族屬譜牒을 관장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에도 巨家の 貴族들 사이에는 譜系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族譜는 이른바 宗譜에 해당하며 여기서 분과된 一團의 世系를 支譜·派譜라 한다. 派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增加되어 그 表題에 本貫과 姓氏 외에 支派의 中始祖名 또는 同族部落의 거주지로 보이는 地名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만은 族譜와 다름없다.

族譜에 기재되는 내용은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卷頭に 族譜의

의의와 一族의 근원과 내력 등을 기술한 序文이 있고 이어서 始祖나 中始祖의 史傳을 기술한 문장이 있으며, 다음에는 始祖의 墳墓圖와 발상지에 해당하는 鄉里地圖 등을 나타낸 圖表가 있고 이어서 凡例가 있다. 그리고 족보의 중심이 되는 系譜가 始祖에서부터 世代順으로 縱系를 이루며, 같은 行列은 橫으로 배열하여 동일 세대로 기록된다. 기재된 인물마다 名·號·諡號·生歿年月日·官職·封號·勳業·德行·忠孝·文章·著述 등이 기록되며, 자녀들은 入養關係와 嫡庶 및 男女 등의 구별이 명확히 기록된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權近(1352~1409)의 아들인 權躔(1387~1445)가 중국의 『蘇氏譜』를 모방하여 家譜를 小牒으로 만든 것을 權近의 손자인 權擘(1416~1465)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卒去하자, 權躔의 조카인 대제학 徐居正(1420~1488)이 尙州判官 朴元昌(?~?)과 大丘府使 崔灝元(1431~?)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하고 校閱한 安東權氏의 족보이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成宗 7(1476)년 무렵에 慶尙監司 尹壕(1424~1496)에 의하여 慶尙道 安東府에서 3권(上·中·下) 3책(天·地·人)의 木版本으로 간행되었으며, 板刻과 刊行의 시기가 成宗 7(1476, 成化 12, 병신)년 무렵인 점에서 『安東權氏成化譜』·『安東權氏成化丙申譜』·『安東權氏丙申譜』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의 表題는 ‘安東權氏族譜(成化丙申譜)’로 墨書되어 있고 卷頭題는 ‘安東權氏世譜’이며 版心題는 ‘譜’이다. 板式의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25.3cm 가로 13.4cm이며, 界線이 있고 世別 段數는 6段이다. 본문의 행자수는 11行20字이고 註文의 행자수는 小字雙行이며, 어미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규격은 세로 33.0cm 가로 17.6cm이고 紙質은 韓紙(楮)이며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에 수록된 내용은 卷上에 徐居正의 <安東權氏家譜序>(3장)과 崔鎭(1876~?)의 <跋文>(1장) 및 <安東權氏世譜上>(天~成, 上第1~57張)이 수록되어 있고 卷中에는 <安東權氏世譜中>(珍~平, 中第1~54張)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安東權氏世譜下>(章~恃, 下第1~71張)와 高宗 21(1884)년에 후손 權靖夏(1806~1892)가 後表紙 이면에 묵서한 <推譜識>가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의 張數는 卷上의 前表紙裏面에 나타나는 墨書記錄의 “成化譜序文三丈/天字卷五十七丈/地字卷五十四丈/人字卷七十一丈/跋一丈/推譜識一丈”과 동일하게 <序文> 3장, 天冊卷上 57장, 地冊卷中 54장, 人冊卷下 71장, <跋文> 1장, <推譜識> 1장 등 도합 187장이다. 그러나 卷上과 卷中の 張次는 올바르게 板刻되어 있으나 卷下의 경우에는 제58장의 중복으로 인하여 제58[59]장에서부터 제59[60]장, 제60[61]장, 제61[62]장, 제62[63]장까지의 장차는 誤刻되어 있다.

卷上의 頭部에 수록된 徐居正의 <安東權氏家譜序>는 그의 문집인 『四佳文集』

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權氏는 본래 신라의 宗姓인 金氏이다. 신라 말기에 金幸이 古昌郡을 맡아 다스리고 있었다. 당시 甄萱이 신라에 침입하여 [新羅]王을 시해하고 王妃를 능욕하자 고려의 太祖가 달려와 구원하여 견훤과 서로 버티고 있었다. 이에 金幸이 여러 사람과 도모하여 “견훤은 의리상 不共戴天의 원수이니, 어찌 王公께 귀의하여 이 통분을 씻지 않겠는가!”고 하고는 마침내 고려 태조를 맞이하여 항복하였다. 이에 고려 태조가 “金幸은 幾微에 밝고 權道에 통달하였다”라 하며, 마침내 姓을 權氏로 하사하고 太師로 제수한 뒤에 郡을 食邑으로 주고 安東府로 승격시켰다.

幸이 仁幸을 낳으니 벼슬이 郎中에 이르렀으며, 仁幸이 冊을 낳으니 冊은 자칭하여 본 고을의 衙前이 되었다. 冊이 均漢을 낳고 均漢이 子彭을 낳았으며, 子彭이 先蓋를 낳고 先蓋가 廉을 낳았으며, 廉이 利興을 낳고 利興이 仲時를 낳았다. 仲時는 두 아들을 두었으니 守平과 守洪이다. 守平은 벼슬이 樞密副使에 이르고 翰林學士 躋를 낳았다. 躋가 僉議贊成 坦을 낳고 坦이 政丞 文正公 溥를 낳으니, 지위가 宰相에 이르고 文柄을 담당하여 성대한 功烈이 당대의 으뜸이었다. 다섯 아들이 모두 君에 봉해지니 準은 吉昌府院君이고 臯는 永嘉府院君이고 煦는 鷄林郡公이고 謙은 福安府院君이며, 宗頂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廣福君이 되었으며, 세 사위도 모두 君에 봉하여져 당시 一家九封君으로 일컬어졌다. 守洪이 大將軍 子輿를 낳고 子輿가 僉議評理 頤를 낳았으며, 頤가 政丞 文坦公 漢功을 낳았다.

權氏는 冊이 아전이 된 후로 중간에 家勢가 쇠퇴하여 7世 동안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하다가 守平에 이르러 다시 일어나 자손들이 그 아름다움을 이어 나가더니 文正公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顯達하고 守洪의 후손으로는 文坦公이 역시 현달하였다. 이에 권씨는 마침내 나뉘어 두 大族이 되었다. 오늘날 권씨 성을 가진 벼슬아치로 조정에 포진한 이들이 무려 수천에 달하는데, 모두 이 두 대족의 支派이다. 나의 外祖父이신 陽村 文忠公 權近 역시 文正公의 曾孫이다.

[나의] 外삼촌 文景公 權躋가 비로소 家譜를 小牒으로 정리하고 그의 아들 吉昌 翼平公 權擘이 先考의 遺志를 이어 두루 수소문하고 탐방하여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었으나 또한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다. 내가 族姓인 商州判官 朴元昌과 大丘府使 崔灝元 등과 함께 더 찾고 물어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미덥지 못한 부분을 증명하여 『圖譜』 2권을 정리하여 만들었다. 이 『圖譜』는 文正公과 文坦公 이하는 상세하나 그 上代는 소략하니, 알 수 있는 것은 기록하고 알 수 없는 것은 빠진 채로 두어 후세에 신뢰를 전하려고 할 뿐이다. 『圖譜』가 완성되자 慶尙監司 尹公 壕에게 부탁하여 安東府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

나는 생각건대, 옛날에는 宗法이 있어서 昭와 穆의 次序를 정하고 支孫과 庶孫을 구별하여 자손이 百世를 가더라도 상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宗法이 없어지고 譜牒이 생겨난 뒤로는 모든 譜牒은 반드시 始祖에 근본을 두고 世系가 나누어진 분기점을 자세히 기록하여 支派를 명시하고 親疏를 구별하였으니, 그래도 恩誼를 돈독히 하고 윤리를 정립하기에 충분하였다.

隋朝와 唐朝 이전에는 圖譜局을 두고 撰述을 관장하게 하여 婚姻하는 것과 過擧를 통해 人才를 선발하는 것이 모두 譜牒과 관계가 있었다. 지금 중국은 위로는 公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세력이 없는 외로운 집안에 이르기까지 또한 譜牒을 두지 않은 집안이 없어, 위로 唐堯와 虞舜 및 夏·殷·周의 三代 때 처음 봉해진 祖上으로 거슬러 올라가 始祖로 삼고 비록 高辛·神農·顓頊 등과 같이 먼 전설적 인물이라도 모두 하나하나 연결하고 이어서 그 譜系의 서열을 매기니, 어찌 圖牒이 전해져 상고할 수 있게 된 덕분이 아니겠는가?

우리 東方은 예로부터 宗法도 없고 譜牒도 없었다. 그리하여 아무리 門閥이 좋고 번성한 집안이라 해도 家乘이 전혀 없다 보니 겨우 몇 대만 내려가도 高祖·曾祖·祖父·先考 등의 이

를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다. 자손들도 점차 서로 관계가 멀어져 혹 總麻服이나 小功服을 입어야 하는 친척을 알아보지 못하여 길에서 만난 사람처럼 보니, 어찌 喪服을 입는 寸數가 다 끝난 친척과 奉祀하는 대수가 다 끝난 祖上이 된 뒤에야 소원하여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아서야 孝悌를 일으키고 禮讓을 이루고자 한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文景公과 翼平公이 정성을 쏟아 譜牒을 著述하고 내가 힘써 그 뜻을 완성한 까닭이다.

權氏는 太師가 처음 봉해진 때부터 지금 600년에 이르렀는데, 子孫의 번성과 家學의 은택이 유구한 세월 동안 다하지 않았으니, 대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반드시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근원이 먼 물은 흐름이 더욱 길게 마련인 것은 필연적인 이치라 할 것이다.

아! 예로부터 이름난 집안의 빛나는 후손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高官大爵이 대대로 이어져 門閥이 찬란하게 된다면 누구인들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몇 대도 전하지 못하여 가문이 기울고 엷어져 멸절됨은 어찌하여 그렇겠는가? 先世의 封植이 견고하지 못한데 자손이 이내 교만과 사치를 부려 遺業을 잃었던 때문이다.

權氏는 대대로 청렴하고 깨끗함으로 가풍을 전하고 충성과 효도로 마음을 삼아 왔으니, 자손들은 祖宗이 쌓아 온 근면함을 염두에 두어 계속 이어갈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禮記』에 “사람의 도는 부모를 친히 하는 것이다. 부모를 친히 하기에 조상을 높이고, 祖上을 높이기에 宗統을 공경하고 宗統을 공경하기에 宗族을 거둔다 [人道親親也 親親故尊祖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고 하였다. 만약 부모를 친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九族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근본을 두터이 하고 말단을 든독하게 하는 것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詩經』에 “너의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말아서 그 덕을 닦을지어다 [無忝爾祖 聿修厥德]”고 하였다. 나는 다시 權氏의 자손을 위하여 勸勉하는 바이다. 成化紀元 12年 蒼龍丙申(1476, 성종 7) 正月 上日에 純誠明亮佐理功臣 崇政大夫 行議政府左參贊兼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事 達城君 徐居正(1420~1488) 剛中은 叙하다.

또한, 卷上의 頭部에 수록된 崔鎭(?~?)의 <跋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太祖로부터 우리 [조선] 王朝에 이르기까지 權幸의 자손이 蕃衍하였으나, 그 顯達한 이들을 일일이 擧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顯達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達城의 宰相 徐居正이 文忠公 權近의 외손으로서 文景公 宰相 權躔와 翼平公 宰相 權擘의 두 공이 지은 族譜를 다시 수정하여 3길로 만들어 권씨의 宗孫과 支孫들을 하나의 譜牒에 모아 비록 희미한 자라도 소연히 稽考할 수 있도록 하여 慶尙監司 宰相 尹壕로 하여금 간행하도록 하였다. 尹宰相은 幸의 후예인 二相(찬성사) 適의 外玄孫이라 또한 기꺼이 안동부에서 간행하도록 하면서 鎭(나)에게 감독하도록 명하였는데, 時日이 오래 걸리지 않고도 功效가 이루어지니 徐宰相이 祖宗을 尊敬하는 뜻이 더욱 두드러지는 바이다. 成化 12(1476, 성종 7, 병신)년 3월 일에 中訓大夫 行安東大都護府教授 崔鎭(?~?)은 삼가 발문을 쓰다.

이상과 같이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徐居正의 <序文>과 崔鎭의 <跋文> 및 板式 등으로 판단할 때 成宗 7(1476)년 무렵에 板刻된 것으로 추정되며, 紙質과 印出의 狀態 등으로 판단할 때 그 印出은 後印으로 추정된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내용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始祖인 權幸으로부터 8세 權利興까지는 단선으로 되어 있으며, 9세인 權中

時과 權就宜 및 權通부터 후손 기록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2) 전체적으로 9,000여 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친손뿐 아니라 외손의 가계까지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萬姓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자녀의 기재를 ‘先男後女’로 하지 않고 ‘出生順’에 따라 기재하고 있어, 조선 조 초기에는 儒學思想이 지배적이지 않아 男尊女卑의 관념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4) 女子의 기재를 오늘날과 같이 ‘女’자 아래 바로 ‘婿’라 쓰지 않고 ‘女夫’라 쓴 다음에 사위의 성명을 기재하고 있다.

(5) 女子가 재혼한 경우에는 ‘後夫’라 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기재하고 있으며, ‘前夫’·‘後夫’로 구분하여 기재된 곳이 14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6) 外孫도 本孫과 같이 편찬 당시까지 대를 이어서 전부 기재되어 있다.

(7) 嗣續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는지 자녀가 없는 사람은 ‘無後’라 기재하였을 뿐 養子한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다.

(8) ‘無後’의 표시도 없이 子女의 난을 空欄으로 처리한 것은 자녀가 있어도 所在와 來歷이 불분명하였던 때문으로 추측된다.

(9) 子女를 모두 嫡子女로 인정해서인지 庶子女의 표시가 전혀 없다.

한편,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고종 21(1884, 甲申)년에 후손 權靖夏(1806~1892)가 필사한 <推譜識>과 卷上·中·下の 前表紙 이면에 나타나는 “晚對軒所藏”의 墨書記録으로 짐작할 때, 1980년 6월경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기 이전까지의 前藏處는 경상북도 안동에 소재하는 道溪書院의 ‘晚對軒’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天·地·人 3冊의 表紙는 모두 19세기 이후에 改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그 전래가 드물어지자, 1919년에 경상북도 안동의 安東權氏 陵洞齋舍에서 木板으로 復刊되고 1929년에 다시 石印版으로 중간되었다. 復刊 때의 목판은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의 安東權氏 陵洞齋舍에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이,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成宗 7(1476)년에 板刻·刊行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이른 시기의 唯一本 族譜이며, 安東權氏의 가족과 친족 제도사 및 우리나라 初期 系譜學 등의 연구에 중요한 문헌일 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아울러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의 國立民俗博物館에 소장되고 있는 <安東權氏族圖>와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양자는 상호의 관계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배가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安東權氏族圖>와 더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權躔·權擘 共編, 徐居正·朴元昌·崔灝元 增編修正, 『安東權氏世譜』. 木板本. [安東府] : [尹壕], [成宗 7(1476)年 推定].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所藏本.
- [編纂·寫圖者不明], [安東權氏族圖].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端宗 2(1454)~世祖 2(1456) 推定]. 國立民俗博物館 所藏本.
- 서울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시, 2017. 09.
- 서울시장,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서>. 서울 : 서울시, 2018. 08. 04.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추진사항 관련 서류>. 서울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2017. 09. 15.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조사보고서(서정문·옥영정·전경목)>. 서울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2017. 09. 15.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안동권씨 종보사: <http://www.andongkwon.or.kr/>

○ 其 他 (소장 경위 등)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359에 소재하는 玉峰 權曄(1552~1630)를 主享하는 道溪書院 内の ‘晚對軒’(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267호)에 소장되던 것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1980년 6월에 권응복(身元不詳)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의 國立民俗博物館 所藏의 <安東權氏族圖>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족보이다.

지정신청본 『安東權氏世譜』는 安東權氏 宗報社의 요청으로 현 소장자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國家文化財指定을 신청한 것이며, 지금까지 族譜類 및 族圖類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書誌事項

安東權氏世譜 / [權躔(1378~1445), 權擘(1416~1465) 共編] ; 徐居正(1420~1488), 朴元昌(?~?), 崔灝元(1431~?) 增編修正. -- 木板本. -- [慶尙道 安東府] : [尹壕(1424~1496)], [成宗 7(1476)年 板刻, 後印 推定].

3卷 3冊：四周單邊, 半郭 25.3×13.4cm, 有界, 世別 6段, 11行20字 註雙行；上下內向黑魚尾, 33.0×17.6cm. 韓紙(楮). 線裝(改裝).

表題: 安東權氏族譜(成化丙申譜) (墨書)

卷頭題: 安東權氏世譜

版心題: 譜

序文: 成化紀元之十二年蒼龍丙申(1476, 성종 7)正月上日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事達城君徐居正(1420~1488)剛中叙. (卷上頭)

跋文: 歲成化十二年丙申(1476, 성종 7)三月日中訓/大夫行安東大都護府教授崔鎮(?~?)謹跋. (卷上頭)

藏書記: 晚對軒所藏(卷上·中·下 前表紙裏面 墨書)

印文: 權商泉(卷上·中·下 前表紙裏面 및 卷頭 朱印)

○ 현 상

조사본은 옥봉(玉峰) 권위(權暉, 1552~1630)를 모시는 도계서원(道溪書院) 내의 만대헌(晩對軒)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1980년 6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구입한 것이다. 책은 전체가 두꺼운 종이로 배접(裱接)되어 원상을 잃었으나, 본문은 결장(缺張)이 없이 완전하다. 전체적으로 오염과 훼손 부분이 많다.



○ 內容 및 特徵

족보(族譜)의 사전적 정의는 “한 씨족(氏族)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이다. 씨족은 성(姓)과 본관(本貫)이 같아서 동조의식(同祖意識)을 가진 친족(親族)을 의미한다. 이같은 가계(家系)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명칭도 보첩(譜牒)·세보(世

譜)·세계(世系)·가승(家乘)·가첩(家牒)·가보(家譜)·성보(姓譜)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족보 조사 결과 확인된 일반적인 명칭은 60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① 국내 족보 전반을 포함하는 계통(靑丘氏譜, 萬姓大同譜 등) ② 한 동족 전체의 계보를 기록한 대동보 계통(大同譜, 大宗譜 등) ③ 한 동족 안의 일파를 기록한 파보 계통(○○○氏 ○○派譜 등) 으로 구별된다.

세보(1,031), 족보(493), 파보(473), 가승(家乘)(41), 세계(世系)(32), 속보(續譜)(31), 대동보(大同譜)(31), 가보(家譜)(29), 가승보(家乘譜)(24), 계보(系譜)(23), 보(譜)(7), 자손보(子孫譜)(6), 대보(大譜)(6), 세적보(世蹟譜)(6), 종안(宗案)(5), 세덕록(世德錄)(5), 소보(小譜)(5), 지장록(誌狀錄)(5), 선원보(璿源譜)(3), 수보(修譜)(3), 약보(略譜)(3), 문헌록(文獻錄)(3), 실기(實記)(3), 가사(家史)(3), 총보(總譜)(3), 선보(璿譜)(2), 연원보(淵源譜)(2), 화수보(花樹譜)(2), 녹권(錄卷)(2), 분파지도(分派之圖)(2), 통보(通譜)(2), 가첩(2), 삭원보(朔源譜)(2), 연보(年譜)(1), 완의문(完議文)(1), 전보(全譜)(1), 지보록(支譜錄)(1), 세헌록(世獻錄)(1), 대종보(大宗譜)(1), 파록(派錄)(1), 세기(世紀)(1), 대동종보(大同宗譜)(1), 세승(世乘)(1), 세가(世家)(1), 외보(外譜)(1), 경편보(輕便譜)(1), 세첩(世牒)(1), 구보(舊譜)(1), 삼응보(三應譜)(1), 보계(譜系)(1), 세고(世稿)(1), 종표(宗表)(1), 가장보(家藏譜)(1), 일통보(一統譜)(1), 파첩(派牒)(1), 실록(實錄)(1), 외계(外系)(1), 세감(世鑑)(1), 회중보(懷中譜)(1), 파별록(派別錄)(1), 분가보(分家譜)(1), 세적(世蹟), 기타(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족보」 참고]

족보(族譜)의 형식과 같은 기록은 동·서양 모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양의 경우는 개인의 가계사(家系史)에 한정되었고 동양의 경우는 중국 한 대(漢代)부터 중앙 또는 지방에 대대로 고관(高官)을 배출하는 집안을 중심으로 문벌(門閥)과 가풍(家風)을 존중하는 사상과 함께 족보의 작성이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남북조, 수당시대에 통용되던 기록은 부계(父系) 위주로 정리된 보첩류(譜牒類)가 일반적이었다고 추정된다.

우리의 경우 족보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중국은 부계 위주로 보첩이 정리되었으나, 고려는 부계(父系) 못지 않게 모계(母系)가 중시됨으로써 내외 양계(內外兩系)를 동일한 비중으로 정리하는 보첩(譜牒)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152년(의종 6)에 작성된 김의원(金義元)의 「묘지명(墓誌銘)」에 보이는 내용과 고려말 목은 이색의 글에 보이는 「정씨가전(鄭氏家傳)」의 내용은 고려 건국 이후부터 보첩(譜牒)이 작성되었고, 내용도 풍부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① 공의 이름은 義元이고 나주 광양현 사람이다. 그 선조는 본래 신라에서 나왔는데 (신라)말기에 난을 피하여 家系를 이루었다. 父 良鑑은 수태보 문하시중 감수 국사를 지냈고, 母 崔氏는 상서우복야 중추원사인 延嘏의 딸로서 서해군대부인에 추증되었다. 祖父 廷俊은 수사도 문하시랑 평장사였다. 曾祖 策은 좌복야 한림학사였다. 高祖 峻은 삼중대광이었다. 峻의 父 佶은 중대광이었는데, 佶 이상은 옛날 風俗에 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

[김용선편, 『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p.133.]

② 정씨(鄭氏)는 서원(西原 청주(淸州)의 옛 이름)의 대성(大姓)이다. 가보(家譜)의 기록에 의하면, 별장(別將) 휘(諱) 극경(克卿)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별장이 증(贈) 중랑장(中郎將) 효문(孝聞)을 낳고, 중랑장이 조의대부(朝議大夫)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 의(顥)를 낳았으니, 초명(初名)은 준유(俊儒)였다. 대장군이 금오위 산원(金吾衛散員)을 지낸 적성(赤城) 백이신(白利臣)의 딸에게 장가들어 감찰어사(監察御史) 증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현(僊)을 낳고, 복야가 수릉 직(綏陵直)을 지낸 평주(平州) 한휘(韓暉)의 딸에게 장가들어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 시(諡) 장경공(章敬公) 해(階)를 낳았다.

장경이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부령(扶寧) 김공(金公) 휘 구(丘)의 딸에게 장가들어 청하군(淸河君) 책(愼)과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이(怡)를 낳았으며, 다시 중찬(中贊)으로 치사(致仕)한 시(諡) 광정(匡定) 홍공(洪公) 휘 규(奎)의 딸에게 장가들어 2녀를 낳았는데, 그 딸들은 대언(代言) 경사만(慶斯萬)과 종부 영(宗簿令) 최광(崔廣)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청하(淸河)는 판삼사사(判三司事) 상락군(上洛君) 김공(金公) 휘 순(珣)의 딸이요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 양천(陽川) 허 문경(許文敬) 휘 공(珙)의 외손녀에게 장가들어 설현(雪軒) 선생 오(顥)와 설곡(雪谷) 선생 포(誦)를 낳았고, 전교(典校)는 모관(某官) 모(某)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낳았는데, 그 딸은 판사(判事) 곽침(郭琛)에게 출가하였다. 경씨(慶氏)는 지금의 시중공(侍中公)인 복흥(復興)을 낳았고, 최씨(崔氏)는 판개성(判開城) 맹손(孟孫)을 낳았다.

설현(雪軒)은 모관 모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맏아들 침(琛)은 정윤(正尹)이고, 다음 선진(旋軫)은 현재 양가대사(兩街大師) 조계종(曹溪宗) 연복사(演福寺)의 주지(住持)이고, 다음 운(暉)은 정유년에 급제하여 현재 판전교(判典校)이며, 딸은 만호(萬戶) 순흥군(順興君) 왕승(王昇), 삼사 우윤(三司右尹) 권주(權鑄), 전 규정(糾正) 유정현(柳廷顯)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설곡(雪谷)은 첨의참리(僉議參理)를 지낸 춘현(春軒) 최 선생(崔先生) 휘 문도(文度)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맏아들 간(衍)은 안릉 직(安陵直)으로 일찍 죽었다. 다음 연(衍)은 고친 이름이 추(樞)요 자(字)가 공권(公權)으로서 지금 그 자(字)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첨서 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로 있다가 사직하고 집에 있다. 딸은 정당문학(政堂文學) 원송수(元松壽), 정당

문학 정사도(鄭思道), 호군(護軍) 이인부(李仁富)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원씨(元氏)의 딸은 삼사 좌윤(三司左尹) 허금(許錦)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규정(糾正) 김약채(金若采)에게 출가하였다. 정씨(鄭氏)의 아들 홍(洪)은 정사년에 급제하여 예의 정랑(禮儀正郎)으로 있다. 이씨(李氏)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박실(樸實)은 낭장(郎將)이고, 강실(剛實)은 정사년 진사과(進士科)에 급제하여 신호위 참군(神虎衛參軍)으로 있고, 견실(堅實)은 승사랑(承仕郎)이다. 첨서(簽書)는 지도 첨의(知都僉議) 한공(韓公) 휘 대순(大淳)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만아들 총(摠)은 병진년의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한 뒤 좌정언(左正言)으로 있고, 다음은 증(拯)과 탁(擢)이며, 딸은 내부 영(內府令) 이빈(李贇)에게 출가하였다.

정씨의 가문은 선조들이 이미 경사를 쌓아서 후손들이 복을 받을 터전을 마련하였다.

(鄭氏。西原大姓也。譜所載者曰別將諱克卿。別將生贈中郎將孝聞。中郎將生朝議大夫神虎衛大將軍顥。初名俊儒。大將軍娶金吾衛散員赤城白利臣之女。生監察御史贈尙書右僕射儂。僕射娶綏陵直平州韓暉之女。生都僉議贊成事諡章敬公曰階。章敬娶平章事扶寧金公諱坵之女。生清河君曰憤，判典校寺事曰怡。繼室以中贊致仕諡匡定洪公諱奎之女。生二女。適代言慶斯萬。宗簿令崔廣。清河娶判三司事上洛君金公諱珣之女。都僉議中贊陽川許文敬諱珙之外孫。生雪軒先生曰顥，雪谷先生曰誦。典校娶某官某之女。生一女。適判事郭琛慶氏。生今侍中公名復興。崔氏生判開城名孟孫。雪軒娶某官某之女。生躒。正尹。次旋軫。今爲兩街大師曹溪宗演福寺住持。次暉。丁酉及第今判典校。女適萬戶順興君王昇，三司右尹權鑄，前糾正柳廷顯。雪谷娶僉議參理春軒崔先生諱文度之女。生衍。安陵直。早亡。次衍。改樞。字公權。今以字行。簽書密直司事。辭位家居。女適政堂文學元松壽，政堂文學鄭思道，護軍李仁富。元氏女長適三司左尹許錦。次適糾正金若采。鄭氏男曰洪。丁巳及第。禮儀正郎。李氏三男。曰樸實。郎將曰剛實。丁巳進士。神虎衛參軍。堅實。求仕。簽書娶知都簽議韓公諱大淳之女。生男。曰摠。丙辰科壯元及第。左正言。次曰拯。曰擢。女適內府令李贇。鄭氏之先。毓慶流祉。

[牧隱文藁卷之二十 / 傳 / 鄭氏家傳]

현재 고려시대의 족보가 전해지는 것은 없지만 묘지명(墓誌銘) 등의 여러 기록에 따르면 가보(家譜), 가첩(家牒), 세보(世譜), 씨보(氏譜), 보(譜)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각보(家系譜) 형식의 소규모 족보가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李蘭映 編, 『韓國金石文追補』 (p.118·150·219), 1969.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攬』 上 (p.662·691), 1919. 재인용]

조선시대에 들어와 최초로 발간된 족보는 1423년(세종 5)에 작성된 『문화류씨영락보(文化柳氏永樂譜)』로 이해되고 있다. 양도공(良度公) 류영(柳穎)이 편찬한 족보로서 알려지고 있으나 실물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영락보(永樂譜)』의 서

문(序文)만이 1562년에 첨정(僉正) 류희잠(柳希潛)이 편찬한 『가정보(嘉靖譜)』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15세기에 간행된 족보는 南陽洪氏(1454)·安東權氏(1476)·全義李氏(1476)·驪興閔氏(1478)·昌寧成氏(1493) 등의 족보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안동권씨의 성종 7년(1476) 족보에 대한 내용만이 학계에 소개되어 있다. [權寧大, 「成化譜攷」, 『學術院論文集』 20,(1981)]

조사본 『안동권씨세보(安東權氏世譜)』는 권제(權躔, 1387~1445)가 중국의 『소씨보(蘇氏譜)』를 모방하여 가보(家譜)를 소첩(小牒)으로 만든 것을 권람(權擘, 1416~1465)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졸거(卒去)하였고, 권제의 조카인 대제학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상주판관 박원창(朴元昌, ?~?)과 대구부사 최호원(崔灝元, 1431~?)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하고 교열(校閱)한 책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권상의 앞부분에 있는 崔鎭(?~?)의 「跋文」을 통하여 상세하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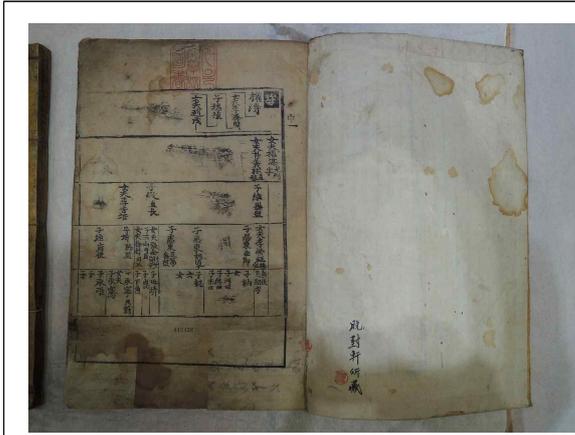
고려 太祖로부터 우리 [조선] 王朝에 이르기까지 權幸의 자손이 蕃衍하였으나, 그 顯達한 이들을 일일이 擧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顯達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達城의 宰相 徐居正이 文忠公 權近의 외손으로서 文景公 宰相 權躔와 翼平公 宰相 權擘의 두 공이 지은 族譜를 다시 수정하여 3질로 만들어 권씨의 宗孫과 支孫들을 하나의 譜牒에 모아 비록 희미한 자라도 소연히 稽考할 수 있도록 하여 慶尙監司 宰相 尹壕로 하여금 간행하도록 하였다. 尹宰相은 幸의 후예인 二相(찬성사) 適의 外玄孫이라 또한 기꺼이 안동부에서 간행하도록 하면서 鎭(나)에게 감독하도록 명하였는데, 時日이 오래 걸리지 않고도 功效가 이루어지니 徐宰相이 祖宗을 尊敬하는 뜻이 더욱 두드러지는 바이다. 成化 12(1476, 성종 7, 병신)년 3월 일에 中訓大夫 行安東大都護府教授 崔鎭(?~?)은 삼가 발문을 쓰다.

이 족보는 1476년(成宗 7)년에 경상감사 윤호(尹壕, 1424~1496)에 의하여 경상도 안동부에서 3권(上·中·下) 3책(天·地·人)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던 까닭에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안동권씨 성화 병신보(安東權氏成化丙申譜)』·『안동권씨 병신보(安東權氏丙申譜)』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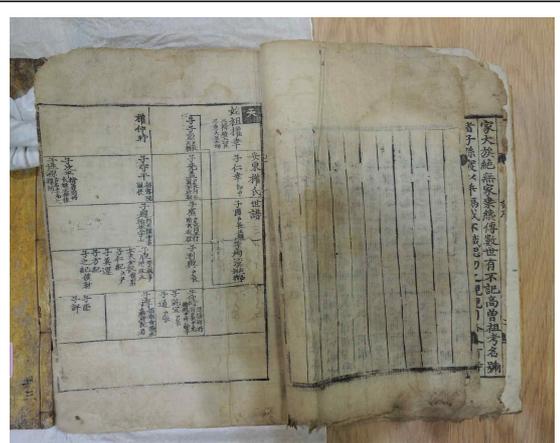
족보의 표제(表題)는 ‘安東權氏族譜(成化丙申譜)’로 묵서(墨書)되어 있으나, 권두제(卷頭題)는 ‘安東權氏世譜’이며 판심제(版心題)는 ‘譜’이다. 판식(板式)의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半郭)은 세로 25.3cm 가로 13.4cm이며, 계선(界線)이 있고 세대는 6단(段)으로 구성하였다. 본문의 행자수는 11行20字이고 註文의 행자수는 소자쌍행(小字雙行)이며,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인출된 종이의 크기는 세로 33.0cm 가로 17.6cm이다.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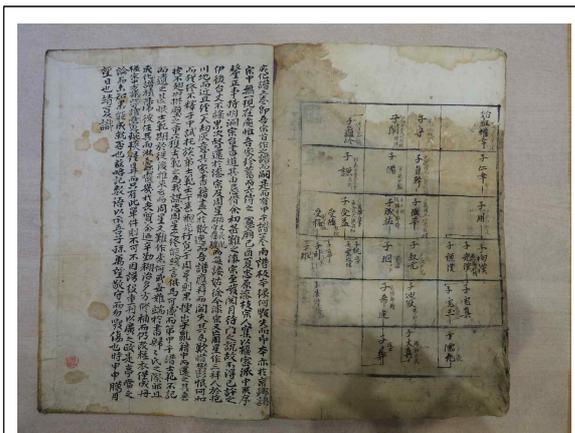
권상(卷上)에는 서거정(徐居正)의 「安東權氏家譜序」(3장)과 최진(崔鎭, ??)의 「跋文」(1장)을 두고 세보를 天~成(第1~57張)으로 나누어 수록하였고, 권중(卷中)에는 珍~平(第1~54張), 권하(卷下)에는 章~恃(第1~71張)을 두었다. 한편 권하의 마지막에는 1884년(고종 21, 甲申)년에 후손 권청하(權靖夏, 1806~1892)가 기록한 「지문(識文)」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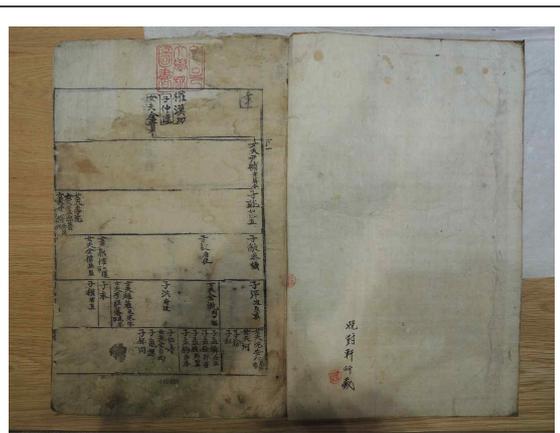
권중



권상



1884, 甲申, 權靖夏 推譜識



권하

조사본 『안동권씨세보』의 표지 면지에는 목서로 “成化譜序文三丈/天字卷五十七丈/地字卷五十四丈/人字卷七十一丈/跋一丈/推譜識一丈” 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현존본의 「序文」 3장, 天冊卷上 57장, 地冊卷中 54장, 人冊卷下 71장, <跋文> 1장, <推譜識> 1장 등 도합 187장과 동일하다. 다만, 권상과 권중의 장차는 올바르게 판각되어 있으나 권하의 경우에는 제58장의 중복으로 인하여 제

58[59]장에서부터 제59[60]장, 제60[61]장, 제61[62]장, 제62[63]장까지의 장차는 오각(誤刻)되어 있다.

권상의 앞부분에 수록된 서거정의 「安東權氏家譜序」는 『사가문집(四佳文集)』에도 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安東權氏家譜序

권씨는 본래 신라의 종성(宗姓)인 김씨이다. 신라 말에 김행(金幸)이라는 이가 고창군(古昌郡)을 맡아 다스리고 있었다. 당시에 견훤(甄萱)이 신라에 침입하여 왕을 시해하고 왕비를 능욕하자 고려 태조가 달려와 구원하여 견훤과 서로 버티고 있었는데, 김행이 여러 사람들과 도모하여 말하기를, “견훤은 의리상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이다. 어찌 왕공(王公)에게 귀의하여 이 통분을 씻지 않겠는가” 하고, 마침내 고려 태조를 맞이하여 항복하였다.

이에 고려 태조가 말하기를, “김행은 기미에 밝고 권도(權道)에 통달하였다” 하고, 마침내 성을 권씨로 하사하고 태사(太師)를 제수한 다음 군을 식읍으로 삼아 주고 안동부(安東府)로 승격하였다.

행이 인행(仁幸)을 낳으니 벼슬이 낭중(郎中)에 이르렀다. 인행이 책(冊)을 낳으니, 책은 자청하여 본 고을의 아전이 되었다. 책이 균한(均漢)을 낳고, 균한이 자팽(子彭)을 낳고, 자팽이 선개(先蓋)를 낳고, 선개가 렬(廉)을 낳고, 렬이 이흥(利興)을 낳고, 이흥이 중시(仲時)를 낳았다.

중시는 두 아들을 두었으니, 수평(守平)과 수홍(守洪)이다. 수평은 벼슬이 추밀부사(樞密副使)에 이르렀고, 한림학사 위(隨)를 낳았다. 위가 첨의찬성(僉議贊成) 탄(坦)을 낳고, 탄이 정승(政丞) 문정공(文正公) 부(溥)를 낳으니, 지위가 재상에 이르고 문병(文柄)을 담당하여 성대한 공렬이 당대의 으뜸이었다. 다섯 아들이 모두 군(君)에 봉해지니, 준(準)은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이고, 고(皐)는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이고, 후(煦)는 계림군공(鷄林郡公)이고, 겸(謙)은 복안부원군(福安府院君)이며, 종정(宗頂)은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광복군(廣福君)이 되었으며, 세 사위도 모두 군(君)에 봉해져 당시에 ‘일가구봉군(一家九封君)’으로 일컬어졌다. 수홍이 대장군(大將軍) 자여(子輿)를 낳고, 자여가 첨의평리(僉議評理) 이(頤)를 낳고, 이가 정승 문탄공(文坦公) 한공(漢功)을 낳았다.

권씨는 책이 아전이 된 후로 중간에 가세가 쇠퇴하여 7세 동안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 못하다가 수평에 이르러 다시 일어나 자손들이 그 아름다움을 이어 나가더니 문정공에 이르러 비로소 크게 현달하였으며, 수홍의 후손으로는 문탄공이 역시 현달하였다. 이에 권씨는 마침내 나뉘어 두 대족(大族)이 되었다. 오늘날 권씨 성을 가진 벼슬아치로 조정에 포진해 있는 이들이 무려 수천에 달하는데, 모두 이 두 대족의 지파(支派)이다. 나의 외조부인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 역시 문정공의 증손이다.

외삼촌 문경공(文景公) 권제(權躋)가 비로소 가보를 소첩(小牒)으로 정리하고, 그 아들 길창(吉昌) 익평공(翼平公) 권람(權擘)이 선고(先考)의 유지를 이어 두루 수소문하고 탐방하여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었으나 또한 마무리를 짓지는 못하였다. 내가 족성(族姓)인 상주 판관(商州判官) 박원창(朴元昌), 대구 부사(大丘府使) 최호원(崔灝元)과 함께 더 찾고 물어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미덥지 못한 부분을 증명하여 도보(圖譜) 2권을 정리해 만들었다. 이 도보는 문정공과 문탄공 이하에 대해서는 상세한 반면 그 윗대에 대해서는 소략하니, 알 수 있는 것은 기록하고 알 수 없는 것은 빠진 채로 두어 후세에 신뢰를 전하려고 할 뿐이다. 도보가 완성되자 경상 감사 윤공(尹公) 호(壕)에게 부탁하여 안동부(安東府)에서 간행하도록 하였다.

나는 생각건대, 옛날에는 종법(宗法)이 있어서 소목(昭穆)¹⁾의 차서를 정하고 지손(支孫)과 서손(庶孫)을 구별하여 자손이 백세(百世)를 가더라도 상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종법이 없어지고 보첩(譜牒)이 생겨난 뒤로는 모든 보첩들은 반드시 시조(始祖)에 근본을 두고 세계(世系)가 나뉜 분기점을 자세히 기록하여 지파(支派)를 명시하고 멀고 가까움을 구별하였으니, 그래도 은의(恩誼)를 돈독히 하고 윤리를 정립하기에 충분하였다.

수나라와 당나라 이전에는 도보국(圖譜局)을 두고 찬술을 관장하게 하여 혼인하는 것과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모두 보첩과 관계가 있었다. 지금 중국은 위로 공경대부(公卿大夫)로부터 아래로 세력이 없는 외로운 집안에 이르기까지 또한 보첩을 두지 않은 집안이 없어, 위로 당요(唐堯)와 우순(虞舜)과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때 처음 봉해진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조를 삼고, 비록 고신(高辛)·신농(神農)·전욱(顛頊)과 같이 먼 전설적 인물이라도 모두 하나 하나 연결하고 이어서 그 보계(譜系)의 서열을 매기니, 어찌 도첩이 전해져 상고할 수 있게 된 덕분이 아니겠는가.

우리 동방은 예부터 종법도 없고 보첩도 없었다. 그리하여 아무리 문벌이 좋고 번성한 집안이라 해도 가승(家乘)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 겨우 몇 대만 내려가도 고조와 증조와 조부와 선고(先考)의 이름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자손들은 점차 서로 관계가 멀어져 혹 시마복(總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을 입어야 하는 친척을 알아보지 못하여 길에서 만난 사람처럼 보니, 어찌 상복을 입는 촌수가 다 끝난 친척과 봉사(奉祀)하는 대수가 다 끝난 조상이 된 뒤에야 소원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고서야 효제(孝悌)를 일으키고 예양(禮讓)을 이루고자 한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문경공과 익평공이 정성을 쏟아 보첩을 저술하고 내가 힘써 그 뜻을 완성한 까닭이다.

권씨는 태사(太師)가 처음 봉해진 때부터 지금 600년에 이르렀는데, 자손의 번성과 가학(家學)의 은택이 유구한 세월 동안 다하지 않았으니, 대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반드시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근원이 먼 물은 흐름이 더욱 길게 마련인 것은 필연적인 이치라 하겠다.

아, 예부터 이름난 집안의 빛나는 후손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고관대작이 대대로 이어져 문벌이 찬란하게 된다면 어느 누군들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몇 대도 전하지 못하여 가문이 기울고 떨어져 멸절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선세(先世)의 봉식(封植)이 견고하지 못하데 자손이 이내 교만과 사치를 부려 유업(遺業)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권씨는 대대로 청렴하고 깨끗함으로 가풍을 전하고 충성과 효도로 마음을 삼아 왔으니, 자손들은 조종(祖宗)이 쌓아 온 근면함을 염두에 두어 계속 이어 갈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사람의 도는 부모를 친히 하는 것이다. 부모를 친히 하기 때문에 조상을 높이고, 조상을 높이기 때문에 종통(宗統)을 공경하고 종통을 공경하기 때문에 종족을 거둔다.” 하였다. 만약 부모를 친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구족(九族)에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근분을 두터이 하고 말단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너의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말아서 그 덕을 닦을지어다(無忝爾祖 聿修厥德).” 하였다. 나는 다시 권씨의 자손을 위하여 권면한다.

成化紀元 12年 蒼龍丙申(1476, 성종 7) 正月 上日에 純誠明亮佐理功臣 崇政大夫 行議政府左參贊兼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事 達城君 徐居正(1420~1488) 剛中은 叙하다.

조사본 『안동권씨세보』는 약 9,000여 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친손뿐 아니라 외손의 가계까지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조선 초기의 역사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기재에 있어서 ‘先男後女’로 하지 않고 ‘出生順’에 따라 기재하고 있어, 조선 중기 이후의 족보와는 다른 편제를 보여준다.

○ 文獻資料

權寧大, 「成化譜攷」, 『學術院論文集』 20,(1981)

崔在錫, 「朝鮮時代の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 81,(1979)

송준호, 「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그 해석」, 『조선사회사연구』, 1987)

○ 지정 사례

조사본과 같은 족보류(族譜類) 및 족도류(族圖類)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현 상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는 전체적으로 汚染·毀損·磨滅이 종종보이며, 版心과 上端 部分의 훼손이 심하다. 자료의 본문이 배접되어 그 두께가 두껍고

뻗뻗하다. 본문의 缺張은 없으나, 上下端 및 書口의 마멸이 되었으며, 특히 상단의 마멸이 심하다. 마멸되어 본문이 결락된곳은 배접지에 補筆을 하였으며, 본문 중에도 인쇄 이후에 추가 기재된 인명들이 종종 보인다.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의 물리적형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表題는 ‘安東權氏族譜(成化丙申譜)’로 墨書되어 있고 卷頭題는 ‘安東權氏世譜’이며 版心題는 ‘譜’이다. 板式은 변란의 모양은 四周單邊, 半郭은 세로 25.3cm 가로 13.4cm, 有界, 世別 段數는 6段이다. 본문은 11行20字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이다. 크기는 세로 33.0cm 가로 17.6cm이고 책지는 楮紙,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이다. 天·地·人 3冊의 表紙는 19세기 이후에 改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書誌記述 >

安東權氏世譜 / [權躋(1378~1445), 權寧(1416~1465) 共編] ; 徐居正(1420~1488), 朴元昌(?~?), 崔灝元(1431~?) 增編修正. 木板本. [慶尙道 安東府] : [尹壕(1424~1496)], [成宗 7(1476)年 板刻, 後印 推定].

3卷 3冊 : 四周單邊, 半郭 25.3×13.4cm, 有界, 世別 6段, 11行20字 註雙行 ; 上下內向黑魚尾, 33.0×17.6cm. 韓紙(楮). 線裝(改裝).

表題: 安東權氏族譜(成化丙申譜) (墨書)

卷頭題: 安東權氏世譜

版心題: 譜

序文: 安東權氏家譜序; 權本新羅宗姓金氏也……徐居正剛中叙.

跋文: 自高麗太祖以來…歲成化十二年丙申…崔鎮謹跋.

識語: 成化譜三卷卽吾宗首作之譜而嗣是而有甲午譜…甲申臘月/望日也[權]靖夏識.

內容:

· 卷上(冊天); 安東權氏家譜序(3張, 徐居正), 跋文(1張, 崔鎮), 安東權氏世譜上(天~成, 上第1~57張).

· 卷中(冊地); 安東權氏世譜中(珍~平, 中第1~54張)

· 卷下(冊人); 安東權氏世譜下(章~恃, 下第1~58張, 下第58張 ~下第63張까지 第58張號重複, 張次誤謬(第58[59], 第59[60], 第60[61], 第61[62], 第62[63]), 第64~71張), 推譜識(權靖夏, 後表紙裏面 墨書)

墨書: 成化譜序文三丈/天字卷五十七丈/地字卷五十四丈/人字卷七十一丈/跋一丈/推譜識一丈 (卷上 前表紙裏面)

藏書記: 晚對軒所藏(卷上·中·下 前表紙裏面 墨書)

印文: 權商泉(卷上·中·下 前表紙裏面 및 卷頭 朱印)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는 權近(1352~1409)의 아들인 權躋(1387~1445)가 중국의 『蘇氏譜』를 모방하여 家譜를 小牒으로 만든 것을 權近의 손자인 權擘(1416~1465)이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卒去하자, 權躋의 조카인 대제학 徐居正(1420~1488)이 尙州判官 朴元昌(?~?)과 大丘府使 崔灝元(1431~?)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하고 校閱한 安東權氏의 족보로 9,000여 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친손뿐 아니라 외손의 가계까지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는 成宗 7(1476)년 무렵에 慶尙監司 尹壕(1424~1496)에 의하여 慶尙道 安東府에서 3권(上·中·下) 3책(天·地·人)의 木版本으로 간행되었으며, 板刻과 刊行의 시기가 성종 7(1476, 成化 12, 병신)년 무렵인 점에서 『安東權氏成化譜』·『安東權氏成化丙申譜』·『安東權氏丙申譜』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에 수록된 내용은 卷上에 徐居正의 <安東權氏家譜序>(3장)과 崔鎭(1876~?)의 <跋文>(1장) 및 <安東權氏世譜上>(天~成, 上第1~57張)이 수록되어 있고 卷中에는 <安東權氏世譜中>(珍~平, 中第1~54張)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安東權氏世譜下>(章~恃, 下第1~71張)와 고종 21(1884)년에 후손 權靖夏(1806~1892)가 後表紙 이면에 목서한 <推譜識>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의 張數는 卷上의 前表紙裏面에 나타나는 墨書記錄의 “成化譜序文三丈/天字卷五十七丈/地字卷五十四丈/人字卷七十一丈/跋一丈/推譜識一丈”과 동일하게 <序文> 3장, 天冊卷上 57장, 地冊卷中 54장, 人冊卷下 71장, <跋文> 1장, <推譜識> 1장 등 총 187장이다. 그러나 卷下 제58장이 중복되어있어 제58장에서부터 62장까지의 장차는 誤刻되어 있다. 실제로는 59부터 63으로 판각되었어야 한다.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 서술 방식과 체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始祖인 權幸으로부터 8세 權利興까지는 단선으로 되어 있으며, 9세인 權中時과 權就宜 및 權通부터 후손 기록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 外孫도 本孫과 같이 편찬 당시까지 대를 이어서 전부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자녀를 ‘先男後女’가 아닌 ‘出生順’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조선조 초기에는 儒學思想이 지배적이지 않아 男尊女卑의 관념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위의 이름을 ‘女’자 아래 ‘婿’라 하고 쓰지 않고 ‘女夫’라 쓰고 사위의 성명을 기재하고, 女子가 재혼한 경우에는 ‘前夫’·‘後夫’로 구분하여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기재하고 있다.

· 자녀가 없는 사람은 ‘無後’라 기재하였을 뿐 養子의 기재하지 않았으나, ‘無後’의 표시도 없이 子女의 난을 空欄으로 처리한 것은 자녀가 있으나 所在 등이 불분명하였던 경우로 추측된다.

· 嫡庶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였다. 즉, 嫡子女와 庶子女의 표시가 없다.

○ 관련자료

國立民俗博物館(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所藏의 『安東權氏族圖』

[安東權氏族圖] / 未詳. 寫圖. 筆寫本.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端宗 2(1454)~世祖 2(1456)].

1軸 : 圖, 4段, 61.5×191.0cm ; 61.5×219.8cm. 絹帛(素). 卷子裝(改裝).

○ 문헌자료

· 權蹏·權擘 共編, 徐居正·朴元昌·崔灝元 增編修正, 『安東權氏世譜』. 木板本. [安東府] : [尹壕], [成宗 7(1476)年 推定].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所藏本.

· [編纂·寫圖者不明], [安東權氏族 圖]. 筆寫本.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端宗 2(1454)~世祖 2(1456)]. 國立民俗博物館 所藏本.

· 서울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17. 09.

· 서울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서. 2018. 08. 04.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추진사항 관련 서류. 2017. 09. 15.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안동권씨 종보사: <http://www.andongkwon.or.kr/>

○ 기 타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359 道溪書院(玉峰 權曄(1552~1630))내의 ‘晚對軒’(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7호)에 소장되던 것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1980년 6월에 권응복(身元不詳)으로부터 구입

·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는 安東權氏 宗報社의 요청으로 현 소장자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國家文化財指定 신청

· 조사대상 문화재 『安東權氏世譜』는 후손 權靖夏(1806~1892)가 고종 21(1884, 甲申)년에 쓴 <推譜識>과 卷上·中·下의 앞표지 면지의 “晚對軒所藏”이라고 쓰여진 藏書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의 所藏處는 경상북도 안동 道溪書院의 ‘晚對軒’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4.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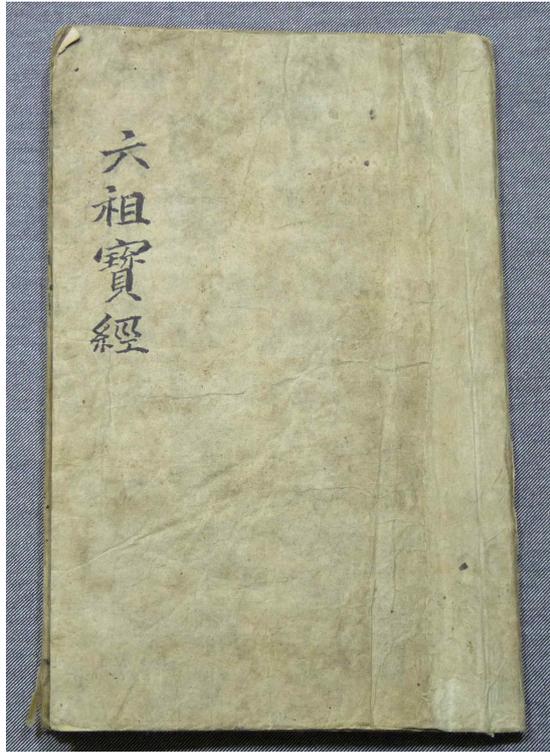
‘육조대사법보단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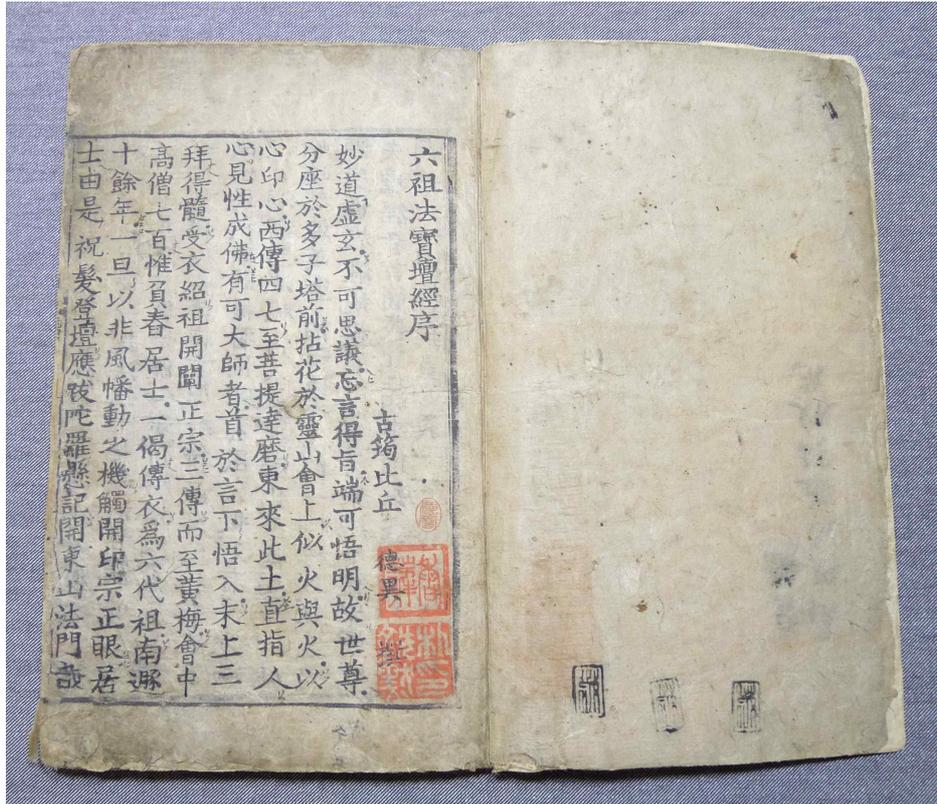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육조대사법보단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6.19.26.) 관계전문가 조사('19.9.2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1호(2014.3.20. 지정)
- 명 칭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 소유자(관리자) : 최동규(백천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31 백천사
- 수 량 : 불분권 1책
- 규 격 : 25.1×15.8cm, 半郭 18.1×12.8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00년(고려 충렬왕 26) 경 판각·인출 추정



1. 六祖法寶壇經 表紙・題簽



2. 卷首 內題面 (序)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六祖大師法寶壇經」은 중국 禪宗의 제6조인 唐朝 慧能(638-713)이 韶關의 大梵寺에서 대중에게 六祖의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과정과 그리고 문인들의 수행을 위하여 설법한 10가지의 법문을 그의 제자인 法海(?-?)가 集錄한 것이다.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不分卷 64장 1冊本으로 慧鑑國師 万恒의 <跋文>에는 ‘德異本’의 고려 전래와 관련된 내력이 상세하며, 특히 <跋文>의 말미에 “[大德]四年庚子七夕住花山禪源万恒謹題”라 기록되고 있어 慧鑑國師 万恒의 주도하에 대덕 4(1300, 忠烈王 26, 庚子)년 칠월칠석 무렵에 花山(江華)의 禪源寺에서 板刻·刊行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佛敎學研究에는 물론 高麗時代 말기의 木板印刷文化를 窺見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書誌學研究에도 그 價値가 높은 것으로 評價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과 동일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중국 선종의 제6조인 혜능(慧能, 638~713)이 소주(韶州) 대범사(大梵寺)에서 설법한 내용을 제자 법해(法海)가 집록한 책으로 1290년(至元 27)년 원나라 덕이선사(德異禪師)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충렬왕 26(1300)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조사본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육조대사법보단경』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보이는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의 차이점이 보인다.

따라서 조사본은 불교사상사 특히 고려말 조선초의 선종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려본으로서 목판인쇄문화의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육조단경』의 전래본은 대개 조선시대 간본이다. 그 가운데 고려본이 몇 종 알려져 있다. 그 저본은 남송 태화 7(1207)년본, 원 대덕 4(1300)년본, 연우

3(1316)년본이었다. 태화 7년본은 덕이가 서문을 쓴 지원 27(충렬왕 16, 1290)년 이전에 간행되었으나, 전래본이 없어서 윤곽도 알 수 없다. 대덕 4년본부터 덕이의 서문이 수록되고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구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대옥덕성(大屋德城)은 일본 궁내성 서릉부의 연우 3년본 계통의 간본은 덕이본이며, 충숙왕 3(1316)년 각본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 특징은 사주단변·무계·9행 17자이고, 하상비에 윤정(胤禎) 또는 윤정도(胤禎刀)란 각수명이 있다고 하였다. 권말에는 서광경침(瑞光景瞻)의 발문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조사대상본과는 다른 특징이다. 또 공민왕 6-9(1357-1359)년 간본으로 추정되는 구 성암고서박물관 판본과 공민왕 19(1370)년 남원(南原) 귀정선사(歸正禪寺)판의 복각본이 연세대 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간본은 실사해야 확신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전래 최고본은 고려 충렬왕 26(1300)년 만항선사가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덕이본이다. 현재 <사천 백천사>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덕이본 『육조단경』은 일반적으로 ‘사주단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반하여 백천사본의 변란은 상하단변, 좌우쌍변이다. 이는 아마도 지원 27(1290)년 덕이본의 광곽 형태에 의거하여 판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육조단경』은 6조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선종의 성립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덕이본은 성종 10(1479)년 병풍암(屏風庵)본(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 송광사, 양산 원각사, 구 성암), 연산군 2(1496)년 거창 옥천사(玉泉寺)본(국립중앙도서관, 송광사, 성균관대 후쇄본), 명종 13(1558)년 수안(遂安) 청암사(靑庵寺)본(규장각), 선조 2(1569)년 상원(祥原) 해탈사(解脫寺)본(하버드대학 연경도서관), 선조 7(1574)년 고산(高山) 안심광제원(安心廣濟院)본(국립중앙, 고려대, 계명대 도서관), 숙종 29(1703)년 송천사(松川寺)본(경상대, 계명대, 동국대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철종 6(1855)년 쌍계사(雙溪寺)본(계명대, 고려대, 원광대), 고종 5(1869)년 양주(楊州) 보광사(寶光社) 목활자본, 고종 20(1883)년 해인사본(국립중앙, 고려대, 동국대 도서관, 송광사) 등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조선 시대에는 고려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상당히 많이 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본서의 복각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명종 13(1558)년 수안(遂安) 청암사(靑庵寺)본으로 추정된다.

목판은 연판한 직후에는 목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판된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목리의 간격은 넓어지기 마련이다. 전체적으로 ‘명징할 정도의 선명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2b0416 平, 5a0313 是, 5b0504 性, 5b0509 可, 6b0502 是, 11b0408 理, 12b1206 聽과 같이 획의 일부가 탈락된 경우도 있다. 또한 도처

에 미세한 목리가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서는 판각 직후에 인출되었다기 보다는 아주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이지만 고려말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서문 하단에는 박선묵인(朴銑默印), 덕운(德雲)과 인문미상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동운거사(東耘居士) 박선묵(朴銑默)은 황봉연과 함께 융희 2(1908)년 서빈정사(西賓精舍)에서 밀교 다라니경인 『불설천존각온황신주경(佛說天尊却瘟瘴神呪經)』과 『관세음보살육자대명왕다라니신주경(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을 번역해 중간하고, 판목은 감로사(甘露社)에 보관한 사람이다. 또 1912년에는 인왕사 옛터에 선암정사(禪巖精舍)를 건립하였다. 따라서 조선말에는 활발한 신행활동을 한 박선묵의 소장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료는 『육조단경』은 선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한국 선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육조단경』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보인다. 판심은 상하단변·좌우쌍변·세혹구·상혹어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지질에 있어서도 고려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및 現狀

指定申請本 「六祖大師法寶壇經」의 書誌記述과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記述>

六祖大師法寶壇經 / 慧能(638-713, 唐朝) [述]; 法海(?-?, 唐朝) 集; 德異(1231-1308, 元朝) [撰]. -- 木板本. -- [江華]: [花山(江華) 禪源寺], [高麗 忠烈王 26(1300)頃 板刻·印出 推定]. 不分卷1冊(64張): 上下單邊·左右雙邊, 半郭 18.1×12.8cm, 無界, 半葉 10行18字 註雙行, 上下細黑口, 上下向黑魚尾; 25.1×15.8cm. 楮紙. 線裝(假裝).

表 題: 六朝寶經(墨書)

序 題: 六祖法寶壇經

卷頭題: 六祖大師法寶壇經

版心題: 壇

卷尾題: 六祖禪師法寶壇經

跋 記: [大德]四年庚子(1300, 忠烈王 26)七夕住花山禪源万恒謹題。

內 容: <六祖法寶壇經序(古筠比丘 德異)>·<略序(門人 法海)>·<悟法傳衣第一>·<釋功德淨土第二>·<定慧一體第三>·<教授坐禪第四>·<傳香懺悔第五>·<參請機緣第六>·<南頓北漸第七>·<唐朝徵詔第八>·<法門對示第九>·<付囑流通第十>·<誌文>·<跋文>。

序 文: 六祖法寶壇經序/古筠比丘德異撰/妙道虛玄不可思議忘言得旨端可悟明故世尊/分座於多子塔前拈花於靈山會上似火與火以/心印心西傳四七至菩提達磨東來此土直指人/心見性成佛有可大師者首於言下悟入末上三/拜得髓受衣紹祖開闡正宗三傳而至黃梅會中/高僧七百惟負春居士一偈傳衣為六代祖南遷/十餘年一旦以非風幡動之機觸開印宗正眼居/士由是祝髮登壇應跋陀羅懸記開東山法門哉[韋]/史君命海禪者錄其語目之曰法寶壇經大師始/於五年終至曹溪說法三十七年沾甘露味入聖/超凡者莫記其數悟佛心宗行解相應為大知識/者名載傳燈惟南嶽青原執侍最久盡得無巴鼻/故出馬祖石頭機智圓明玄風大振乃有臨濟滙/仰曹洞雲門法眼諸公巍然而出道德超群門庭/嶮峻啓迪英靈衲子奮志衝關一門深入五派同/源歷遍爐錘規模廣大原其五家綱要盡出壇經/夫壇經者言簡義豐理明事備具足諸佛無量法/門一一法門具足無量妙義一一妙義發揮諸佛/無量妙理即彌勤樓閣中即普賢毛孔中善入者/即同善財於一念間圓滿功德與普賢等與諸佛/等惜乎壇經為後人節略太多不見六祖大全之/旨德異幼年嘗見古本自後遍求三十餘載近得/通上人尋到全文遂刊于吳中休休禪庵與諸勝/士同一受用惟願開卷舉目直入大圓覺海續佛/祖慧命無窮斯余志願滿矣至元二十七(1290)年庚寅/歲中春日敘。

誌 文: (師入塔後至開元十年壬戌八月三日夜半忽聞塔中如拽鐵索聲僧/衆驚起見一孝子從塔中走出尋見師頸有傷具以賊事聞於州縣縣/令楊侃刺史柳無忝得牒切加擒捉五日於石角村捕得賊人送韶州鞫/問云姓張名淨滿汝州梁縣人於共州開元寺受新羅僧金大悲錢二十/千令取六祖大師首歸海東供養柳守聞狀未即加刑乃躬至曹谿問師/上足令韜曰如何處斷韜曰若以國法論理須誅夷但以佛教慈悲冤親/平等况彼求欲供養罪可恕矣柳守嘉歎曰始知佛門廣大遂赦之上元/元年肅宗遣使就請師衣鉢歸內供養至永泰元年五月五日代宗夢六/祖大師請衣鉢七日勅刺史楊絨云朕夢感能禪師請傳衣袈裟却/歸曹谿今遣鎮國大將軍劉崇景頂戴而送朕謂之國寶卿可於本/寺如法安置專令僧衆親承宗旨者嚴加守護勿令遺墜後或為人偷/竊皆不遠而獲如是者數四憲宗謚大鑑禪師塔曰元和靈照其餘事蹟係載唐尚書/王維刺史柳宗元刺史劉禹錫等碑守塔沙門令韜錄)/宋太祖開國之初王師平南海劉氏/殘兵作梗師之塔廟鞠為煨燼而真身為守塔/僧保護一無所損尋有制興修功未竟會宋大/宗即位留心禪門詔新師塔七層加謚大鑑真空禪師/太平興國之塔宋仁宗天聖十年具安輿迎師真身/及衣鉢入大內供養加謚大鑑真空普覺禪師宋神/宗加謚大鑑真空普覺圓明禪師本州復興梵刹/事蹟元獻公晏殊所作碑記具載六祖禪師自開元元/年癸丑歲示寂至至元二十七年庚寅(1290)得五日七十八年。

跋 文: 妙矣哉實宗門之關鍵儉歲之稷梁/也辭簡而朴旨省而深非識智之所/能擬議也大圭不琢貴乎天真至言/不文尚於理實師言之謂歟後之傳/之者率意增損或圖易曉添糝鄙談/或務節略削除聖意故先是行於東/國者有數本焉率皆舉略而遺全循訛而失正苟非智眼精明洞炤不惑/其詳略真贗何從而信之哉中吳休/休蒙山異老具向上宗眼嗣烈祖正/脉籠羅古今衡鑑邪正不濫絲毫人/所敬信者也尋得大全之古本既板而/壽其傳使城外之乳普霑衆口又欲/廣其法施也越大德二(1298)年春附商寄/來囑以流通法施之願予亦不淺得/之慶幸遂乃重鏤庶流布於無/窮也所期參玄之士但向來開卷前/着得活眼續佛慧命慎莫泥句沈言/滅胡種族刊行之志其在茲乎四年/庚子(1300)七夕住花山禪源 万恒 謹題。

印 文: □(表紙裏面墨印), 德雲(卷頭朱印), □□(卷頭朱印), 朴銑默印(卷頭朱印)。

現 狀: 원래 線裝形式으로 假裝되어 있던 것을 後代에 包背裝으로 改裝한 듯하며, 本文의

곳곳에 汚染 흔적이 있어 次後에 紙類保存處理가 요망된다.

所藏歷: 2000년도에 慶尙南道 泗川市 百泉路 331(百泉洞) 百泉寺 會主 崔東奎가 대한불교조계종 通度寺의 住持한 恩師 釋 靑霞로부터 물려받아 보관 중인 것이라 함.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既指定: 無.

○ 現 狀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원래 線裝形式으로 假裝되어 있던 것을 後代에 包背裝으로 改裝한 듯하며, 本文의 곳곳에 汚染 흔적이 있어 차후에 紙類文化財保存處理專門家에 의한 보존처리공사가 요망된다.

○ 內容 및 特徵

「六祖大師法寶壇經」은 중국 禪宗의 제6조인 唐朝의 慧能(638-713)이 韶關의 大梵寺에서 대중에게 六祖의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과정과 그리고 문인들의 수행을 위하여 설법한 10가지의 법문을 그의 제자인 法海(?-?)가 集錄한 것으로 「法寶壇經」, 「六祖壇經」, 「壇經」 등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동아시아 禪宗의 指針書이자 우리나라 曹溪宗의 必讀書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六祖大師法寶壇經」의 版本은 계통상 크게 ‘宗寶本’, ‘德異本’, ‘道元書大乘本’, ‘興聖寺本’, ‘燉煌本’ 등 5종으로 분류된다.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元朝의 高僧인 德異(1231-1308)에 의하여 至元 27(1290, 충렬왕 16, 庚寅)년경에 편찬·간행된 ‘德異本’이 大德 2(1298)년에 고려로 전래된 후 高麗 忠烈王 26(1300, 대덕 4, 庚子)년경에 修禪社 제10대 祖師인 慧鑑國師 万恒(1249-1319)에 의하여 江華의 禪源寺에서 板刻·刊行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不分卷 64장 1冊本으로 表題는 ‘六朝寶經(墨書)’이고 序題는 ‘六祖法寶壇經’이며, 卷頭題는 ‘六祖大師法寶壇經’이고 版心題는 ‘壇’이며 卷尾題는 ‘六祖禪師法寶壇經’이다. 板式의 邊欄은 上下는 單邊이고 左右는 雙邊이며, 半郭은 18.1×12.8cm이고 界線은 없다. 半葉의 行자수는 本文은 10行 18字이고 註文은 雙行이다. 板口에는 上下細黑口가 있고 版心의 魚尾는 上下向黑魚尾이며 규격은 25.1×15.8cm이다.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에는 권두에 古筠比丘 德異의 <六祖法寶壇經序>와 門人 法海의 <略序>가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본문에는 <悟法傳衣第一>, <釋功德淨土第二>, <定慧一體第三>, <教授坐禪第四>, <傳香懺悔第五>, <參請機緣第六>, <南頓北漸第七>, <唐朝徵詔第八>, <法門對示第九>, <付囑流通第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誌文>과 <跋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德異의 <六祖法寶壇經序>에는 至元 27(1290, 충렬왕 16, 庚寅)년경에 편찬·간행된 ‘德異本’의 출현과 관련된 내력이 상세하며, 慧鑑國師 万恒의 <跋文>에는 ‘德異本’의 고려 전래와 관련된 내력이 상세하다. 특히 <跋文>의 말미에 “[大德] 四年庚子七夕住花山禪源万恒謹題”라 기록되고 있어, 지정신청본이 慧鑑國師 万恒의 주도하에 대덕 4(1300, 忠烈王 26, 庚子)년 칠월칠석 무렵에 花山(江華)의 禪源寺에서 板刻·刊行된 판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에는 德雲(卷頭朱印), 朴銑默印(卷頭朱印) 등의 印文이 있으며, 그 중의 朴銑默은 호가 ‘東耘居士’로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 등을 增輯한 것을 비롯하여 1800년대 말기에서 1900년대 중기까지 활동한 在家佛者로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佛敎學研究에는 물론 高麗時代 말기의 木板印刷文化를 窺見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書誌學研究에도 그 價値가 높은 것으로 評價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경상남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창원 : 경상남도지사, 2016. 10.
- 사천시장 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사천 : 사천시, 2016.
-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편,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창원 :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 2015.
- 김성수,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 법보단경」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67집(2016. 9). pp.45-78.
- 문화유산통합검색(<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其 他 (소장 경위 등)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은 2000년도에 소장자 최동규가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恩師 釋 청하로부터 물려받아 보관 중인 것이라 한다.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과 동일한 판본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書誌記述

六祖大師法寶壇經 / 慧能(638-713, 唐朝) [述] ; 法海(?-?, 唐朝) 集 ; 德異(1231-1308, 元朝) [撰]. -- 木板本. -- [江華] : [花山(江華) 禪源寺], [高麗 忠烈王 26(1300)頃 板刻·印出 推定].

不分卷1冊(64張) : 上下單邊·左右雙邊, 半郭 18.1×12.8cm, 無界, 半葉 10行18字 註雙行, 上下細黑口, 上下向黑魚尾 ; 25.1×15.8cm. 楮紙. 線裝(假裝).

表 題: 六朝寶經(墨書)

序 題: 六祖法寶壇經

卷頭題: 六祖大師法寶壇經

版心題: 壇

卷尾題: 六祖禪師法寶壇經

跋 記: [大德]四年庚子(1300, 忠烈王 26)七夕住花山禪源万恒謹題.

序 文: 至元二十七(1290)年庚寅/歲中春日敘.

誌 文: 至元二十七年庚寅(1290)得五日七十八年.

跋 文: 刊行之志其在茲乎四年/庚子(1300)七夕住花山禪源 万恒 謹題.

印 文: □(表紙裏面墨印), 德雲(卷頭朱印), □□(卷頭朱印), 朴銑默印(卷頭朱印).

□ 現 狀

조사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2000년도에 소장자 최동규(崔東奎)가 은사인 석(釋) 청하(淸霞) 큰스님으로부터 물려받아 보관 중이라 전한다. 이 책은 경남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서지 사항에서 선장본(線裝本)이라 하였으나, 현재는 포배장(包背裝)으로 개장(改裝)된 상태로서, 본문의 곳곳에 오염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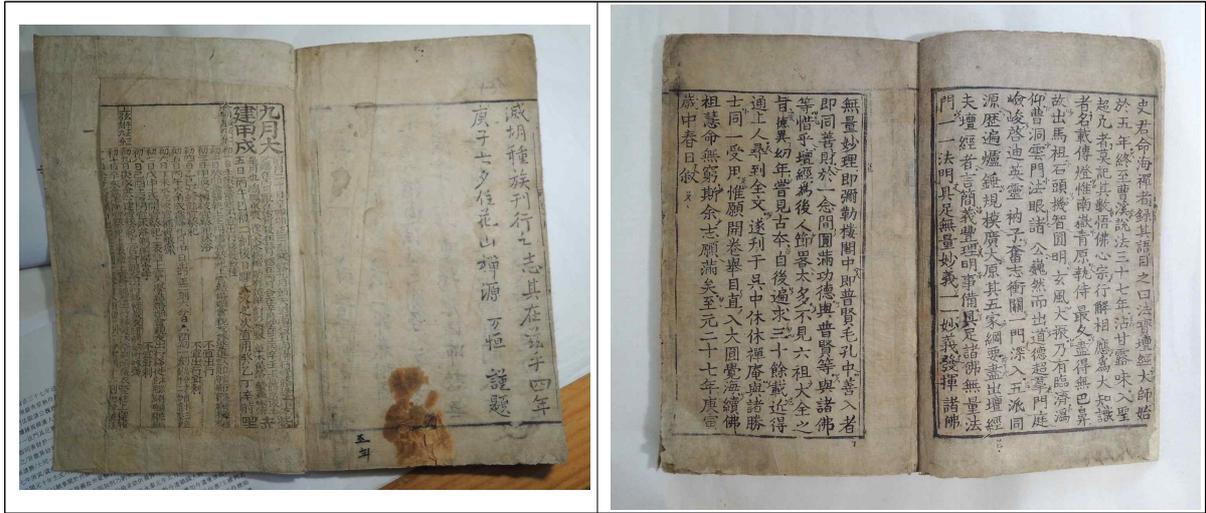
○ 內容 및 特徵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중국 선종의 제6조인 혜능(慧能, 638~713)이 소주(韶州) 대범사(大梵寺)에서 설법한 내용을 소주의 자사(刺史) 위거(韋據)가 명해 제자 법해(法海)가 집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육조단경(六祖壇經)』, 『법보단경(法寶壇經)』 또는 『단경(壇經)』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단경』은 혜능의 법문을 직접 전하는 유일한 자료이나, 그 유통과정에서 첨삭(添削)과 이본(異本)이 많다. 『육조단경』의 유통본 가운데 최고본(最古本)으로 추정되는 둔황본(敦煌本)의 정식 서명은 『남종 돈교 최상대승 마하반야바라밀경 육조 혜능대사 어소주대범사 시법단경(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慧能大師於韶州大梵寺說法壇經)』이며, 필사 시기는 당(唐) 현종(玄宗)의 천보(天寶, 742~755) 년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외의 이본으로는 ① 『소주 조계산 육조사단경(韶州曹溪山六祖師壇經)』 - 대승사본(大乘寺本) ② 『육조단기(六祖壇記)』 - 흥성사본(興聖寺本) ③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 덕이본(德異本) ④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 종보본(宗寶本) 등이 있다. 이들 이본은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각 품(品)의 분단(分段)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판본 가운데 ‘덕이본(德異本)’은 중국 원대의 고승인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에 의하여 1290년(至元 27, 충렬왕 16, 庚寅) 경에 편찬·간행된 책으로서 고려 승려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던 승려로서 임제종(臨濟宗) 승려인 고봉 원묘(高峰原妙, 1238~1295)와 함께 고려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혜능의 속성은 노(盧)씨이며 지금의 광동성 신주(新州)에서 출생하였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땀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금강경』을 읊는 소리를 듣고 출가하였다고 전한다. 황매현(黃梅縣)에 있던 선종의 5조 홍인(弘忍, 601-674)을 찾아가 그 법을 전수받았고, 이후 677년(唐 高宗 儀鳳 2)에 광주(廣州) 법성사(法性寺)에서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소주(韶州) 조계산(曹溪山) 보림사(寶林寺)에 주석하며 계·정·혜(戒定慧) 3학(三學)의 일치를 설하였고, 돈오(頓悟)와 견성(見性)을 특히 강조하였다. 혜능의 문하에는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 청원행사(靑原行思, ?~740) 등을 필두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조사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권두에 고균비구(古筠比丘) 덕이(德異)의 <육조법보단경서(六祖法寶壇經序)>와 문인 법해(法海)의 <약서(略序)>가 수록되어 있고, 권말에는 혜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의 <발문(跋文)>이 있어 ‘덕이본(德異本)’의 고려 전래와 관련된 내력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발문>의 말미에 “[大德]四年庚子七夕住花山禪源萬恒謹題”라 기록되고 있어, 지정신청본이 혜감국사 만항의 주도하에 대덕 4(1300, 忠烈王 26, 庚子)년 칠월칠석 무렵에 화산(花山, 江華)의 선원사(禪源寺)에서 판각·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悟法傳衣第一>, <釋功德淨土第二>, <定慧一體第三>, <教授坐禪第四>, <傳香懺悔第五>, <參請機緣第六>, <南頓北漸第七>, <唐朝徵詔第八>, <法門對示第九>, <付囑流通第十>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본은 1책(64장)으로 표제(表題)는 ‘六朝寶經(墨書)’이고 서제(序題)는 ‘六祖法寶壇經’, 권도제(卷頭題)는 ‘六祖大師法寶壇經’이다. 판심제(版心題)는 ‘壇’이며 권미제(卷尾題)는 ‘六祖禪師法寶壇經’이다. 판식(板式)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의 형식으로 반곽(半郭)은 18.1×12.8cm이고 계선(界線)은 없다. 반엽(半葉)의 행자수는 본문 10행 18字로서 주문(註文)은 쌍행(雙行)이다. 판심(版心)의 어미(魚尾)는 상하향흑어미(上下向黑魚尾)이며 판구(板口)에는 상하세흑구(上下細黑口)가 있다.

한편 조사본에는 德雲(卷頭朱印), 朴銑默印(卷頭朱印) 등의 인문(印文)이 날인되어 있다.

○ 문헌자료

박상국, 「現存 古本을 통해 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의 流通」, 『서지학연구』 제4집 (1989.6)

김성수,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 법보단경’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67집(2016. 9)

○ 지정사례

조사본 지정신청본 「六祖大師法寶壇經」과 동일한 판본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현 상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중국 선종의 제6조인 혜능(慧能, 638-713)의 설법집이다. 보통 『육조단경』, 『법보단경』 또는 『단경』으로 약칭된다. 조사어록(祖師語錄)임에도 ‘경’이라는 경칭을 붙일 정도로 선종의 최고 지침서로 존송되었다. 돈황본(敦煌本)의 서명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慧能大師於韶州大梵寺說法壇經’과 서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혜능이 소주(韶州) 대범사(大梵寺)에서 설법한 내용이다. 소주의 자사(刺史) 위거(韋據)가 명해제자 법해(法海)가 집록한 것이다. 혜능은 『금강경(金剛經)』에 기초하여 반야삼매(般若三昧)를 설하면서, 일체법이 ‘무념무상(無念無想)’임을 강조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신수(神秀, 606-706)의 북종선(北宗禪)에 대해 남종선(南宗禪)의 우위를 내세운 것으로, 돈오(頓悟)와 견성(見性)이다. 『단경』은 한·중·일에 널리 유통되었을 뿐 아니라, 11세기에는 서하어(西夏語)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서지사항

六祖大師法寶壇經 / 혜능(唐) 述; 法海(唐) 集; 德異(元) 撰.
-- 木版本. --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高麗末]
1冊(64張).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8.1 × 12.8cm. 無界, 10行18字.
細黑口, 上黑魚尾; 25.1 × 15.8cm.
表紙書名: 六祖寶經.
版心書名: 壇.
卷末書名: 六祖禪師法寶壇經.
序: 古筠比丘德異撰…至元二十七年庚寅(1290)歲仲春日敍.
略序: 法海.
跋: [大德]四年庚子(1300)七夕 住花山禪源 万恒.
藏書印: 朴銑默印, ?, 德雲.
楮紙.
包背裝.
口訣.

○ 내용 및 특징

저자 혜능의 속성은 노(盧)씨이며 지금의 광동성 신주(新州)에서 출생하였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땀나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금강경』을 읊는 소리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였다고 한다. 이에 황매현(黃梅縣)에 있던 선종 5조 홍인(弘忍, 601-674)을 찾아갔고, 주방에서 잡일을 하다가 신수(神秀, 605?-706)의 계송을 듣고 “菩提本無樹 明鏡亦非台 本來無一物 何處有塵埃”라는 계송을 읊어 홍인의 법을

전수받았다. 이후 의봉 2(677)년 광주(廣州) 법성사(法性寺)에서 정식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으며, 소주(韶州) 조계산(曹溪山) 보림사(寶林寺)에 주석하였다.

혜능은 『금강경』과 함께 『열반경(涅槃經)』을 중시하였다고 한다. ‘무상심지계(無常心地戒)’를 주창하는 등 계정혜(戒定慧) 3학의 일치를 설하였고, 돈오와 견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한편 혜능의 제자 하택신회(荷澤神會, 670-762)는 남종선을 개창한 혜능의 돈오와 북종선 신수의 점오(漸悟)를 대비시켰는데, 이를 통해 혜능의 선종 6조 위치는 공고하게 된다. 혜능의 문하에는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 청원행사(靑原行思, ?-740) 등을 필두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 법맥에서 나온 오가칠종(五家七宗)이 선종을 대표하게 된다.

『단경』은 혜능의 법문을 직접 전하는 유일한 자료이나, 그 유통과정에서 첨삭(添削)과 이본이 많아 ‘돈황본’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육조단경」의 유통본을 크게 5종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즉 ① 돈황본(敦煌本), ② 대승사본(大乘寺本), ③ 흥성사본(興聖寺本), ④ 덕이본(德異本), ⑤ 종보본(宗寶本)이다. 이들 이본은 내용상 별 차이가 없고, 다만 각 품(品)의 분단(分段)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돈황본의 서명은 남종돈교최상대승마하반야바라밀경육조혜능대사어소주대법사시법단경(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慧能大師於韶州大梵寺說法壇經)이다. 『단경』 중 최고본(最古本)으로, 천보(742-755)년간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영국의 탐험가 스타인(Mark Aurel Stein)이 돈황에서 수집하여 영국박물관에 보낸 것이다. 제자 범해와 문답한 내용이 실린 유일한 판본이므로 ‘범해본’이라 칭하기도 한다. 돈황본에는 품의 분단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돈황신본(敦煌新本)’은 1943년에 발견된 것으로, 글자 수와 형식은 돈황본과 같고 오자가 적은 필사본인데, 돈황본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승사본의 서명은 소주조계산육조사단경(韶州曹溪山六祖師壇經)이다.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개조인 도원(道元)이 송본(宋本)을 참고로 전사(轉寫)했다고 한다. 도원서대승사본(道元書大乘寺本)이라고도 한다. 흥성사본의 서명은 육조단기(六祖壇記)이다. 건덕 5(967)년 혜흔(惠昕)이 기존본 『단경』을 2권으로 나누고, 내용을 11단(段 ; 章)으로 개편한 것이다. 현재 전래되지 않으나, 이를 모본으로 한 『육조단경』이 교토 흥성사에서 발견되었다 하여 ‘흥성사본’이라 한다. 종보본의 서명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이다. 지원 28(1291)년 원나라 종보(宗寶)가 설송본(契嵩本)을 모본으로 하여 개편한 10부의 『단경』이다. 설송본은 가우 1(1056)년 설송이 <단경찬>을 짓고 화주를 받아 3권으로 출간한 「壇經」이다. 종보본은 명대 이후 크게 유행했다. 편집 배열과 내용은 덕이본과 일치하지만, 「六祖大師緣起外紀」와 비문이 포함되어 있다.

덕이본의 서명도 『육조대사법보단경』이다. 지원 27(1290)년에 덕이가 조계원

본이라고 하는 설송본을 모본으로 삼아 10항으로 개편한 것이다. 덕이본이 무역상인을 통해 고려로 전해져, 충렬왕 26(1300)년에 혜감국사 만항(萬恒: 萬恒)이 판각해 간행하였다. 덕이본은 고려·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중간되었으므로, 한국 선림과 가장 관계가 깊은 판본이다.

본서는 덕이본이므로 권두서명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이며, 표지서명은 ‘육조보경(六祖寶經)’이다. 본서의 권두에는 원(元)의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가 지원 27(1290)년에 쓴 서문이 있다. 덕이는 고려 승려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같은 임제종(臨濟宗) 승려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와 함께 고려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다. 본문 첫머리에는 법해(法海)가 쓴 「육조대사법보단경약서(六祖大師法寶壇經略序)」가 있다. 또 권말에는 대덕 4(1300 : 충렬왕 26)년 화산(花山 : 江華) 선원사(禪源寺)의 주지 만항의 발문이 있다.

덕이의 서문에는 서전(西傳) 28조 달마(達磨)의 ‘견성성불직지인심(見性成佛直指人心)’의 심법이 6조 혜능에게 이어졌고, 남악회양, 청원행사를 거쳐 각각 마조도일(馬祖道一), 석두희천(石頭希遷)으로 전수된 이 법맥에서 선문의 5가가 개창되었다는 내용의 전법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당집(祖堂集)』과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거치면서 정립된 선종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한편 『육조단경』의 내용을 후인이 간추린 관계로 혜능의 본지를 알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덕이는 일찍이 고본(古本)을 본 적이 있는데 30년이 지나 이제 그 전문을 얻어 휴휴선암(休休禪菴)에서 이를 간행한다는 사실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특히 세 가지 문제가 강조되어 있다. 첫째는, 혜능이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진 심인(心印)을 계승한 적통이라는 말로써 불교의 법맥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부터 선사들의 법맥을 강조하는 학풍이 생겨났다고 한다. 둘째, 수행의 목표는 견성(見性)이므로 자성(自性)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다고 설한다. 이는 중국불교의 특성을 대변하는 학설이며, 따라서 불교에 대한 조교(助教)의 강조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다. 셋째는 돈오(頓悟)의 수행법을 주장하고 있다. 불도를 이루는 방법을 간단히 점수(漸修)와 돈오로 나누는데, 서서히 깨달음을 추구해 들어가는 점수의 수행법은 주로 교종에서 쓰는 방법이다. 여기에 비해 선종의 주된 종지는 돈오의 수행법이다.

본문의 첫부분에는 스승 혜능의 일생을 간략히 정리한 「약서(略序)」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 본론은 모두 10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 오법전의(悟法傳衣)는 깨달음과 의발의 전수, 제2 석공덕정토(釋功德淨土)는 공덕과 정토, 제3 정혜일체(定慧一體)는 정과 혜의 일치, 제4 교수좌선(教授坐禪)은 좌선법, 제5 전향참회(傳香懺悔)는 오분향(五焚香)과 참회법을 다룬 것이다. 다음 제6 참청기연(參請機緣)은 제자들이 설법을 청하여 이를 듣고 깨우친 기연, 제7 남돈북점(南頓北漸)은 남종의

돈오와 북종의 점수의 차이점, 제8 당조징조(唐朝徵詔)는 황제의 설법요청을 사양하면서 칙사(勅使)에게 설한 내용, 제9 법문대시(法門對示)는 설법의 방법, 제10 부촉유통(咐囑流通)은 가르침의 전수와 단경의 유통을 부촉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지원 27(1290)년 원나라 덕이선사(德異禪師)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충렬왕 26(1300)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본서의 원래 장책 형태는 오침안의 선장본이었으나, 그 표지 위에 韓紙로 덧씌웠으므로 외관상 포배장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 때의 지눌(知訥, 1158-1210) 또한 『육조단경』을 읽고 깨달은 바 있어, 여기에 부처의 참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선정과 지혜에 대한 설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갈 길을 이 책에서 구했고, 이를 통해 자득의 경지에 들어섰다. 지눌이 보았다는 『육조단경』은 덕이본 이전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지눌은 『육조단경』의 태화 7(1207)년본에 발문을 써서 修禪寺(修禪寺)에서 간행하였다 하는데, 전래되는 판본이 없다. 조선시대 간본에 덕이의 서문, 법해의 약서와 함께 지눌의 발문이 권말에 첨부된 판본도 있다.

○ 문헌자료

김성수, 사천 백천사 소장 육조단경. 서지학연구 67. (2016.9) 45-78.

朴相國, 現存古本을 통해 본 『六祖大師法寶壇經』의 流通. 서지학연구 4 (1989.6) 125-159.

大屋徳城, 元延祐高麗刻本六祖大師法寶壇經に就て. 禪學研究 23號 (1935.7) 1-24.

黒田亮, 朝鮮流通六祖壇經の形式に就いて. 書誌學 11권5호 (1942) 9-17.

○ 기 타

현 소유자 최동규는 2000년 은사스님인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화상 통도사 靑霞 큰스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수장하고 있음.

○ 지정사례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37호(1999.11.19.) 부산 범어사 수장.

선조 2(1569)년 평안도 祥原 解脫寺 開板, 深谷寺 移留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54호(2004.10.14.) 구미 금강사 수장.

선조 2(1569)년 평안도 祥原 解脫寺 開板, 深谷寺 移留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374호(2015.4.23.) 임흥재 수장.

연산군 2(1496)년 인경목활자본. 언해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1호(2014.3.20.) 사천 백천사 수장.

충렬왕 26(1300)年 万恒 刊行

15.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가. 검토사항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정보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전국 사찰 소장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일환으로 조사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9.1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9.26.) 및 과학조사(’19.7.16~’19.7.19./9.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남장사에서 직지사로 소유권 이전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 대웅전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101.4×590cm, 화면 1,050×564.4cm
- 재 질 : 삼베에 채색
- 조성연대 : 1776년(정조 1)
- 제작자 : 有誠,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玆性,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竺涵, 守仁, 竺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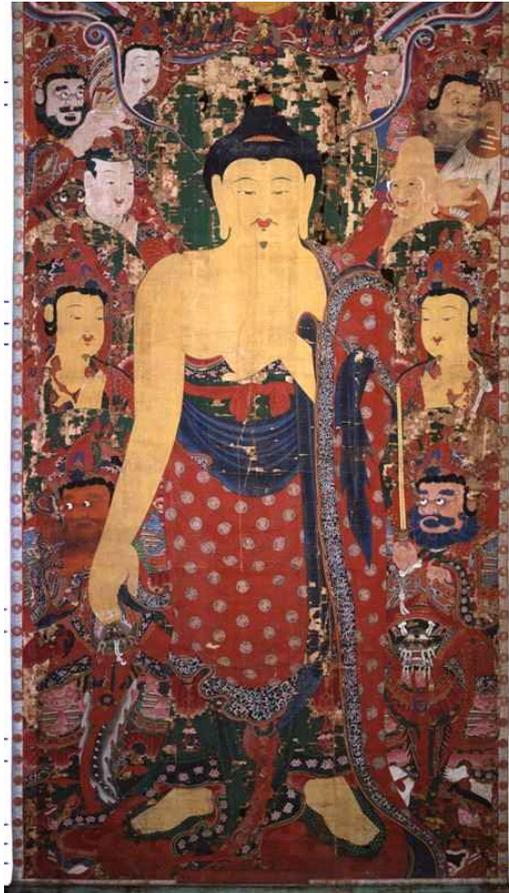


그림 1.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이 작품은 전체 크기가 1,104×590cm나 되는 대형의 작품으로, 1776년 유성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0여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괘불은 1776년 제작된 괘불이지만, 제작된지 얼마 후 관내 기우제 행사 때 사용하다 손상을 입어 지금껏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린 채 전래되어 온 괘불화이다. 비록 손상을 크게 입었으나, 다행스럽게도 諸존상의 주요 부분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괘불화의 가치는 사용하지 않은 만큼 원래의 채색과 장황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17·18세기에 제작된 괘불들이 제작 이래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래 장황모습을 상실한 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이다.

패불의 복장유물은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 1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우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1788년 새롭게 제작된 패불에 재사용 되었다. 따라서 이 패불은 패불과 더불어 복장유물 일습도 모두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 패불의 완전성을 두루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압도적인 크기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협시 등 중요 존상을 존격에 따라 상승감 있게 배치하고 사천왕상을 화면 사방에 두어 화면을 마무리 지어 짜임새 있는 구성력을 보여준다. 주존 석가여래를 다른 존상들보다 한걸음 앞에 돌출시켜 돋보이게 한 점은 마치 석가여래가 도량으로 성큼 걸어 나오는 듯한 극적 효과를 부여한 부분도 작가의 역량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 권속으로 용왕과 용녀를 중요 권속으로 등장시켜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드러낸 점은 물론, 존격에 따라 육신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하였고, 사천왕상에서는 각기 다른 색과 음영을 강하게 배풀어 작자의 재치와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예술성도 높게 평가된다.

다만, 패불의 복장유물은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검토사항에서 구분과 신분(보물 제2007호) 중 어느 것과 더 관련성이 깊은지 분명히 한 다음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으므로, 재조사후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상주 남장사 <패불도>는 18세기 실력있는 화승인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해 22명의 화승들과 함께 1776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10미터가 넘는 대형화면에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권속들을 함께 그렸다. 이 작품은 형상의 안정감과 상호의 원만함, 필선과 채색의 아름다움 등 수화승 유성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희귀성·작품성 등에서 지정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지니고 있다. 안료의 탈락과 화면 손상이 심하나 다행히 주존을 비롯한 주요존상들은 잘 남아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수리·보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 (지정 가치 있음)

1776년 남장사패불도는 1788년에 조성된 남장사패불도와 함께 한 사찰에서 10여년을 사이에 두고 제작된 패불로 18세기 패불 제작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1788년패불도 조성 과정을 기록한 『佛事成功錄』을 통해 1776년의 패불도가 기우제에 사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를 맞아 손상된 채로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패불도가 寺中이 아닌 장소에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불사에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實例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작에는 수화승 有誠을 중심으로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玠性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竺涵 守仁 竺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등 20명이 넘는 화승들이 참여하였다. 수화승 有誠은 有性, 維誠, 唯性, 惟性, 有成 등으로 쓰이며 1755년부터 1808년의 불화 화기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 중 有誠으로 표기된 예가 가장 많다. 유성이 제작한 불화는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유성은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초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경상도 불화승 任閑과 함께 참여한 기록이 있으며 현존작품을 기준으로 볼 때 評三이 주도한 불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그 외 처일, 부일, 승윤 등의 화사와도 작품을 함께 하였다.



(도131)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괘불도 비교

유성은 조선후기 활동한 화승으로 『雲門寺本末寺誌』에 ‘良工本寺有晟’이라는 간략한 기록이 전한다. 현존하는 작품은 약 20여점으로 1755년에서 1808년에 걸쳐서 남아있는데 대부분 경상도 지역의 불화들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유성이 단독으로 조성한 진영도가 6점 남아있어 유성의 작품 경향을 잘 알려주는데 암석을 배경으로 한 뛰어난 인물묘사와 치밀한 문양, 날카로운 필선 등에서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진영도에서 보이는 구도와 인물표현, 문양표현 등은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중심화사인 임한의 영향도 보인다. 유성은 177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운사 지장보살도와 1772년 개심사 괘불도, 1777년 은해사 신중도를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고 있어 1776년의 남장사괘불도

제작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심사 영산회괘불도의 경우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우견편단의 옷을 걸치고 화면 중앙에 서 있는 석가모니불의 모습이 남장사괘불도의 본존불과 자세는 물론이고 둥근 얼굴, 비대한 어깨, 유난히 길고 굽은 팔, 짧은 하체 등의 모습에서 유성의 특징이 보인다.

<표1> 유성작 불화목록 및 유성 한자 표기

	불화명	조성연대	수화승	유성표기
1	운문사 삼신불도	1755	任閑	有性
2	온양민속박물관 삼장보살도(지지도살도)	1755	任閑	有性
3	봉정사 환성당대선사지안진영	1766	有誠	단독조성
4	봉정사 포월당대선사초민진영	1766	有誠	
5	봉정사 설봉당대선사사육진영	1766	有誠	
6	봉정사 영월당대선사응진진영	1766	有誠	
7	봉정사 청허당대선사진영	1758	有歲	
8	봉정사 송운당대선사진영	1768	有歲	
9	모운사 지장보살도	1770추정	有誠	
10	서악사 석가모니불도	1770	富日	有誠
11	개심사 영산회괘불도	1772	有誠	
12	통도사 팔상도	1775	1.2.3相 ; 抱冠 4相 ; 有誠	
13	통도사 석가모니불도	1775	定聰	
14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1776	有誠	
15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	1777	比丘 有誠	
16	쌍계사 삼세불도	1781	석가불 ; 勝允	維性
			아미타불 ; 評三	
17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	勝允	維性
18	통도사 감로도	1786	評三	惟性
19	의령 아미타불도	1786	評三	惟性
20	옥천사 괘불도	1808	評三	唯性

1776년작 남장사영산회괘불도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매우 심하다. 손상은 특히 초록색 안료가 칠해진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 본존을 비롯한 존상들의 광배 등에서 박락과 탈락 등 화면 결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존을 비롯한 존상들의 얼굴부분과 다른 채색층에서는 그나마 손상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의

관상으로 드러나는 불화의 상태가 불완전한 측면이 아쉽기는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 유성의 작품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화인 동시에 18세기 패불도의 제작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며 시급히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 복장낭 등 관련 유물 보완조사 필요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이 패불은 乾隆 41년 丙申(1776년) 10월 20일 尙州 露岳山 南長寺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靈山會掛佛圖이다. 화면은 삼베 17폭을 바느질로 이어 붙여 대화면을 마련하였다. 그림의 제목은 화기에 “小靈山一位畫成”이라고 기록되어 본존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석가여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영산회’라는 명칭을 통해 대영산회 보다 권속을 축소하여 그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17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화기에 표기된 ‘영산회 패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등장 인물의 수와 화기의 명칭과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화기의 영산회 표기사례

no	지정사항	명칭	시대	화기명칭	비고
1	국보 제299호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1664	大靈山會幀	군도
2	보물 제1340호	천은사 괘불탱	1673	大靈山教主尊像一軸	독존
3	보물 제1263호	수덕사 석가모니괘불탱	1673	靈山掛佛幀	군도
4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1673	靈山大會掛佛幀	군도
5	보물 제1278호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1688	靈山掛佛一會	군도
6	보물 제1608호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	1702	靈山會圖一部	6존
7	보물 제1692호	통영 안정사 영산회 괘불도	1702	靈山會掛佛幀	7존
8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	1705	靈山會掛佛一部	5존
9	보물 제1642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도	1710	靈山會一部	군도
10	보물 제1267호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1728	靈山掛佛	7존
11	보물 제1269호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1749	靈山掛佛幀	7존
12	보물 제1419호	선암사 석가모니 괘불탱	1753	掛佛靈山教主釋迦牟尼佛	독존
13	보물 제1552호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도	1764	靈山掛佛幀	5존
14	보물 제1264호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	1772	大靈山掛佛幀	3존
15	경남유형 제299호	고성 옥천사 괘불	1808	大靈山會	5존
16	강원유형 제108호	삼척 영은사 괘불	1856	靈山幀畫	군도
17		남양주 흥국사 괘불	1858	大靈山掛佛幀一軸	3존

이 괘불은 입상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보현보살, 가섭·아난존자, 용왕·용녀, 사천왕상, 시방제불을 위계질서에 맞게 배치한 영산회상괘불도이다. 제작 연대는 1776년이며, 제작에는 수화승 유성을 비롯한 23명의 화원들이 참여하였고, 용면질의 우두머리 화원을 繪首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23명의 화원이 참여한 만큼 대규모 인원의 화승들이 공력을 기울여 제작한 불화임을 짐작케 한다. 수화승 유성은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작품을 통해 대략 1755년에서 1786년까지 활동을 펼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전반기는 당대의 대화승 任閑, 處一 등 선배 화승들과의 작업을 통해 화승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1766년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도 제작 시점부터 수화승의 반열에 올라 독자적인 기량을 발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참여한 불화의 장르는 괘불도를 비롯하여 주요 여래도, 삼장보살도, 팔상도, 진영도, 신중도, 감로도 등 상·중·하단 불화 할 것 없이 전반에 걸쳐 있다. 그의 활동 지역은 충남 서산 개심사 괘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이 경상도 지역 사찰에 봉안된 것으로, 그의 주된 활동지역은 경상도 지역, 그 중에서도 경북지역이 주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괘불은 『상주남장사불사성공록』에 따르면 “종전의 괘불은 그려진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랜 가뭄을 당해 성안으로 옮겨져 하늘에 비를 빌 때 덮개 막대 드리우는 것을 잊어버려 부처님의 몸이 비에 젖고 채색이 떨어져 주존과 그 밖의 불상들이 인간과 천상에서 우러르던 바 32상을 잃게 되어 참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던 모습이 남지 않게 되었으니, 절의 나이든 이나 젊은이들이 모두 애달과 한지 한 해가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괘불은 관내 기우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어 괘불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말아둔 채로 전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손상으로 인하여 화면과 배접지는 산화되었고, 안료는 탈·박락 완전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조성이후 한차례 보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료와 장황 형식은 후대의 변형 없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의 중앙에 입상의 석가여래를 배치하고, 본존은 주위의 권속보다 한걸음 앞서 표현하여 원근감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본존은 체구가 건장하며, 둥글넓적한 얼굴에 비해 이목구비는 작게 표현하였다. 머리의 외곽을 따라 경사가 급한 봉우리처럼 육계가 솟았으며, 육계의 정상에는 반타원형의 정상계주가 묘사되었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는 중앙계주를 표현하였고, 발제선의 중앙에는 맵시있게 머리 곁을 봉긋하게 모아 가르마를 타고, 그 아래로 ‘八’자형의 애교머리를 그렸다. 법의는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떡 벌어진 가슴에는 군의와 띠 자락이 드러나 있다. 대의 주문양은 연꽃을 중심으로 네 곳에서 소용돌이가 휘감아 돌고 이를 구름이 둥글게 감싼 ‘蓮花卷雲文’이 시문되었다. 대의 깃에는 길상문인, 군의의 깃에는 연화당초문을 각각 시문하였다. 무릎까지 축지인으로 길게 내린 오른손은 둔중한 편이다. 머리의 양 측면에서 뻗어나온 五色光明은 천공을 휘감으며 지방제불을 떠받들었고, 중앙계주에서 흘러나온 오색은 작은 毘盧蔗那佛(化佛)을 떠받든 모양새다.

본존불의 어깨부근 좌우측에는 녹색의 두광을 갖춘 입상의 협시보살상이 상반신만 노출한 채 본존을 향해 합장하였는데, 이들은 보관을 쓰고 적색의 천의와 장신구를 걸쳤다. 보살상의 바로 위에는 가섭과 아난이 배치되었는데, 가섭은 육계가 불룩하게 솟은 머리 형태와 지권인처럼 수인을 결한 점이 특징이다. 다시 그 위로는 龍王과 龍女가 표현되었다. 용왕과 용녀는 『묘법연화경』 제바달다품의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일반 영산회상도가 아닌 괘불도에서 이들의 등장은 드물다. 이들이 등장하는 괘불로서는 1727년에 제작된 미황사 괘불탱(보물 제1342호)을 들 수 있는데, 미황사 괘불은 琢行 雪心 喜心 任閑 敏輝 就詳 明現 등이 함께 그린 것이다. 미황사 괘불은 화면 중앙에 축지인의 석가여래를 배치하고, 무릎 좌우측에 작게 용왕과 용녀를 협시처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남장사 영산회괘불

도의 배치와 표현방식이 다르지만 영산회괘불도의 권속의 일부로 등장시킨 점은 유성의 화풍에 영향을 미친 임한과의 관련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천왕상은 화면의 네 모퉁이에 배치하여 도량을 옹호하고 있다. 사천왕은 화면의 향 우측 상방부터 시계방향으로 琵琶, 寶劍, 龍과 如意珠, 寶塔의 지물을 들 어 조선시대 일반적인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으며, 시선은 위쪽 두 구는 오른쪽을, 아래쪽 두 구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호방한 필선을 바탕으로 한 대 범하고 과장된 모습에서 강력한 분위기를 발현하고 있다. 표현 방식과 기법에서는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불국사 사천왕 벽화와 매우 닮아있다.

또한 본존불의 중앙 계주에서 피어나는 오색서광 광배 위에 비로자나 화불이 표현된 도상과 변아와 회장에 불복장 관련 여러 가지 진언문을 배치한 상황 형식은 이 보다 12년 늦게 제작된 新本 남장자 영산회괘불도(1788년) 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사찰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성된 두 본 괘불도의 도상과 상황의 전승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요소이다.

채색은 전통 불화에 사용되는 오방색과 이들을 혼합한 중간 색조를 적절히 선택하여 영산회상의 장면을 웅장하게 표현하였다. 문양은 번잡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베풀어졌고, 피부의 윤곽은 가늘고 섬세한 선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은 굵고 가는 다양한 색선을 자유롭게 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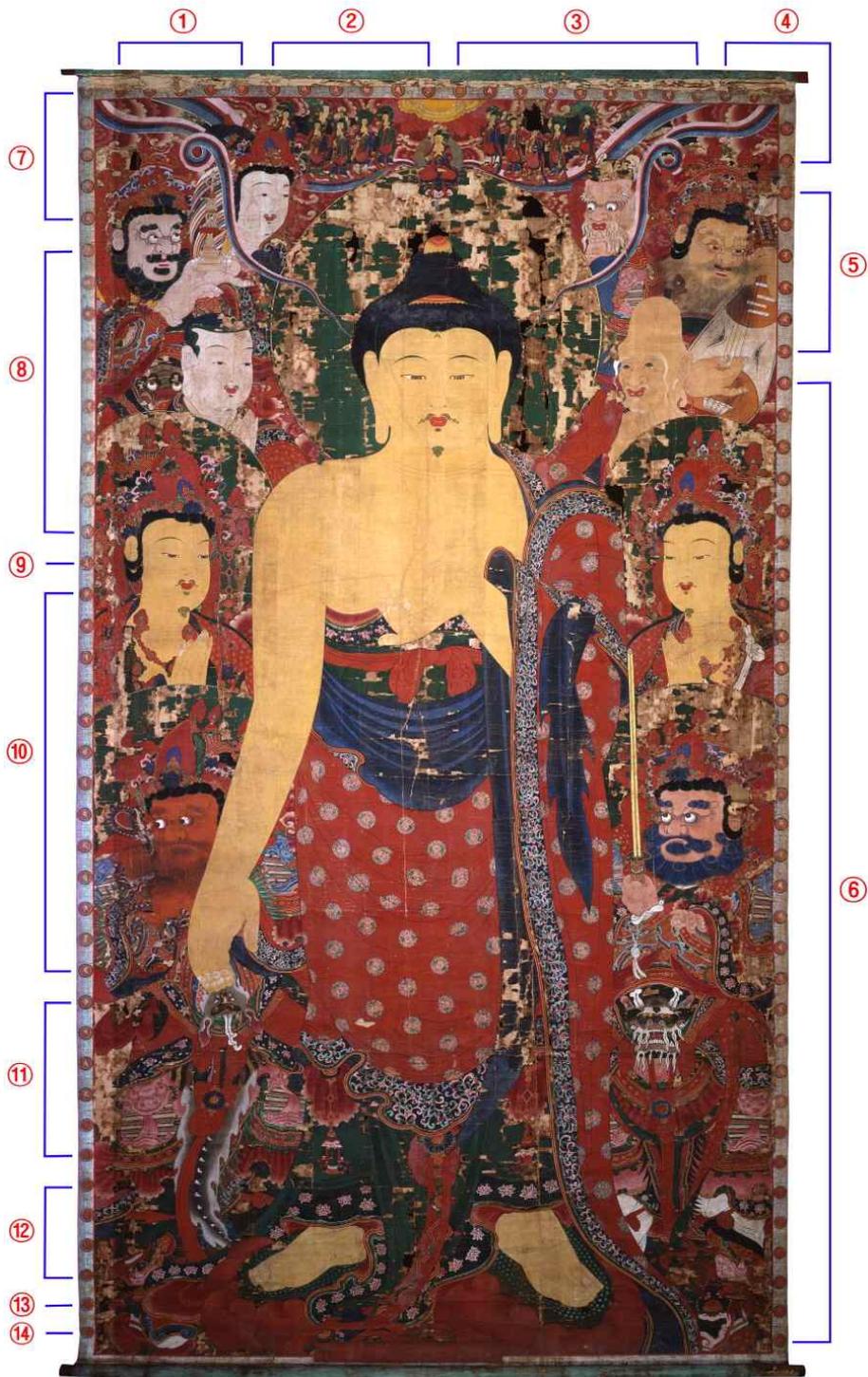
현재 괘불은 반달형의 상축과 원형이 하축이 그대로 달려 있고, 상축의 좌우측 두 곳에는 ‘圭形’의 낙영을 달아 늘어뜨렸고, 화면의 향 좌측에는 길이 115.5cm의 유소 1개가 달려있다. 이 유소는 남아 있는 복장주머니의 재질과 제작 방식이 유사하다. 변아와 회장에는 범자원문의 진언을 적었는데, 주로 불복장과 관련된 진 언들이다. 이러한 진언은 이곳 외에도 안료가 박락되어 드러나 있는 초배지 곳곳 에서도 확인 되므로, 바탕면 전체에도 복장과 관련된 다양한 진언들을 적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표1> 수화승 유성의 작품활동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1	삼장보살도	1755	견본채색	263.5x136.5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3폭 중 지지보살 화기 首頭 任閑 畫員 處一, 性靑, 性澄, 鵬演, 就愚, 萬澄, 有性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宇察, 最玠, 彩淨, 義典, 曄雲, 普寬, 性贊, 卓悟, 若鵬, 致行, 旺玄, 太日
2	청도 운문사 비로전 삼신불도	1755	견본채색	466x522	首頭 任閑 畫員 處一, 性淸, 性澄, 鵬演, 就愚, 萬澄, 有性, 宇察, 最玠, 彩淨, 抱寬, 義全, 秀雲, 性贊, 卓悟, 致行, 若鵬, 國玄, 泰一
3	구미 대둔사 아미타여래도	1761	마본채색	299x281	畫師 處一, 有性, 采性, 知悅, 守衍
4	안동 봉정사 영산암 환성당지안진영도	1766	견본채색	120x83	良工 有誠
5	안동 봉정사 영산암 포월당초민진영도	1766	견본채색	103.5x75.5	良工 有誠
6	안동 봉정사 영산암 설봉당사육진영도	1766	견본채색	105x76	良工 有誠
7	안동 봉정사 영산암 청허당진영도	1768	견본채색	105x73.5	良工 有誠
8	경주 불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및 사천 왕벽화	1769	견본채색	498x447	*보물 제1797호 *塗金良工 尙淨, 碩岑, 淸益, 宇學, 抱寬, 德仁, 定安, 脫閨, 藏榮, 報恩, 圓敏, 最善, 桂觀, 慕欣, 有誠 *都畫師 智瞻, 次全, 幼禪, 哲印, 富一, 大演, 宥祥,
9	안동 모운사 지장도	1770	견본채색	144x142	*경북 문화재자료 제4222호 *良工 有誠 天性 若朋, 有祥, 錦仁, 宇兼
10	예천 서악사 석가여래도	1770	마본채색	123x172	*경북 유형문화재 제380호 *金魚 富日, 有誠, 慧又, 快宗
11	개심사	1772	마본채색	921x553	*보물 제1264호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영산회괘불도				*畫師 有誠, 宥倖, 性聰, 報恩, 尙欽, 富一, 守仁, 信日, 法筌, 錦仁, 義玄, 快宗
12	통도사 응진전 석가여래도	1775	견본채색	285x313	*良工 定聰, 有誠, 定坦, 富一, 守仁, 坦悟, 色一
13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1775	견본채색	233.5x151	*비람강생상 *良工 抱冠, 有誠
14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	1777	견본채색	124.3x121	*良工 有誠, 萬湜
15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	1781	견본채색	495x314.5	*석가여래도, 보물 제1364호 *施主 維性
16	하동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	견본채색	197x363	*경남 유형 제384호 *金魚 勝允, 萬輝, 泓源, 智淳 *片手 平三, 端誨, 勝文, 咸湜, 國演, 維性, 出定, 國仁, 普信, 極贊, 察森, 斗贊, 巨奉, 戒卓, 月賢
17	구인사박물관 아미타여래도	1786	견본채색	215x240	*충북유형문화재 제210호 *畫師 評三 *片手 察敏, 惟性, 極贊, 幻永, 友心, 永○, 快性, 性○, ○○
18	수도사 감로도	1786	견본채색	189x204	*경남 유형 제418호, 통도사성보박물관 *畫師 平三, 有性, 性允 *片手 察敏, 極贊, 幻永, 友心, 快性, 影輝, 永宗
19	보경사 팔상도	18c			*설산수도상 *良工 聖明, 抱冠, 定聰, 壬坪, 宥聖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에 쓰인 眞言의 위치와 내용>

번호	진언 명	번호	진언 명
1	출실지	8	열금강왕여래
2	육자대명왕진언	9	람
3	준제구자	10	발절라수진언
4	비밀실지	11	합장수진언
5	입실지	12	열금강왕여래
6	항마진언	13	람
7	진심종자	14	흙

<書記>

乾隆四拾壹年丙申々十月二十日
 小靈山一位畫成于尙州露岳山南
 長寺仍爲奉安仗此功德¹¹⁾奉爲

干戈息靜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國泰民安

大施主秩

白峯堂信嚴¹²⁾

省學	幹事時僧統振樞
大允	首僧廣玉
字淳	三綱三寶碩敏
鍊秋	掌務道占
守明	
良輝	山中老■ ¹³⁾ 秩
金性才	思運
姜貴世	致文
崔大甲	致軒
時坦	希伯
尙輝	省學
泰堅	宗崑
大善	泰堅
曇裕	大善
宗悅 ¹⁴⁾	曇裕

11) ‘德’의 속자

12) ‘嚴’의 이체자

13) 글자가 탈락되었으나 ‘德’자가 기록되었음

大悅	鍊秋
宇習	大允
尙雲	宗悅
普閑 ¹⁵⁾	信贊
道鑑	施主兼 ¹⁶⁾ 本寺秩
日豈	文習
漢柱	太日
宠 ¹⁷⁾ 嘩	大悅
寬演	法蘭
腹藏 ¹⁸⁾ 金氏	怡現
腹藏宋氏	寬允
烏金、丕夢	位策
金命吉	廣先
緣化秩	法善
證師秩	寬演
龔山堂對基	道監
性月堂希倫	道寬
沖虛堂肯冊	亘三
南岳堂暎晤	宗豈
括虛堂擷 ¹⁹⁾ 如	海宗
如應堂就成	漢日
白華堂呂恢	普閑
秉法	緇悅
詠虛堂析誠	緇俊
持殿	宠嘩
青岳堂大仁	碧楚
海機	元察
誦呪秩	宠贊
道仁	善忍
快有	道令

14) '悅'의 속자
15) '閑'의 이체자
16) '兼'의 이체자
17) '寵'의 이체자
18) '藏'의 이체자
19) '取'의 오기로 보임

棹綆	卓連
誠旻	雪淨
佳玉	唯察
天之 ²⁰⁾	頓機
德俊	頓珠
位成	快察
道寬	尊信
體普	體行
解源	平淳
自詢	體玉
瑞希	快淨
尊輝	景弘
戒欽	快日
月珠	煥希
明悟	漢奎
印鑑	漢已
敬源	先察
處 ²¹⁾ 寬	平益
澗寬	萬澄
華希	景澄
豐演	煥信
龍眠秩	煥宇
繪首有誠	好信
會萬	取淑
聖朋	直敏
守密	達令
有晴	希俊
玆性	道輝
富一	法淳
永印	幻愚
信一	漢佑
靜坦	快信

20) ‘定’의 약자

21) ‘處’와 같은 자

觀淨	性天
竺涵	普日
守仁	等祐
竺軒	萬天
幻悟	普弘
道俊	萬贊
瑞弘	快淳
普仁	萬曄
色閏	普哲
喚鳳	景修
若禪	景有
德弘	平吾
戒印	快淨
供養 ²²⁾ 主	普寬
如學	卓允
學岑	普雲
智鑑	俊益 ²³⁾
良贊	法藏
法心	德行
瑞榮	大行
得念	取三
朋仁	守閑
寬坦	俊元
再雲	俊令
有眼	萬輝
致弘	
好澄	
萬訓	
鍾頭秩	
普閑	
智曄	
璟雲	

22) '養'의 속자

23) '益'의 약자

平日
快念
喚攝²⁴⁾
淨桶秩
覺淳
朗日
明松順和
別座秩
大允
日豈
都鑑秩
省學
希伯
化士秩
宗念
時仁

□

○ 현 상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10미터가 넘는 대형 화면에 입상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협시보살과 사천왕 등 권속들을 양 옆에 배치한 구성이다. 목제의 상하축에 범자(梵字)를 포함한 그림 상황으로 되어 있으며, 낙영과 유소가 남아 있다. 화면 전체적으로 주존의 광배 등 녹청 부분이 심하게 박락되어 바탕천이 드러나 있으며, 상하축의 연결부분 역시 손상이 심하다. 또한 수해(水害)의 흔적이 확연하다. 드러난 바탕천에 붉은 색으로 쓴 다리니가 보인다.

화면 하단에 화기가 잘 남아있어 조성인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76년에 수화승 유성이 화승들을 이끌고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채색층과 배접층의 분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안료탈락과 화면이 분리되는 등 손상이 심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다만, 다행히 주존을 비롯한 각 존상들은 잘 남아있는 편이고 채색의 변색도 거의 없어 시급히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겠다.

○ 내용 및 특징

24) ‘攝’의 약자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장황까지 포함하여 11미터가 넘는 대형 의식용 불화로, 주존은 우견편단에 오른팔은 아래로 내려뜨리고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육계가 높이 솟아있으며 둥근 정상계주와 반달형의 중간계주를 갖추고 있다. 정상계주에서 피어오른 서기(瑞氣)에는 지권인을 한 좌상의 비로자나불을 표현하였고 그 양쪽에 타방불들을 배치하였다. 양옆에는 협시보살과 사천왕, 아난·가섭, 용왕 등이 자리하였다.

화기에 ‘小靈山一位’를 조성했다고 하여 주존이 석가모니임을 확실히하고 있다. 화기에는 이밖에도 제작연도(건륭 41년, 1776년)와 주요한 시주자였던 승려들, 제작자 등 불화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인원들을 기록하였다. 이 중 실제로 괘불을 제작한 이들은 총 23명의 화승으로, 18세기의 실력있는 화승인 유성(有誠)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유성은 1776년 이 괘불을 제작하기 4년 전인 1772년에 충남 개심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264호)를 제작할 때 역시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는데, 두 작품의 주존인 석가모니불의 모습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석가모니의 건장하게 드러난 어깨와 당당하고 안정된 자세와 원만한 상호, 그리고 수인 및 복식은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을 확인시켜준다.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안정된 밑그림 뿐 아니라 필선과 채색 등 세부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당시 화승 집단과 수화승 유성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불보살의 상호나 육신의 윤곽선은 강직하고 탄력있는 선으로 표현하였고, 사천왕은 그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수(肥瘦)가 있는 활력넘치는 선으로 호방한 상호와 윤곽선을 능숙하게 그려 제작자의 필력을 가늠하게 한다. 색조합이나 세부 문양들도 매우 아름다워 현전하는 괘불들 중에서도 단연 수작이라 할 수 있다.

1788년의 남장사 불사(佛事)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에는 1788년에 새로운 괘불을 조성하게 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766년에 제작된 상주 남장사 <괘불도>가 제작한지 10여년이 되었을 때 기우제를 위한 의식에서 비에 젖는 사건으로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새로운 괘불을 제작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상주 남장사 <괘불도>에는 물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얼룩이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광배의 녹청 등 녹청 부분의 안료는 거의 탈락되었으며, 군데군데 다른 안료들도 탈락된데다 화면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 안료가 탈락한 바탕천에 붉은 색으로 쓴 다라니가 군데군데 확인된다. 또한 범자를 넣어 그림상황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장황 가운데 상하축과 이어지는 부분의 손상이 매우 심하다. 다행히 주존인 석가모니불과 주요존상들의 상호와 육신부는 훼손이 덜해 하루라도 시급히 보존처리를 실시해 더 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다.

○ 문헌자료

『佛事成功錄』

『남장사 영산회괘불탱 -대형불화정밀보고서 17』, 문화재청·정보문화재연구원, 2017
조수연, 「화승 有誠作 眞影의 연구」, 『강좌미술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1) 현황 및 특징

남장사 영산회괘불도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가섭과 아난존자, 용왕과 용녀, 사천왕을 대칭으로 배치한 불화이다. 석가모니불의 원형 두광 위에는 연화좌에 앉아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을 화불 형태로 표현하고 그 좌우에 각각 그리고 5위씩 적색 연꽃을 딛고 서서 합장한 자세의 시방불을 표현했다. 화면 중앙에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서있는 석가모니불은 적색 연꽃을 딛고 서서 왼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했으며, 오른손은 아래로 내렸다. 머리 형태는 테두리만 나발에 우뚝 솟은 육계와 반원형의 중간 계주, 원형의 정상 계주를 표현했다. 용수염이 표현된 용왕의 얼굴에서 18세기 신중도에 표현된 용왕 도상을 떠올릴 수 있고 사천왕의 수염표현 등에서 세밀하고 정치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사천왕은 향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탑을 든 북방천왕, 비파를 든 지국천왕, 칼을 든 증장천왕, 용을 쥐고 있는 광목천왕을 배치하였다. 서방광목천왕의 육색을 다른 사천왕들과 비교했을 때 어둡게 표현하고 있어 기존 불화들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존과 두 협시보살의 육색은 밝고 환하게 표현한 반면 제자, 용왕과 용녀 등의 육색표현에 차이를 두는 등 존격에 따라 육색을 달리 표현함으로써 불화 전체에 변화감을 주고 있다.

불화 전체에 표현된 색은 채도가 높은 주홍계열의 붉은 색이 돋보이는데 이는 본존불의 광배를 비롯하여 초록색 안료가 사용된 부분의 탈락이 심한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면 하부를 제외한 3면 변아에는 모두 104자의 梵字가 원문 안에 쓰여져 있다. 범자는 석록과 백록으로 구분한 원문 안에 진사를 바탕으로 칠하고 상부에 22자, 좌우측에 각각 41자씩 나누어 썼다. 원문의 전체 지름은 12.8~13.5cm이다. 범자는 부분적으로 결실되거나 탈색된 글자가 많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분석 결과 14종류의 진언을 조상경 보다는 의식집을 모본으로 해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²⁵⁾



괘불도 조성에 있어 특이한 점은 채색층 바로 아래 바탕층에도 범자를 써서 기록해놓았다는 점이다. 바탕면에 드러난 범자는 초록의 채색층이 박락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본존과 두 보살, 두 사천왕의 광배 부분의 초록색이 탈락된 자리에 보이는데, 이 외에도 초록으로 칠해진 화면상단 중앙의 비로자나불의 두광 등에도 나타나 있어 변아 부분 뿐만 아니라 화면의 바탕면 전체에도 범자 진언을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18)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1776)

25) 상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出悉地, 六字大明王眞言, 准提九字, 秘密悉地를 썼다. 좌측은 入悉地和 降魔眞言을 적었는데, 항마진언의 마지막에는 두 글자를 함께 기록했다. 우측은 위에서 아래로 眞心種子, 列金剛王如來 10位와 ‘람’자, 跋折羅手眞言, 合掌手眞言, 列金剛王如來 4위, ‘람’자, ‘흠’자를 차례로 썼다.



(도138) 채색층 아래 바탕면에 드러난 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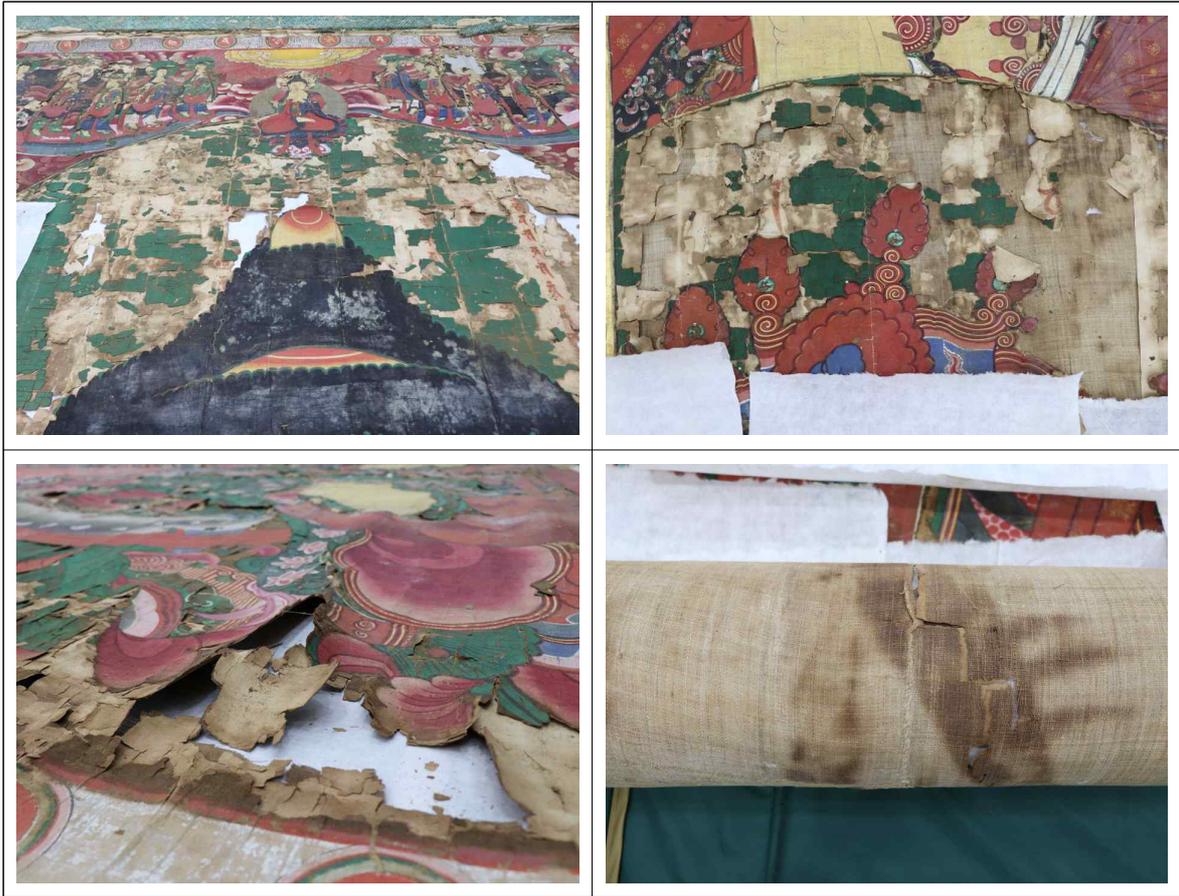
괘불도 뒷면은 18폭의 삼베를 이어 배접을 하였고 화면 좌우에는 길이 67cm, 너비 21.3cm의 낙영이 부착되어 있고 화면의 향좌측에는 길이 115.5cm의 유소 1개가 매어져 있다. 1788년 조성된 남장사괘불도 조사 당시 복장낭이 어느 괘불도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1766년에 조성된 괘불도의 낙영 재질과 문양이 남장사에 보관된 복장낭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남장사에 보관된 복장낭은 1776년 영산회괘불도의 것으로 추정된다.



(도139) 남장사괘불도(1776)의 낙영, 유소, 복장낭

현재 괘불도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매우 심하다. 특히 초록색 안료의 박락으로 인한 화면 결실이 매우 심한데 석가모니불과 보살, 사천왕의 두광에서 두드러지며, 상부의 시방불과 비로자나불, 하부 사천왕의 갑주 등에서도 초록색 안료의 결실된 부분이 관찰된다. 이외에 상측 회장 부분도 가로로 결실되었다.

또한 바탕 마직물과 배접지는 열화 및 마모로 인해 부서지고 있으며, 조각난 화면 편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다. 이밖에 곰팡이 흔적과 변색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찰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탈락과 박락이 심한편이나 다행인 것은 여래를 비롯하여 주변 권속들의 상호 부분은 박락없이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140) 남장사괘불도(1776)의 손상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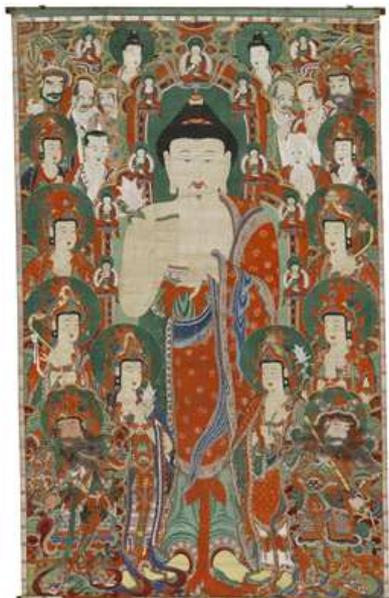
2) 조성관련 특징

남장사괘불도는 건륭41년인 1776년에 제작된 불화이다. 1776년은 영조의 재위(1724~1776)가 끝나고 정조가 즉위한 해이다. 괘불도는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干戈息靜²⁶⁾ 國泰民安’을 위해 1776년 10월 20일에 완성되었다. 제작에는 수화승 有誠을 중심으로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玆性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竺涵 守仁 竺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등 20명이 넘는 화승들이 참여하였다.

현재 남장사에는 이 괘불도보다 12년 늦은 1788년에 제작된 또 다른 영산회괘불도가 전하는데, 1788년 불사를 완료하고 기록한 『佛事成功錄』에 1776년의 괘불도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26) 간과 : 창과 방패, 즉 전쟁, 식정 : 그치어 조용하게 되었다는 뜻

“중전의 괘불은 그려진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랜 가뭄을 당해 성안으로 옮겨져 하늘에 비를 빌 때 덮개 막대 드리우는 것을 잊어버려 부처님의 몸이 비에 젖고 채색이 떨어져 주존과 그 밖의 불상들이 인간과 천상에서 우러르던 바 32상을 잃게 되어 참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던 모습이 남지 않게 되었으니, 절의 나이든 이나 젊은이들이 모두 애달파 한지 한 해가 지났다.”²⁷⁾



(도5)남장사영산회괘불도(1788)

위의 내용을 통해 1776년의 이 괘불도는 그려진지 10여년만인 약 1786년경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사찰이 아닌 성안으로 옮겨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비가 내렸는데 덮개를 씌우지 않아 비에 젖어 채색이 떨어졌고 큰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를 맞아 큰 손상을 입은 괘불을 그대로 지금까지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寺中에서 새로이 불화를 제작할 때 훼손된 불화는 태우거나 매장을 하는데 이 경우는 훼손된 채 그대로 보관을 해왔다는 점에서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88년의 남장사영산회괘불도는 조선후기 대표 불화승인 尙謙의 주도하에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불화이다. 이 괘불도에는 4면의 변아에 梵字를 기록하고 있는데 범자는 장황이 아닌 화면의 바탕 직물에 의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괘불탱을 처음 조성할 때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괘불도는 높이 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고 밝고 짙은 채색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화면이 특징이다. 명료하고 능숙한 필선으로 대상을 표현하여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18세기 후반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1788년의 괘불도는 불사성공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한양)의 화사인 尙謙이 그렸다. 1776년 괘불도를 제작한지 12년의 세월밖에 흐르지 않았고 이 때는 1776년 괘불도를 조성한 수화승 유성이 한참 활동을 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다시 제작에 나서지 않은 점이 의문이 남는다. 『佛事成功錄』의 연화질에 誦呪를 맡았던 승려중에 有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동

27) ...前掛佛畫來者 不過十餘載 而逢久旱 入城呼雨諸天 忘垂寶蓋之柳 全身蒙雨 彩像脫漏 主伴不具三十二相 人天所仰 固未存歸敬之料 一寺老少 咸生悽愴者年矣 有老比丘省學 早寄於斯... (『佛事成功錄』 <南長寺掛佛新成聖記>)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17, 『남장사 영산회괘불탱』(2017), pp.174~179. 불사성공록 참조.

일인이라면 당시 다른 소임을 맡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776년 남장사괘불도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乾隆四拾壹年丙申々十月二十日
小靈山一位畫成于尙州露岳山南
長寺仍爲奉安仗此功德奉爲
干戈息靜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國泰民安

大施主秩	
白峯堂信嚴	
省學	幹事時僧統振樞
大允	首僧廣玉
宇淳	三綱三寶碩敏
鍊秋	掌務道占
守明	
良輝	山中老■秩
金性才	思運
姜貴世	致文
崔大甲	致軒
時坦	希伯
尙輝	省學
泰堅	宗豈
大善	泰堅
曇裕	大善
宗悅	曇裕
大悅	鍊秋
宇習	大允
尙雲	宗悅
普閑	信贊
道鑑	施主兼本寺秩
日豈	文習
漢柱	太日
宍曄	大悅
寬演	法蘭
腹藏金氏	怡現
腹藏宋氏	寬允
烏金 丕 夢	位策
金命吉	廣先
緣化秩	法善
證師秩	寬演

聾山堂對基
性月堂希倫
沖虛堂肯冊
南岳堂映晤
括虛堂擲如
如應堂就成
白華堂呂恢
秉法
詠虛堂析誠
持殿
青岳堂大仁
海機
誦呪秩
道仁
快有
棹綆
誠旻
佳玉
天乏
德俊
位成
道寬
體普
解源
自詢
瑞希
尊輝
戒欽
月珠
明悟
印鑑
敬源
處寬
澗寬
華希
豐演
龍眠秩
繪首有誠
會萬
聖朋
守密
有晴

道監
道寬
亘三
宗豈
海宗
漢日
普閑
緇悅
緇俊
宍曄
碧楚
元察
宍贅
善忍
道令
卓連
雪淨
唯察
頓機
頓珠
快察
尊信
體行
平淳
體玉
快淨
景弘
快日
煥希
漢奎
漢已
先察
平益
萬澄
景澄
煥信
煥宇
好信
取淑
直敏
達令
希俊

性一印一坦淨涵守軒幻道瑞普色喚若德戒供如學智良法瑞得朋寬再有致好萬鍾普智璟平快喚淨覺
富永信靜觀竺守竺幻道普色喚若德戒供如學智良法瑞得朋寬再有致好萬鍾普智璟平快喚淨覺
主
秩

道輝
法淳
幻愚
漢佑
快信
性天
普日
等祐
萬天
普弘
萬贊
快淳
萬曄
普哲
景修
景有
平吾
快淨
普寬
卓允
普雲
俊益
法藏
德行
大行
取三
守閑
俊元
俊令
萬輝

朗日
明松順和
別座秩
大允
日豈
都鑑秩
省學
希伯
化土秩
宗念
時仁

16. 김천 계림사 석가여래 괘불도 (金泉 鷄林寺 釋迦如來 掛佛圖)

가. 검토사항

‘김천 계림사 석가여래 괘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정보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전국 사찰 소장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일환으로 조사한 ‘김천 계림사 석가여래 괘불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9.8.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9.26.) 및 과학조사(’19.9.19.~’19.9.23.~9.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천 계림사 석가여래 괘불도(金泉 鷄林寺 釋迦如來 掛佛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계림사(직지사 직지정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 직지정보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716.5×331.2cm, 화면 687.8×319.0cm
- 재 질 : 종이에 채색
- 조성연대 : 1809년(순조 9)
- 제작자 : 富添, 如允



김천 계림사 석가여래 괘불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이 괘불은 수화승 부침이 1809년에 제작한 괘불도이다. 화기에 그림의 주제와 관련된 기록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존상을 그린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편단우견에 항마촉지인을 결한 것으로 보아 석가여래를 그린 석가여래 괘불도로 추정된다. 이 괘불은 다른 불화들과 다른 특이점은 개령현의 인근의 여러 관청과 지역주민, 사찰이 협력하여 제작하였다는 점이며, 괘불의 바탕 재료 역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대형 괘불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종이 바탕을 그대로 사용하고, 최종 배접지로 삼베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수화승 부침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기 활발한 활동을 펼친 화승으로, 이 괘

불은 그가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작품의 규모나 화격 등에서 그의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대의 괘불은 모두 21점이며, 이 중 1850년 이전에 제작된 것은 6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천 계림사 괘불도는 19세기 전반기 괘불 중에서는 이미 보물로 지정된 ‘김천 직지사 괘불도’(보물 제2026호, 1803년)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며, 크기도 네 번째에 해당할 만큼 괘불도로서는 소형 작품이다. 적어도 19세기 전반기 내지 후반기를 포함한 괘불과의 포괄적인 비교 조사를 통해 이 괘불이 차지하는 위치와 미술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보류)

김천 계림사 <괘불도>는 1809년 6월에 제작되어 개령 쌍비사(현 김천시 아포읍, 20세기 초 폐사 추정)에 봉안되었던 대형 의식용 불화이다. 높이 7미터 가량의 이 괘불은 부처만을 단독으로 그렸으며, 단순한 색조합과 짙은 윤곽선으로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또한 각계각층의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제작했던 정황들이 화기를 통해 잘 남아있어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 불화는 화기에 의하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약 50년 간의 기간동안 경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부침이라는 수화승이 여윤이라는 화승과 함께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침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화승으로 19세기 전반기의 불화 제작이 침체된 가운데, 이전 시기와 19세기 후반기를 잇는 주요한 화승이었다고 본다.

김천 계림사 <괘불도>는 이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9세기 전반의 괘불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괘불들을 상세히 전수조사하여 비교한 후 보존상태와 현황, 희소성, 그리고 작품의 수준을 고려해 시급히 지정할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 (보류)

대규모의 야외 불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괘불도는 임진왜란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17, 18세기에 걸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사찰에서 널리 제작 사용되었다. 19세기에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중에는 홍천사괘불도(1832)처럼 왕실에서 발원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19세기 초엽인 1809년 경북 개령현의 산간에서 조성된 계림사괘불도는 17,18세기에 제작된 괘불도는 물론 19세기에 제작된 괘불도와도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림사괘불도는 1809년에 조성된 독존형식의 불화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괘불의 제작배경 측면에서 개령현의 향청과 대부분의 관아 및 여러 고을의 일반민들이 참여하였다는 점, 한 현의 모든 사찰이 동참하여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이 기존의 괘불의 조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불화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808년에 제작된 옥천사괘불도의 경우 지방 관아 중의 하나인 통영 사공청 등의 시주가 있었지만 계림사괘불도처럼 한 고을의 모든 관아와 같은 지역에 있던 여러 사찰 및 현민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예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다양한 사유로 사찰에서 불교의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러 사찰과 향민 등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찰마다 법회가 있을 때마다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괘불의 재질을 종이로 하고 괘불의 하단 축을 대나무로 만든 것에서 무게를 줄이고 이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사찰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의례를 위해 괘불이 사찰 밖으로도 빈번히 옮겨지기도 했는데, 계림사괘불도는 19세기초 지방에서 조성된 괘불 제작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에 조성된 괘불도는 전국적으로 약 20여점 이상이 남아있다(표4). 대부분 서울·경기지역에서 조성된 것으로 도상적으로는 삼신불도와 석가불도가 중심을 이룬다. 이들 대부분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이중 19세기 제작된 괘불도중 가장 이른 시기인 1803년에 제작된 직지사괘불도는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점차 19세기 괘불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19세기 괘불도 현황²⁸⁾

번호	명 칭	연대	크기(cm)	수화승	소재지	비고
1	직지사 괘불도	1803	1270x505	濟閑	김천	보물 2026호
2	청룡사 괘불도	1806	1006x748	旻官	서울	
3	옥천사 괘불도	1808	948x703	評三	고성	경남유형 299호
4	계림사 괘불도	1809	716x331	富添	김천	
5	흥천사 괘불도	1832	544x365	愼善	서울	서울유형 372호

28) 여러 자료 등에 나오는 19세기 괘불 현황을 참고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크기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번호	명 칭	연대	크기(cm)	수화승	소재지	비고
6	청량사 괘불도	1852			봉화	
7	영은사 괘불도	1856	870x503	肯濬	삼척	강원유형 108호
8	흥국사 괘불도	1858	544x366	永羲	남양주	경기유형 189호
9	천축사 괘불도	1858	506x311	有鏡	서울	서울유형 293호
10	청계사 괘불도	1862	600x330	愍善	의왕	
11	백련사 괘불도	1868	588x335	永煥	서울	
12	경국사 괘불도	1878	608x376	永煥	서울	서울유형 264호
13	개운사 괘불도	1879	700x365	應釋	서울	
14	내원암 괘불도	1885		定灌	남양주	경기유형 197호
15	표충사 괘불도	1885				
16	봉은사 괘불도	1886	610x445	亘照	서울	서울유형 231호
17	화계사 괘불도	1886		亘巡	서울	서울유형 386호
18	망월사 괘불도	1887	640x354	啓昌	의정부	경기유형 272호
19	봉국사 괘불도	1892		永煥	서울	서울유형 351호
20	해인사 괘불도	1892	875x457	典琪	합천	경남유형 574호
21	불암사 괘불도	1895	573x346	永煥	남양주	경기유형 315호

1803년(순조 3년)에 제작된 김천 직지사괘불도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괘불 중 시기가 가장 빠르고 규모도 가장 크다. 寶冠을 쓴 보살형 여래가 양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고 정면을 향해 서 있는 독존 형식의 괘불도로서 간단한 구성이지만 앞 시기 괘불의 중량감 넘치는 형태에서 가늘고 늘씬한 형태미로 변모한 점, 섬세하고 우려한 선의 구사보다는 굵고 대담한 선묘가 돋보여 시대적 전환기에 제작한 불화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세기 불화를 대표할만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계림사괘불도의 경우 도상이나 표현기법 등에 있어서는 19세기에 제작된 다른 괘불들에 비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19세기에 제작된 괘불들, 특히 서울경기지역에서 제작된 왕실발원 괘불들 중에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작품들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조성된 다양한 괘불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도상, 재질, 표현기법 등 양식적 특징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

하고 이를 통해 국가문화재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동시기 제작 괘불도와 비교검토 필요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이 괘불은 1809년 6월에 제작하여 개령 雙飛寺에 봉안했던 괘불이다. 조성에 참여한 화원은 富添과 如允 두 명이다. 바탕재질은 종이로, 세로축에 6장 가로축에 4장 모두 30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종이 한 장의 크기는 세로 128cm, 가로 69cm로 측정되었다. 후배접지는 10폭의 삼베를 이어 배접하여 일반적인 불화의 장황 방식과는 반대로 되어 있다. 상축은 반달모양이며, 하축은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장황은 후보 없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화의 재원을 조달한 시주자는 주로 개령 쌍비사 인근의 사찰과 지방관청(香廳, 住廳, 共和堂, 司創, 畫役所, 戶房所, 刑所, 亞星, 長房, 果房廳, 養武堂 등), 지역 주민(花田洞, 舊校洞, 井邊, 民村 등)과 사찰(雞林寺, 新興寺, 高方寺, 白雲菴, 窟菴 등)들이다. 證明은 信菴 守日, 日菴 智潤, 贊識이 맡았으며, 畫員(화기에는 龍眼)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침과 여윤이다. 수화승 부침은 조선후기 문경 대승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불산 화파를 이끌었던 信謙과 여러 작품에서 함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사불산 화파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다.(표1 참조)

괘불의 원래 봉안처인 쌍비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산42-2번지에 소재하고 있던 사찰로 지금은 폐사되었다. 폐사 시점은 1799년에 간행된 『梵宇攷』, 『輿地圖書』, 『廣輿圖』 등 18-19세기 기록에는 사찰의 존속이 확인되고, 1899년에 간행된 『慶尙北道開寧郡邑誌』에 비로소 ‘雙飛寺 今廢’라고 처음 등장하며, 1908년에 간행된 『寺刹考』에 “大正六年六月二十六日內第八七〇号 廢寺許可(隆熙三年十月 日 調査 地方局社寺課)”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9세 말에서 20세기 초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비사에는 도금된 삼불입상과 석불좌상 1구가 남아 있었는데, 삼존상의 존재는 파악되지 않으며 석불좌상은 아포초등학교 교정에 이안되었다가 2007년 직지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안하였다. 이 석불좌상은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므로, 쌍비사는 고려시대에 이전에 창건된 사찰로 생각된다.²⁹⁾ 쌍비사에 봉안되었던 괘불이 언제 계림사로 이운된 괘불은 폐사 무렵인 19세 말이나 20세기 초로 생각된다. 다시 1995년 5월 23일 직지사로 옮겨져 위탁보관 중이다.



도 2. 김천 계림사 석가여래괘불도

계림사 괘불도는 단독의 여래입상을 묘사한 괘불도이다. 여래는 선 채로 왼손은

29) 『韓國의 寺址(中)』 경상북도II,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74-75쪽.

가슴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오른손은 허벅지로 내려 축지인을 결하였다. 이와 같은 수인은 입상형의 ‘석가여래괘불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인으로, 계림사 괘불도 역시 이와 같은 석가여래괘불도의 계보를 잇고 있다. 다만, 천은사 괘불도(1673년), 북장사 괘불도(1688년) 등 17세기 대에 제작된 괘불도의 석가여래입상의 경우, 설법인을 취한 왼손이 거의 허리춤까지 내려와 있고, 18세기대의 경우 1722년 청곡사 영산회괘불탱의 석가여래는 왼손은 가슴부근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오른손은 오른쪽 허벅지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려 축지인을 결하였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괘불에서의 축지인은 팔이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다. 가슴까지 들어 올린 왼손도 1703년 김룡사 괘불도와 1727년 미황사 괘불탱 등 17세기 전반기의 축지인계 괘불의 왼손은 대체로 배꼽 부근에 위치하고, 1722년 청곡사 영산회 괘불처럼 가슴까지 들어 올린 경우도 가끔 확인된다. 그러나 18세기 대부터 설법인을 취한 왼손이 배꼽이나 가슴부근으로 상승하고, 손목을 꺾은 것이 대체로 많다. 축지인으로 내린 왼손은 엄지와 검지 그리고 약지와 소지 사이를 벌렸고, 손목의 복숭아뼈를 표현하여 작자의 특색을 드러내었다. 손목의 복숭아뼈는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1731년 작)에서 확인된다.

두광은 원형으로, 신광은 두광으로부터 몸의 윤곽을 따라 하부까지 이어져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1803년 김천 직지사 괘불도의 두광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보다 소략하고 형식화되었다. 두광의 표면은 녹색으로 처리하였고, 신광은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 S자형으로 이어진 역동적인 당초문으로 빼곡히 시문하였다. 붉은색의 大衣는 오른쪽 어깨를 슬쩍 드리운 변형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군의(치마)는 청색계통으로 처리하여 색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대의의 옷깃은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슴에는 둥글게 호선을 그리며 군의를 돌렸으며, 군의를 묶은 띠 자락은 두 다리 사이로 길게 드리웠다. 오색 빛깔로 테두리를 돌린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다. 피부와 이목구비의 윤곽선은 옷 주름과 신체의 윤곽선에 비해 농담이 열은 선으로 처리하였고, 비수와 농담, 태세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일정한 굵기의 선으로 윤곽과 주름을 표현하였고, 흘러내린 옷 주름은 중간 중간 꺾어 변화를 시도하였다. 옷깃의 윤곽선은 3줄로 처리한 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단조로운 그림에 다소나마의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된다. 얼굴은 둥글넓적하며, 짧은 눈초리와 코끝을 둥글게 둥글린 듩직한 코가 특징이다. 불신에는 화려한 문양은 생략하고 선과 단출한 색으로만 처리하여 담백한 느낌을 준다. 이륜에서 시작된 덩수룩한 머리가 선의 변화 없이 뾰족한 육계로 이어져 보주형의 머리 모양을 형성한 머리스타일과 귀의 세부표현 등은 1772년 서산 개심사 석가여래괘불도, 1788년 상주 남장사 영산회괘불도의 형태를 계승하고 있다.

계림사 괘불도는 구례 천은사 괘불탱(1673년, 보물 제1340호)를 비롯한 해남 미황사 괘불도(1727년, 보물 제1227호), 영천 은혜사 괘불탱(1750년, 보물 제1270호), 순천 선암사 영산회괘불탱(1753년, 보물 제1419호), 봉화 축서사 괘불탱(1768년, 보물 제1379호) 등 단독의 향마축지인 여래입상의 도상을 따르고 있지만, 아동적인 신체표현과 색의 농도가 짙고 굵은 선묘를 주로 하는 기법은 19세기 초반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

<표 1> 수화승 부침의 작품활동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1	부산 원광사 석가여래도	1791	견본채색	182.2x243.5	*片手 永璘 *龍眼 影修, 萬謙, 衍洪, 有海, 惠元, 有封, 海卷, 抱札, 義允, 富添, 夢恩, 奉寬, 有伯, 太旻, 軌閑 *부산시 유형
2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신중도	1795	견본채색	190x158	*良工 信謙, 廣軒, 戒寬, 漢英, 楹修, 有心, 謂聖, 偉傳, 綻岑, 富添, 道訓, 彩演, 永宇
3	대전사 청련암 신중도	1797	견본채색	108x101	*현 봉화 각화사 소장 *龍眼 富添, 致默, 夢云, 普定, 宇鶴
4	김천 직지사 괘불도	1803	마본채색	1,280.4x508	*濟閑, 偉傳, 綻岑, 富添, 信和, 崑演, 快月, 德先, 德文, 志悅, 典憲, 願官, 照隱
5	계림사 괘불도	1809	지본채색		*富添, 如允
6	봉곡사 아미타여래도	1818	견본선묘	146x187	*金魚 富添, 性旻, 海淳
7	석가여래도	1821	견본채색	258x215.6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良工 信謙, 富添, 禪俊, 斗贊, 體均, 普贊, 性旻, 體英, 定曄, 志詢, 定淳, 寬洪, 海淳, 海鵬, 弼和, 弼玉
8	지장도	1821	견본채색	198.5x217.7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良工 信謙, 富添, 禪俊, 斗贊, 體均, 普贊, 性旻, 體英, 定曄, 志詢, 定淳, 寬洪, 海淳, 海鵬, 弼和, 弼玉
9	선석사 대웅전 신중도	1824	견본채색	140.5x101	*金魚 富添, 海淳, 道弘
10	中臺寺 석가여래도	1830	견본채색	144x190.5	*안동 대원사 소장 *金魚 無鏡觀周, 富添, 德信, 定奎, 印察, 德欣, 有成
11	中台寺 지장도	1830	견본채색	145x152	*안동 대원사 소장 *金魚 富添, 德欣, 印刹, 震洪 *片手 定奎, 德信
12	中臺寺 신중도	1830	견본채색	163x167	*안동 대원사 소장 *金魚 無鏡觀周, 富添, 印刹, 德欣
13	남장사 산신도	1841	견본채색	99.8x74.5	*畫員 富添, 戒○, 幻玉

<書記>

嘉慶十三年己巳六

月日畫成

大施主秩

本邑郷³⁰⁾廳³¹⁾

仕廳

共和堂

司倉

畫役所

戶房所

刑所

亞星

長房

果房廳

養³²⁾武堂

花田洞

舊校洞

井邊

民村

雞林寺

新興寺

高³³⁾方寺

白雲菴

窟菴

西部 文義童

洪^學³⁴⁾良

花田 洪^龍³⁵⁾龍³⁶⁾

校村 金放喆

大鳥洞 李光遇

30) ‘郷’의 속자

31) ‘廳’과 같은자

32) ‘養’의 속자

33) ‘高’의 속자

34) ‘學’의 이체자

35) 글자가 부분적으로 지워져 판독 안됨

36) ‘龍’의 이체자

泉洞 朴文亨
 李一之
 廣汗 安益³⁷⁾權³⁸⁾
 金汗龍
 妙光 全碩夢
 從³⁹⁾上洞 李光迪
 井邊 金春孫
 金性得
 金郁
 金宗俊
 金宗郁
 尹守文
 朴貴尙
 朴宗仁
 朴宗龍
 李億
 申春根
 申春綠
 幸壽⁴⁰⁾命
 金一祿
 比丘勝峯⁴¹⁾
 朋察
 覺⁴²⁾俊
 ■⁴³⁾日
 通學
 花田 金仁甲
 全出

緣化秩

37) ‘益’의 약자

38) ‘權’의 이체자

39) ‘從’의 속자

40) ‘壽’의 이체자

41) ‘華’의 이체자

42) ‘覺’의 이체자

43) 글자가 부분적으로 지워져 판독 않됨

信菴守日
證明法師⁴⁴⁾ 日菴智潤⁴⁵⁾

贊識

誦呪 來安
都監時僧統勝輝
富添
龍眼比丘

如允
比丘取全

供養主

童子應天
化主持殿 石潭托洪

別座 幸信

本寺秩

時僧統 勝輝

前僧統 包有

幸信

學朋

取全

智演

童子 尙悅⁴⁶⁾

龍得

應天

金阿只

負木

朴孝三

奉安于^開⁴⁷⁾寧⁴⁸⁾雙⁴⁹⁾飛⁵⁰⁾寺

44) ‘師’의 속자
45) ‘潤’의 이체자
46) ‘悅’의 속자
47) ‘開’의 이체자
48) ‘寧’의 이체자
49) ‘雙’과 같은자
50) ‘飛’의 초서



계림사 <괘불도>는 7미터 가량의 길이로 나무로 만든 상하 축을 마련하여 화폭을 고정하였다. 상축은 부채꼴과 유사한 단면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하축은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전체 화면은 먹선을 그어 구획하였고, 입상인 독존의 여래를 가득 차게 그렸다. 제작과 관련된 인연을 적은 화기란은 먹선으로 구획한 화면의 아래쪽에 역시 먹선으로 각 칸을 구획하여 제작시기와 시주자, 제작자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이 불화가 1809년(가경13년) 6월에 제작되어 원래는 개령(開寧) 쌍비사(雙飛寺: 현 김천시 아포읍, 20세기 초 폐사 추정)에 봉안했던 괘불임을 알 수 있다.

화폭의 위쪽 가장자리가 가로 방향으로 벌어져 있어 방치할 경우 정도가 심해질 수 있어 수리를 요한다. 상하축의 바탕천이 손상되었고, 군데군데 안료 탈락과, 오염, 안료 번짐, 구김 등이 있으나 전체적인 화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계림사 <괘불도>는 화기를 통해 1809년에 제작되어 현 김천시 아포읍에 있었던 쌍비사라는 사찰에 봉안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괘불도 가운데 19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괘불도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경북의 작은 고을에서 여러 관청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사찰들, 지역민들의 시주를 받아 제작된 의미 있는 불화이다.

세로로 긴 화면에 독존의 입상으로 그려진 여래는 둥근 두광과 몸 전체를 길게 에워싼 신광을 갖추고 있으며, 두부(頭部)가 유달리 크게 그려진 점, 육계를 삼각형 모양으로 길고 뾰족하게 표현한 점, 먹선의 윤곽선들이 매우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점, 그리고 구름만으로 채운 배경과 신광의 내부를 가득 채운 당초문양, 연속된 S자 형태의 옷주름 등이 표현 상의 주요한 특징이다. 또한 채색에 있어서는 주홍과 올리브그린에 가까운 녹색 계열을 위주로 하는 단순한 색 조합을 보이고 있으며, 신광의 당초문양을 제외하고는 다름다리, 즉 채색 후에 올리는 문양이나 바림 등과 같은 섬세한 마무리 작업이 일체 더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결과적으로는 짙은 윤곽선과 단순한 색 조합으로 시각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여러 시주인들이 십시일반 시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지 않았던 경제 조건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7미터에 이르는 괘불도임에도 제작에 참여한 화승이 단 2명 뿐이라는 점으로도 그러한 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괘불은 수화승으로는 부첨(富添)이 참여하였고 여운(如允)이 함께 제작하였다. 부첨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약 50년간 활동했던 화승이다. 수화승 부첨의 현전하는 작품은 10여점으로 이 중 이른 것으로는 1791년에 제작한 원광사(圓光寺) 석가설법도(釋迦說法圖)가 있으며, 가장 나

중의 것으로는 1841년에 제작한 남장사(南長寺) <산신도(山神圖)>가 알려져 있다. 부침이 제작한 불화는 김천 직지사(直指寺)·봉곡사(鳳谷寺), 상주 남장사, 청송 대전사(大典寺), 군위 선석사(禪石寺), 안동 중대사(中臺寺)의 불화로 그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승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산·보은 등에서도 활약하였다.

특히 1795년에 제작된 충북 보은 법주사(法住寺) 대웅보전(大雄寶殿) <신중도(神衆圖)>의 경우 총 13명이 화승이 함께 제작하였는데, 문경 대승사(大乘寺)·김룡사(金龍寺)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명 화승 신겸(信謙)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부침과 신겸과의 화연 관계를 엿볼 수 있으며, 이후 신겸이 1821년에 수화승으로 참여해 15명의 화승들과 함께 제작한 <석가설법도>(운양민속박물관 소장)와 <지장보살도(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운양민속박물관 소장)의 화기에서 부침은 신겸 다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그의 화승으로서의 역량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부침은 1797년에 제작한 청송 대전사 청련암(靑蓮庵) <신중도>에서부터 수화승으로 활약하기 시작한다. 이후 부침의 화풍은 19세기 후반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한 화승인 하은 응상(霞隱 應祥)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809년에 제작된 김천 계림사 <괘불도>는 19세기 전반의 불화가 비교적 적게 남아 있는 가운데 특히 18세기 말과 19세기 후반 경북 지역의 불화 제작을 이어주는 부침이라는 화승이 유일하게 제작한 괘불도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의 작품이 전후 시기와 비교해 작품 수가 적은 것은 괘불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또 계림사 <괘불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 한 고장의 관청, 사찰,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후원하여 제작된 대형 의식용 불화로 지역민들의 염원을 잘 담은 불화로, 연대와 제작자가 명확한 의미 있는 작품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우제를 위하여 이 괘불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원 봉안처인 개령 쌍비사 인근 지역은 가뭄보다는 주기적인 침수 피해가 잦았던 곳으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염원을 위한 것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문헌자료

- 이영숙, 「19세기 掛佛 製作의 한 樣相」, 『동악미술사학』 7, 동악미술사학회, 2006
-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 1권,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 고경스님 교감, 송천스님·이종수·허상호·김정민 편저, 『韓國의 佛畫 畫記集』,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 최엽, 「통도사 백련암의 <아미타여래도>와 萬日會」, 『불교미술사학』 19, 불교미술사학회, 2015

<사진자료>



嘉慶十三年己巳六月日畫成

大砲王秋
李邑鄉廉
仕廳
共和堂
司倉
善役所
五房所
刑所
亞星
長房
果房廳
養武王
花田潤
舊校洞
井邊
民村
雜寺
新興寺
高方寺
白雲庵
富源庵
西郊
文義堂
范白
洪學長
校洞金

校洞金
李光遇
李一之
廣汗安益權
金汗龍
妙光全碩夢
從上洞李光迪
井邊金春孫
金世得
金郁
金宗俊
金宗郁
尹守文
朴貴尚
朴宗仁
朴宗龍
李德
申春根
申春銀
辛壽命
金一祿

緣化秋
信菴寺日
證明法師
日菴春閣
贊識
米安
龍眼比丘
富添
如允
都監時僧統勝輝
養王
監取全
童士應天
化王持殿石潭托洪
別堂律信
本寺秋
時僧統勝輝
前僧統包有
幸信
學朋
取金
看旗
尚悅
童子
龍得
富天

此丘勝輝
照察
覺後
通學
金仁甲
全出

奉安于洞寧邊九寺



1) 현황 및 특징

계림사괘불도는 세로 687.8, 가로 319cm의 화면에 독존의 여래입상을 배치한 불화로 1809년 富添과 如允이 제작하였다(도1). 화기에 의하면 嘉慶十三年인 1809년 6월에 조성하여 開寧 雙飛寺⁵¹⁾에 봉안했다고 한다. 여래는 원형의 두광과 모를 줄인 신광을 갖추고 있는데 두광을 포함한 머리 부분이 유난히 커서 화면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정면을 뚫어질 듯 응시하고 있는 눈과 꼭 다문 작고 도톰한 입, 이중으로 처리한 콧망울 등을 표현한 얼굴과 삼각형 모양으로 우뚝 솟은 육계에는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큰 얼굴 아래로 삼도가 표현된 목은 두껍게 표현하였고 목 뒤에 걸쳐서 이어진 의습선은 얼굴 뺨 부분과 이어지게 표현함으로써 어깨가 좁아 보이고 얼굴에 비해 왜소하게 보인다. 왼발과 오른발을八字 형태로 벌린 자세를 취하고 연화 족대 위에 서서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초록색 바탕의 두광은 안에서부터 붉은색, 하늘색, 분홍색의 테두리를 둘렀다. 여래의 신체를 감싸고 있는 신광은 두광과 같은 색으로 이루어진 테두리가 있으며 녹두색의 바탕에 나선형의 꽃잎당초문을 검은색 선으로 가득 메워 넣었다. 테두리 색깔은 佛衣의 붉은색과 하늘색 등 같은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색 배합은 화면 상단 두광을 제외한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옥색 계열로 그려 넣은 彩雲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단독의 여래를 화면 가득 배치한 단순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제작화승은 富添과 如允이다. 부침은 1795년 법주사 대웅보전 신중도, 1803년 직지사괘불, 1818년 봉공사 아미타후불화 등의 제작에 참여하였는데 작품들로 보아 1790년대에서 1820년대까지 활동한 화승으로 생각된다. 1795년 법주사 신중도 제작시 信謙, 廣軒 등과 함께 참여하였고, 1803년 직지사괘불도 제작시에는 濟閑, 偉傳, 正岑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신겸은 상주 김용사 출신 화승으로 1790년경부터 1830년경까지 활동하면서 김용사 주변 사찰 불화 불사에 주로 참여하였던 화승으로 알려져 있다. 위전 역시 법주사 신중도(1795), 직지사 신중도(1797) 제작에 신겸과 함께 참여하고 있어 사불산과 화승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침은 주로 김용사를 중심으로하는 사불산과 화승들과 관련이 깊어 신겸의 제자이거나 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⁵²⁾ 대체로 채도가 낮은 중간색을 사용하고 경직되고 형식화한 필선을 사용하고 있다. 여운은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 않으나 1808년 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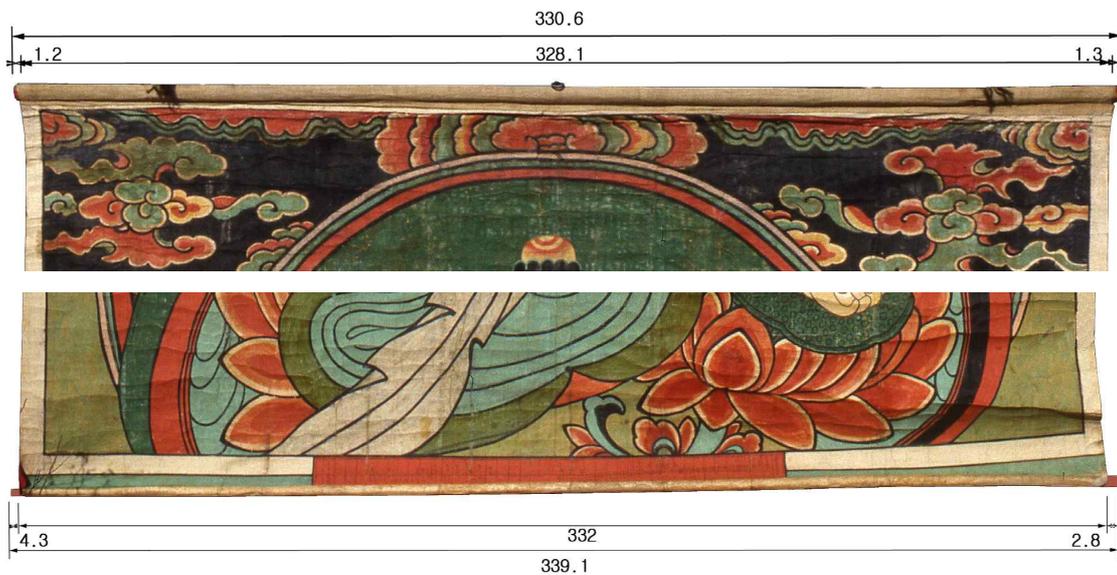
51) 기존 조사에서는 ‘飛’의 초서인 ‘’를 ‘龍’의 약자 ‘龙’으로 판독하여 ‘쌍용사’로 판독하기도 했다.

52) 李英淑, 위논문, pp.382~383.

사괘불도 외에 1818년 봉공사 아미타후불도 제작에 부침을 수화승으로하여 성민, 해운 등과 참여하고 있어 부침과의 畵緣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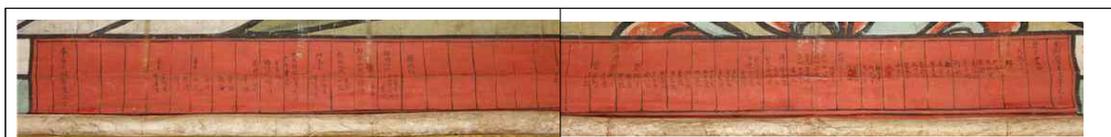
계림사괘불도는 18세기에 유행하던 독존 형식의 도상을 수용하였지만 존상의 표현과 채색기법은 19세기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변화해가는 과도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괘불도 뒷면은 10폭의 삼베를 이어 배접하였고, 바탕지는 세로 128cm, 가로 69cm의 종이 30매를 이어 제작하였다. 괘불축은 상단과 하단을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하단에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축을 만든 점이 독특한데, 바탕면이 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괘불축의 무게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도 2).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해 보이지만 곳곳에 박락과 찢어짐, 꺾임 등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괘불도는 1995년 5월 23일 계림사에서 직지사로 이안되어 위탁보관 중이다.



(도4) 괘불도 상단축과 하단축

2) 화기를 통해본 제작 배경



(도5) 계림사괘불도 화기

<표2> 화기 내용

<p><좌측부분> 緣化秩 / 證明法師 信菴守日 日菴智潤 贊識 / 誦呪 來安 都監時僧統勝輝 / 龍眼比丘 富添 如允 / 供養主比丘 取全 童子應天 / 化主持殿 石潭托洪 別座 幸信 / 本寺秩 時僧統 勝輝 / 前僧統 包有 幸信 / 學朋 取全 / 智演 童子 尙悅 / 龍得 應天 / 負木 金阿只 朴孝三 / 奉安于開寧雙龍寺 /</p>	<p><우측부분> 嘉慶十三年己巳六 / 月日畫成 / 大施主秩 牟邑 鄉廳 / 仕廳 共和堂 司倉 / 畫役所 戶房所 刑所 / 亞星 長房 果房廳 / 養武堂 花田洞 舊校洞 / 井邊 民村 / 雞林寺 新興寺 高方寺 / 白雲菴 窟菴 西部 文義童 / 洪學良 花田 洪龍 校村 金放喆 / 大鳥洞 李光遇 泉洞 朴文亨 李一之 / 廣汗 安益權 金汗龍 妙光 全碩夢 / 從上洞 李光迪 井邊 金春孫 金性得 / 金郁 金宗俊 金宗郁 / 尹守文 朴貴尙 朴宗仁 / 朴宗龍 李億 申春根 / 申春綠 幸壽命 金一祿 / 比丘 勝華 朋察 覺俊 / 日通學 花田 金仁甲 / 全出 / / / / / / /</p>
---	---

(* / 표기는 화기란의 세로칸을 표현하기 위해 임의로 넣은 것임)

『新增東國輿地勝覽』 開寧縣 佛宇條에 의하면 감문산에 계림사, 금오산에 葛項寺와 大兜利寺, 伏牛山에 文殊寺, 甘文山 북쪽에 大陽寺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현의 외곽 산지에 자리잡은 사찰들이다. 함께 참여하였던 사찰인 신흥사와 백운암, 굴암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찰들 중 葛項寺와 大兜利寺, 文殊寺, 大陽寺는 『가람고』 (1799)에는 이미 폐사된 사찰로 나오고 있어 괘불도가 조성되던 19세기 초에는 개령현에 없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계림사는 경북 금릉군 개령면 동부동 감문산 아래에 위치한 사찰로 「甘州雞林寺改建」 (1804)와 1954년 필사된 「雞林寺寺蹟記」 등을 통해 내역을 알 수 있다. 1804년 개건에 사찰의 승려와 일반민들이 힘을 합하여 중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신흥사는 금릉군 농소면 봉곡1동에 위치한 사찰로 신라 흥덕왕 9년에 창건하였다고 하나 그 이후의 내력은 알려져 있지 않고 소실되었다가 1959년에 중창하였다. 고방사는 금릉군 농소면 봉곡동에 자리잡은 사찰로 1689년에 기록된 현판 기문에 신라 눌지왕 2년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으나 법당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인조 14년(1636)에 玉淸山人이 寂默堂을 중건하고 그후 설선당, 청원루 등이 건립되었고 지금의 절은 숙종 45년(1719)에 중창하였다고 한다. 백운사는 금릉군 남면 부상동에 위치한 절로 창건 내력은 알 수

없으나 고종 원년(1864)에 중창하였다고 한다. 굴암은 현재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나 개령현 내에 당시 있었던 암자로 생각된다.⁵³⁾

괘불을 봉안한 사찰인 雙飛寺는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輿地圖書』와 『廣輿圖』, 『梵宇攷』, 『寺塔古蹟攷』, 『開寧縣邑誌』 등의 기록을 통해 18세기 경에 존속하다가 20세기 초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표3> 기록에 보이는 개령현의 사찰들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가람고 (1799)	경상도읍지 개령현읍지(1833)	영남읍지 개령현읍지(1871)
雞林寺	在甘文山	在甘文山 縣北二里	在甘文山邑基後	在甘文山邑基後
葛項寺	在金烏山西新羅高...	在金烏山西葛頃峴,,,今廢	今無	今無
大陽寺	在甘文山北		今無	今無
文殊寺	在伏牛山		今無	今无
大兜利寺	在金烏山		今無	今无
高方寺	在縣南三十里乞水山西	在乞水山 縣南三十里	在縣南三十里乞水山西	在縣南三十里屹水山业
雙飛寺		在金烏山 縣東三十里	在縣東三十里金烏山北	在縣東三十里金烏山业
新興寺			在縣南二十里乞水山西	在縣南三十屹水山业
白雲巖				
窟庵				

시주에 동참했던 사찰들의 현재 위치⁵⁵⁾ 를 고려해 봐도 대부분 개령면, 농소면, 남면에 위치해 있고 현재는 폐사된 쌍비사도 아포면 금오산에 있었던 절이었으므로 대부분 한 지역에 모여 있었던 사찰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도4).

따라서 19세기 초반인 1807년 개령현에 위치해있던 작은 사찰들이 모여서 괘불을 조성한 후 같은 현에 속해있던 사찰인 쌍비사에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에도 전국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불사들이 잇따랐고 인근의 직지사만큼의 큰 사세를 유지하지 못했던 개령현의 사찰들이 함께 괘불을 조성하여 기우제를 비롯한 예수재, 수록재 등 다양한 불교의례를 치르기 위하여 힘을 합쳐 괘불을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53) 李英淑, 「19세기 掛佛 制作의 한 樣相- 雞林寺 괘불의 고찰-」, 『동악미술사학』 제7호, 2006, p.385.재인용.

54) 『開寧縣邑誌』(1899)에는 폐사된 사찰로 나온다. 원 위치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산42-2번지이다. 현재 그 터에는 기도원이 들어서 있으며, 대부분 삭토되어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55) 계림사(개령면 동부리 434), 신흥사(농소면 봉곡리 15), 고방사(농소면 봉곡리 485), 백운사(남면 부상리 640), 굴암(알 수 없음), 쌍비사(금릉군 아포면 화성동 금오산에 있던 절)

17.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

가. 검토사항

‘백자 항아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로부터 ‘백자 항아리’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7.8.28.) 관계전문가 조사(’19.8.27.) 및 과학조사(’19.9.1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
- 소유자(관리자) : 부산광역시(부산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52.6cm, 몸통지름 45.3cm, 입지름 20.5~21cm, 밑지름 19.3~19.5cm
- 재 질 : 백자
- 형 식 : 입호(立壺)
- 조성연대 : 조선 후기(17세기 말~18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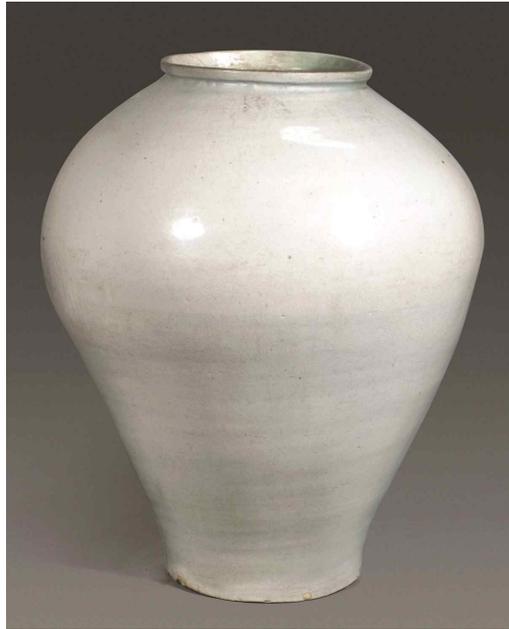


그림 1.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조선시대에 제작된 백자호(白磁壺)는 7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보는 3점이다. 국보 제262호 <백자대호(白磁大壺)>, 국보 제310호 <백자대호(白磁大壺)>, 국보 제309호 <백자대호(白磁大壺)>로 높이는 43.8~49cm이며, 형태는 몸통이 탄력 있는 둥근 모양인 원호(圓壺)로 달 항아리라고도 칭한다. 보물은 4점이다. 보물 1437호 <백자호(白磁壺)>, 보물 1438호 <백자호(白磁壺)>, 보물 1439호 <백자호(白磁壺)>, 보물 1441호 <백자호(白磁壺)>로 높이는 41.0~47.8cm이며, 형태는 몸통이 탄력 있는 둥근 모양인 원호(圓壺)로 달 항아리라고도 칭한다.

조선시대 백자호(白磁壺)는 원호(圓壺)가 많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대부분 지정된 반면 입호(立壺)는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예도 없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白磁大壺)>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높이가 52.6cm 크기의 대형(大形) 입호(立壺)이다. 구연(口緣)과 어깨의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하였으나 완전한 상태이다. 형태는 약간의 비대칭이지만 당당하며, 담청백색(淡淸白色)의 유색(釉色)이 좋다. 유사한 자료로는 일본 민예관(民藝館) 소장(所藏) <백자호(白磁壺)>가 있다. 높이 53.8cm, 몸통지름 43.3cm이며, 유색(釉色)은 담갈백색(淡褐白色)을 띄고 있다. <백자호(白磁壺)>의 우수성은 완전한 상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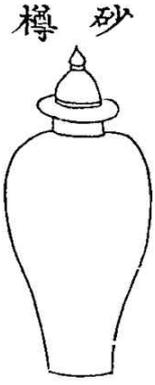
흰색의 유색(釉色)이 기준이 되는데 민예관 소장 <백자호(白磁壺)>는 이와 같은 특징에는 부합되지 못한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白磁大壺)>는 민예관 소장 <백자호(白磁壺)>에 비해 보존상태와 유색(釉色)이 상당히 좋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白磁大壺)>는 완형(完形)이며, 형태는 약간의 비대칭이지만 당당하며, 담청백색(淡淸白色)의 유색(釉色)이 상당히 좋다. 특히 높이가 52.6cm 크기의 대형(大形) 입호(立壺)로 유존예가 거의 없어 희소성이 높다. 따라서 백자대호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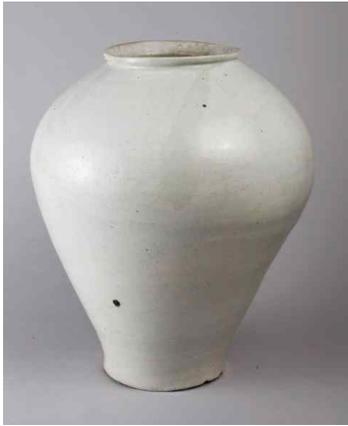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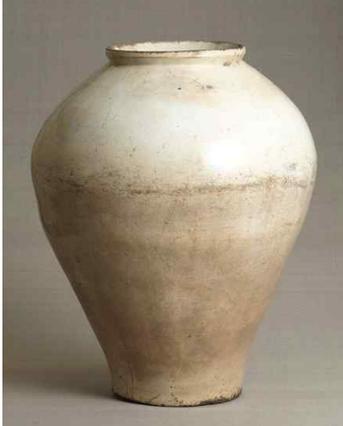
1.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白磁大壺)>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초에 경기도 광주군 소재 분원요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가 52.6cm 크기의 대형(大形) 항아리로 구연(口緣)과 어깨의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하였으나 비교적 완전한 상태이다. 번조과정에서 뒤틀림이 있어 약간 비대칭이지만 대형 기물의 번조가 까다로운 점을 고려하면 현전하는 항아리들 가운데 당당하며 비례도 좋은 편이다.

2. 이처럼 세로 비율이 높아 우뚝한 형태의 항아리를 입호(立壺)라고도 하나 이는 가로 세로 비율이 비슷한 둥근 형태의 항아리들[원호(圓壺)]에 대한 상대적 관용어로서 본래 기물의 명칭은 아니다. 조선시대 의례서들에서는 이같은 항아리를 “준(樽)”이라 했으며 항아리에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 ‘酒樽’ 또는 ‘花樽’ 등으로 명시했다. 이 항아리 역시 크기나 품질 등으로 보아 왕실용 의례나 특수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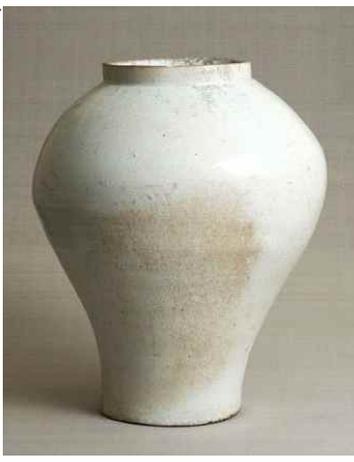
		
『세종실록오례의 (世宗實錄五禮儀)』, 砂樽	원행음묘정리의궐(1759), 花樽	자경전진작정례의궐(1827), 砂樽

3. 비교 자료로는 일본민예관(日本民藝館) 소장 <백자호(白磁壺)>가 있다. 높이 53.8cm, 몸통지름 43.3cm로 규격도 거의 유사하며 유색(釉色)은 담갈백색(淡黃白色)을 띠고 있

다. 하지만 유색과 보존상태등에서 부산시립박물관 <백자대호>가 좀 더 우수하다.

	
<p><백자대호>, 부산박물관 소장 높이 52.6cm, 몸통지름 45.3cm, 입지름 20.5-21cm, 밑지름 19.3~19.5cm</p>	<p><백자호>, 일본 민예관 소장 높이 53.8cm, 몸통지름 43.3cm</p>

4. 구연의 세부형태에는 차이가 있는 같은 시기 백자항아리로는 국보107호로 지정된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백자철화포도문 호>가 있다. 구연부의 형식을 제외하면 가로 세로 비례와 규격이 거의 같으며 제작시기 또한 18세기 초로 추정되어 비교된다. 일본 민예관에도 이와 같은 형식과 크기의 무문백자 항아리가 전하는데 사용흔은 많지만 역시 당당하고 긴장감 있는 형태이다. 그 외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철화운룡문 호> 또한 비교된다. 이 역시 국보107호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서 17세기의 특징인 철화로 운룡문을 그렸다.

		
<p><백자철화포도문 호>,국보 제107호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높이 53.3cm, 입지름 19.4cm, 몸통지름 43.3cm, 밑지름 18.6cm,</p>	<p><백자호>, 일본민예관 소장 높이 54.1, 몸통지름 44.3cm</p>	<p><백자철화운룡문 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57.5cm, 입지름 21.3cm, 몸통지름 46cm,밑지름 17.4cm</p>

5. 지금까지 조선시대 백자가운데 문양이 없는 항아리 종류로서 문화재로 국가지정된 경우는 원호(圓壺, 일명 ‘달항아리’)가 7점(국보 3점, 보물 4점)으로 대종을 이룬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白磁大壺)>는 완형(完形)이며, 형태는 약간의 비대칭이지만 당당하다. 담청회백색(淡靑灰白色)의 유색(釉色)도 좋은 편이다. 특히 17~18세기 무문의 백자항아리 높이가 52.6cm 크기의 대형(大形)기의 경우는 전세품으로도 드물며 지정사례도 거의 없어 희소성이 높다. 따라서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백자대호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는 50cm 이상의 큰 크기와 낮게 사선으로 외반하는 구연부가 특징이다. 이 정도 크기의 백자호가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재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조선 후기 백자호 중에서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와 같은 형태는 없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 보다 다소 늦은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백자철화포도문호>(국보 제 107호)가 높이 53.3cm 정도로 비슷한 크기다. 18세기의 작품인 이대박물관 소장품은 구연부가 낮은 원통형으로 직립하고 동체 하단부의 기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좁아드는 비해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는 구연부가 사선으로 외반하는 17세기 후반 조선 관요백자의 제작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와 직접 비교할 만한 유물은 현재 일본 동경 일본민예관(日本民藝館)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민예관 소장 <백자호>(No.5668)는 높이가 53.8cm이고 동체최대지름이 43.3cm이다. 이 유물은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도판을 통해 확인한 일본민예관 소장 <백자호>는 옅은 회황색이 감도는 백색으로 최대북경 주변으로 유약면에 얇은 흙집들이 있다. 소장처는 해당 유물의 제작시기를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는 조선 후기 백자호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백자대호>는 구연부가 ‘달항아리’와 같은 모양이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위아래로 긴 입호다. 이 유물은 17세기후반에서 18세기초반의 관요백자 제작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자료다. 더욱이 해당 시기에 제작된 백자호 중에 이정도 크기의 백자입호는 현재 남아있는 사례가 매우 적다. 50cm가 넘는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의 크기를 통해 조선 후기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수준이었음도 파악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는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등이 우수하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백자대호(白磁大壺)>는 구연(口緣)과 어깨의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한 것과 굽 접지면의 극히 일부분이 결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완형(完形)이다.

○ 특 징

높이가 52.6cm로 비교적 큰 대형(大形)의 백자호이다. 밖으로 벌어진 도톰한 구연부(口緣部)에서 벌어져 견부(肩部)에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탄력 있는 몸통 상단 부위로 이어지며 저부(底部)로 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간 입호(立壺)형식을 취하고 있다. 유색(釉色)은 담청백색(淡靑白色)을 띄고 있다. 몸통에는 대형 호(壺) 제작 시 사용한 성형수법인 상하 접합기법이 확인되며, 상하 이음새는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다. 내·외면 전체의 시유(施釉) 상태는 좋다. 굽의 접지면(接地面)에는 유약을 시유한 후 모래를 받쳤다. 굽의 안 바닥은 일부 용융(熔融) 상태가 좋지 않다.



○ 현 상

<백자대호(白磁大壺)>는 1972년 2월 (주)동양고무 현수명(玄修明, 1922~1977) 회장이 부산시립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유물번호<寄贈46>으로 관리되고 있다. <백자대호(白磁大壺)>는 구연(口緣)과 어깨의 미세하게 금이 간 부위를 수리한 것과 굽 접지면의 일부가 결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형(完形)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다. 높이 52.6cm로 조선백자 향아리 가운데는 대형(大形)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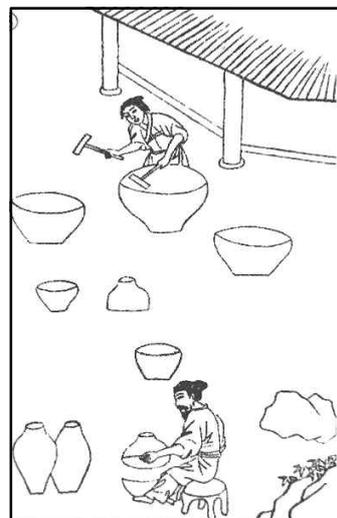
○ 특 징

항아리는 직사선으로 외반된 짧은 구연부(口緣部)을 가졌으며 구연 아래로는 바로 어깨로 이어지면서 풍만한 곡선으로 몸체를 만들었다. 바닥으로 갈수록 굵이 좁아지는데 동체 중앙에서 굵까지는 거의 사선이어서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준다. 유색(釉色)은 담청회백색(淡靑灰白色)을 띠고 있다.

동체 중앙에는 가로로 접합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가소성이 낮은 백토로 기물을 제작하다 보면 한번에 성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상하 따로 만들고 건조시켜 동체를 이어붙이는 접동법(接胴法)을 사용해왔다. 접합부는 내면에 흔적이 있으나 외부는 비교적 정면(整面)을 잘해 매끄럽게 처리했다. 기물 안팎으로 전면 시유(施釉)하여 내부에도 노태된 부분이 거의 없다.

굽 접지면(接地面)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으며 굵 안 바닥 일부는 용융(熔融) 상태가 좋지 않아 유약이 덜 녹아 뭉친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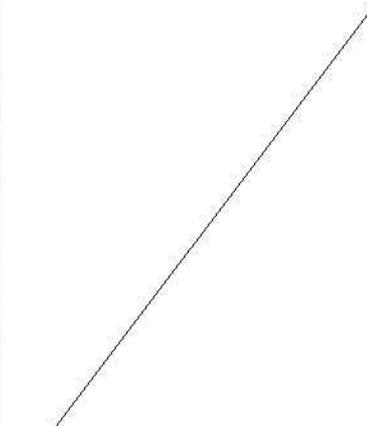
한편, 구연부터 동체 중앙부까지 세로로 약 10cm 길이의 실금이 나있어 안팎으로 수리한 흔적이 있다. 구연부도 약 4군데 정도 보수 흔적이 있다. 굵 주변에는 접지면과 바닥 등 약 6곳에 수리흔적이 있다. 동체 윗부분에 부분적으로 유약이 더 두텁게 입혀져 흘러내린 흔적이 있으며 pinholeeh 여러 곳에 생성되어 있다. 번조시에는 갑발을 사용하지 않은 듯 곳곳에 가마에서 튼 듯한 철반점들이 보인다. 그 외 전면엔 잔빙렬이 나있고, 표면에는 가는 균열도 곳곳에 보인다. 전체적으로 사용흔이 많고 그 결과 유면이 마모된 곳이 적지 않다.



*宋應星,〈天工開物〉,17세기 明, 접동법으로 항아리 만드는 과정

<백자대호(白磁大壺)> 세부 특징



<p><백자대호(白磁大壺)>,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높이 52.6cm, 몸통지름 45.3cm, 입지름 20.5~21cm, 밑지름 19.3~19.5cm</p>	<p><백자대호(白磁大壺)> 구연</p>	<p><백자대호(白磁大壺)> 굽</p>
		
<p><백자대호(白磁大壺)> 동체 내부 접합부 현황</p>	<p><백자대호(白磁大壺)> 굽 접지부 수리후 도색</p>	<p><백자대호(白磁大壺)> 구연부 수리후 도색</p>
		
<p><백자대호(白磁大壺)> 동체외부 수리 도색</p>	<p><백자대호(白磁大壺)> 굽 결실부</p>	



○ 현 상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는 높이가 52.6cm의 대형 입호(立壺)이다. <백자대호>는 입지름 21.3~21.5cm, 동체 최대지름 45.3cm, 굽지름 19.1cm이며 최대복경 부분의 기벽 두께가 0.9cm 정도이다.

<백자대호>는 구연부가 사선에 가깝게 외반한다. 구연의 외측면은 각지게 깎았고 내측면은 매우 완만한 곡선으로 마무리되었다. 구연부는 목 없이 동체와 바로 연결된다. 동체의 기측선은 곡선으로 벌어져 내려 동체 상단부 약 1/3 정도에서 최대지름을 이룬다. 그 아래로 이어진 기측선은 사선에 가깝게 좁아들다가 저부로 이어진다. 굽은 테두리 일부만 남기고 안쪽을 파내는 방식으로 제작했으며 굽 테두리 안쪽의 깊이는 약 0.7cm이다. 접지면은 폭이 일정하며 저부 전체를 시유한 다음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유물의 접지면에는 번조과정에 받친 모래를 갈아내거나 약간 굴곡진 곳을 회색의 보강재로 완충한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이러한 흔적은 현대에 <백자대호>를 세워둘 때 기울기를 맞추기 위한 보강재로 파악된다.

<백자대호>는 최대복경 부근에 위아래 동체를 이어붙인 흔적이 있다. 이 작품은 그릇이 구워지는 과정에 동체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나 전반적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조선시대 백자호 중에는 위아래 동체를 따로 만든 다음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높이 30cm이상의 중대형 그릇들은 이러한 제작 특징이 더욱 뚜렷하여 그릇의 외면에 동체를 이어붙인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동체를 이어붙이는 기술은 조선 전기부터 백자호를 제작하는 과정에 활용되었으며, 높이 20cm 이하의 중소형 호에도 동체를 이어붙이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저부에서부터 구연부까지 하나의 점토로 물레성형하는 것보다 동체를 이어붙이는 것을 효과적인 향아리 제작방식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백자대호>의 유색은 전반적으로 옅은 유백색이며, 동체 전체에 광택이 있는 유약이 시유되었다. 유약이 두껍게 시유된 작품의 윗부분은 담청색이 감도는 백색이 강하며, 유약이 얇게 시유된 아래쪽은 대체로 유백색을 띤다. 일부 유약이 얇게 시유된 곳은 태토의 색인 밝은 백갈색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곳도 있다. 그릇의 내외면에는 태토 속의 철분이 그릇이 구워지면서 만든 작은 철반점(鐵斑點)이 몇 개 있다. 작품의 외면 최대복경의 일부 구간에는 제작과정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유약의 걸어짐 흔적도 일부 남아있다.

56) 김규림, 「조선 17~18세기 백자원호(白磁圓壺)의 조형과 성격」, 『한국문화연구』34(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pp. 153-180.

<백자대호>는 구연부 4곳에 작은 수리흔이 있고 동체 일부에 구연부에서 최대복경 부근에 이르는 실금이 한 줄 남아있다. 그 이외에 동체는 수리, 복원의 흔적 없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릇의 표면에 눈에 띄는 상처나 깨어진 것은 없으나 구순부와 최대복경에는 사용흔적으로 간주되는 미세한 흠집이 다수 남아있다. 이러한 흠집들은 이 그릇이 단순 감상의 목적 이외에 일상에서 실제 사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준다.

○ 내용 및 특징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는 조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 사이에 경기도 광주 관요(官窯)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 운영된 관요 가마터 중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경기도 광주시 신대리, 궁평리 등의 가마터에서는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와 구연부의 형태가 유사한 백자호편이 여러 점 확인되었다.⁵⁷⁾

관요 이외에 경기도 가평군 하판리(下板里) 가마터에서도 구연부가 사선으로 낮게 외반하는 백자호들이 일부 제작되었다. 그러나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와 구연부의 형태가 유사한 하판리 가마터의 백자호들은 대부분 동체가 둥글다.⁵⁸⁾

조선시대 백자호는 국가의 의례와 연향에서부터 개인의 식생활에까지 두루 쓰였다. 『세종실록』 「오례」나 각종 의례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향아리는 주해(酒海), 준(樽 혹은 尊), 항(缸) 등으로 불렸다. 조선시대 백자호는 포괄적인 쓰임만큼이나 크기와 모양이 여럿이다. 백자호는 보통 위아래로 길쭉한 입호(立壺)와 동체가 둥근 원호(圓壺)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 17세기 후반에는 원호의 제작이 증가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백자원호는 ‘달향아리’라고도 불리며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왕실과 일부 사대부 집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백자원호의 구연부는 대부분 사선으로 외반하며 외면은 각지고 내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제작된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의 구연부 역시 이러한 형태이지만 동체는 위아래로 높게 제작된 입호이다.

현재 확인되는 조선 후기 입호는 대부분 구연부가 직립한다. 조선 후기 백자호의 구연부는 주로 원통형이며 18세기에 제작된 백자호의 구연부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19세기에 만든 백자호는 구연부가 대체로 앞선 시기에 비해 높아진다.

57)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신대리 18호 백자가마터』(2008), pp. 64-66; 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6차 시굴조사 약보고서」(2018), p. 33.

58) 경기도자박물관, 『가평 하판리 백자가마터』(2009), pp. 7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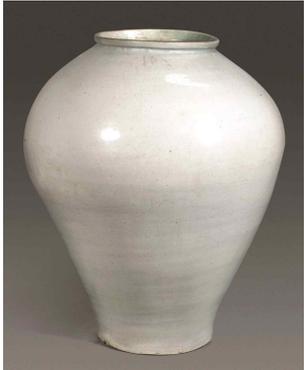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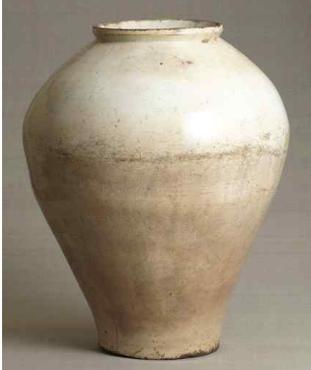
유 물 명	<백자대호>	<백자호>(No.5668)	<백자철화포도문호> (국보 제 107호)
도 판			
크 기	높이 52.6cm, 최대복경 45.3cm	높이 53.8cm, 최대복경 43.3cm	높이 53.3cm, 최대복경 43.3cm
제작시기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18세기 전반
소 장 처	부산박물관	일본민예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표 15.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대호>와 조선 후기 주요유물 비교

18.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솥
(金海 大成洞 二十九號墳 出土 靑銅甗)

가. 검토사항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솥’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8.2.26.) 관계전문가 조사(’18.8.1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솥(金海 大成洞 二十九號墳 出土 靑銅甗)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높이 18.2cm. 동체 높이 16.3cm.
입지름 13.0cm×13.5(손잡이사이부분) cm.
손잡이 높이 25.4mm. 손잡이 전체 폭 60.5mm. 손잡이 내부폭 26.2mm.
바닥 지름 9.0 ~ 9.5 cm. 무게 1,442.2g
- 재 질 : 청동
- 조성연대 : 기원전 2세기~기원후 4세기 추정
- 형 식 : 밑이 평평한 항아리형태의 그릇 구연부 양쪽에 둥근고리가 붙어 있어 걸어 놓고 끓이는 형태의 그릇

○ 제작지 : 중국의 내몽고(오로도스), 몽골 등 북방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



그림 1.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이 유물은 초기 금관가야의 왕권의 성장,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나타난 장송의례, 북방지역과의 교섭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 기물의 생산지가 가야와는 무관하다는 점, 이와 유사한 동북이 유라시아 전체에 걸쳐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 여타 동북에 비하여 제작기술과 조형미가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지정할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3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출

토된 동복(銅鍔)으로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북방 유목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삼국시대 초기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유물의 출토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청동술은 북방 유라시아 일대에 널리 분포한 고대 북방 유목민족의 이동식 취사도구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몽골의 흥노족 무덤이나 중국 북방 선비계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형식적으로 친연성이 많아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동복들은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삼국시대 초기에 해당되는 고구려나 부여 및 백제 유적에서도 발견되어 삼국시대 초기 한중 문화교류나 청동술의 이동경로를 밝힐 수 있어 기술사적 의미도 있다.

다만 출토 유적인 대성동 29호분이 후대에 계속 분묘를 조영하여 유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도굴 등으로 인해 유물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청동술의 경우 출토 당시부터 국내 현존하는 다른 유물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나 구조기술이나 조형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제작지나 제작연대 및 유물의 성격 등에 있어 학계의 이견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점으로 보아, 이 청동술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 1) 이 청동술은 1990년 9월 3일부터 1991년 4월 14일까지 경성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김해 대성동고분군 2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대성동 29호분의 목곽 중앙부에서 눕혀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 2) 전체적으로 약간 찌그러져 있고, 한쪽 손잡이 근처의 구연부가 파손되어 균열이 있다.
- 3) 이 유물의 특징은 밑이 평평한 항아리(물독) 모양의 형태에 구연부 양쪽에 반원형의 납작한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 바닥에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얹어 사용하는 일반술과 달리 높게 걸어놓고 사용하는 형식으로 주로 부여 등 북방지역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 4) 규모는 전체 높이 18.2cm, 동체 높이 16.3cm, 구경 13.0cm, 손잡이 높이 2.54cm, 저경 9.0-9.5cm, 무게 1442.2g이다.
- 5) 이 유물은 가야시대 초기문화 성격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나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도 않고, 용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명확하지 않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솥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보기 드문 북방계 청동솥인 동복(銅鍔)으로, 삼국시대 초기 문화의 성격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몽골의 흥노 무덤 출토품들과 형식이 상당히 유사한 예로서,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유물이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동복들은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야 유적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초기의 다른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몽골 및 중국 동북방의 흥노 및 선비계 유적에서는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또한 출토 유적인 대성동 29호분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후대 유구에 의해서 파손되기도 하고, 도굴을 당하기도 하여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청동솥 자체의 주조기술이나 상태는 비슷한 다른 국내 출토품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같은 계통의 청동솥들 중에서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다. 또한 제작지나 제작 연대 및 출토 유적 연대와의 상관관계 및 유물 자체의 용도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아서 그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청동솥은 가야 유물을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29호분과 47호분에서 출토한 청동솥(동복) 1건 2점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민족들의 취사 또는 저장·의례용기로 사용된 것들로서 금관가야와 북방지역과의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유물이지만, 금관가야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유물로 보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파손 결실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장기간 매장되어 있으면서 토압에 의해 동체가 찌그러진 상태이며 구연부에 균열이 생겼다. 제작과정에서 범을 합하여 주물을 부었던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고

방형의 형지 흔적이 동체와 저부에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주조 기술의 수준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 내용 및 특징

술 중에서 鍍의 사전적 의미는 “아가리가 오그라진 술”이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이동과 휴대에 간편한 조리용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활발한 기마 유목민족들이 주로 사용한다. 유라시아 동부에서는 중국, 한반도, 일본에서 발견되며 서로는 흑해 연안과 동유럽에 걸쳐 초원길을 따라 널리 퍼져 나갔다. 재질은 청동제와 철제가 있어서 전자는 동복, 후자는 철복이라고 부른다.

내부에서 동물의 뼈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취사 조리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사용 방법은 귀에 줄을 걸어서 나무에 현수한 후 아래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목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동복은 제의와 무덤 부장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복이 많이 사용된 곳은 오르도스-몽골 일대이고 구연부에 반원형의 귀가 2개 달리는 공통성이 있다. 이를 오르도스형 동복이라고 부르는데 저부에는 대각이 달린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흉노족과 선비족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여의 무덤인 유수 노하심에서는 대각이 달린 동복이 출토된 바 있다. 한편 이보다 조금 늦은 3-4세기 단계가 되면 귀에 돌기 모양의 장식이 많이 부착된 형식이 크게 유행하는데 이는 훈족(Huns)과 돌궐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복과 철복은 한반도 서북지방의 낙랑 유적과 동남부 가야권에 집중되어 있다. 낙랑지역에서 발견된 동복 청동 시루와 세트를 이룬 것이 있는데 동복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이질적이어서 이 지역에서 자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유물은 일본에서도 발견되었다. 철복의 경우 역시 이 지역의 고유한 토기인 화분형 토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현지 생산의 가능성이 높다. 경주 사라리 132호 분묘에서 매장용으로 부장된 철복도 서북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덤의 연대는 2세기 무렵으로 판단되며 피장자는 지역 최고 수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마 유목민족의 기물인 철복이 외래 기성품으로서 지역 수장묘에 부장된 경우인데 진귀한 희소품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동복이건 철복이건 복을 사용한 조리 취사문화는 한반도와는 무관하고 북방의 유목 기마문화권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활발한 교섭에 의해 원거리를 이동하여 한반도에 유입되고 사용 후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동남부에서는 김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양동리 235호묘, 대성동 29호묘와 47호묘에서 발견되었다. 형식적으로 모두 오르도스식 동복에 속한다.

○ 문헌자료

- 申敬澈 外, 2003, 「金海大成洞古墳群 III - 展示館敷地の發掘調査 및 47・52號墳」, 慶星大學校博物館.
-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鍔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 李海蓮, 2006, 「銅鍔에 대하여」,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刊行委員會.
- 정우열, 2011b, 「銅鍔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 銅鍔研究 (1) -」, 『해동문화논총』 창간호, 해동문화연구원.
- 張恩晶, 2013, 「匈奴系 銅鍔의 製作과 擴散」, 『中央아시아 研究』 18-2, 중앙아시아학회.
- 李海蓮, 2014, 「匈奴・鮮卑 銅鍔의 특징과 변천」, 『고고광장』 14, 부산고고학회.

○ 기 타

정식 발굴조사(1990-1991년 경성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대성동 2차 조사)에 의한 출토품이다.

대성동 29호분은 묘광 추정 길이가 960cm에 이르는 장대한 고분으로서 이른바 II류 목곽묘로 정의된다. 영남지역에서 王者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최초의 고분으로 간주된다. 영남지역에서 목곽묘가 출현한 것은 2세기 무렵이며, 이 I류 목곽묘는 판자나 각재를 조립하여 만든 것이다. 가깝게는 한반도 서북지방, 멀리는 중국 漢代 목곽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반면 3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II류 목곽묘는 목곽묘라는 묘제로는 I류 목곽묘와 동일하지만 평면형, 유물부장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현저한 차이는 통나무를 결구하여 만드는 구조, 그리고 도질토기의 다량 부장, 순장의 실시, 위세품의 부장, 이른바 북방계 유물의 존재 등이다.

이런 이유로 II류 목곽묘는 변한의 구야국에서 금관가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표지적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그 원류가 멀리 북방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여계 집단이 남하하여 금관국을 건립하였다는 일종의 기마민족 정복국가설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나 대성동 29호분의 구조와 장법, 부장품에서 북방적인 요소가 농후함은 사실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동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X-ray 사진에 나타난 형지 흔적

□

○ 형 식

청동술은 바닥에 굽이 없고 바닥지름보다 입지름이 넓으며, 좁은 어깨부터 구연부까지 1쌍의 반구형[半圓形] 손잡이를 대칭으로 붙인 물독 형태의 술이다. 이러한 형식의 술은 청동기시대 유라시아 대륙 북방 지역에서 유목민족들이 사용했던 이동식 술의 일종으로, 흔히 ‘동복(銅鍔)’이라고 부른다. 동복은 굽다리의 유무, 몸통의 장식 유무, 손잡이의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바닥에 다리나 굽이 없고, 몸통이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며 상하가 깊고 장식이 없으며, 구연부에 달린 1쌍의 손잡이가 직각형이 아닌 반구형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다. 이와 형식의 청동술은 몽골의 흥노족 고분이나 중국 동북지방의 선비족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친연성을 보이며, 국내에서는 김해 대성동 고분 47호분, 경북 경주 입실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숭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 출토품이 알려져 있고, 북한에서는 평양 출토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품, 함경남도 소라리 출토품, 출토지 미상 북한 소장품 등 10여 점이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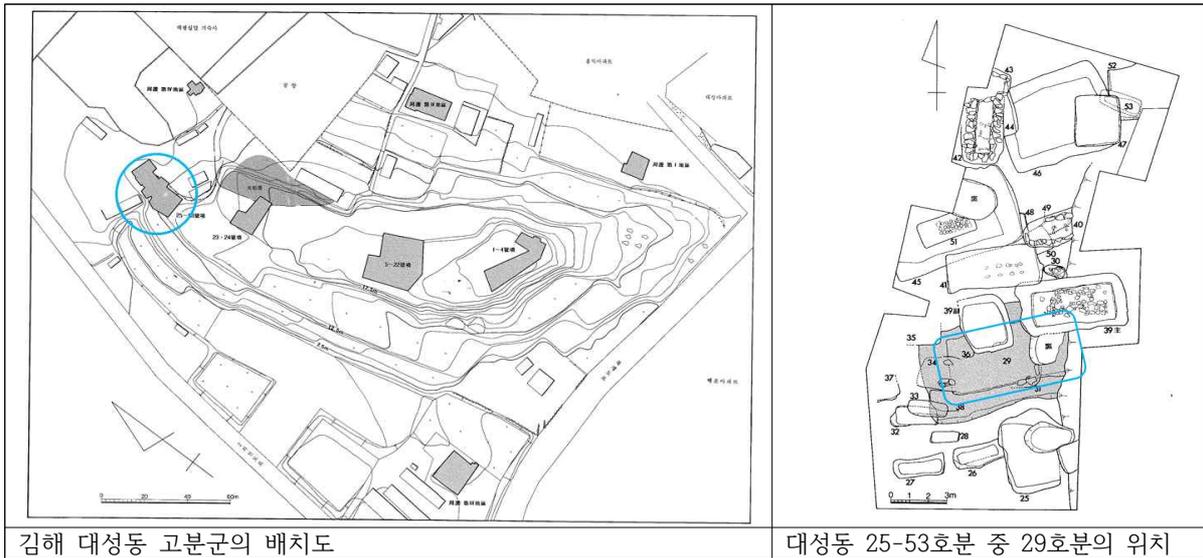
○ 조성연대

이러한 형식의 청동술은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지의 선비족의 유적에서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후 3세기경까지 유행했던 형식이다. 이 동복이 출토된 대성동 29호분은 공반 유물로 미루어 3세기 경의 고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청동술의 제작 연대로 비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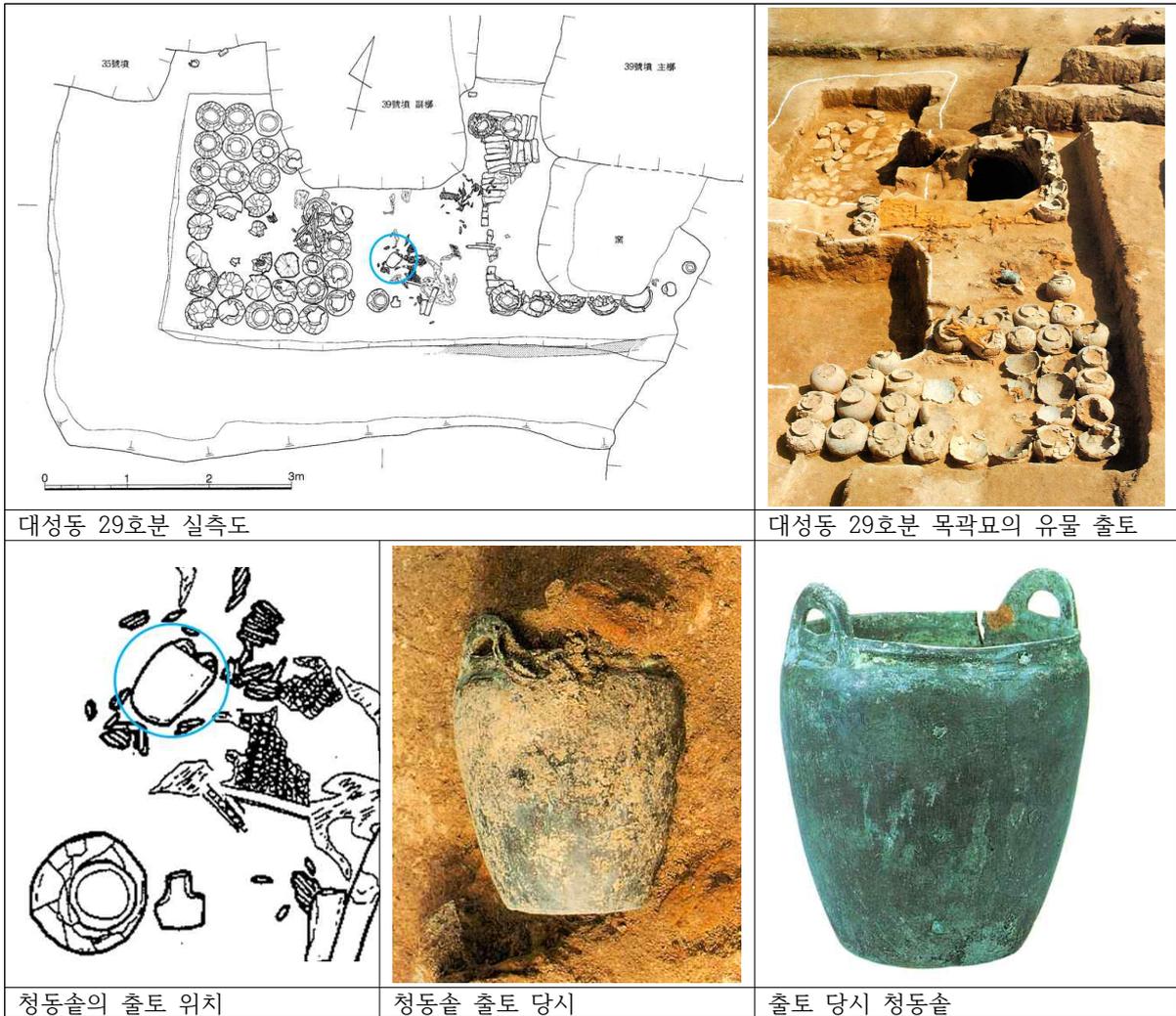
○ 출토 현황

1990년 9월 3일부터 1991년 4월 14일까지 경성대학교박물관에서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성동 29호분은 그 위쪽에 33호분, 34호분, 35호분, 38호분 등 4기의 분묘가 후대에 축조되었고, 동북쪽에 39호 목곽묘의 주부곽이, 동쪽으로 조선시대 기와가마[瓦窯]가 조성되어 동쪽의 유물 부장처는 거의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다. 대성동 29호분은 남동쪽 바닥에 15cm 전후의 점토대가 확인되고 그 위에 판재로 길이 640cm, 너비 320cm의 목곽을 둔 것으로 목곽분 형태이다.



유물은 출토 상태로 미루어 볼 때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되어 부장되어 있었다. 피장자의 머리는 파괴된 동쪽 부분에 두고 있었고, 서쪽에는 와질 단경호를 동서 6열, 남북 8열로 나란히 열을 지어 정연하게 놓아 두었다. 유적의 중앙 부분 또한 심각하게 도굴되었는데 청동솥은 중앙 부분에 놓혀진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그 주위로 철촉류와 철도끼류가 부장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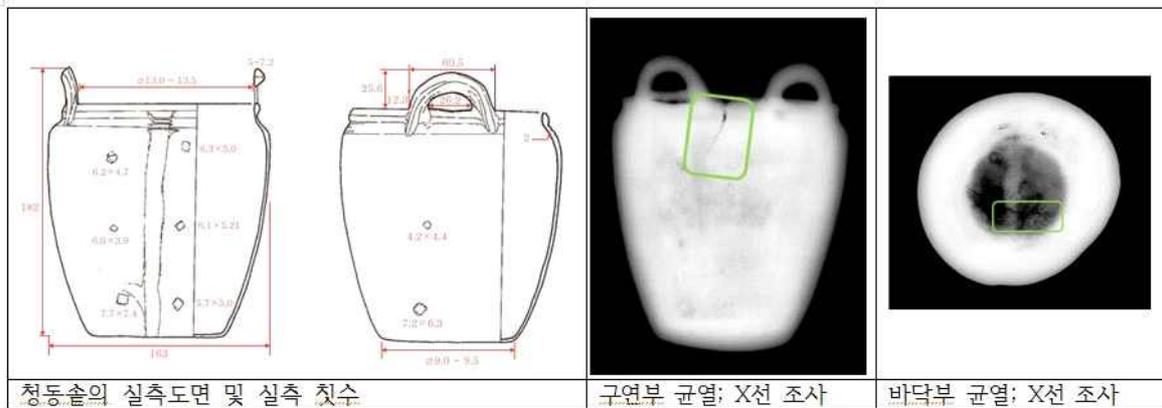


본 유물은 발굴 당시 흙에 짓눌려 전체적인 형태는 약간 찌그러진 상태로 출토되었지만,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며 보존처리를 한 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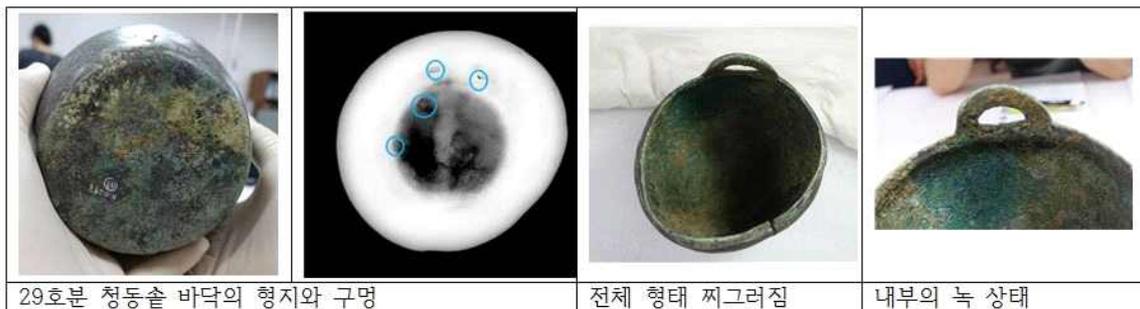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청동술은 구연부에 반구형의 귀처럼 생긴 손잡이가 1쌍 붙어 있는 형태이다. 그릇의 전체 높이는 18.2cm, 몸체의 높이는 16.3cm, 입지름은 13.0-13.5cm, 바닥 지름은 9.0-9.5cm이다.

청동술은 구연부에서 몸통으로 비스듬하게 균열이 가 있다. 그릇의 내부에는 먼지가 많으며 부식이 심한 편이며, 현미경 조사 결과 술 바닥에도 갈라진 균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술의 몸통 부분[胴體部]은 주조한 다음 손질하지 않아서 주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육안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한쪽 면에서 6개, 다른쪽 편에서 2개 등 방형의 형지(型持) 자국 8개를 확인할 수 있다. 형지 자국은 작은 방형이며, 각 자국의 크기는 약간씩 다르다. 한쪽에 나란히 줄지어 위치한 6개 크기(6.2X4.7, 6.0x3.6, 7.7x7.4, 6.3x5.0, 6.1x5.2, 5.7x5.0mm)와 반대편 2개의 크기(4.2x4.4, 7.2x6.3mm)는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6x5mm 내외인 것을 알 수 있다. X선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보면 그보다 많은 숫자의 형지 자국이 확인되며, 바닥 부분에도 형지 자국을 볼 수 있다. 형지 자국 중 하단 아래쪽 5.7x5.0mm 부분의 것에는 4.2x1.4mm 크기의 미세한 구멍도 뚫려 있었다.



몸체 부분의 경우 상하[縱] 방향으로 마연하였으며, 구연부와 양 손잡이 부분의 경우에는 좌우[橫] 방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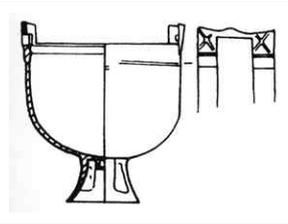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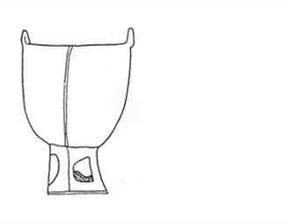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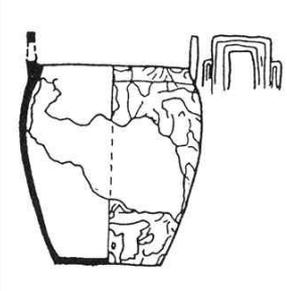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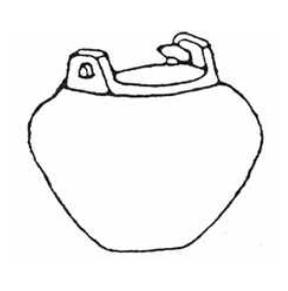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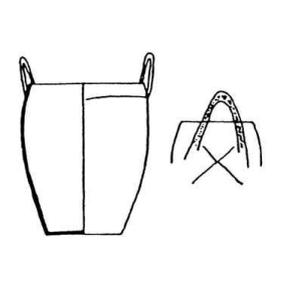
1쌍의 손잡이는 폭이 좁은 어깨부터 낮은 구연부에 맞붙여 세워져 있는데, 손잡이 길이는 60.5mm, 높이는 25.6mm이다. 구연부에서 올라온 손잡이의 내부 높이는 12.3mm. 손잡이 내부 너비는 26.2mm이다. 술의 두께는 2mm이고, 구연부의 두께는 5mm이다. 대체로 주조가 고르지 못하고 표면에 기포도 발견되며 내부의 발생한 녹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조 기술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아가리가 넓고 몸통 아래가 좁은 항아리 모양의 형

태이고 구연부 양쪽에 납작한 반구형 손잡이가 달린 형태의 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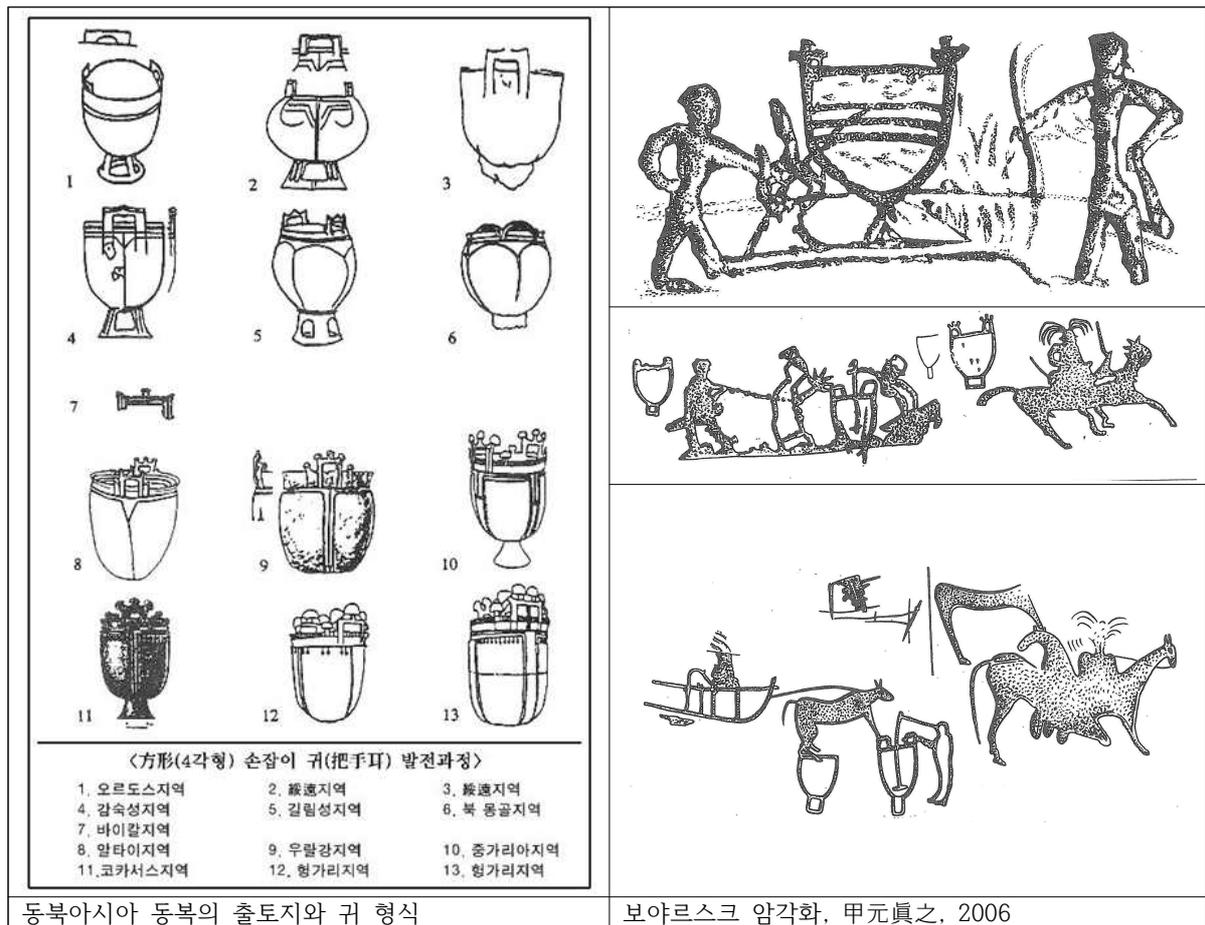
북(鍔)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가리가 넓고 몸통이 둥글고 키가 높아 유목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지지대에 걸어 사용하거나 행군할 때 휴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후대의 가마솥[釜]이 아가리와 몸통이 넓고 키가 낮아 고정식 화로에 올려놓은 것과 비교된다. 재료에 있어 구리로 만든 청동북과 함께 쇠로 만든 철북(鐵鍔)도 있다.

중국에서 출토된 유물을 대각의 유무와 귀의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을 나눴는데, 1형은 대각이 있고 구연에 方形耳가 붙은 것, 2형은 대각이 있고 구연에 半圓耳가 붙은 것, 3형은 대각이 없고 方形耳가 붙은 것, 4형은 대각이 없고 半圓耳가 붙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전세유물로는 평양 부근에서 채집된 것과 송실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이 있지만 김해 대성동 29호분과 47호분 출토 청동솥은 대각이 없고 반구형의 귀가 붙은 4형식의 선비계 동북에 해당된다.

<small><중국 출토 동북의 형식구분>, 이해런, 2014, 흉노선비동북</small>			
1형 : 대각 유 / 방형 귀		2형 대각유 / 반구형 귀	
			
몽골 도르닉 나르스 4호묘	內蒙古 伊盟 烏審旗 北魏窖藏	遼寧省 北標縣 喇嘛洞	遼寧省 朝陽縣 袁台子墓
3형 : 대각 무 / 방형 귀		4형 : 대각 무 / 반구형 귀	
			
內蒙古 東勝縣 補洞溝墓葬	遼寧省 北票西官營子鄉馮素弗墓	內蒙古 卓資縣 石家溝墓群	遼寧省 北標縣 喇嘛洞

이렇게 입이 넓고 바닥이 좁고 깊은 항아리 형태의 몽골 흉노고분 출토 동북 중에 동물뼈가 가득 들어있는 채 발견된 것이 다수 있어 북방 유목민족들이 음식을 지을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사용한 용기들을 함께 매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르도스 지역과 화북 지역 및 만주 지역에서 출토된 동북의 용도에 대해 샤먼의 제기 또는 상류계층의 의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목민족들이 취사용구나 이동식 그릇으로 사용하든,

동복을 파괴하여 무덤에 함께 묻은 부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정확한 용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청동술은 중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낙랑시대에 중국 한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내에서 확인된 동복은 ①평양지역 출토 1건, ②함남 소라리 출토 1건(북한), ③황해남도 출토(철북) 1건, ④북한 출토(지역미상) 2건, ⑤조선총독부 박물관 소장 1건(일제강점기), ⑥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출토 철북 1건(청주 백제유물전시관소장), ⑦경주 입실리 수습 1건(송실대 박물관 소장), ⑧김해 대성동고분 출토 29호분과 47호분 2건, ⑨김해 양동리고분 출토 1건 등 총 9개 사례 10건에 불과하다.

이중 대성동 29호분과 47호분 출토품처럼 대각이 없고 반원형 귀[편볼록렌즈형]를 가진 동복에 대해 신경철은 길림성 북부와 흑룡강성 남부에 분포하는 오르도스형 동복으로서 이를 통해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부여족이 남하 이주한 결과로 보아 부여계 문화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신경철, 2000] 이해연은 우리나라 동복을

①김해 대성동고분출토품, ②김해 양동리고분출토품, ③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품 (경주 입실리 출토품), ④평양박물관 소장품 등의 4가지로 정리하였고, 이중 김해 대성동 출토품은 후한 말기에 요녕성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고구려와의 직접 연결은 곤란하다고 보아 북방문화의 김해지역 이입으로 보았다.[이혜연, 2003]

				
평양출토 동북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품)	함경남도 소라리 출토, 북한 소장	출토지 미상 북 한 소장 동북	경주시 입실리 출토 동북, 숭실대박물관 소장	충북 청주 신봉 동 백제고분군 출토

따라서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전형적인 중국 동북 지방의 북방식 동북(銅鍍)의 하나로서 해당 지역에서는 기원 전 2세기경부터 기원 후 2세기경까지 유행 하는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매우 이른 시기인 3세기의 고분에서 북방 유목민족 문화와 연관성을 가진 금속공예품이 발견된 사례여서 중요하다.

○ 기 타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후대에 여러 개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옹기가마가 조성되면서 심하게 훼손되었고, 해당 유물이 위치한 중앙 부분은 도구를 당한 상태였다. 전체적인 부장 상태가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 주위에서 철촉과 철부 등과 함께 공반 출토되었다. 청동술의 제작지와 제작연대, 용도 등에 논란이 있으며, 선비계 동북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이것이 선비족과 직접 교류된 것인지 고구려의 영향인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출토 후 보존처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차 조사는 2018년 8월 13일, 제 2차 조사는 2019년 8월 19일 진행하였고, X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다만 청동제 유물의 경우 과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 등지에서 제작된 것들과 다른 성분을 지녔다는 것이 확인되고, 형식이나 양식에 대한 조사를 보완한다면 제작지가 밝혀질 수도 있다고 보아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申敬澈·金宰佑,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I - 13·18·29號墳」, 慶星大學校博物館.
- 申敬澈,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각국사의 재조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가야사학술심포지움.
- 李道學, 1995.2, 「銅鍍文化的 移動과 금관가야의 탄생」, 『우리문화』.
-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鍍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 李海蓮, 2014, 「匈奴·鮮卑 銅鍍의 특징과 변천」, 『고고광장』 14, 부산고고학회.
- 張恩晶, 2013, 「匈奴系 銅鍍의 製作과 擴散」, 『中央아시아 研究』 18-2, 중앙아시아학회.
- 정우열, 2011, 「銅鍍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 銅鍍研究 (1) -」, 『해동문화논총』 창간호, 해동문화연구원.
- 정우열, 2011, 「東北아시아의 銅鍍연구 - 한반도출토 銅鍍과의 비교를 검하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 상

대성동 29호분의 목곽 중앙부에서 눕혀진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찌그러져 있고, 한쪽 손잡이 근처의 구연부가 파손되어 균열되었다. 전체적으로 거칠고 투박하다.

○ 내용 및 특징

이 청동술은 전형적인 북방식 동북으로 김해 대성동29호분 출토유물이다. 밑이 평평한 향아리(물독) 모양의 형태에 구연부 양쪽에 반원형의 납작한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 바닥에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얹어 사용하는 일반술과 달리 높이 걸어놓고 사용하는 형식으로 주로 부여 등 북방지역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 문헌자료

- 申敬澈·金宰佑,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I -13·18·29號墳-」, 慶星大學校博物館.
-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鍍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 형 식

두 개의 손잡이가 어깨부분에 대칭으로 달린 향아리 모양의 청동제 술으로, 보통 “동북(銅鍍)”이라고 한다. 이다. 이러한 형식의 술은 청동기시대 유라시아 대륙 북방 지역에서 유목민족들이 사용했던 이동식 술의 일종으로, 동체나 손잡이, 다리



도 1.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동북.

등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대성동 29호분 출토 동북은 바닥에 다리나 굽이 없고,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형태의 슬 형식이다(도 1).

이와 유사한 형식의 동북은 몽골의 흉노시대 고분이나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북조 지역의 선비(鮮卑)계 유적 등에서 다수 출토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해 대성동 고분 47호분, 김해 양동리 235호분, 경북 경주 입실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 출토품 등이 알려져 있다.

○ 조성연대

이러한 형식의 동북은 대부분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후 3세기경까지 유행했던 형식이다. 이 동북이 출토된 대성동 29호분은 3세기 경의 고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3세기경의 유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원전후 시기의 유물이 전세된 것이라는 학계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성연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현 상

1990년 9월 3일부터 1991년 4월 14일까지 경성대학교박물관에서 시행한 김해 대성동고분군 2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대성동 29호분의 목곽 중앙부에서 눕혀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발굴 당시 토압에 의한 타인지 전체적으로 약간 찌그러져 있고, 한쪽 손잡이 근처의 구연부가 파손되어 균열이 있다(도 2). 균열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릇 내부는 먼지가 많고 부식이 심한 상태이지만, 아주 보존상태가 나쁜 편은 아니다. 발굴 이후 특별히 보존처리나 과학적 조사를 시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체부의 표면은 주조한 후에 그다지 손질하지 않아서 주물흔이나 마연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흔적들로 보아 합구식 범을 사용하여 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안으로는 한쪽 편에서 6개, 다른쪽 편에서 2

개 등 8개의 방형 형지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도 3). 형지 자국은 각각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6 x 5 mm 내외의 방형이다. X선 사진에 의하면 그보다 좀 더 많은 수의 형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바닥 부분에도 형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도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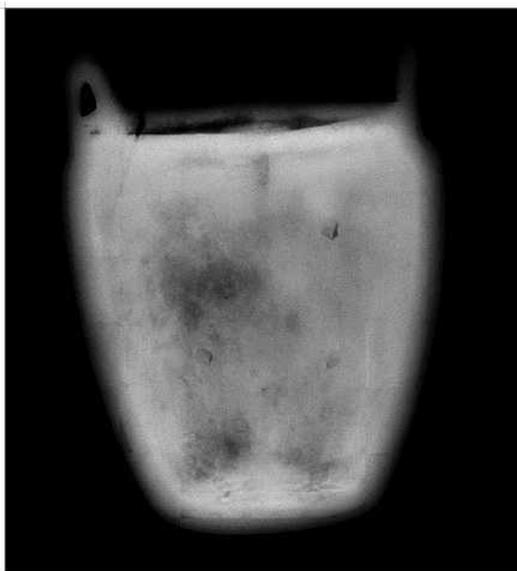
도 2. 구연부의 균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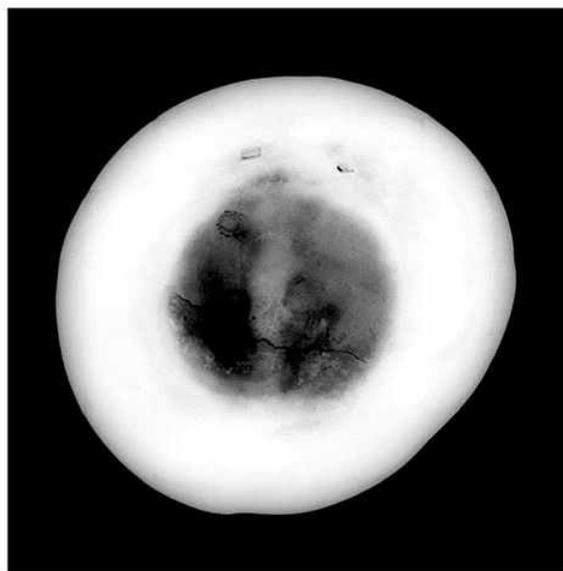
도 3. 동체부의 방형 형지 세부.

전반적으로 주조가 고르지 못하고 표면에 기포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조 기

술이 그다지 뛰어난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 4. 동체부 측면 X선 사진.



도 5. 동체 바닥 X선 사진.

○ 내용 및 특징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전형적인 북방식 동북으로,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후 2세기경까지 몽골의 흉노 고분이나 그 이후 중국 동북지역의 선비계 문화권 유적에서 종종 출토되는 동북들과 같은 형식이다. 북(鍔)은 일반적인 후대의 가마솥들과는 달리, 아가리가 크고 동체 아래 부분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항아리(물독) 모양의 형태에 구연부 양쪽에 반원형의 납작한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형태의 술이다. 동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가끔 철로 주조해서 만드는 철북(鐵鍔)이 발견되기도 한다. 철북의 경우에는 손잡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입이 크고 바닥이 좁은 항아리 모양의 동북은 북방 유목민족들의 취사용(炊事用), 혹은 제의용(祭儀用) 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몽골의 흉노 고분에서 출토되는 같은 형식의 동북 중에서는 내부에 양뼈와 같이 동물뼈가 가득 들어 있는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북방 유목민족 문화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술들이 이동식 취사용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의용이나 부장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복합적 성격을 가진 경우도 많다. 대성동 29호분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내부에서는 유기물질의 흔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1세기경부터 이미 청동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제 그릇, 혹은 청동제기(靑銅祭器)들을 제작했지만, 한반도에서는 금속제 그릇들이 낙랑시대 이후부터야 중국 한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대 초기 사회에서는 그다지 금속제 그릇들의 제작과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3세기의 고

분으로 편년되는 대성동 29호분 출토 동북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보기드물게 이른 시기의 금속제 그릇이자, 북방 유목민족 문화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금속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申敬澈 · 金宰佑,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I - 13 · 18 · 29號墳」, 慶星大學校博物館.
-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鍍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 李海蓮, 2006, 「銅鍍에 대하여」,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刊行委員會.
- 정우열, 2011a, 「東北아시아의 銅鍍연구 - 한반도출토 銅鍍과의 비교를 검하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우열, 2011b, 「銅鍍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 銅鍍研究 (1) -」, 『해동문화논총』 창간호, 해동문화연구원.
- 張恩晶, 2013, 「匈奴系 銅鍍의 製作과 擴散」, 『中央아시아 研究』 18-2, 중앙아시아학회.
- 李海蓮, 2014, 「匈奴 · 鮮卑 銅鍍의 특징과 변천」, 『고고광장』 14, 부산고고학회.

○ 기 타

이 동북이 출토된 김해 대성동 29호분은 구릉 북쪽 선단 표고 11m의 경사면에 위치한 목곽묘로서, 동서 방향을 축으로 한 무덤이다. 묘광의 규모는 복원 길이 960cm, 너비 560cm, 잔존 깊이 최대 130cm, 최소 35cm이다. 이 무덤은 도굴을 당했으며, 인근의 39호분 목곽묘의 부곽을 만들면서 일부가 파괴되어 전체 부장품이나 유적은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 동북은 목곽의 중앙부에서 출토되었고, 주위에서는 철촉과 철부, 그리고 방패로 추정되는 흑칠한 목기 흔적 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동북의 용도와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나, 가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외래계 수입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외래계 수입품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야 문화권에서 이러한 유물들이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유물들이 경주 입실리나 청주 신봉동 등에서 출토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향후 이러한 전래과정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성동 29호분 자체는 유적의 규모나 형식, 출토품 등으로 볼 때 3세기 후반경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조사는 2차에 걸쳐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중간에 국립김해박물관 쪽에서 X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제 1차 조사는 2018년 8월 13일 진행되었으며, 제 2차 조사는 2019년 8월 19일에 진행되었다. 과학적 성분 분석 검사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

○ 현 상



사진 1. 29호분 출토 청동술(좌)과 47호분 청동술과 세부(우)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귀가 붙은 방향으로 찌그러졌고, 아가리와 몸통 일부가 떨어져 틈이 생겼고, 몸통과 바닥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복원되었다.

○ 내용 및 특징

29호 출토 청동술은 아가리 2곳에 반원모양의 귀가 붙었고, 몸통은 세로로 긴 심발모양이다. 몸통에는 7mm 정도의 합범 흔적이 세로의 직선상으로 있다. 합범의 외형과 내형 사이를 고정시킨 형지 흔적이 몸통의 8곳에 일정간격으로 있다. 아가리와 귀는 옆 방향으로 마연하였고, 몸통은 세로 방향으로 마연하였다.

청동술(동북)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배경으로 유목경제에 기반하여 생존하였던 유목민족의 대표적인 취사·저장·의례용기로 사용되었고, 중원지역과 한반도에도 북방 유목민족과의 교류에 의해 유입되었다.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유행한 형식이다. 대성동 29호분의 시기가 기원후 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어 청동술이 전세되었거나 3세기의 제작품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 문헌자료

- 申敬澈·金宰佑,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I』慶星大學校博物館.
- 申敬澈 외, 2003, 『金海大成洞古墳群 III-展示館敷地の發掘調査 및 47·52號墳-』慶星大學校博物館.
-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鍔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 李海蓮 2006, 「銅鍔에 대하여」,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刊行委員會.
- 정우열 2011a, 「東北아시아의 銅鍔연구 - 한반도출토 銅鍔과의 비교를 겸하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張恩晶 2013, 「匈奴系 銅鍔의 製作과 擴散」 『중앙아시아 연구』 18-2권

○ 기 타

김해 대성동고분군 제1차 발굴조사의 29호분과 47호분에서 출토되었고, 29호분 출토 청동솥은 국립김해박물관에 국가귀속처리 되었고, 47호분 출토 청동솥은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국가귀속처리 되었음

19. 김해 대성동 47고분 출토 청동솥
(金海 大成洞 四十七號墳 出土 靑銅鑊)

가. 검토사항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솥’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8.5.2.) 관계전문가 조사(’19.7.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솥(金海 大成洞 四十七號墳 出土 靑銅鑊)
- 소유자(관리자) : 국유(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높이 17.8cm. 동체 높이 15.1cm.
입지름 13.0cm. 구연부 높이 9.3cm.
손잡이 1 : 높이 24mm. 전체 폭 42.3mm. 내부폭 14.6mm.
손잡이 2 : 높이 25.6mm. 전체 폭 43.3mm. 내부폭 15.5mm.
바닥 지름 8.5~9.3 cm. 무게 850g
- 재 질 : 청동
- 조성연대 : 기원전 2세기~기원후 4세기 추정
- 형 식 : 밑이 평평한 항아리형태의 그릇 구연부 양쪽에 둥근고리가 붙어 있어 걸어 놓고 끓이는 형태의 그릇

○ 제작지 : 중국의 내몽고(오로도스), 몽골 등 북방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



그림 35.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솥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이 유물은 초기 금관가야의 왕권의 성장, 묘제와 부장품을 통해 나타난 장송의례, 북방지역과의 교섭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 기물의 생산지가 가야와는 무관하다는 점, 이와 유사한 동북이 유라시아 전체에 걸쳐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 여타 동북에 비하여 제작기술과 조형미가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 유존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지정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솥은 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동반 출토된 동북(銅鍍)으로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북방 유목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이동식 취사도구를 대표하는 출토유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동북으로서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에 비해 주조기술이 우수하지 않고 보존상태도 좋지 않아 후대의 보수가 많이 된 편이어서 기술적인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형식의 동북에 대하여 제작지나 제작연대 및 유물의 성격 등에 있어 학계의 이견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점으로 보아, 이 청동술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 1) 이 청동술은 1991년 경성대학교박물관의 대성동고분군 제 3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대성동 47호분의 부곽 중앙부에서 눌혀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 2) 전반적으로 녹이 심하게 나 있으며, 동체 윗부분과 손잡이의 일부가 깨져 있다.
- 3) 이 유물의 특징은 밑이 평평한 항아리(물독) 모양의 형태에 구연부 양쪽에 반원형의 납작한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 바닥에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얹어 사용하는 일반술과 달리 높게 걸어놓고 사용하는 형식으로 주로 부여 등 북방지역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
- 4) 규모는 전체 높이 17.8cm, 동체 높이 15.1cm, 구경 13.0cm, 손잡이 높이 2.4cm~2.5cm, 저경 8.5~9.3cm, 무게 850g이다.
- 5) 이 유물은 가야시대 초기문화 성격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나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도 않고, 파손도 심하며 용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명확하지 않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한반도 남부 지역의 보기 드문 북방계 청동술인 동북(銅鍔)으로, 가야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동북이 역시 대성동 29호분에서 출토되었으나, 보존 상태나 주조 기술 등은 모두 대성동 29호분 출토품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유사한 형식의 동북들은 대체로 선비계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 청동술은 술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발견 당시 밤 열매가 안에서 확인되어, 음식 저장용기로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인근의 29호분 출토 청동술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주조 솜씨가 상당히 떨어지고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고 보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제작지나 제작 연대 및 출토 유적 연대의 상관관계 및 유물 자체의 용도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유물을 보물로 지정하기는 다소 어렵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29호분과 47호분에서 출토한 청동솥(동복) 1건 2점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 유목민족들의 취사 또는 저장·의례용기로 사용된 것들로서 금관가야와 북방지역과의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유물이지만, 금관가야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유물로 보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파손 결실되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47호분 출토 동복은 29호분 출토품에 비하여 어깨 부분이 크게 강조된 점이 다르다. 동체 상부와 저부 근처가 파손된 채 출토되었는데 그 후 보수되었다. 동체의 세로 방향으로 주조 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귀에는 능선이 남아 있다.



<그림 1> 대성동 47호분 출토 동복

○ 내용 및 특징

솥 중에서 鍔의 사전적 의미는 “아가리가 오그라진 솥”이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이동과 휴대에 간편한 조리용 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활발한 기마 유목민족들이 주로 사용한다. 유라시아 동부에서는 중국, 한반도, 일본에서 발견되며 서로는 흑해 연안과 동유럽에 걸쳐 초원길을 따라 널리 퍼져 나갔다. 재질은 청동제와 철제가 있어서 전자는 동복, 후자는 철복이라고 부른다.

내부에서 동물의 뼈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취사 조리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사용 방법은 귀에 줄을 걸어서 나무에 현수한 후 아래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목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동북은 제의와 무덤 부장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북이 많이 사용된 곳은 오르도스-몽골 일대이고 구연부에 반원형의 귀가 2개 달리는 공통성이 있다. 이를 오르도스형 동북이라고 부르는데 저부에는 대각이 달린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흉노족과 선비족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여의 무덤인 유수 노하심에서는 대각이 달린 동북이 출토된 바 있다. 한편 이보다 조금 늦은 3-4세기 단계가 되면 귀에 돌기 모양의 장식이 많이 부착된 형식이 크게 유행하는데 이는 훈족(Huns)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다양한 형태의 동북들(장은정, 2013에서)



<그림 3> 귀에 돌기가 달린 훈 동북

동복과 철복은 한반도 서북지방의 낙랑 유적과 동남부 가야권에 집중되어 있다. 낙랑지역에서 발견된 동복 청동 시루와 세트를 이룬 것이 있는데 동복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이질적이어서 이 지역에서 자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유물은 일본에서도 발견되었다. 철복의 경우 역시 이 지역의 고유한 토기인 화분형 토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현지 생산의 가능성이 높다. 경주 사라리 132호 분묘에서 매장용으로 부장된 철복도 서북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덤의 연대는 2세기 무렵으로 판단되며 피장자는 지역 최고 수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마 유목민족의 기물인 철복이 외래 기성품으로서 지역 수장묘에 부장된 경우인데 진귀한 희소품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동복이건 철복이건 복을 사용한 조리 취사문화는 한반도와는 무관하고 북방의 유목 기마문화권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활발한 교섭에 의해 원거리를 이동하여 한반도에 유입되고 사용 후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동남부에서는 김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양동리 235호묘, 대성동 29호묘와 47호묘에서 발견되었다. 형식적으로 모두 오르도스식 동복에 속한다.

○ 문헌자료

申敬澈 外, 2003, 『金海大成洞古墳群 III - 展示館敷地の發掘調査 및 47・52號墳』, 慶星大學校博物館.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鍍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李海蓮, 2006, 「銅鍍에 대하여」,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刊行委員會.

정우열, 2011b, 「銅鍍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 銅鍍研究 (1) -」, 『해동문화논총』 창간호, 해동문화연구원.

張恩晶, 2013, 「匈奴系 銅鍍의 製作과 擴散」, 『中央아시아 研究』 18-2, 중앙아시아학회.

李海蓮, 2014, 「匈奴・鮮卑 銅鍍의 특징과 변천」, 『고고광장』 14, 부산고고학회.

○ 기 타

대성동 47호분은 주부곽식 목곽묘로서 1991년 경성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부곽이 조사되었고, 2001년 대성동고분박물관 부지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주곽이 조사되었다. 주곽과 부곽이 서로 방향으로 배치된 이 무덤은 4세기 경에 조성된 고분이지만 출토된 동복의 연대는 3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물의 제작, 이동, 사용과 매납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

청동술은 바닥에 굽이 없고 바닥지름보다 입지름이 넓으며, 좁은 어깨부터 구연부까지 1쌍의 반구형[半圓形] 손잡이를 대칭으로 붙인 물독 형태의 술이다. 이러한 형식의 술은 청동기시대 유라시아 대륙 북방 지역에서 유목민족들이 사용했던 이동식 술의 일종으로, 흔히 ‘동복(銅鍔)’이라고 부른다. 동복은 굽다리의 유무, 몸통의 장식 유무, 손잡이의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바닥에 다리나 굽이 없고, 몸통이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며 상하가 깊고 장식이 없으며, 구연부에 달린 1쌍의 손잡이가 직각형이 아닌 반구형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다.



○ 조성연대

이러한 형식의 청동술은 북방 유라시아 일대에서 보이는 고대 북방민족의 유물 중 특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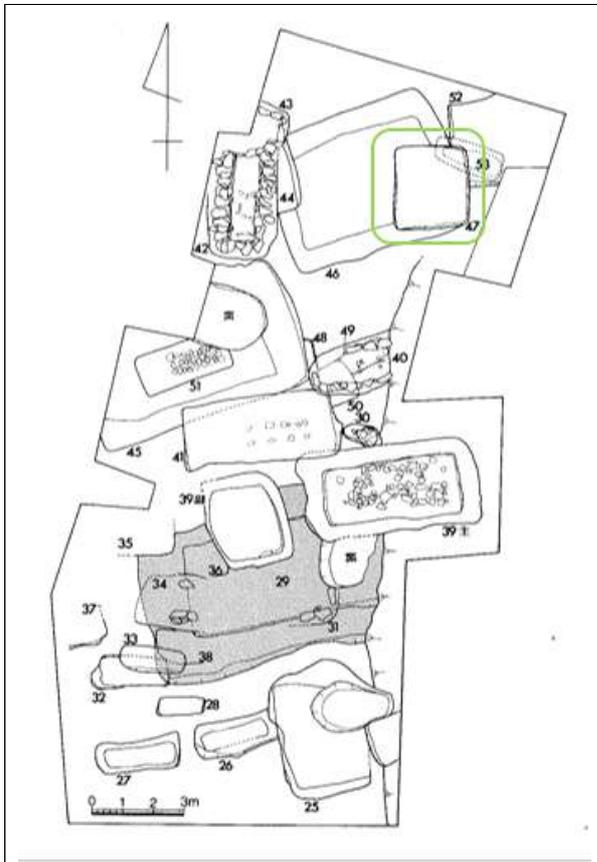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지의 선비족의 유적에서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후 3세기경까지 유행했던 형식이다. 이 동복이 출토된 대성동 47호분은 공반 유물로 미루어 3세기 경의 고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청동술의 제작 연대로 비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청동술은 몽골의 흉노족 고분이나 중국 동북 지방의 선비족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친연성을 보이며, 국내에서는 김해 대성동 고분 29호분, 경북 경주 입실리에서 출토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

출토품이 알려져 있고, 북한에서는 평양 출토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품, 함경남도 소라리 출토품, 출토지 미상 북한 소장품 등 10여 점이 알려져 있다.

○ 출토 현황

1991년 경성대학교박물관에서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제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부곽을 발견하였으며, 이 청동솥은 1991년 발굴시 부곽의 목곽 내 거의 중앙부에 놓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후 2001년 경성대학교박물관에서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제4차 조사를 통해 제47호분의 주곽을 발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성동 제 47호분은 고분의 구조나 출토유물로 미루어 볼 때 4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성동 47호분 목곽묘 위치



대성동 47호분 목곽묘 발굴 전경



47호분 청동솥 출토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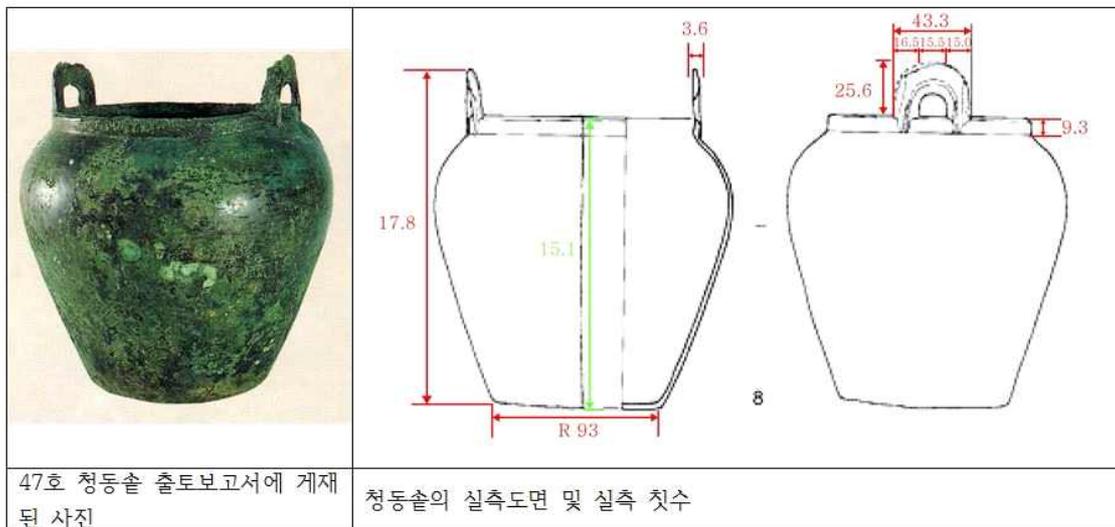
청동솥은 발굴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고 표면에 녹이 심하게 나 있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몸통과 구연부의 어깨 부위가 균열이 나 있고 일부 떨어져 있었으며, 바닥 부분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러나 출토 후 보고서의 사진에는 좁은 어깨와 목 부분이 벌어진 틈이나 갈라져 균열된 모습 및 구멍 등도 매워져 있어, 출토 후 보존처리 과정을 거친 후 사진을 촬영하

여 발굴보고서에 실렸다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김해 대성동 47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솥은 구연부에 반구형(半球形)의 귀처럼 생긴 손잡이가 1쌍 붙어 있는 항아리 형태이다. 그릇의 전체 높이는 17.8cm, 몸체의 높이는 15.1cm, 입지름은 13.0cm, 바닥 지름은 8.5-9.3cm이다. 손잡이는 높이 24-25.6mm, 전체 폭 42.3-43.3mm, 내부폭 14.6-15.5mm이다. 무게는 850g이다.

그릇의 몸체부터 바닥 부분에는 주물을 위한 합범(合范)의 흔적이 직선상으로 명료하게 남아 있다. 어깨부분은 세로 방향으로 마연을 한 흔적이 보이고, 몸통 부분은 상하로 마연한 흔적이 있으나, 내부에는 마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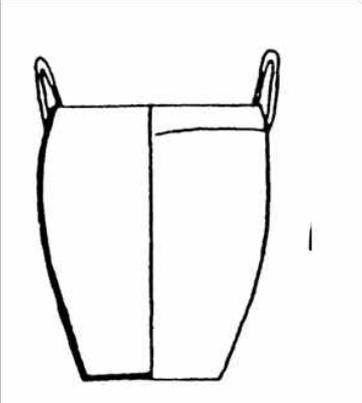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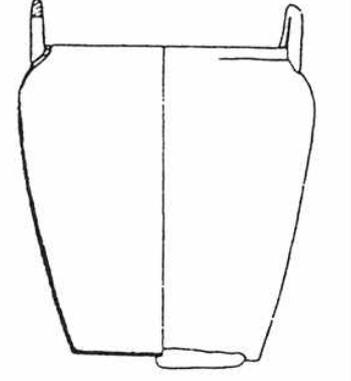
술은 주물을 위해 표면에 2-3개의 형지 자국이 확인된다. 마연을 하지 않은 내부는 구멍이 뚫어진 것이 확인되고, 청동녹이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부식이 진행 중이다. 마연을 한 표면도 매끈하지 않고 거친 편이며, 보존처리를 했던 표면 전체도 녹색으로 변색되어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과 마찬가지로 아가리가 넓고 몸통 아래가 좁은 항아리 모양의 형태이고 구연부 양쪽에 납작한 반구형 손잡이가 달린 형태의 술이다. 47호분 출토 청동술과 함께 출토된 토기 주변에서 목질흔이 남아 있어서 목재 상자에 넣어서 매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 당시에 내부에서 밤(栗) 3개가 발견되었다고 하므로, 과실을 보관했던 음식 저장용 용기로 부장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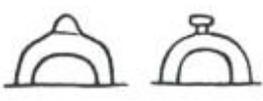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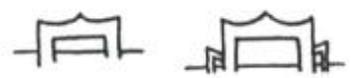
이와 같은 청동술은 중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낙랑 시대에 중국 한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중 한반도 내에서 확인된 동북은 ①평양지역 출토 1건, ②함남 소라리 출토 1건(북한), ③황해남도 출토(철북) 1건, ④북한 출토(지역미상) 2건, ⑤조선총독부 박물관 소장 1건(일제강점기), ⑥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출토 철북 1건(청주 백제유물전시관소장), ⑦경주 입실리 수습 1건(숭실대 박물관 소장), ⑧김해 대성동고분 출토 29호분과 47호분 2건, ⑨김해 양동리고분 출토 1건 등 총 9개 사례 10건이다.

				
평양출토 동북 (평양조선중앙박물관 소장품)	함경남도 소라리 출토, 북한 소장	출토지 미상 북한 소장 동북	경주시 입실리출토 동북, 승실대박물관 소장	충북 청주 신봉동백제고분군출토

이것들은 어깨 부분이 강조되지 않고 몸통부의 위쪽이 약간 부르고 장식이 있는 것에서, 어깨가 약간 강조되고 상하가 거의 수직에 문양이 없이 귀에 고리가 붙는 변화를 보인다. 그중 통형에 어깨의 강조가 없고 반구형 귀를 가진 것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솥이고, 편병형에 어깨가 강조되고 반구형 귀를 가진 것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솥이다. 특히 대성동 47호분의 경우 김해 양동 235호분, 승실대박물관 소장품, 평양박물관 소장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중국의 것으로는 내몽고 석가구묘군 유적(內蒙古 卓資縣 石家溝墓群), 요녕성 북표현 유적(遼寧省 北標縣 喇嘛洞), 내몽고 찰우전기 유적(內蒙古 察右前旗 下黑溝) 등이며, 이것들은 전한 말기부터 후한 초로 편년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대성동 47호분은 3세기 후반 내지 4세기의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

		
內蒙古 卓資縣 石家溝墓群	遼寧省 北標縣 喇嘛洞	內蒙古 察右前旗 下黑溝

이처럼 대성동 47호분 출토품처럼 대각이 없고 Ab1에 해당되는 반원형의 귀[편볼록렌즈형]를 가진 동북에 대해 신경철은 길림성 북부와 흑룡강성 남부에 분포하는 오르도스형 동북으로서 이를 통해 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부여족이 남하 이주한 결과로 보아 부여계 문화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신경철, 2000]

第一类	 Aa	 Ab I Ab I	 C
	 Ba I Ba I	 Bb	
第二类			第三类 

청동술의 귀 모양에 따른 분류

이해연의 경우 우리나라 동북을 ①김해 대성동고분출토품, ②김해 양동리고분출토품, ③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품 (경주 입실리 출토품), ④평양박물관 소장품 등의 4가지로 정리하였고, 이중 김해 대성동 출토품은 후한 말기에 요녕성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서 고구려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아 북방문화의 김해지역 이입으로 보았다.[이해연, 2003]

따라서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전형적인 중국 동북 지방의 북방식 동북(銅鍍)의 하나로서 해당 지역에서는 같은 무덤에서 공반출토된 유물에 의해 4세기에 북방 유목민족 문화와 연관성을 가진 금속공예품의 사례이다.

○ 기 타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1991년과 2001년의 조사를 통해 고분의 구조와 축조시기가 4세기 후반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형식의 동북이 중국에서는 3세기경에 유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것이 금관가야에 해당되는 4세기 대성동 고분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 동북의 제작 시기나 제작지,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학자마다 여러 가지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과학적인 성분 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추후 보존처리와 과학적 정밀 조사 등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申敬澈 · 金宰佑,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I - 13 · 18 · 29號墳」, 慶星大學校博物館.
- 申敬澈,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각국사의 재조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가야사학술심포지움.
- 李道學, 1995.2, 「銅鍍文化의 移動과 금관가야의 탄생」, 『우리문화』.
-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鍍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 李海蓮, 2014, 「匈奴 · 鮮卑 銅鍍의 특징과 변천」, 『고고광장』 14, 부산고고학회.
- 張恩晶, 2013, 「匈奴系 銅鍍의 製作과 擴散」, 『中央아시아 研究』 18-2, 중앙아시아학회.
- 정우열, 2011, 「銅鍍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 銅鍍研究 (1) -」, 『해동문화논총』 창간호, 해동문화연구원.
- 정우열, 2011, 「東北아시아의 銅鍍연구 - 한반도출토 銅鍍과의 비교를 겸하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 상

김해 대성동47호분 부곽 중앙에서 출토된 밑이 평평한 항아리형태의 그릇으로 구연부 양쪽에 둥근고리가 붙어 있어 걸어 놓고 끓이는 형태이나 부식이 심하고 결실된 부분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솥은 전형적인 북방식 동북이긴 하지만, 어깨 부분이 다소 넓어지고 통통해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대성동 29호분에서 출토된 동북에 비해서 조금 낮은 형식에 속한다. 높이 걸어놓고 사용하는 형식으로 주로 부여 등 북방지역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 문헌자료

- 申敬澈 外, 2003, 「金海大成洞古墳群 III - 展示館敷地の 發掘調査 및 47·52號墳」, 慶星大學校博物館.
-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鍍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

○ 형 식

두 개의 손잡이가 어깨부분에 대칭으로 달린 항아리 모양의 청동제 솥으로, 보통 “동복(銅鍔)”이라고 한다. 이다. 이러한 형식의 솥은 청동기시대 유라시아 대륙 북방 지역에서 유목민족들이 사용했던 이동식 솥의 일종으로, 동체나 손잡이, 다리 등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대성동 47호분 출토 동복은 바닥에 다리나 굽이 없고,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형태의 솥 형식으로, 어깨부분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점이 특징이다(도 1).



도 1. 대성동 47호분 출토 동복.

이와 유사한 형식의 동복은 몽골의 흉노시대 고분이나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북조 지역의 선비(鮮卑)계 유적 등에서 다수 출토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해 대성동 29호분, 김해 양동리 235호분, 경북 경주 입실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청주 신봉

동 백제 고분군 출토품 등이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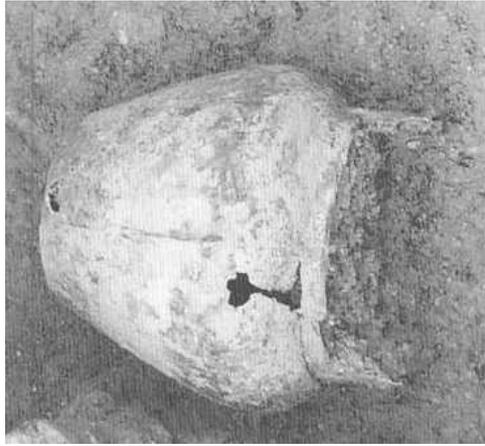
○ 조성연대

이러한 형식의 동복은 대부분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후 3세기경까지 유행했던 형식이다. 그러나 이 동복이 출토된 대성동 47호분은 4세기 후반경의 가야 고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작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기원전후 시기의 유물이 전세된 것이라는 학계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성연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 현 상

김해 대성동 47호분에서 출토된 이 동복은 대성동 노출전시관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부곽(副槨) 중앙부에 놓혀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국가귀속은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으로 되었으나,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녹이 심하게 나 있으며, 동체 윗부분과 손잡이의 일부가 깨져 있다. 상태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지만 보수 흔적이 많고 전체적으로 균열이 많다.

출토 당시의 보고서 사진(도 2)을 보면 원래 동체 상부와 바닥 부분에 부식으로 인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모두 보수되어 막혀 있다(도 3)



도 2. 대성동 47호분 동복 출토 상태.



도 3. 대성동 47호분 동복 동체 상부 복원 상태. 내부.

전체적으로 녹이 심하고 내부는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별다른 특징을 관찰하기 힘든 상태로서, 보존 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부식 방지를 위한 보존 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바닥 부분에는 부식으로 구멍이 난 상태이다. 표면에서는 2-3개 정도의 방형 형지 자국이 확인되는데,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예는 대략 사방 6.3mm 크기의 방형 형지 하나 정도만 확인된다. 부식 상태로 볼 때, 원래부터 주조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손잡이의 둔탁하고 마무리되지 못한 거친 형태(도 4)나, 주조선이 그대로 동체 전체와 바닥부분까지 남아 있는 점(도 5) 등으로 볼 때, 주조 기술이 그다지 뛰어난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조선의 형태로 볼 때, 이 동복도 합구식 범을 사용해서 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4. 손잡이 세부.



도 5. 동체 및 바닥 부분.

○ 내용 및 특징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전형적인 북방식 동북이긴 하지만, 어깨 부분이 다소 넓어지고 통통해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대성동 29호분에서 출토된 동북에 비해서 조금 낮은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비슷한 형태의 동북은 청주 신봉동이나 중국 요녕성 북표 라마동 고분군 등에서 발견되었다. 북(鍔)은 일반적인 후대의 가마솥들과는 달리, 아가리가 크고 동체 아래 부분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항아리(물독) 모양의 형태에 구연부 양쪽에 반원형의 납작한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형태의 술이다.

이러한 형태의 입이 크고 바닥이 좁은 항아리 모양에 손잡이가 달린 동북은 북방 유목민족들의 취사용(炊事用), 혹은 제의용(祭儀用) 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몽골의 흥노 고분에서 출토되는 비슷한 형식의 동북 중에서는 내부에 양뼈와 같이 동물뼈가 가득 들어 있는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북방 유목민족 문화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술들이 이동식 취사용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의용이나 부장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복합적 성격을 가진 경우도 많다.

이 동북은 주곽에서 출토된 대성동 29호분 출토 동북과는 달리, 토기들과 함께 부곽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함께 출토된 토기들 주변에서 목질흔이 남아 있어서 목제 상자에 넣어서 매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 당시에 내부에서 밤(栗) 3개가 발견되었다고 하므로, 과실을 보관했던 음식 저장용 용기로 부장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문헌자료

申敬澈 外, 2003, 「金海大成洞古墳群 III - 展示館敷地の發掘調査 및 47・52號墳」,

慶星大學校博物館.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鍍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李海蓮, 2006, 「銅鍍에 대하여」,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刊行委員會.

정우열, 2011a, 「東北아시아의 銅鍍연구 - 한반도출토 銅鍍과의 비교를 검하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우열, 2011b, 「銅鍍의 명칭과 용도에 대하여 - 銅鍍研究 (1) -」, 『해동문화논총』 창간호, 해동문화연구원.

張恩晶, 2013, 「匈奴系 銅鍍의 製作과 擴散」, 『中央아시아 研究』 18-2, 중앙아시아학회.

李海蓮, 2014, 「匈奴 · 鮮卑 銅鍍의 특징과 변천」, 『고고광장』 14, 부산고고학회.

○ 기 타

이 동북이 출토된 김해 대성동 47호분은 주부곽식 대형 목곽묘로서, 1991년 경성대학교박물관의 대성동고분군 제 3차 조사시에 부곽이 발견되었으며, 2001년 제 4차 조사에서 주곽이 발견되어 전모가 밝혀졌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 유물로 볼 때, 고분 축조 시기는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동북이 중국에서는 3세기경에 유행하므로, 이 동북의 제작 시기나 제작지,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아직까지 과학적 성분 분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보존처리와 과학적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

○ 현 상

47호 출토 청동술은 전체적으로 녹이 쓸었고, 아가리가 찌그러져 평면형이 타원형이고, 몸통과 바닥 벽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고, CDK로 복원되었다. 귀의 가장자리가 마모되었다.

○ 내용 및 특징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아가리 2곳에 반원모양의 귀가 붙었고, 위쪽이 부풀어 오른 항아리 형태이다. 몸통과 바닥에 세로 방향의 직선상의 합범 흔적이 뚜렷하고, 부분적으로 재



그림 53. 김해 대성동 47호분 출토 청동술

가공한 흔적이 있다. 몸통 위쪽은 옆 방향으로 마연하였고, 아래쪽은 세로 방향으로 마연하였다. 전체적으로 녹이 많이 쓸었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다.

청동술(동북)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배경으로 유목경제에 기반하여 생존하였던 유목민족의 대표적인 취사·저장·의례용기로 사용되었고, 중원지역과 한반도에도 북방 유목민족과의 교류에 의해 유입되었다.

김해 대성동 29호분 출토 청동술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유행한 형식이다. 47호분 출토 청동술은 기원후 3세기에서 4세기에 유행한 형식으로 중국 요녕성 조양시의 라마동유적에서 동일한 사례가 출토되어 전연을 중심으로 한 三燕期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申敬澈·金宰佑,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I』慶星大學校博物館.

申敬澈 외, 2003, 『金海大成洞古墳群 III-展示館敷地の發掘調査 및 47·52號墳-』慶星大學校博物館.

李海蓮 2003, 「우리나라 출토 銅鍍에 대하여」, 『박물관연구논집』 10, 부산박물관.

李海蓮 2006, 「銅鍍에 대하여」,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石軒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刊行委員會.

정우열 2011a, 「東北아시아의 銅鍍연구 - 한반도출토 銅鍍과의 비교를 검하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張恩晶 2013, 「匈奴系 銅鍍의 製作과 擴散」 『중앙아시아 연구』 18-2권

○ 기 타

김해 대성동고분군 제1차 발굴조사의 47호분에서 출토되었고, 김해 대성동고분 박물관에 국가귀속처리 되었음

보고 사항

20. 2020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20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2020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대상 및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및 계획

구 분	건 수	계 획	비 고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66건 (증가예정)	접수 순으로 지정조사 실시	
국보 승격	18건	분야별 선정 순으로 조사 실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46건	보존상태 등 열악한 대상 우선 순위로 조사 추진	
환수·매장 문화재 (가야유물 포함)	10건 (증가예정)	'20년 상반기: 조사 및 지정조 사보고서 작성 및 지정 추진 *환수문화재는 소요수량 발생 시 추진	하반기 추가 신청 접수 예정 *별도의 지정조사 단 구성·운영
국립중앙박물관	신청 예정 *기 신청건은 조사완료	'20년 상반기 : 기 조사 대상 조사보고서 작성 및 지정 추진	상반기에 추가 지 정신청 예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청	3건	지방자치단체장 신청건과 함께 접수순으로 지정추진	'19년도 이후 시·도 위원회 통해 신청
동일작가(색난) 불교조각	4건	'20년 상반기: 조사 및 지정조 사보고서 작성 및 지정 추진	'19년도 제5차 동산 분과 소위원회 선정
근대등록문화재 보물 지정 추진 대상	9건	'20년 상반기: 조사 및 지정조 사보고서 작성 및 지정 추진	'19년도 제5차 동산 분과 소위원회 선정
총 계	156건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21. 2020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보고

가. 보고사항

2020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현황 및 그에 따른 현상변경 승인에 대해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1)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중 원형보존 등을 위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 2020년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개별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한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보고 드림

※추진경과

- 2019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현상변경 검토회의 운영계획 보고(‘19년 1차/’19. 2. 14)
- 2019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결과보고(‘19년 7차/ ’19. 12. 12.)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보물 제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등 39건[붙임 1]

2)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자치단체 보조), 보존처리계획(현상변경) 검토 및 승인, 사업추진 점검
(총액 6,322,330천원/ 국비 4,423,300천원, 지방비 1,895,700천원)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추진(감독관) 및 예산집행
- 해당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자문을 받아 실시(자문회의는 착수 전, 중간과정, 완료 시 등 3회 이상 개최)

3)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

- 개요 및 목적 : 개별 사업 보존처리계획서 내용(공정·재료·산출내역 등)의 적절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 시행을 유도하고자 함
- 구성인원 : 유형문화재과 담당직원, 해당문화재 분야 관련전문가 포함 3인 이상으로 검토위원 구성
- 개최주기 : 매월 3째주 화요일(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2020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
- 사업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대상목록 1부.

[

붙임 1]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대상목록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	서울	강북구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280,000	120,000	400,000
2	서울	마포구	보물 제569-9호	안중근의사유묵-오노봉위 필삼상작연지청천일장지 사이복중시	보존처리	9,100	3,900	13,000
3	서울	성북구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84,000	36,000	120,000
4	서울	성북구	보물 제1985호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28,000	12,000	40,000
5	서울	은평구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41점)	175,000	75,000	250,000
6	서울	종로구	보물 제1089호	동인지문오칠 권79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7	서울	종로구	보물 제1091-1호	제왕운기				
8	서울	종로구	보물 제1090-1호	권근 응제시주				
9	서울	종로구	보물 제738-1호	남명천화상승증도가				
10	서울	종로구	국보 제265호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11	경기	광명시	보물 제1435호	이원익초상	모사본 제작	35,000	15,000	50,000
12	경기	시흥시	보물 제1948호	법계성범수륙승화수재의례	보존처리	24,500	10,500	35,000
13	경기	용인시	보물 제180호	이경석 귀장 및 사계장 연회도 화첩	보존처리 (사계장 연회도 화첩)	30,100	12,900	43,000
14	경기	용인시	보물 제715호	김중만 초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37,800	16,200	54,000
15	강원	평창군	보물 제1855호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보존처리 및 굵게말이축, 케이블함 제작	119,000	51,000	170,000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6	충북	청주시	국보 제297호	안심사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및 긱게말이축, 보관함 제작	154,000	66,000	220,000
17	충남	공주시	보물 제582호	월인석보목판	정밀진단 및 기록화	21,000	9,000	30,000
18	충남	논산시	보물 제1851호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개금 및 보존처리	420,000	180,000	600,000
19	충남	부여군	보물 제1565호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존처리 (불단 안전성 조사 후 보수 포함)	289,500	115,500	385,000
20	충남	서산시	보물 제1264호	개심사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및 긱게말이축, 괘불케 제작	210,000	90,000	300,000
21	충남	예산군	보물 제2006호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보존처리 및 괘불케 보수	140,000	60,000	200,000
22	전북	고창군	보물 제1918호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보존처리	259,000	111,000	370,000
23	전북	고창군	보물 제1920호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 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및 훈증처리	350,000	150,000	500,000
24	전북	고창군	보물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심존좌상	복장물 조사 및 기록화	14,000	6,000	20,000
25	전남	강진군	국보 제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보존처리	70,000	30,000	100,000
26	전남	강진군	보물 제1314호	무위사극락전백의관음도	보존처리	70,000	30,000	100,000
27	전남	구례군	보물 제1889호	구례 천은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및 대세보살좌상	보존처리	266,000	114,000	380,000
28	전남	구례군	보물 제924호	천은사극락전아미타후불탱화	모사도 제작	140,000	60,000	200,000
29	전남	보성군	보물 제1861호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 달마대사 벽화	보존처리	224,000	96,000	320,000
30	전남	회순군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모사도 제작	146,300	62,700	209,000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2020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31	경북	경주시	보물 제1473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고문서	보존처리(21점) 및 영인본 제작	105,000	45,000	150,000
32	경북	봉화군	보물 제901호	권별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100점)	126,000	54,000	180,000
33	경북	안동시	보물 제905호	김성일 종가 전적	보존처리	70,000	30,000	100,000
34	경북	안동시	보물 제906호	김성일 종가 고문서				
35	경북	안동시	보물 제1018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	70,000	30,000	100,000
36	경북	안동시	보물 제1019호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37	경남	남해군	보물 제1446호	남해용문사괘불탱	모사도 제작 및 괘불함 제작	210,000	90,000	300,000
38	경남	진주시	보물 제1689호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 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시왕상 정밀진단 및 기록화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	140,000	60,000	200,000
39	경남	하동군	보물 제1378호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 여래삼불좌상 및 시보살입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105,000	45,000	150,000

22. 고려금속활자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고려금속활자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2019년도 문화재청 국정감사(10.7.)에서 ‘증도가자(證道歌字)’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가치 재검토 및 고려활자 연구 필요성 제기에 따라, 「고려금속활자 가치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계획을 보고 드림

다. 추진경과

- 고려금속활자 학술연구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2회 실시
 - 참석자 : 전적분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보존과학 연구자 등
 - 내 용 : 향후 연구 방향 및 자문위원, 연구자 인력풀 등 논의

라. 추진방향 및 방법

- 추진방향 :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한 추진방향, 내용 등 설정
- 추진방법 : 연구팀 구성 및 연구결과 학술대회 발표(금년 중 예정)

마. 자문위원단 구성

- 구성범위 : 관련 전·현직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지정조사단 관계자
- 기타사항 : 서지학, 고고학(매장문화재) 분야 연구자, 활자장 과학조사 연구자(연구소, 전통학교, 금속공학 전공자 등)
- 고려사항 : 문화재 지정 관련될 수 있으므로 활자 소장자 제외
- * 연구주제와 관련된 세부 협의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 구성, 진행

바. 조사연구 계획('20~'22/ 총 3개년)

- 1) '17년 이후 금속활자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등('20~'22년)
- 2) 고려 및 조선 금속활자 인출본 비교 연구('20년)

3) 금속활자 구조방법 검증('21~'22년)

4) 금속활자 관련 추가자료(청동수반 등) 확보 및 과학적 추가 분석('22년)

사. 1차년도 조사연구 계획('20년)

○ 연구과제명 : 고려 및 조선 시대 금속활자 인출본 비교 연구(조사연구+학술대회)

○ 연구내용 : 『동국이상국집』, 『삼장문선』 등 금속활자 인출본·번각본(翻刻本) 종합적 비교 연구

※ 금속활자와 목판 인출본에 대한 재검토/ 4~5개 세부 주제로 진행

○ 연구자구성 : 서지학 등 연구자 구성(10명 내외)

○ 연구결과발표 : 학술대회 개최('20년 10월 예정)

아. 향후 계획

○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20. 2~3월 중)

- '고려금속활자 조사연구' 종합계획 방향 설정 및 연구자 선정 등

○ 연구 진행('20. 3월~)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23. 신규 지정 국보·보물 특별전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20년도 「신규 지정 국보·보물 특별전」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19.11.19.)에 따라 2017년~2019년 3개년 동안 지정된 국보·보물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신규 지정 국보·보물 특별전」 공동개최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국가지정문화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의무화[「문화재보호법」 제49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되어 있으나, 개인 및 사립미술관 소장 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어도 공개할 기회가 많지 않음.
- 이에 '17년부터 정기적으로 신규지정 문화재 대상 특별전 개최를 통해 공개 추진

* 1차 특별전 : '17.5.13.(토)~7.9.(일) / '14~'16년 지정 보물 50건/ 국립중앙박물관 중근세전시실

다. 전시개요

- 대상 : 지난 3개년(2017~2019년) 지정 국보·보물 84건 192점
- 주최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 기간 : 2020. 4. 14.(화) ~ 2020. 6. 14.(일) / 62일 간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개막행사 : 2020. 4. 13.(월) 16:0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라. 향후계획

- 전시대상 유물 보험 가입 및 운송('20. 3~4월)
- 전시도록 발간(박물관과 공동/ 판매용)
- 기자브리핑('20.4.13./ 11:00 예정)
(홍보) 보도자료 배포, 홍보영상 방영 등
- 개막행사 개최('20.4.13.) * 주요참석자 : 양 기관장, 문화재위원 등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